濟州高山里遺蹟

〈圖 版〉

1998

北 濟 州 郡
濟州大學校博物館



고산리해안과 대지



화산쇄설 퇴적 단애면



시굴조사(1994)



N4W1pit 토층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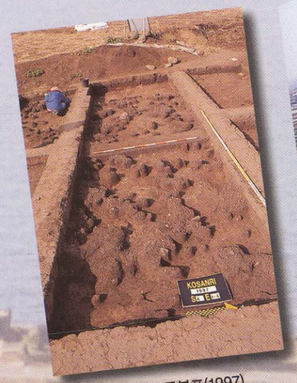
발굴모습(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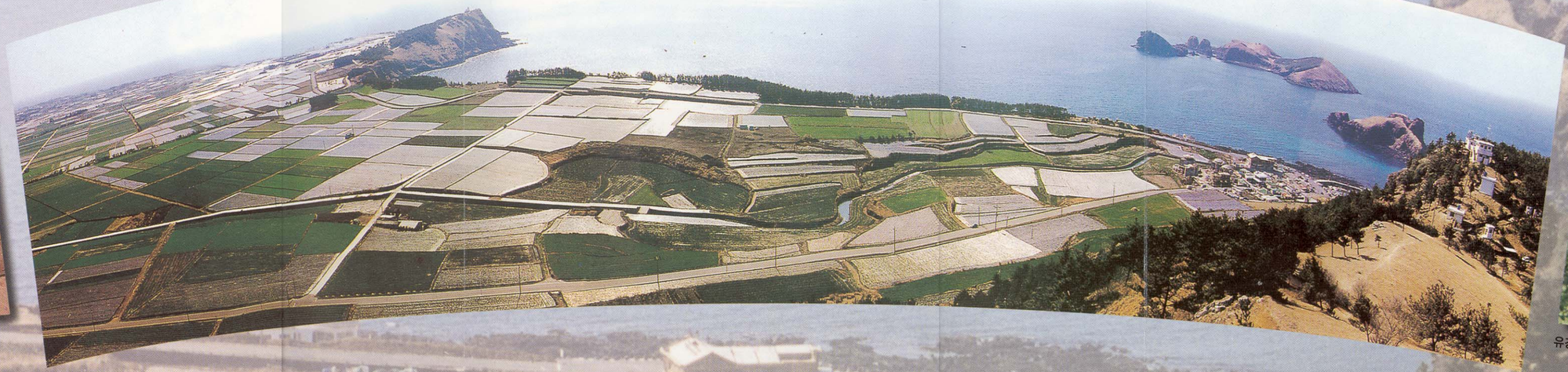
발굴조사 pit구획



기둥구멍 노출상태



S4E1pit Ⅲ층 유물분포(1997)





유경식 석촉 출토모습



S12E2pit 층위단면(1994)



석재와 석편 밀집장소



세형몸돌 출토모습



석촉



원시형 토기



융기문 토기



찌르개 · 긁개

발 간 사



우리 북제주군은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고고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조사단에 고산선사유적지 학술발굴조사 용역을 의뢰한 바, 고산리 선사유적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신석기 문화이자 구석기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최초의 정착 문화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산리 유적의 발견은 그 동안 우리나라 선사문화에서 가장 큰 의문으로 남아 있던 구석기와 신석기의 단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일본 고고학의 시각에 근거해 정설로 되다시피한 '한반도에는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는 인류가 살지 않았다.'는 한반도 인류교체설도 고산리 선사유적의 발견을 계기로 재검토 돼야하는 당위성이 정립되었습니다.

고산리 선사유적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초기신석기 유적임이 확인되면서 일본·러시아 등 국내외 고고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 문화의 비교연구에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발굴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고산선사유적지는 우리의 선사문화에 새로운 획을 긋는 유적지로서 앞으로 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이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번 학술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산선사유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술발굴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한 본 보고서는 고산리 유적에 대한 가치와 그 실체를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질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사유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갖고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고고학계의 여러 교수님과 제주대학교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1998년 2월

북제주군수 신 철 주

머 리 말

이 조사보고서는 제주대박물관이 1997년도에 발굴한 고산리 신석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유적은 10년전에 주민이 우연한 기회에 타제석창을 신고함으로써 알려졌고, 그간 여러차례의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로 인해 유적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북제주군의 행정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100,000여 점의 귀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고산리 신석기유적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석기 초기 문화의 형성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시작은 만주·시베리아 지역의 토기와 한반도의 토기와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서만 설명되어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동일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 가능성이 있는 신석기 초기 문화와 후기구석기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접근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고산리의 유물조합과 같이 우리나라 후기구석기 말기 문화와 신석기 초기 문화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눌러떼기 제작수법으로 만들어진 고산리 석기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석기들입니다. 일본열도에서는 죠몽초창기에 세석기와 같이 토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연해주일대에서도 고토기출현기에 이미 토기와 세석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유적의 연대를 주변과 비교하여 지금으로부터 만년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각종 세석기·원시형 토기의 조합상은 시베리아·연해주·만주·일본·한반도일대를 포함하는 동북아 신석기시대 초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비교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굴한 지점이 퇴적분지가 아니고 토층이 계속적으로 유실되고 있는 지점이고, 모든 유물이 지표아래 30cm 내외에서 출토되어 절대연대 자료의 신빙성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Carbon-14 Dating에 필요한 木炭과 TL Dating이 필요한 토기 샘플에 대해 주어진 발굴 예산이 너무 모자라 절대연대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학술발굴에서 이러한 절대연대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고산리유적의 성격규명에 대한 작업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산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전임관장인 고창석교수(제주대 사학과)와 이청규교수(영남대 문화인류학과)의 주관하에 이루어졌으며, 이 보고서는 우리박물관의 강창화(연구원)를 비롯한 오연숙(연구보조원) 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출간작업이 행정적인 날자에 맞추다보니, 너무 이른 감이 있고 전문용어로부터 시작하여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 보고서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보고서를 출간함에 있어 행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은 북제주군수님과 문화재계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1998년 2월

제주대학교박물관장 유 철 인

濟州高山里遺蹟《圖版》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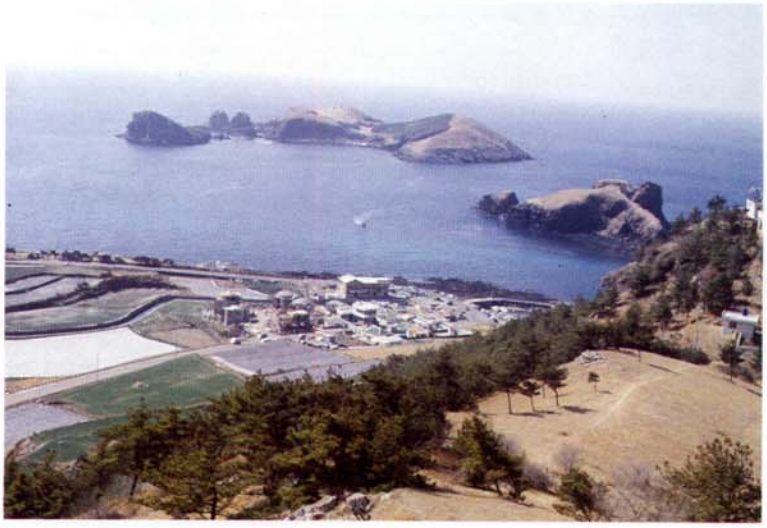
발간사

머리말

제 Ⅰ 장 지표조사 / 31

제 Ⅱ 장 시굴조사 / 45

제 Ⅲ 장 발굴조사 / 95



사진목차

1. 차귀도에서 바라본 고산리유적 38
2. 수월봉에서 바라본 고산리유적 38
3. 고산리 '자구내' 포구와 유적 38
4. 차귀도와 '자구내' 마을 39
5. 당산봉에서 바라본 고산리유적 39
6. 당산봉 이중분화구 39
7. 고산리 대지 '한장밭'(1) 40
8. 고산리 대지(2) 40
9. 고산리 대지(3) 40
10. 고산리 대지(4) 40
11. 고산리 화산쇄설 퇴적층 전경 41
12. 화산쇄설 퇴적층 단애면(1) 41
13. 화산쇄설 퇴적층 단애면(2) 41
14. 화산쇄설 퇴적층 단애면(3) 41
15 '자구내' 북편 화산쇄설퇴적층(1) 42
16. 화산쇄설층(2) 42
17. 화산쇄설층내 포획암 42
18. 화산쇄설층 하단 니질 점토층 43
19. 융기문토기 출토 모습 43
20. 융기문토기 포함층 43
21. 융기문토기 43
22. 융기문토기 수습모습(1987) 43
23. 고산리 석기유물 신고 지점 유물산포지(1987) 44
24. 신고된 찌르개와 긁개(1987) 44
25. 수습된 타제석기(1987) 44
26. 무경식석촉 최초 발견지점 44
27. 고산리 해안도로 확장 구역내 유적 시굴조사 모습(1994) 52
28. 시굴조사 모습(북에서) 52
29. 시굴조사 모습(남에서) 52
30. Pit 구획 상태(남에서) 53
31. 개토제 모습 53
32. 작업 모습 53
33. 토층조사 모습 53
34. Pit 구획 모습 54
35. S26 Pit 54
36. S24 Pit 54
37. S23 Pit 54
38. S22 Pit 54
39. S20 Pit 54

40. S24 Pit 55
41. S26 Pit 55
42. S22E6 Pit 55
43. S15 Pit 55
44. S26 Pit 상층 55
45. S21 Pit 55
46. S25 Pit 56
47. S25 Pit(세부) 56
48. S19 Pit 56
49. S20 Pit 56
50. S13 Pit 상층 56
51. S21 Pit 56
52. S13 Pit 하층 57
53. S12 Pit 57
54. S11 Pit 57
55. S10 Pit 57
56. S9 Pit 57
57. S8 · S7 · S6 Pit 57
58. S21 Pit 58
59. S21 Pit 유물 노출상태(1) 58
60. S21 Pit 유물 노출상태(2) 58
61. S21 Pit 유물 노출상태(세부) 58
62. S16E5 Pit 59
63. S16E5 Pit 구덩이內 목탄 59
64 기둥구멍 59
65. Pit내부 구덩이 59
66. S12 Test-Pit 60
67. S12 Test-Pit 단면층위 60
68. S25 Pit 단면층위(동벽) 60
69. S25 Pit 단면층위(서벽) 60
70. 유물노출상태(1) 61
71. 유물노출상태(2) 61
72. 유물노출상태(3) 61
73. 석촉 61
74. 석촉 61
75. 석촉 61
76. 석촉 62
77. 석촉 62
78. 긁개 62
79. 박편 62
80. 긁개 62
81. 토기 62
82. 무경식석촉(1) 63
83. 무경식석촉(2) 63

84. 무경식석촉(3) 63
85. 무경식석촉(4) 63
86. 무경식석촉(5) 64
87. 무경식석촉(6) 64
88. 무경식석촉(7) 64
89. 무경식석촉(8) 64
90. 무경식석촉(9) 65
91. 무경식석촉(10) 65
92. 무경식석촉(11) 65
93. 무경식석촉(12) 65
94. 무경식석촉(13) 66
95. 무경식석촉(14) 66
96. 무경식석촉(15) 66
97. 무경식석촉(16) 66
98. 무경식석촉(17) 67
99. 무경식석촉(18) 67
100. 무경식석촉(19) 67
101. 무경식석촉(20) 67
102. 유경식석촉(1) 68
103. 유경식석촉(2) 68
104. 유경식석촉(3) 68
105. 유경식석촉(4) 68
106. 유경식석촉(5) 69
107. 유경식석촉(6) 69
108. 유경식석촉(7) 69
109. 유경식석촉(8) 69
110. 유경식석촉(9) 70
111. 유경식석촉(10) 70
112. 유경식석촉(11) 70
113. 유경식석촉(12) 70
114. 유경식석촉(13) 71
115. 유경식석촉(14) 71
116. 유경식석촉(15) 71
117. 유경식석촉(16) 71
118. 유경식석촉(17) 72
119. 유경식석촉(18) 72
120. 유경식석촉(19) 72
121. 유경식석촉(20) 72
122. 유경식석촉(21) 73
123. 유경식석촉(22) 73
124. 유경식석촉(23) 73
125. 유경식석촉(24) 73
126. 유경식석촉(25) 74
127. 유경식석촉(26) 74

128. 석영제 돌망치 74
129. 찌르개(1) 75
130. 찌르개(2) 75
131. 찌르개(3) 76
132. 긁개(1) 76
133. 긁개(2) 77
134. 긁개(3) 77
135. 긁개(4) 78
136. 긁개(5) 78
137. 첨기형석기(1) 79
138. 첨기형석기(2) 79
139. 첨기형석기(3) 80
140. 첨기형석기(4) 80
141. 뚜르개(1) 81
142. 뚜르개(2) 81
143. 홈날석기 81
144. 가공흔석기(1) 82
145. 가공흔석기(2) 82
146. 가공흔석기(3) 82
147. 가공흔석기(4) 83
148. 가공흔석기(5) 83
149. 가공흔석기(6) 84
150. 가공흔석기(7) 84
151. 박편(1) 85
152. 박편(2) 85
153. 박편(3) 85
154. 박편(4) 85
155. 박편(5) 85
156. 박편(6) 85
157. 돌날(1) 86
158. 돌날(2) 86
159. 돌날(3) 87
160. 돌날(4) 87
161. 돌날(5) 88
162. 돌날(6) 88
163. 돌날(7) 88
164. 돌날(8) 88
165. 돌날(9) 89
166. 돌날(10) 89
167. 돌날(11) 89
168. 돌날(12) 89
169. 돌날(13) 89
170. 돌날(14) 89
171. 돌날(15) 89

172. 토기구연부(1) 90
173. 토기구연부(2) 90
174. 토기구연부(3) 90
175. 토기구연부(4) 90
176. 토기구연부(5) 91
177. 토기구연부(6) 91
178. 토기구연부(7) 91
179. 토기구연부(8) 91
180. 토기동체부(1) 92
181. 토기동체부(2) 92
182. 토기동체부(3) 92
183. 토기동체부(4) 92
184. 토기저부(1) 93
185. 토기저부(2) 93
186. 토기저부(3) 93
187. 발굴지 전체 전경 95
188. 발굴지 원경 106
189. 발굴지 근경 106
190. 발굴지 근경 106
191. 발굴모습(1) 107
192. 발굴모습(2) 107
193. 발굴모습(3) 107
194. 발굴과정(1) 108
195. 발굴과정(2) 108
196. 발굴과정(3) 108
197. 발굴과정(4) 108
198. 발굴과정(5) 108
199. 발굴과정(6) 108
200. 발굴과정(7) 109
201. 발굴과정(8) 109
202. 발굴과정(9) 109
203. 발굴과정(10) 109
204. 발굴과정(11) 109
205. 발굴과정(12) 109
206. S4E2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1) 110
207. S4E2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2) 110
208. S4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3) 110
209. S5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4) 111
210. S6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5) 111
211. S5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6) 111
212. S5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7) 112
213. S4E2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8) 112
214. S5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9) 112
215. S4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10) 113

216. S4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11) 113
217. S4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12) 113
218. S4E1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1) 114
219. S4E1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2) 114
220. S4E2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3) 114
221. S4E1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4) 115
222. S4E1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5) 115
223. S5E2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6) 115
224. S4E1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1) 116
225. S5E1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2) 116
226. S4E2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3) 116
227. S4E1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4) 117
228. S4E1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5) 117
229. S4E1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6) 117
230. S4E1 Pit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1) 118
231. S4E1 Pit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2) 118
232. S4E1 Pit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3) 118
233.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4) 119
234.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5) 119
235.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6) 119
236.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7) 120
237. S4E1 Pit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8) 120
238. 3층 Ⅲ층 상면 유물분포상태(9) 120
239. S6E3 Pit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1) 121
240.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2) 121
241.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3) 121
242. S4E5 Pit 바닥층 노출상태 122
243. S4E1 Pit 바닥층 노출상태(1) 122
244. 동쪽 Pit 생토층과 쟁기자국 노출상태(2) 122
245. S4E2 Test-Pit 층위 123
246. S4E2 Test-Pit 층위 123
247. S4E1 Pit 층위 123
248. N4W1 Pit 토층조사 124
249. N4W1 Pit 토층단면 124
250. N4W1 Pit 토층단면(세부) 124
251. 발굴 Pit 전체 노출상태(원경) 125
252. 발굴 Pit 전체 노출상태(서에서) 125
253. 발굴 Pit 전체 노출상태(동에서) 125
254. S6E2 Pit 기둥구멍 노출상태(전체) 126
255. S6E2·S5E3 Pit 내부 기둥구멍(1) 126
256. S6E3 Pit 내부 기둥구멍(2) 원경 126
257. S6E3 Pit 내부 기둥구멍(3) 126
258. S6E3 Pit 내부 기둥구멍(4) 127
259. S6E3-6 Pit 내부 기둥구멍(5) 127

260. Pit 내부 기둥구멍(6) 127
261. Pit 내부 기둥구멍 배치상태 127
262. S6E2-4 Pit 내부 기둥구멍(7) 128
263. S6E3-8 Pit 내부 기둥구멍(8) 128
264. S6E3-5 Pit 내부 기둥구멍(9) 128
265. S4E4-4 Pit 내부 기둥구멍(10) 128
266. S5E3-2 구덩이 노출상태 129
267. S5E4-1 Pit 내부 구덩이(1) 129
268. S4E4-7 Pit 내부 구덩이(2) 129
269. S1E1 Pit 내부 적석시설 129
270. 유물 출토상태(1) 130
271. 유물 출토상태(2) 130
272. 유물 출토상태(3) 130
273. 유물 출토상태(4) 130
274. 돌날석기 출토상태(1) 131
275. 몸돌 출토상태(2) 131
276. 양면석기 출토상태(3) 131
277. 긁개 출토상태(4) 131
278. 양면석기 출토상태 131
279. 석촉 출토상태 131
280. 유물 출토상태(1) 132
281. 유물 출토상태(2) 132
282. 유물 출토상태(3) 132
283. 유물 출토상태(4) 132
284. 석촉 출토상태(1) 133
285. 석촉 출토상태(2) 133
286. 화살대 마연석기 133
287. 긁개 출토상태 133
288. 시굴조사(1994) 출토유물 일괄 134
289. 원시형토기 134
290. 융기문토기 134
291. 망치돌 135
292. 돌날 135
293. 긁개 135
294. 긁개 135
295. 발굴조사(1997) 출토유물 일괄 136
296. 원시형토기 136
297. 석촉 136
298. 몸돌과 돌날 136
299. 긁개 137
300. 뚜르개 · 새기개 137
301. 공이 · 연마석기 137
302. 찌르개 137
303. 출토 유물 정리작업 138

304. 석기제작 실습(정영화교수) 138
305. 현장설명회 138
306. 무경식석촉(1) 139
307. 무경식석촉(2) 139
308. 무경식석촉(3) 139
309. 무경식석촉(4) 140
310. 무경식석촉(5) 140
311. 무경식석촉(6) 140
312. 무경식석촉(7) 141
313. 무경식석촉(8) 141
314. 무경식석촉(9) 141
315. 무경식석촉(10) 141
316. 무경식석촉(11) 142
317. 무경식석촉(12) 142
318. 무경식석촉(13) 142
319. 무경식석촉(14) 142
320. 유경식석촉(1) 143
321. 유경식석촉(2) 143
322. 유경식석촉(3) 143
323. 유경식석촉(4) 144
324. 유경식석촉(5) 144
325. 유경식석촉(6) 144
326. 유경식석촉(7) 145
327. 유경식석촉(8) 145
328. 유경식석촉(9) 145
329. 유경식석촉(10) 146
330. 유경식석촉(11) 146
331. 유경식석촉(12) 146
332. 유경식석촉(13) 147
333. 유경식석촉(14) 147
334. 유경식석촉(15) 147
335. 유경식석촉(16) 147
336. 유경식석촉(17) 147
337. 유경식석촉(18) 148
338. 유경식석촉(19) 148
339. 유경식석촉(20) 148
340. 유경식석촉(21) 149
341. 유경식석촉(22) 149
342. 유경식석촉(23) 149
343. 유경식석촉(24) 150
344. 유경식석촉(25) 150
345. 유경식석촉(26) 150
346. 유경식석촉(27) 151
347. 유경식석촉(28) 151

348. 유경식석촉(29) 151
349. 유경식석촉(30) 152
350. 유경식석촉(31) 152
351. 유경식석촉(32) 152
352. 유경식석촉(33) 153
353. 유경식석촉(34) 153
354. 유경식석촉(35) 153
355. 유경식석촉(36) 154
356. 유경식석촉(37) 154
357. 유경식석촉(38) 154
358. 유경식석촉(39) 155
359. 유경식석촉(40) 155
360. 유경식석촉(41) 155
361. 유경식석촉(42) 156
362. 유경식석촉(43) 156
363. 유경식석촉(44) 156
364. 유경식석촉(45) 157
365. 유경식석촉(46) 157
366. 유경식석촉(47) 157
367. 유경식석촉(48) 158
368. 유경식석촉(49) 158
369. 유경식석촉(50) 158
370. 유경식석촉(51) 158
371. 찌르개(1) 159
372. 찌르개(2) 160
373. 찌르개(3) 161
374. 찌르개(4) 162
375. 찌르개(5) 163
376. 찌르개(6) 164
377. 찌르개(7) 165
378. 찌르개(8) 166
379. 찌르개(9) 166
380. 찌르개(10) 167
381. 찌르개(11) 167
382. 찌르개(12) 168
383. 찌르개(13) 168
384. 긁개(1) 169
385. 긁개(2) 169
386. 긁개(3) 170
387. 긁개(4) 171
388. 긁개(5) 171
389. 긁개(6) 172
390. 긁개(7) 173
391. 긁개(8) 174

392. 긁개(9) 174
393. 긁개(10) 175
394. 긁개(11) 175
395. 긁개(12) 176
396. 긁개(13) 176
397. 긁개(14) 176
398. 긁개(15) 177
399. 긁개(16) 177
400. 양면석기(1) 178
401. 양면석기(2) 179
402. 양면석기(3) 180
403. 양면석기(4) 180
404. 소형양면석기(1) 181
405. 소형양면석기(2) 181
406. 소형양면석기(3) 182
407. 소형양면석기(4) 182
408. 소형양면석기(5) 183
409. 소형양면석기(6) 183
410. 새기개(1) 184
411. 새기개(2) 184
412. 새기개(3) 185
413. 새기개(4) 185
414. 뚜르개(1) 186
415. 뚜르개(2) 186
416. 뚜르개(3) 186
417. 뚜르개(4) 187
418. 뚜르개(5) 187
419. 자르개(1) 188
420. 자르개(2) 188
421. 자르개(3) 189
422. 자르개(4) 189
423. 돌날석기(1) 190
424. 돌날석기(2) 190
425. 돌날석기(3) 190
426. 돌날석기(4) 191
427. 돌날석기(5) 191
428 돌날석기(6) 191
429. 세형몸돌(1) 192
430. 세형몸돌(2) 192
431. 세형몸돌(3) 193
432. 세형몸돌(4) 193
433. 세형몸돌(5) 194
434. 세형몸돌(6) 194
435. 세형몸돌(7) 195

436. 세형몸돌(8) 195
437. 세형몸돌(9) 195
438. 세형몸돌(10) 195
439. 돌날(1) 196
440. 돌날(2) 196
441. 돌날(3) 197
442. 돌날(4) 197
443. 돌날(5) 197
444. 돌날(6) 198
445. 돌날(7) 198
446. 돌날(8) 198
447. 돌날(9) 199
448. 돌날(10) 199
449. 돌날(11) 199
450. 돌날(12) 200
451. 돌날(13) 200
452. 돌날(14) 200
453. 돌날(15) 201
454. 돌날(16) 201
455. 돌날(17) 201
456. 돌날(18) 201
457. 돌날(19) 201
458. 돌날(20) 201
459. 돌날(21) 201
460. 돌날(22) 201
461. 돌날(23) 202
462. 돌날(24) 202
463. 돌날(25) 202
464. 돌날(26) 202
465. 돌날(27) 202
466. 돌날(28) 202
467. 돌날(29) 203
468. 돌날(30) 203
469. 돌날(31) 203
470. 돌날(32) 203
471. 돌날(33) 204
472. 돌날(34) 204
473. 돌날(35) 204
474. 돌날(36) 204
475. 돌날(37) 204
476. 矢柄硏磨石(1) 205
477. 矢柄硏磨石(2) 205
478. 돌망치(1) 205
479. 돌망치(2) 206

480. 돌망치(3) 206
481. 돌망치(4) 206
482. 돌망치(5) 206
483. 홈돌(1) 206
484. 홈돌(2) 206
485. 석재(1) 207
486. 석재(2) 207
487. 석재(3) 207
488. 석재(4) 207
489. 석재(5) 207
490. 석재(6) 207
491. 석재(7) 207
492. 구연부(1) 208
493. 구연부(2) 208
494. 동체부(3) 208
495. 구연부(4) 209
496. 구연부(5) 209
497. 구연부(6) 209
498. 구연부(7) 209
499. 구연부(8) 210
500. 구연부(9) 210
501. 구연부(10) 210
502. 구연부(11) 210
503. 구연부(12) 211
504. 구연부(13) 211
505. 구연부(14) 211
506. 구연부(15) 211
507. 구연부(16) 212
508. 구연부(17) 212
509. 구연부(18) 212
510. 구연부(19) 212
511. 동체부(1) 213
512. 동체부(2) 213
513. 동체부(3) 213
514. 동체부(4) 214
515. 동체부(5) 214
516. 동체부(6) 214
517. 동체부(7) 214
518. 동체부(8) 215
519. 동체부(9) 215
520. 동체부(10) 215
521. 동체부(11) 216
522. 동체부(12) 216
523. 동체부(13) 216

524. 동체부(14) 217
525. 동체부(15) 217
526. 동체부(16) 217
527. 동체부(17) 217
528. 저부(1) 218
529. 저부(2) 218
530. 저부(3) 218
531. 저부(4) 219
532. 저부(5) 219
533. 저부(6) 219
534. 저부(7) 220
535. 저부(8) 220
536. 저부(9) 220
537. 저부(10) 221
538. 저부(11) 221
539. 저부(12) 221
540. 저부(13) 222
541. 토제품 222

삽도목차

1. 고산리유적의 위치 32
2. 고산리유물 산포지의 범위 34
3. 시굴조사피트구획도 46
4. $S_{12}E_2$ - Ⅱ pit의 층위 48
5. 고산리 일대의 해수면 94
6. 발굴조사 피트 구획도 96
7. N_4W_1 pit 층위도 99

표목차

1. 91~92년 지표조사 유물 집계표 37
2. 94년 시굴조사 유물집계표 49
3. 97년 발굴조사 유물집계표 101

도면목차

1. 무경식석촉(1) 63
2. 무경식석촉(2) 63
3. 무경식석촉(3) 63
4. 무경식석촉(4) 63
5. 무경식석촉(5) 64
6. 무경식석촉(6) 64
7. 무경식석촉(7) 64
8. 무경식석촉(8) 64
9. 무경식석촉(9) 65
10. 무경식석촉(10) 65
11. 무경식석촉(11) 65
12. 무경식석촉(12) 65
13. 무경식석촉(13) 66
14. 무경식석촉(14) 66
15. 무경식석촉(15) 66
16. 무경식석촉(16) 66
17. 무경식석촉(17) 67
18. 무경식석촉(18) 67
19. 무경식석촉(19) 67
20. 무경식석촉(20) 67
21. 유경식석촉(1) 68
22. 유경식석촉(2) 68
23. 유경식석촉(3) 68
24. 유경식석촉(4) 68
25. 유경식석촉(5) 69
26. 유경식석촉(6) 69
27. 유경식석촉(7) 69
28. 유경식석촉(8) 69
29. 유경식석촉(9) 70
30. 유경식석촉(10) 70
31. 유경식석촉(11) 70
32. 유경식석촉(12) 70
33. 유경식석촉(13) 71
34. 유경식석촉(14) 71
35. 유경식석촉(15) 71
36. 유경식석촉(16) 71
37. 유경식석촉(17) 72
38. 유경식석촉(18) 72
39. 유경식석촉(19) 72

40. 유경식석촉(20) 72
41. 유경식석촉(21) 73
42. 유경식석촉(22) 73
43. 유경식석촉(23) 73
44. 유경식석촉(24) 73
45. 유경식석촉(25) 74
46. 유경식석촉(26) 74
47. 찌르개(1) 75
48. 찌르개(2) 75
49. 찌르개(3) 76
50. 긁개(1) 76
51. 긁개(2) 77
52. 긁개(3) 77
53. 긁개(4) 78
54. 긁개(5) 78
55. 첨기형석기(1) 79
56. 첨기형석기(2) 79
57. 첨기형석기(3) 80
58. 첨기형석기(4) 80
59. 뚜르개(1) 81
60. 뚜르개(2) 81
61. 홈날석기 81
62. 가공흔석기(1) 82
63. 가공흔석기(2) 82
64. 가공흔석기(3) 82
65. 가공흔석기(4) 83
66. 가공흔석기(5) 83
67. 가공흔석기(6) 84
68. 가공흔석기(7) 84
69. 박편(1) 85
70. 박편(2) 85
71. 박편(3) 85
72. 박편(4) 85
73. 박편(5) 85
74. 박편(6) 85
75. 돌날(1) 86
76. 돌날(2) 86
77. 돌날(3) 87
78. 돌날(4) 87
79. 돌날(5) 88
80. 돌날(6) 88
81. 돌날(7) 88
82. 돌날(8) 88
83. 돌날(9) 89

84. 돌날(10) 89
85. 돌날(11) 89
86. 돌날(12) 89
87. 돌날(13) 89
88. 돌날(14) 89
89. 돌날(15) 89
90. 무경식석촉(1) 139
91. 무경식석촉(2) 139
92. 무경식석촉(3) 139
93. 무경식석촉(4) 140
94. 무경식석촉(5) 140
95. 무경식석촉(6) 140
96. 유경식석촉(1) 143
97. 유경식석촉(2) 143
98. 유경식석촉(3) 143
99. 유경식석촉(4) 144
100. 유경식석촉(5) 144
101. 유경식석촉(6) 144
102. 유경식석촉(7) 145
103. 유경식석촉(8) 145
104. 유경식석촉(9) 145
105. 유경식석촉(10) 146
106. 유경식석촉(11) 146
107. 유경식석촉(12) 146
108. 유경식석촉(13) 147
109. 유경식석촉(14) 147
110. 유경식석촉(15) 147
111. 유경식석촉(16) 147
112. 유경식석촉(17) 147
113. 유경식석촉(18) 148
114. 유경식석촉(19) 148
115. 유경식석촉(20) 148
116. 유경식석촉(21) 149
117. 유경식석촉(22) 149
118. 유경식석촉(23) 149
119. 유경식석촉(24) 150
120. 유경식석촉(25) 150
121. 유경식석촉(26) 150
122. 유경식석촉(27) 151
123. 유경식석촉(28) 151
124. 유경식석촉(29) 151
125. 유경식석촉(30) 152
126. 유경식석촉(31) 152
127. 유경식석촉(32) 152

128. 유경식석촉(33) 153
129. 찌르개(1) 159
130. 찌르개(2) 160
131. 찌르개(3) 161
132. 찌르개(4) 162
133. 찌르개(5) 163
134. 찌르개(6) 164
135. 찌르개(7) 165
136. 찌르개(8) 166
137. 찌르개(9) 166
138. 긁개(1) 169
139. 긁개(2) 169
140. 긁개(3) 170
141. 긁개(4) 171
142. 긁개(5) 171
143. 긁개(6) 172
144. 긁개(7) 173
145. 긁개(8) 174
146. 긁개(9) 174
147. 긁개(10) 175
148. 긁개(11) 175
149. 양면석기(1) 178
150. 양면석기(2) 179
151. 양면석기(3) 181
152. 양면석기(4) 182
153. 양면석기(5) 183
154. 양면석기(6) 183
155. 새기개(1) 184
156. 새기개(2) 184
157. 뚜르개(1) 186
158. 뚜르개(2) 186
159. 뚜르개(3) 186
160. 뚜르개(4) 187
161. 뚜르개(5) 187
162. 자르개(1) 188
163. 자르개(2) 188
164. 자르개(3) 189
165. 자르개(4) 189
166. 돌날석기(1) 190
167. 돌날석기(2) 190
168. 돌날석기(3) 190
169. 돌날석기(4) 191
170. 돌날석기(5) 191
171. 돌날석기(6) 191

172. 세형몸돌(1) 192
173. 세형몸돌(2) 192
174. 세형몸돌(3) 193
175. 세형몸돌(4) 193
176. 세형몸돌(5) 194
177. 세형몸돌(6) 194
178. 돌날(1) 196
179. 돌날(2) 196
180. 돌날(3) 197
181. 돌날(4) 197
182. 돌날(5) 197
183. 돌날(6) 198
184. 돌날(7) 198
185. 돌날(8) 198
186. 돌날(9) 199
187. 돌날(10) 199
188. 돌날(11) 199
189. 돌날(12) 200
190. 돌날(13) 200
191. 돌날(14) 200
192. 돌날(15) 201
193. 돌날(16) 201
194. 돌날(17) 201
195. 돌날(18) 201
196. 돌날(19) 201
197. 돌날(20) 201
198. 돌날(21) 201
199. 돌날(22) 201
200. 돌날(23) 202
201. 돌날(24) 202
202. 돌날(25) 202
203. 돌날(26) 202
204. 돌날(27) 202
205. 돌날(28) 202

일러두기

1. 이 보고서는 도판을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조사부분의 편집은 크게 지표조사 · 시굴조사 · 발굴조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유물은 토기와 석기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석기는 도면과 함께 편집하였다.

2. 대부분의 유물이 세석기여서 동일한 크기로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 크기를 사진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유물사진 옆의 도면 스케일을 참조하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도면은 원척을 기준으로 삼았다.

3. 각 장 사이에는 간지 형식으로 조사개요를 두었다. 각 장의 필자는 다음과 같다.

제 I 장 : 지표조사(이청규 · 강창화)
제 II 장 : 시굴조사(고재원 · 오연숙)
제 III 장 : 발굴조사(강창화 · 오연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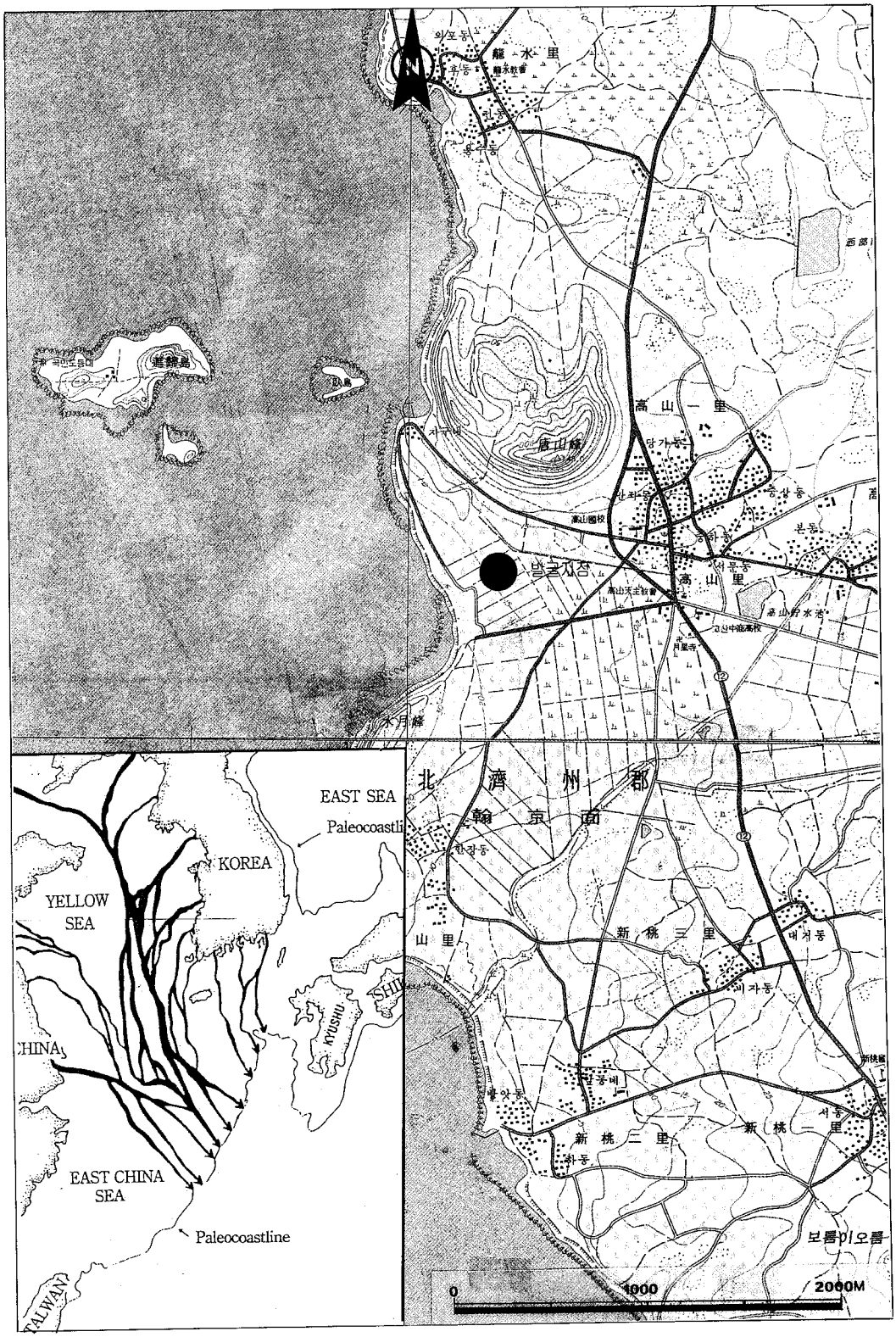
4. 본 보고서의 발굴사진은 강창화 · 고재원 · 오연숙이 촬영한 것이고, 유물사진은 강창화 · 오연숙이 맡아 촬영하였다.

5. 본 보고서의 유물실측은 오연숙이 하였고, 편집은 강창화 · 오연숙 · 김경주 · 김종찬이 하였다.

제 Ⅰ 장

지 표 조 사





삽도 1. 고산리유적의 위치

1. 고산리 유적의 위치·지형

이 유적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1리이다. 위도로는 동경 126도 12분, 북위 33도 17분이다. 유적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자구내' 마을 포구에 인접한 '한장밭'이라고 불리우는 대지이다. 유적지의 해발 고도는 14~17m가량 되며, 유적지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해발 148m의 당산봉, 남서편에는 해발 65m의 수월봉이 자리잡고 있다. 유적지의 서북편에는 그리멀지 않은 곳에 차귀도와 와도가 있다.

유적의 서편에 '자구내'라고 불리우는 조그만 하천이 마을쪽으로 흐르며, 해안절벽을 따라 자구내포구에서 수월봉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소나무림이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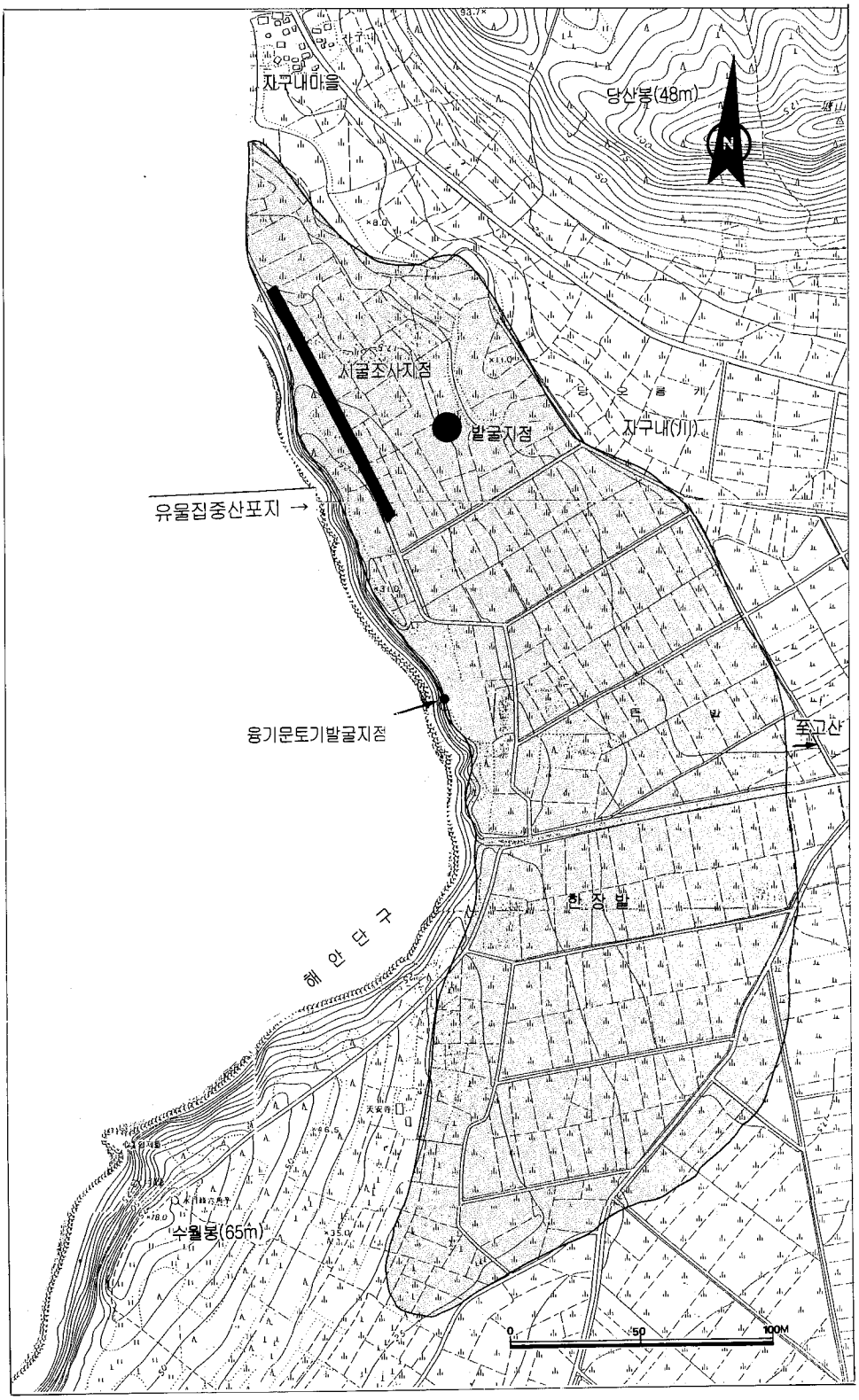
이 곳의 해안선은 유적지의 남쪽에 있는 수월봉에서 포구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절벽면을 이루고 있다. 이 절벽은 수월봉에서는 북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40m가량이나 낮아져 자구내 포구에 이르러서는 해수면과 같이한다.

유적지는 하천 서편을 중심으로 자구내 포구에서 수월봉에 이르는 해안절벽 위에 해당되는 넓다란 대지이다. 유물산포지는 '자구내'하천과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그간 지표조사를 통해 유물이 수습되는 범위는 자구내포구에서 수월봉에 이르는 폭 300m, 길이 약 1.2㎞ 정도로 그 면적은 150,000㎡에 이른다. 석기들이 집중적으로 수습되는 지점은 자구내포구에서 남쪽으로 약 500m내이다.

2. 유적의 최초 소개(1987년)

이 유적은 고산리 주민이 타제석창·긁개를 소개함으로써 알려졌다. 이 석기는 고산1리 1226번지 지점에서 1987년 5월 고산리 주민인 左禎仁씨가 흙을 채취하기 위해 땅을 파다 발견한 것이다. 석창과 긁개을 발견하고 이를 제주대학교 사학과 학생을 통하여 이청규교수에게 전해옴으로서 이 유적이 알려졌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조사가 시작되었다. 같은 달에 출토지점 일대를 답사한 바,



삽도 2. 고산리유물 산포지의 범위

출토 지점의 주변은 소나무 밭이고 해안쪽으로 10여미터 나가면 바로 해안 절벽에 다다르는 곳이었는데, 이 해안 절벽 바로 위로 폭 0.7m, 깊이 0.5m의 해안 경비 참호가 조성되어 있었고 이 참호 퇴적층 단면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각 1점의 局部 磨製石斧·剝片石器를 추가 발견하였다.

① 찌르개(Point) 1점은 화산암계통의 용결성 응회암제로, 슴베를 갖춘 형식이다. 길이 8.5cm, 촉 3cm, 두께 1cm의 크기를 갖고 있다. 석기 주변을 돌아가며 잔눌러떼기 수법으로 성형을 하였다.

② 긁개(scraper) 1점은 길이 4.3cm 크기를 가진 소형석기로, 주위를 돌아가며 눌러떼기 수법으로 조정한 흔적이 분명한 것이다.

③ 局部 石斧 1점은 자갈돌을 타제 조정한 다음, 날부분과 몸통부위를 부분적으로 간 것이다.

3. 융기문토기의 발견(1988년)

1988년 1월, 당시 영남대 대학원생 있었던 康昌和에 의해, 수월봉에서 북쪽으로 150m 떨어진 지점의 참호 단면 50cm 바닥 가까이에서 1개체분의 융기문토기를 수습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隆起文土器는 구연부 직경 50cm에 이르고 넓은 아가리를 가진 것으로 두께는 0.8cm이고, 평저 바닥이다. 전체적인 기형은 오산리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는 대발형이다. 융기문양은 그 굵기가 0.6cm~0.7cm, 높이가 0.4cm~0.5cm 정도의 반원형의 비교적 굵은 점토띠로서 구연부 2cm 아래에서부터 세 줄로 장식한 태선융기문 혹은 융대문 형식을 갖춘 것이다. 위 첫줄은 수평을 이루지만 둘째줄과 셋째줄은 일정한 간격마다 각각 S자형과 포물선형으로 크게 휘어진 형상을 하고 있다. 동일한 모티브의 융기문 장식 토기로 부산 동삼동 패총 최하층 출토 예가 있는데 세줄의 융기문과 두, 셋째줄의 커브 모양은 영락없이 고산리 것과 같으며, 다만 동삼동 예에는 융기문 위에 각선 장식을 촘촘히 베푼 것이 차이가 난다. 토기의 태토는 자잔한 모래가 섞인 점토질로서 적갈색 내지 황갈색을 띠고 있다. 그릇 안쪽면은 아무런 조정흔적이 없이 매끈하고 바깥면은 다소 마모되어 면이 거칠지만 원래부터 각선이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토기 파편이 떨어진 면으로 보아 적륜법으로 만들었음이 확인된다.

융기문토기의 변천에 대해서는 융기대문에서 융기선문계로, 그리고 융기선과 침선문이 복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정징원 교수의 주장이 있고 이와는 달리 삼각융선에서 반단형융선으로, 다시 융대 침선의 단계로 이행했다고 하는 일본학자의 주장이 있어 크게 둘로 갈린다. 이처럼 융선문과 융대문의 선후 관계에 있어 상반되는 주장은 그 계통 혹은 기원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 융기문의 계통을 Novopetrovka 등 중국 동북부 및 Amur 강 유역의 유적의 토기에 두고 있는 데에 비해, 후자는 일본 西九州의 前期繩文土器 형식인 도도로기식 토기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융기문토기 자체의 형식 변천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지만 융기문토기의 상대편년 및 절대연대에 관해서는 양양 오산리 융기문토기층에서의 방사선탄소 연대, 부산 동삼동 패총의 최하층에서의 층위적인 확인과 방사성탄소연대, 김해 수가리 패총에서 융기문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침선문, 이중구연토기 문화층의 방사성탄소 연대 그리고 쓰시마 지방의 동 토기 출토층위의 방사성탄소 연대의 결과로써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해안 및 동해안 지방에 서해안식 침선문계 빗살무늬토기가 유입되기 이전의 신석기시대 초기 혹은 전기의 것으로서 다음 방사성탄소연대자료에서 보듯 절대연대로는 동삼동 자료의 하한연대를 제외하면, 기원전 4,000년경에 소속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양양오산리유적 : 7050±120 B.P. (KSU-515)
東三洞貝塚最下層: 5820±140 B.P. (Gak 6666). 5500±100 B.P.(Gak 6667)
5160±120 B.P. (Gak 6668). 5190±130 B.P.(Gak 6669)
大馬 越高 遺蹟: 6590±160 B.P. (Gak 6876). 6860±120 B.P.(Gak 6878)

그러나 최근 동아대의 이동주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한반도 남해안 지방의 패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평저의 태선 융기문토기는 기원전 6000년을 상회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4. 지표 조사(1991~1992년)

이 조사는 1991년과 1992년 겨울에 행해졌다. 자구내포구에서 하천변을 따라 수월봉에 이르는 유물산포지를 확인하였고 지번별로 유물을 수거하였다. 당시 조사는 이청규(현재 영남대교수)·강창화(제주대강사)·이재경(당시 영남대대학원)·오연숙(한양대대학원) 등이 하였으며 약 6,000여 점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조사된 지번별 유물분포도와 석기의 종류, 수량은 다음의 '집계표'와 같다.

표 1. 91~92년 지표조사 유물집계표

지번 / 유물분류	3616서	3616동	3620가	3620나	3620다	3620라	3621	3621가	3621-4나	3621-4다	3628가	3628나	3630	3631-1,2	3647-2	3648	3648-1	3650-1	3651	3672-2,3	B지구	C지구	계
FLAKE 1	2	6	3	4	2	12	120	18	23	74	63	62		3	20	15	20		8	33	5		493(7.84%)
FLAKE 2	2	16	3	4	17	16	774	106	81	442	730	367		4	16	51	44	1	5	49	1		2,729(43.41%)
SPALL	4	14	9	24	17	35	900	158	99	409	528	214		13	19	67	38		12	46	7		2,613(41.57%)
ARROW POINT	1						57	5	6	32	46	29			5	8	6		1	2	2	1	201(3.20%)
UN-KNOWN							13	5	1	4	6	12		1	2	4	5			1			54(0.86%)
BLADE							11	4	2	6	4	4		1	3	4	1	1		1			42(0.67%)
MICRO-BLADE				1			6	1	1	5	6	6		1		1							28(0.45%)
CORE/BLOCK	1						4	2	1		4	3				1	1			2		1	20(0.32%)
SCRAPER											4	1							1				6(0.10%)
END-SCRAPER							2																2(0.03%)
PEBBLE							7					1											10(0.16%)
LAW MATIER							5																5(0.08%)
HAMMERSTONE												1				1							2(0.03%)
NOTCH		1					2				1												4(0.06%)
KNIFS					1		1																2(0.03%)
양면석기							1					1											2(0.03%)
BORER											1	1			1	1							4(0.06%)
POINT							1			1	1												3(0.05%)
BURIN							2																2(0.03%)
S HAND-AXE							1				1												2(0.03%)
복합석기								1															1(0.02%)
동물 송곳니																1							1(0.02%)
석부(타제 · 마제)													2										2(0.03%)
RETOUCH FLA		1				1	10	1	2	8	12	9				2	1			1	1		49(0.78%)
MICROLITH								1	1	1	4	2											9(0.14%)
계	12	38	15	33	37	64	1,917	302	217	982	1,411	713	2	23	66	156	116	2	27	135	16	2	6,286
	0.19	0.60	0.24	0.52	0.59	1.02	30.50	4.80	3.45	15.62	22.45	11.34	0.03	0.37	1.05	2.48	1.85	0.03	0.43	2.15	0.25	0.03	

* 이 집계표는 이재경(당시 영남대대학원 박사과정)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시굴조사 · 발굴조사의 석기분류표와 다른점이 많으나, 필자의 의도대로 전제하였다.
석기분류에 대한 통일성과 종합적인 분석은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사진 1. 차귀도에서 바라본 고산리유적



사진 2. 수월봉에서 바라본 고산리유적



사진 3. 고산리'자구내' 포구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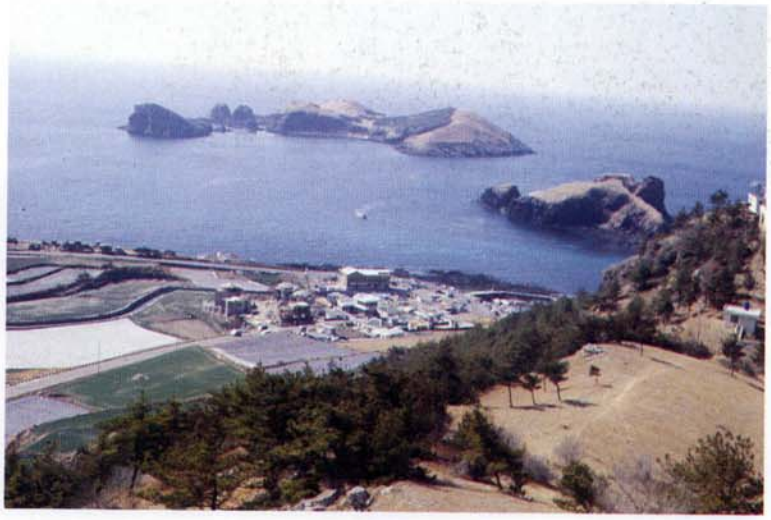


사진 4. 차귀도와 '자구내' 마을



사진 5. 당산봉에서 바라본
고산리유적



사진 6. 당산봉 이중분화구



사진 7. 고산리 대지 '한장밭'(1)



사진 8. 고산리 대지(2)



사진 9. 고산리 대지(3)



사진 10. 고산리 대지(4)



사진 11. 고산리 화산쇄설 퇴적층 전경



사진 12. 화산쇄설 퇴적층 단애면(1)



사진 13. 화산쇄설 퇴적층 단애면(2)



사진 14. 화산쇄설
퇴적층 단애면(3)



사진 15. '자구내' 북편 화산쇄설 퇴적층(1)



사진 16. 화산쇄설층(2)



사진 17. 화산쇄설층내 포획암



사진 18. 화산쇄설층 하단 니질 점토층



사진 19. 융기문토기 출토 모습



사진 20. 융기문토기 포함층



사진 21. 융기문토기



사진 22. 융기문토기
수습모습(1987)



사진 23. 고산리 석기유물 신고 지점 유물산포지(1987)



사진 24. 신고된 찌르개와 긁개(1987)



사진 25. 수습된 타제석기(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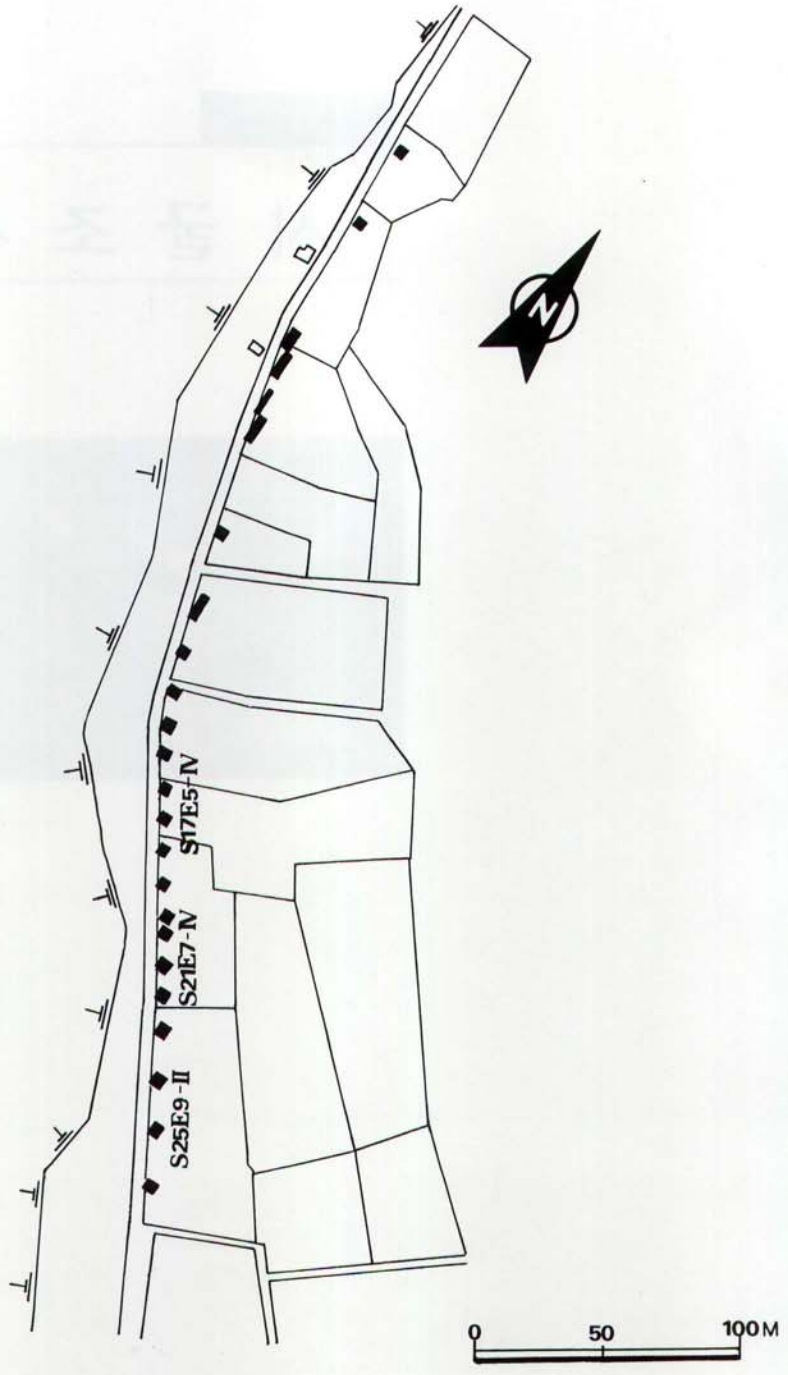


사진 26. 무경식석촉
최초 발견지점

제 II 장

시 굴 조 사





삽도 3. 시굴조사 피트 구획도

1. 조사개요 및 조사단 구성

이 구역은 1994년 6월과 8월에 걸쳐 60여 일간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발굴은 「신창-무릉」 간 해안도로 건설로 인해 이루어졌는데, 신설되는 도로가 유적지를 관통하게 되어 발굴을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 범위는 수월봉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여 포구에 이르는 구역으로 총길이 약 200m, 폭 12m구간이다. 발굴조사는 도로에 편입되는 8m 확장구역에 한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은 고산리 3526번지 도로 인접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조사단장에 이청규(당시 제주대박물관장, 현재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맡아 현장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조사위원에는 이동영박사(당시 한국동력자원연구소)·배기동(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선복(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조사원에는 강창화(제주대박물관 학예연구원)·고재원(현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원)·오연숙(한양대 대학원생) 등이 현장조사에 임했다.

2. 발굴조사 방법

발굴조사는 지표조사를 통해 유물이 비교적 많이 수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트발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사구간내의 도로범위가 12m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시멘트 도로가 나있어 나머지 확장되는 부분에 한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지역 전체를 10m×10m단위로 나누고, 기존의 도로를 따라 4m×4m의 기본 피트를 두고 일정한 간격을 두어 피트발굴을 실시하고 유물이 집중되는 피트는 확장 발굴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사지역의 공사구간은 약 500m가량 된다. 그리고 일부의 트렌치 조사도 병행하였다. 트렌치는 남북방향으로 3m×10m의 규모로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3. 층 위

지금까지 나타난 유적의 층위는 표토층 - 흑색부식토층 - 황갈색점토층 - 화산쇄설성퇴적층으로 크게 구분된다. 유물은 흑색부식토층 하면과 황갈색점토층 상면에서 주로 출토하고 있다.

Ⅰ: 표토층(10~15cm)

Ⅱ: 흑색부식토층(10~30cm)

표토의 영향을 받은 부식토층으로 이 층위의 토양은 크게 흑색화암토양이며, 이층은 유수에 의한 침수가 쉬운 토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층에서도 유물이 출토된다.

Ⅲ: 황갈색점토층(10~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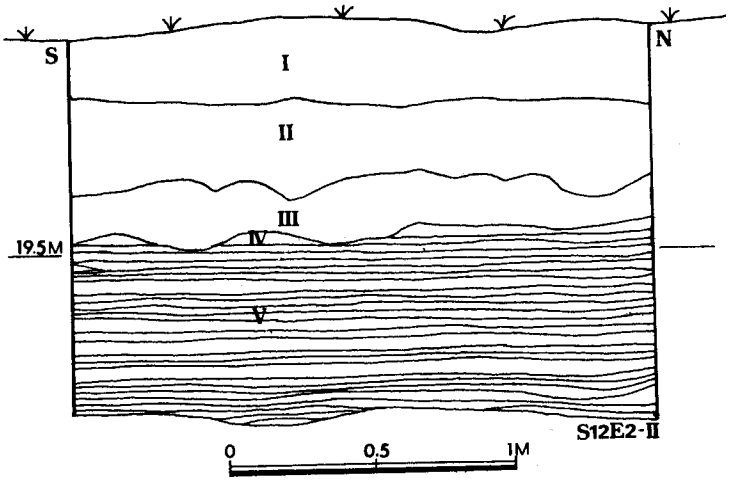
비교적 많은 황갈색의 현무암 자갈(0.5cm내외)과 암갈색토와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점성이 강한편이나 마르면 부스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물의 흡수가 윗층에 비해 훨씬 덜하다. 유물이 출토하는 층으로 당시의 생활 문화층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층의 두께가 두텁지 않다.

Ⅳ: 황갈색점토층(5~10cm)

토층 구성은 Ⅲ층과 거의 비슷하지만 윗층에 비해 상당히 단단하다. 출토되는 유물은 없다. 층상면은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있다.

Ⅴ: 화산쇄설성퇴적층(100-130cm)

화산쇄설물인 '송이'이라고 불리우는 거친 현무암모래들이 층전체를 뒤덮고 있다. 이러한 현무암모래층은 1-3cm두께의 수평층리들이 달리하는 퇴적물이 斜交하고 있다. 이는 화산분출과정에서 퇴적·형성된 것이다.



삽도 4. S12E2 - II pit의 층위

4. 발굴 피트 상황

발굴피트는 공사구간내에 4m×4m 22개, 3m×5m 2개, 트렌치는 3m×10m 4개를 일정한 간격을 설정하였다. 그 중 S16E4-Ⅱ피트에서 250cm×120cm규모의 장타원형 구덩이 유구가 발견되었다. 이 유구는 비교적 단단한 생토층을 파서 만든 것으로 구덩이내에서 석촉 및 토기편과 소량의 목탄이 출토되었다. S20E7-Ⅳ피트에서 다량의 석편과 석기들이 출토되었고, 피트내 서북편에 길이 10-15cm가량 되는 천석 및 현무암 3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나타났으며, 그 주위로 250여 편의 석편들과 일부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피트발굴조사에서 유물의 분포범위를 살펴보면 지표에서는 많은 양의 석재들이 보이나 층내부의 출토량은 비교적 적은편이다. 그러나 S17E5-Ⅱ부터 남쪽으로 S23E9-Ⅲ피트 사이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석기들과 석편들이 보인다. 이는 S17E5-Ⅱ피트를 경계로 북쪽편은 유물이 출토되는 황갈색점토층이 남쪽편에 비해 거의 보이지 않으며, 표토층 바로 밑으로 일부의 황갈색점토층과 현무암모래층으로 연결된다. 한편 남쪽은 비교적 북편에 비해 흑색부식토층, 황갈색점토층이 북편에 비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층 자체의 두께는 20cm를 넘는 곳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피트는 표토에서 생토층까지 30-50cm 두께밖에 되지 않는다.

5. 출토 유물

유물은 석기와 토기가 전부이며, 당시의 것으로 파악되는 동물뼈 패각과 같은 유기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석기는 폐기석재가 826점, 성형석기가 50여 점이 출토 되었다. 성형석기 중 석촉은 39점이며, 나머지는 긁개, 찌르개, 첨기형석기, 일부 가공된 석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성형석기들은 전부 2차가공된 것으로 크기도 5cm를 넘는 것이 거의 없다.

표 2. 94년 시굴조사 유물집계표

	성형석기							폐기석기				
	석촉	찌르개	긁개	홈날	뚜르개	첨기형석기	기공흔석기	돌날	박편	석편	석재	합계
발굴조사	39	4	3	0	0	1	9	7	131	682	8	884
지표조사	218	46	12	7	6	9	35	71	493	1,352	15	2,263
합 계	257	50	15	7	6	10	44	78	624	2,033	23	3,147
석기비율	389 (12.3%)							2,758 (87.7%)				100%

이 조사후 이 지역의 석기를 분류한 고재원은 고산리 석기공작은 소형의 박편을 가압법에 의해 가공을 한 석촉을 비롯한 첨두형석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다음의 몇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석기의 제작은 평평한 석재를 기초원석으로 직접타격에 의해 박편을 제작한 후 2차가공을 직접타격 혹은 가압법으로 실시 하였다.

고산리유적의 성형석기는 7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석촉, 찌르개, 긁개, 뚜르개, 홈날석기, 첨기형석기, 그리고 가공흔석기는 길이가 5-10cm내외 석핵석기들로 파악된다. 폐기석재는 석핵, 박편, 돌날, 석편으로 분류되지만, 전형적인 석인석핵 또는 세석인핵은 보이지 않는다.

석기의 점유비율을 보면 전체수습 석재 중 성형석기는 1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중간단계의 석재 혹은 폐기석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표에서 석기의 가공행위가 상당한 밀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잔손질 가공으로 만들어진 석편이 적은 것으로 보아 유적이 재퇴적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분급현상이 있었음도 추정 할 수 있다. 성형석기 중 67%가량을 차지하는 석촉이 많은 점유 비율을 보이며, 찌르개를 포함해 첨두형 석기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첨두형석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 유적의 기능을 암시하는 것으로 사냥 또는 어로 등의 작업을 예정하고 석기제작이 이루어진 장소로 보이는 것이다.

석촉의 형식에 있어 유경식이 57% 그리고 무경식이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경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석촉이 각각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6. 조사 의의

고산리의 석기 중 석촉을 중심으로 한 석기구성을 보이는 유적은 한반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찾아 보기 어려우며, 일부 유적에서 소량 출토되고 있다. 석촉을 반출하는 유적은 앞서 살펴 본 회령 오동, 부산 동삼동, 욕지도, 그리고 통영 연대도 유적을 들 수 있다. 회령오동 유적의 경우 다량의 흑요석제 무경식 석촉이 출토되기는 하였지만, 출토상황이 불분명하다. 이들 유적에서 보이는 석촉들은 형식상 대부분 저변부가 직선 혹은 만입형의 무경식 석촉으로 고산리 유적에서 보이는 유경식 석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구주지방의 경우, 유경식 석촉이 나타나는 시기는 繩文時代 晩期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전의 繩文時代 석촉들은 대부분 무경식 석촉들이다.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무경식 석촉에서 유경식 석촉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보이며 일본의 승문시대 조기에 동북부지역에서 출발한 유경식 석촉은 九州地方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고산리유적의 편년은 원시형태의 무문토기와 함께 신석기시대 전기의 문화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마제석기의 부재와 석기의 제작기술로 보아서는 그 상한년대를 더 오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고산리유적의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임효재 교수는 제주고산리, 경북 오진리유적의 최근 발굴자료를 소개하면서 古新石器時代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일본의 上黑岩遺跡의 석기, 적갈색토기, 융기문토기와 비교하고, 또한 고산리유적의 흑색토층(Ⅱ층)을 아까호야(アカホヤ)화산재(B.P. 6,300년이전 폭팔)로 판명하여 신석기시대의 시대폭을 일만년 전까지로 넓혀 놓았다.

고산리 유적의 시간적 범위는 석기의 구성, 마제석기의 부재, 잔손질에 의한 석기의 제작수법, 화산재의 연대, 융기문토기의 존재로 보아 新石器時代前期의 이른시기인 기원전 6,000년 이전의 시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사진 27. 고산리 해안도로 확장 구역내 유적 시굴조사 모습(1994)



사진 28. 시굴조사 모습(북에서)



사진 29. 시굴조사 모습(남에서)



사진 30. Pit 구획 상태(남에서)



사진 31. 개토제 모습



사진 32. 작업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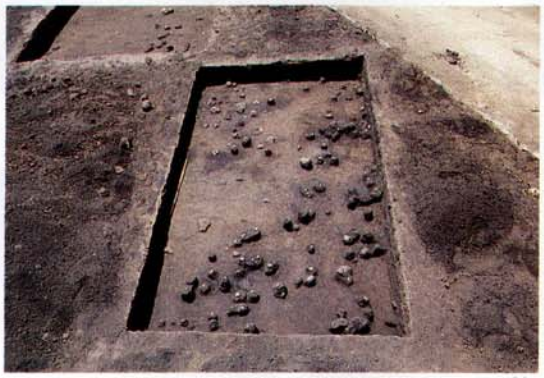
사진 33. 토층조사 모습



34



35



36



37



38



39

사진 34. Pit 구획 모습
사진 35. S26 Pit
사진 36. S24 Pit
사진 37. S23 Pit
사진 38. S22 Pit
사진 39. S20 Pit



40



41



42



43



44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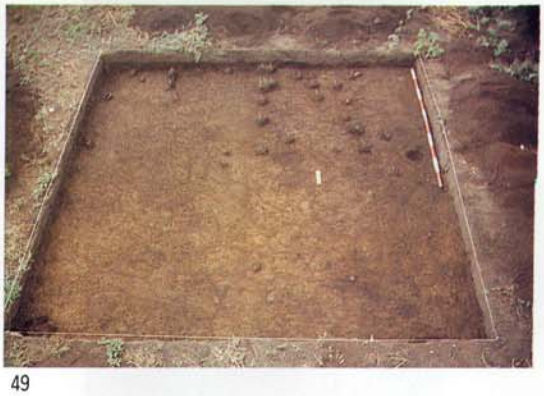
사진 40. S24 Pit
사진 41. S26 Pit
사진 42. S22E6 Pit
사진 43. S15 Pit
사진 44. S26 Pit 상층
사진 45. S21 Pit





46 47





48 49





50 51

사진 46. S25 Pit
사진 47. S25 Pit(세부)
사진 48. S19 Pit
사진 49. S20 Pit
사진 50. S13 Pit 상층
사진 51. S21 Pit



52



53



54



55



56



57

사진 52. S13 Pit 하층
사진 53. S12 Pit
사진 54. S11 Pit
사진 55. S10 Pit
사진 56. S9 Pit
사진 57. S8 · S7 · S6 Pit



사진 58. S21 Pit



사진 59. S21 Pit 유물 노출상태(1)



사진 60. S21 Pit 유물 노출상태(2)



사진 61. S21 Pit 유물 노출상태(세부)



사진 62. S16E5 Pit



사진 63. S16E5 Pit 구덩이內 목탄



사진 64. 기둥구멍



사진 65. Pit내부 구덩이



사진 66. S12 Test-Pit



사진 67. S12 Test-Pit 단면층위



사진 68. S25 Pit 단면층위(동벽)



사진 69. S25 Pit 단면층위(서벽)



70



71



72



73



74



75

사진 70. 유물노출상태(1)
사진 71. 유물노출상태(2)
사진 72. 유물노출상태(3)
사진 73. 석촉
사진 74. 석촉
사진 75. 석촉



76



77



78



79



80



81

사진 76. 석촉
사진 77. 석촉
사진 78. 긁개
사진 79. 박편
사진 80. 긁개
사진 81.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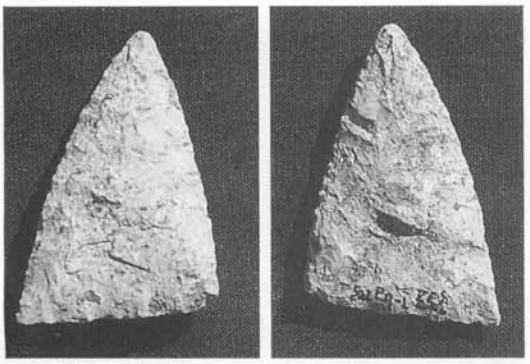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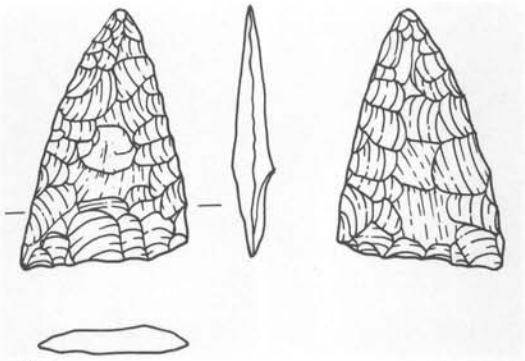


사진 82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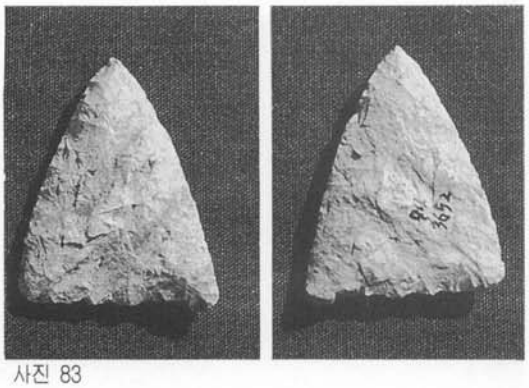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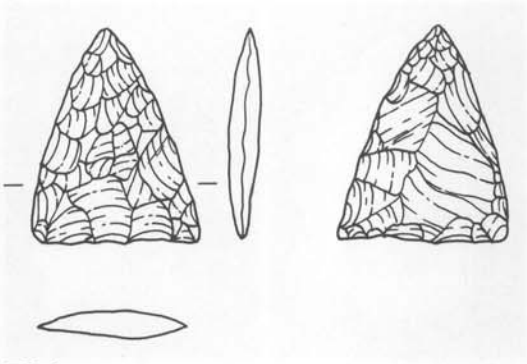


사진 83



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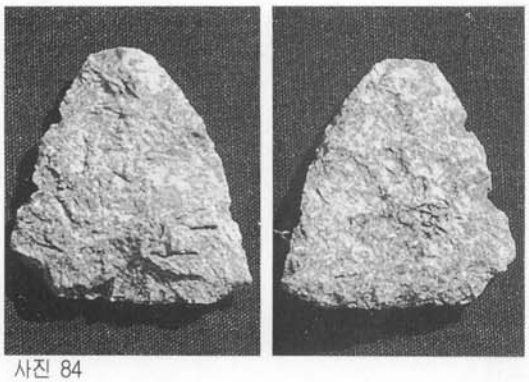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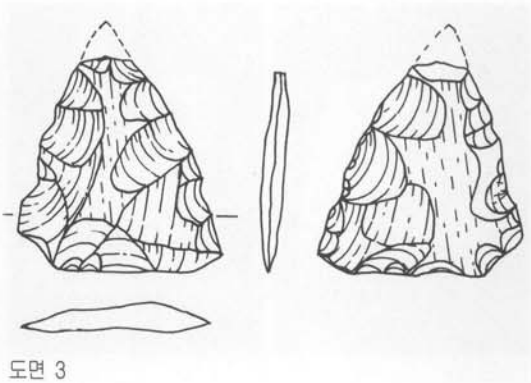


사진 84



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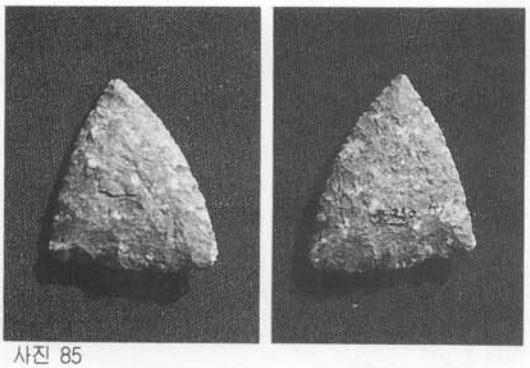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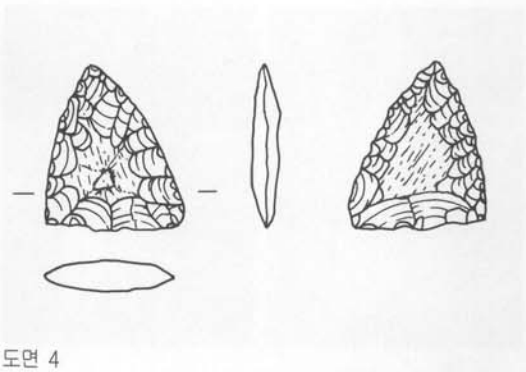


사진 85



도면 4

0 1 2 3 4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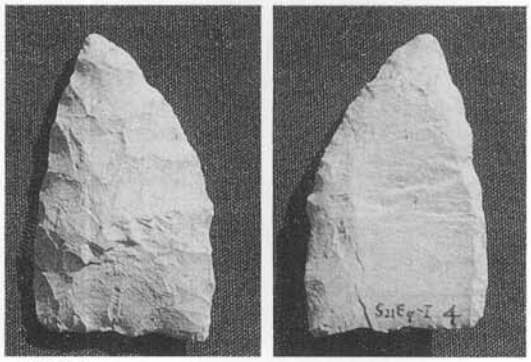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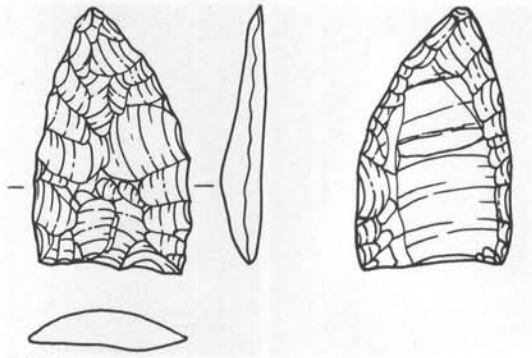


사진 86



도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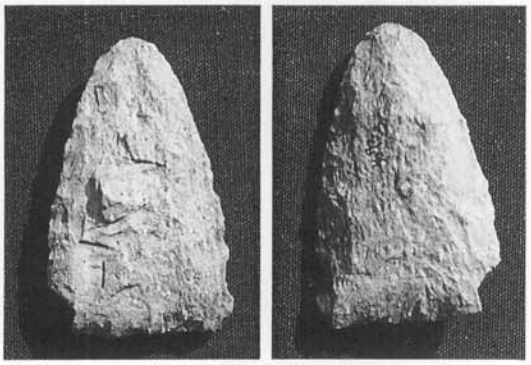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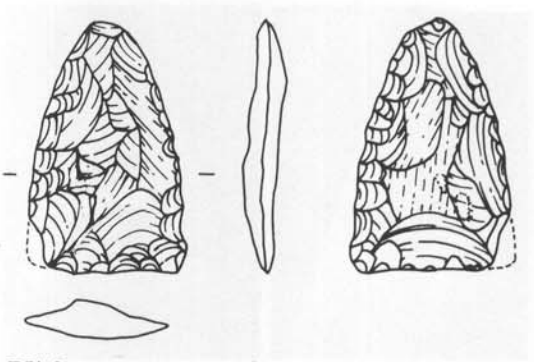


사진 87



도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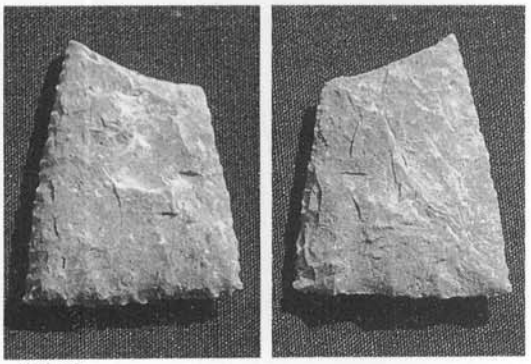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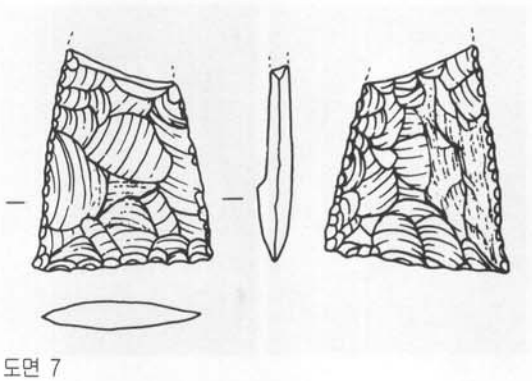


사진 88



도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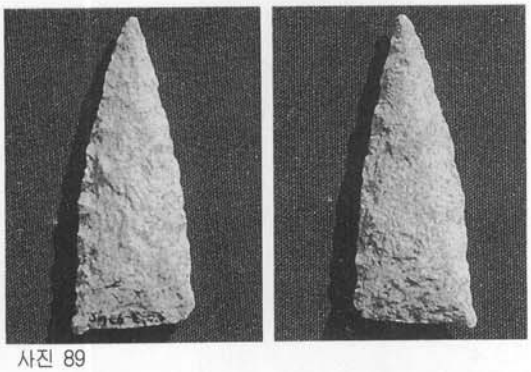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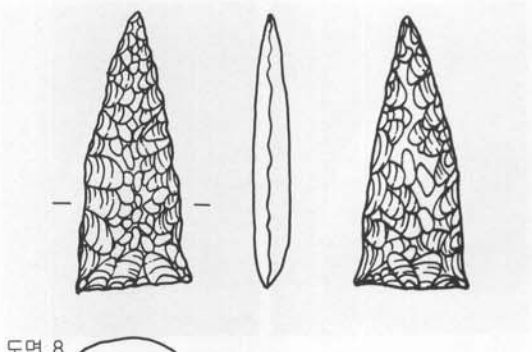


사진 89



도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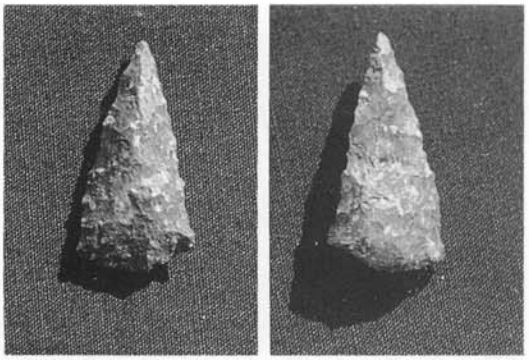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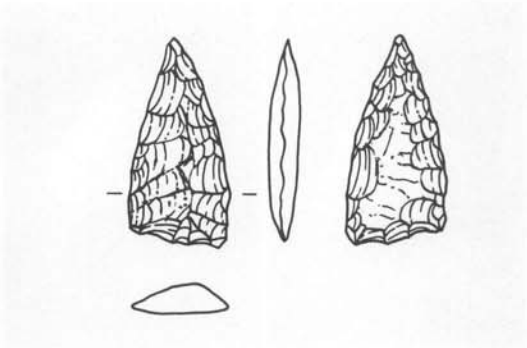


사진 90



도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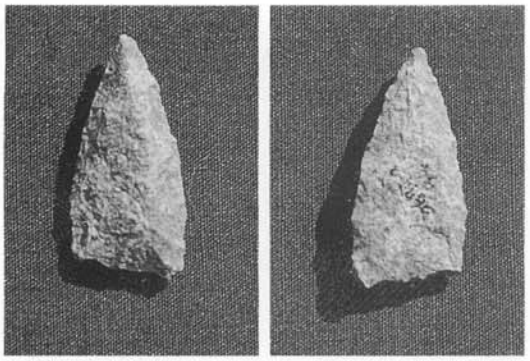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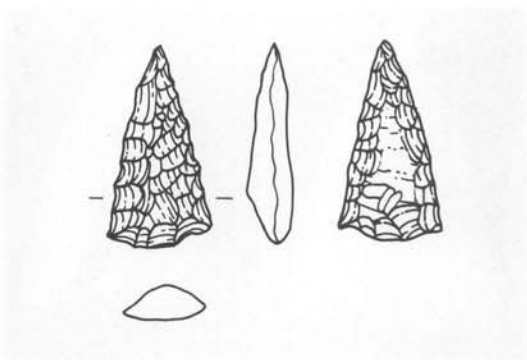


사진 91



도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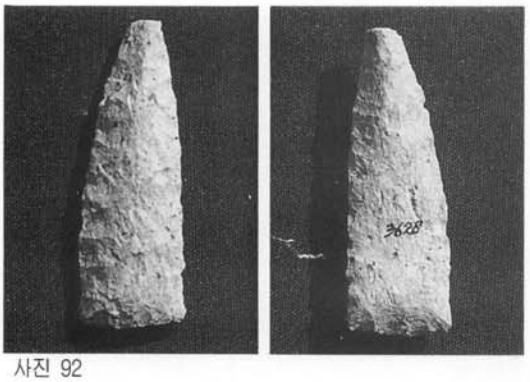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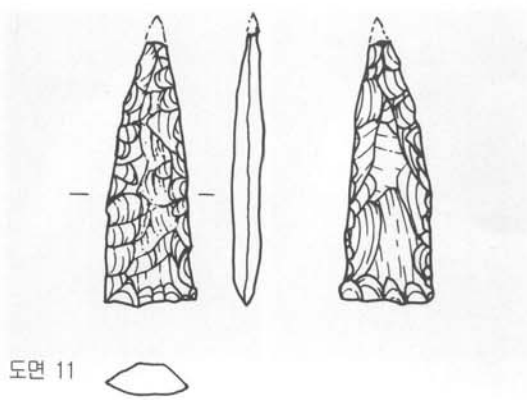


사진 92



도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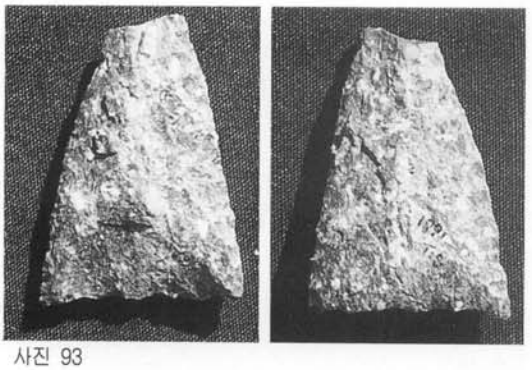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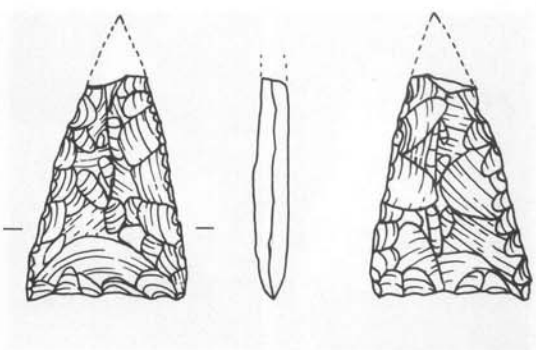


사진 93



도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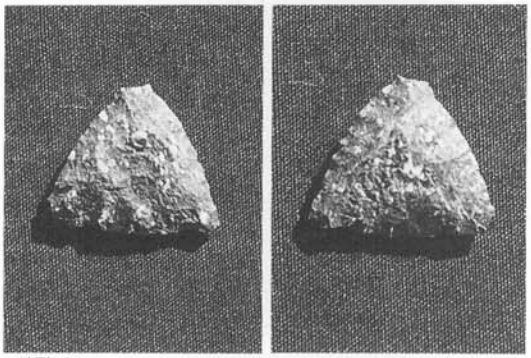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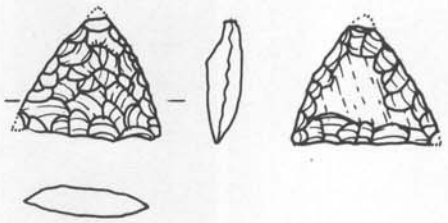


사진 94



도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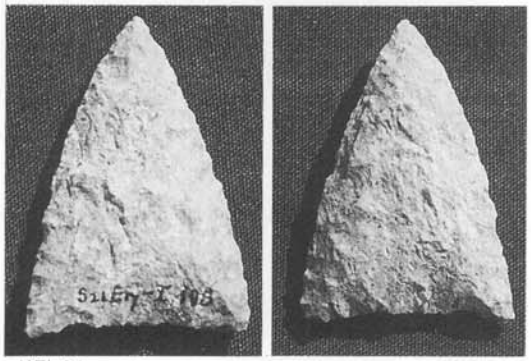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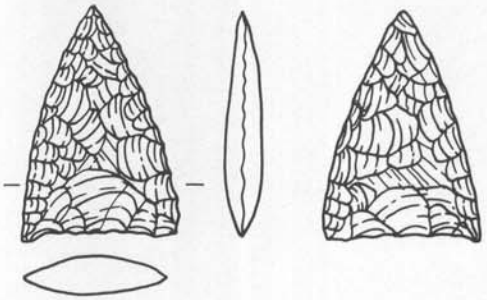


사진 95



도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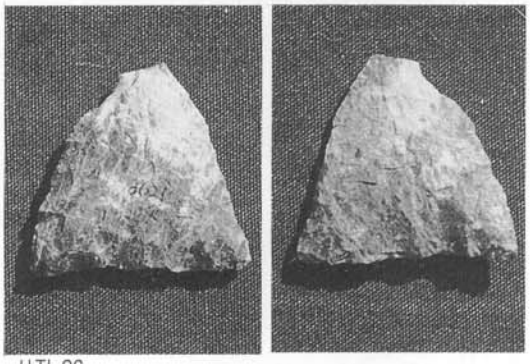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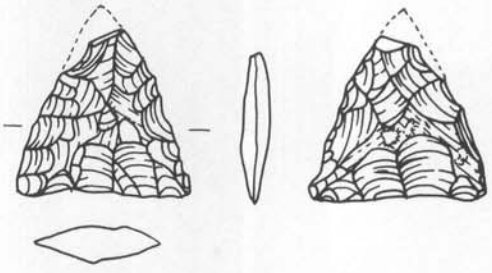


사진 96



도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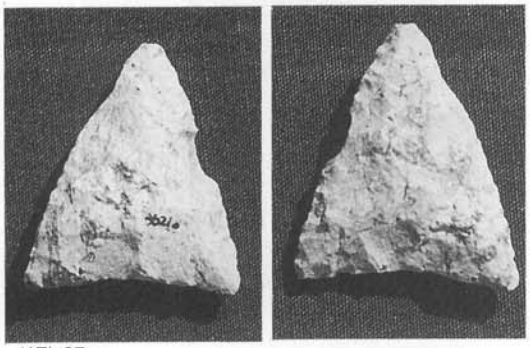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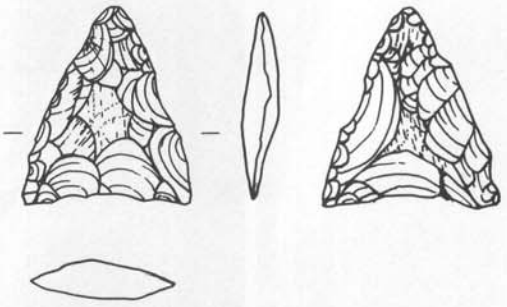


사진 97



도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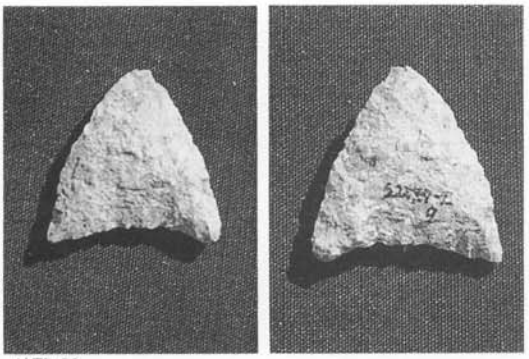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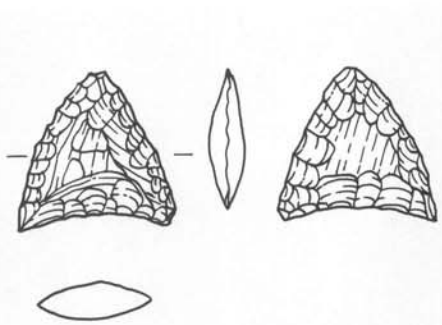


사진 98



도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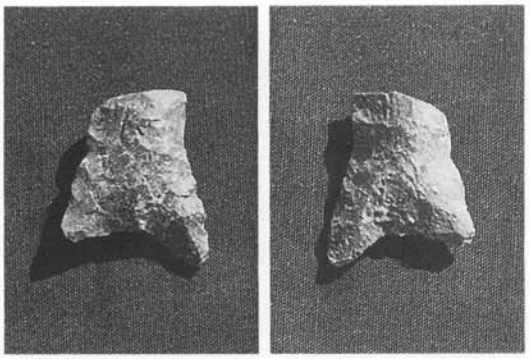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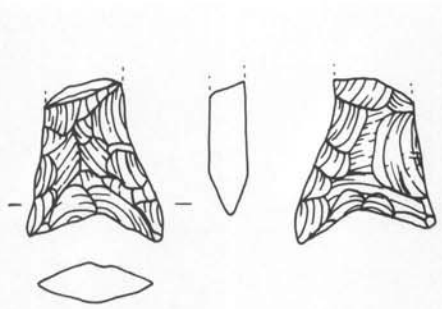


사진 99



도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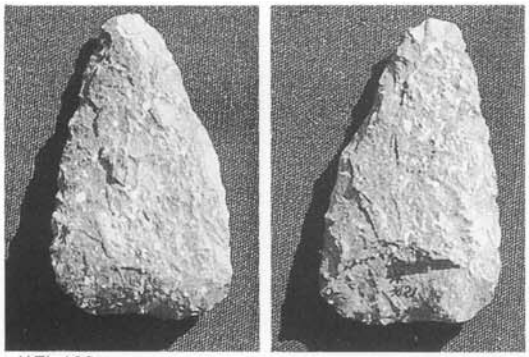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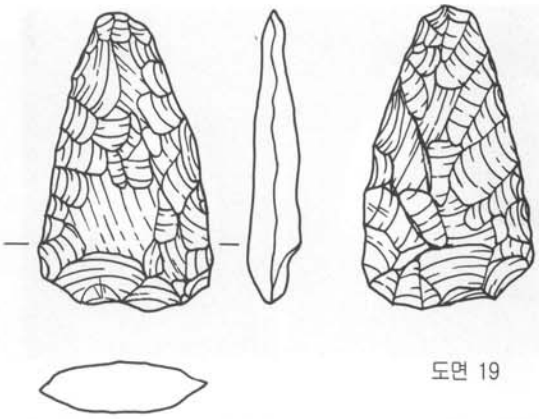


사진 100



도면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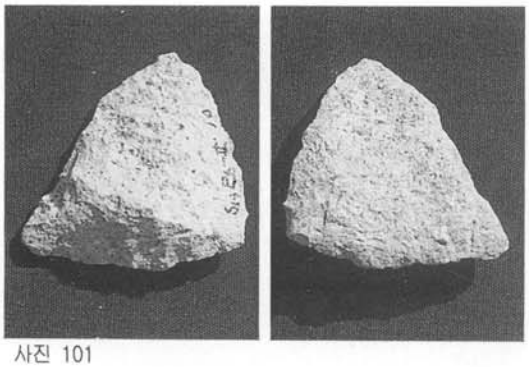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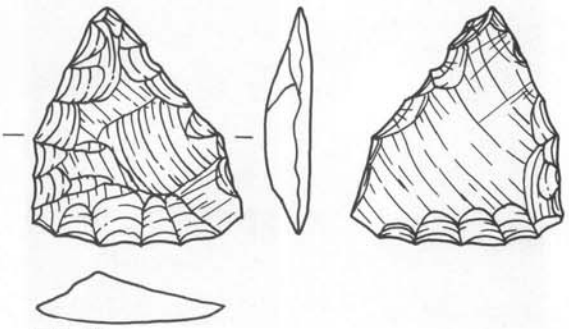


사진 101



도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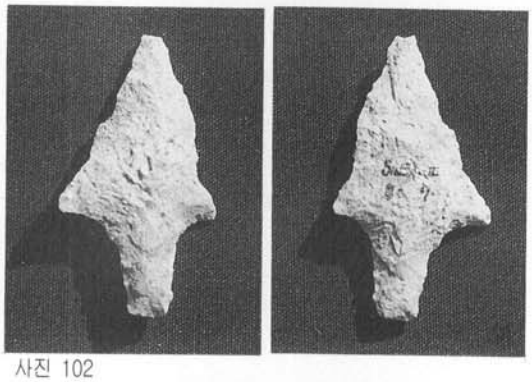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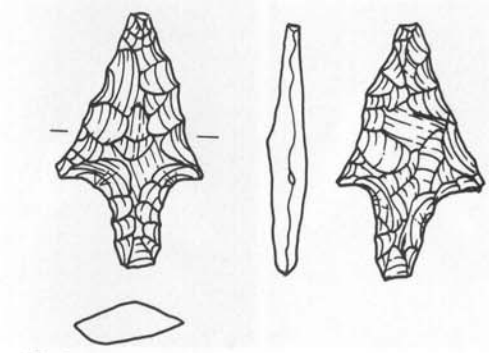


사진 102



도면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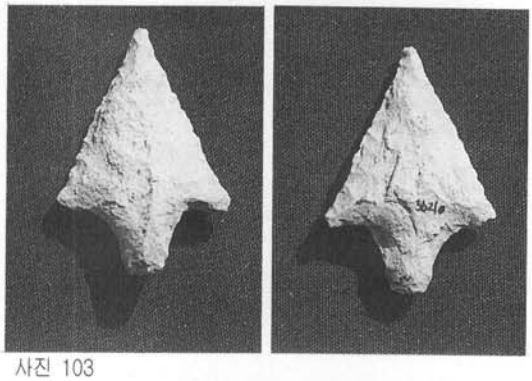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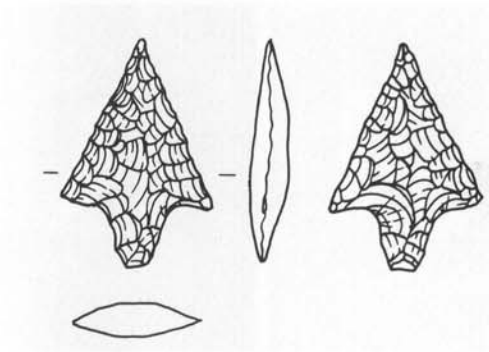


사진 103



도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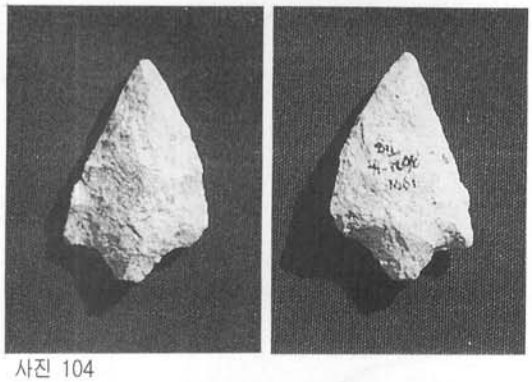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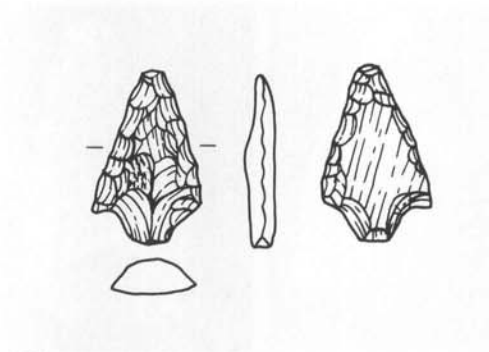


사진 104



도면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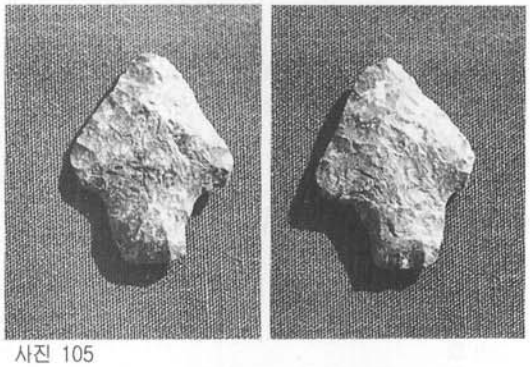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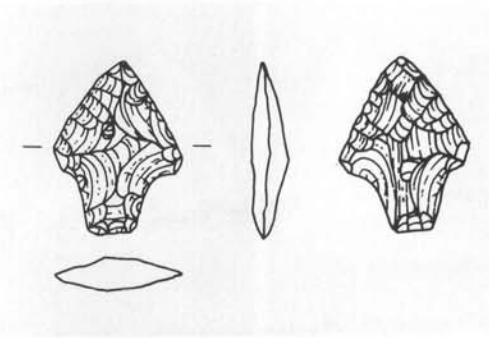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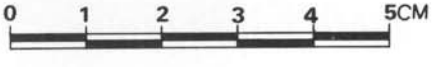


사진 105



도면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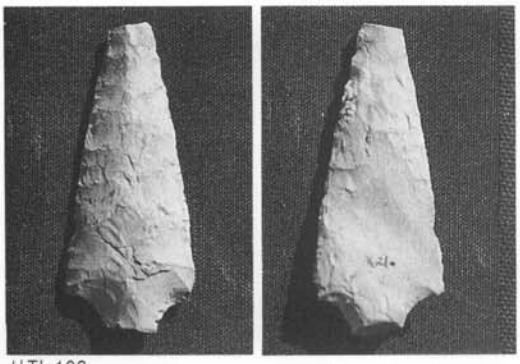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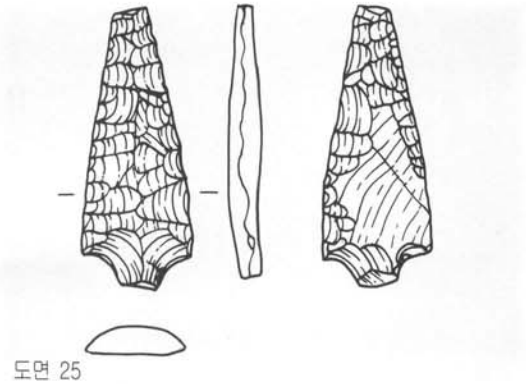


사진 106



도면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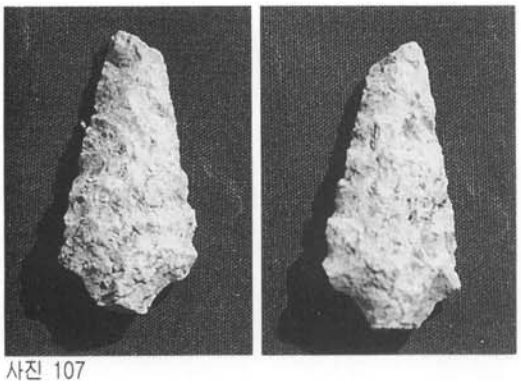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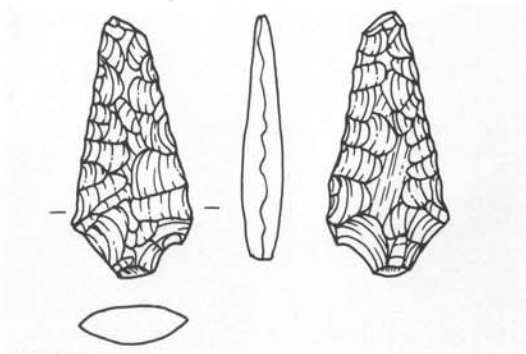


사진 107



도면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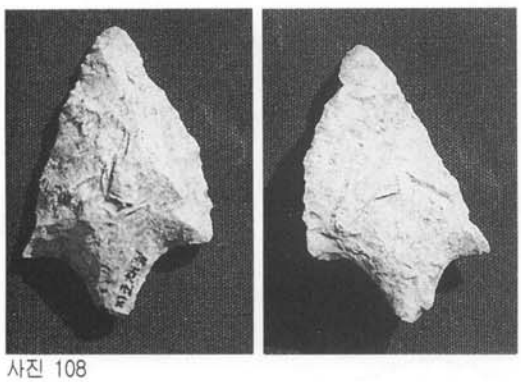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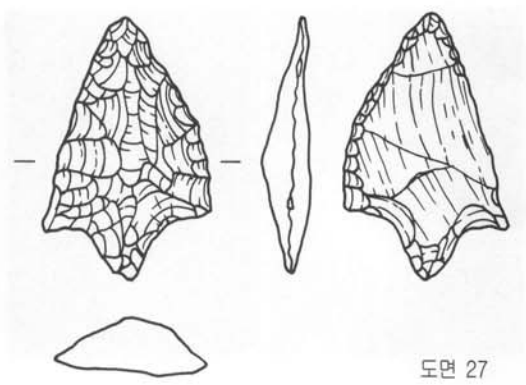


사진 108



도면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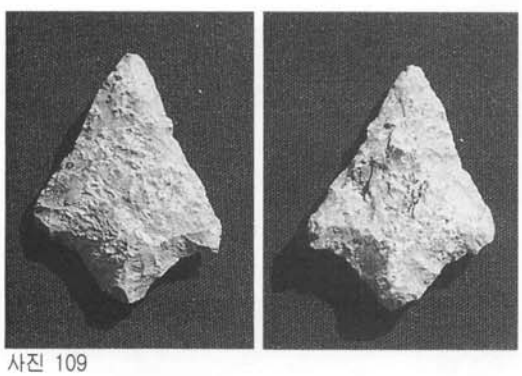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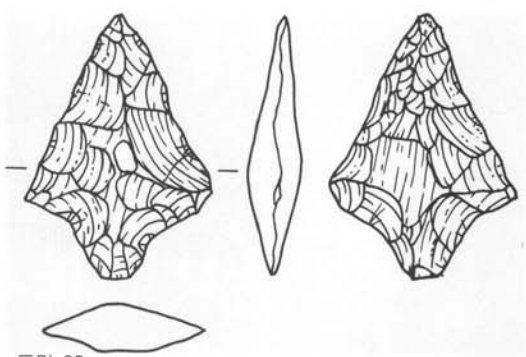


사진 109



도면 28

0 1 2 3 4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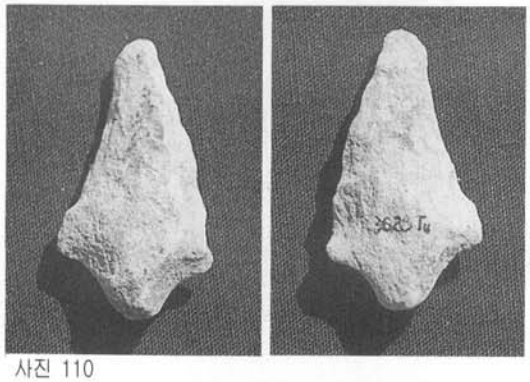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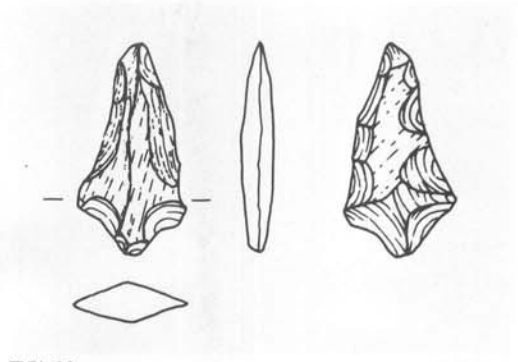


사진 110



도면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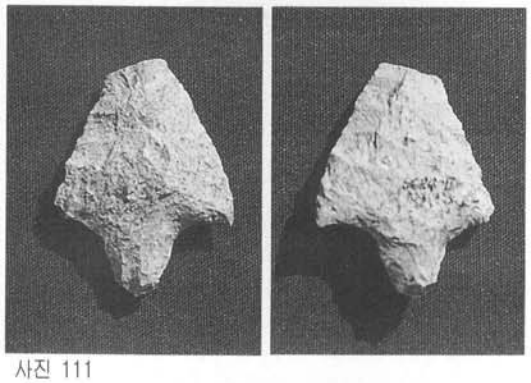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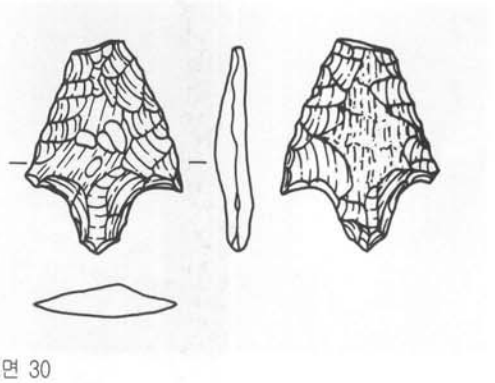


사진 111



도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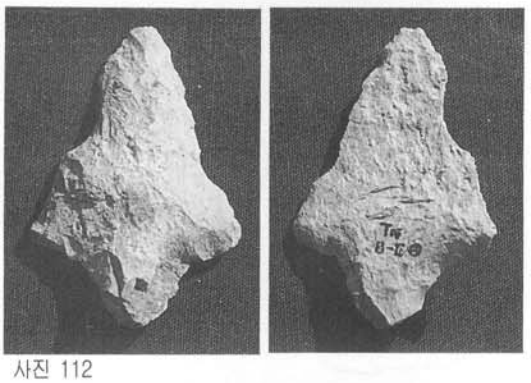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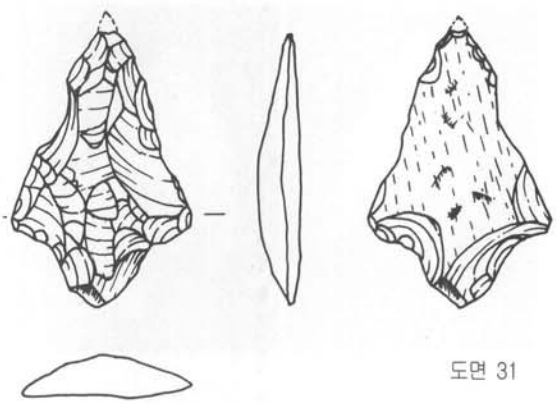


사진 112



도면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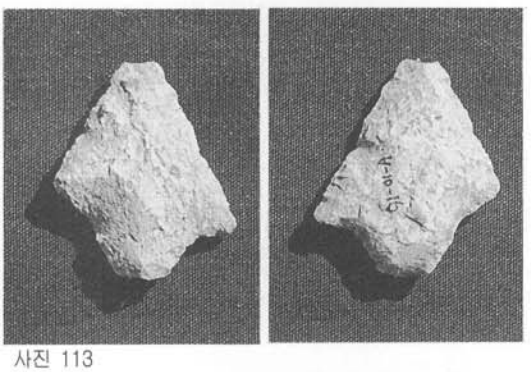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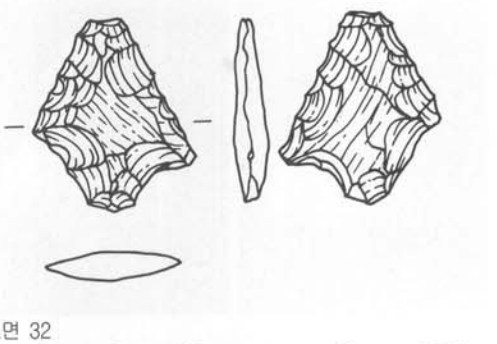


사진 113



도면 32

0 1 2 3 4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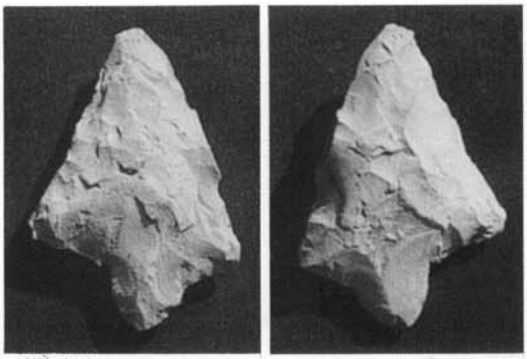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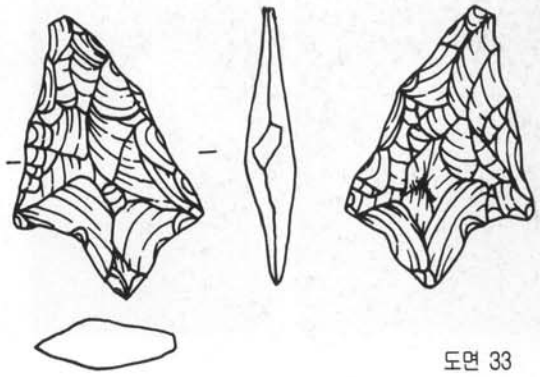


사진 114



도면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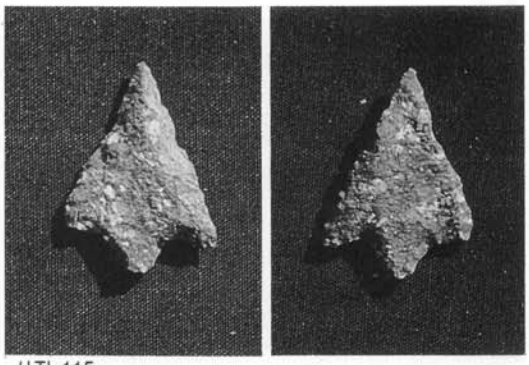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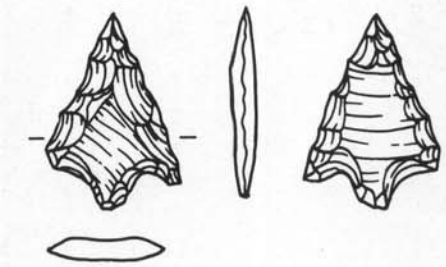


사진 115



도면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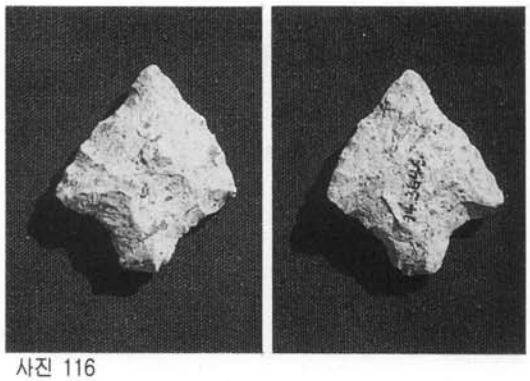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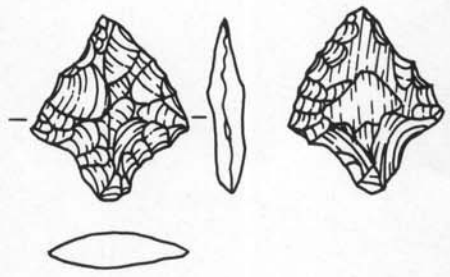


사진 116



도면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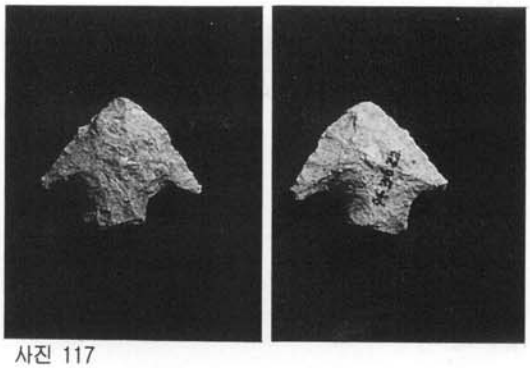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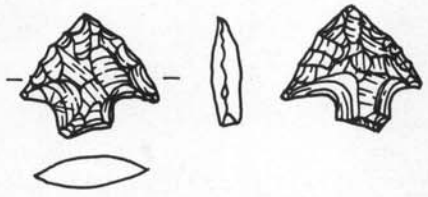


사진 117



도면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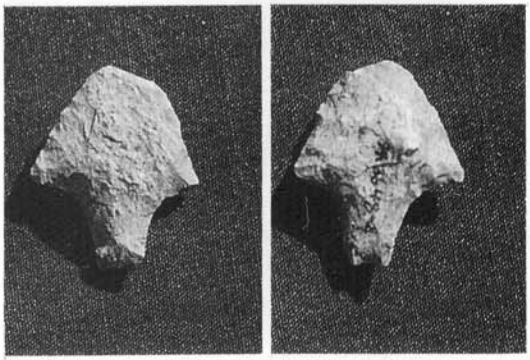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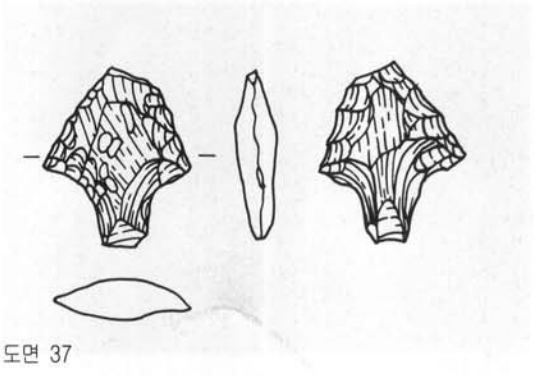


사진 118



도면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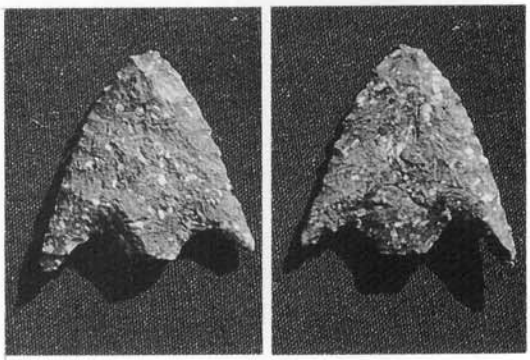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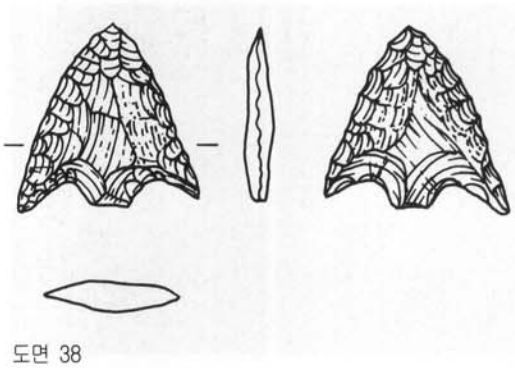


사진 119



도면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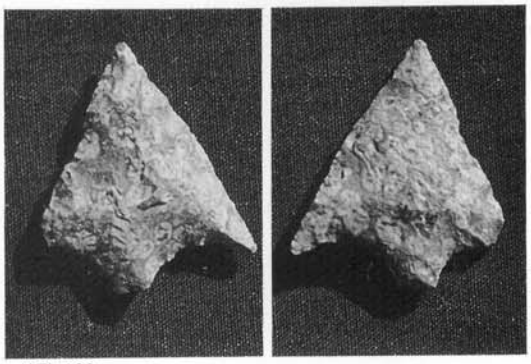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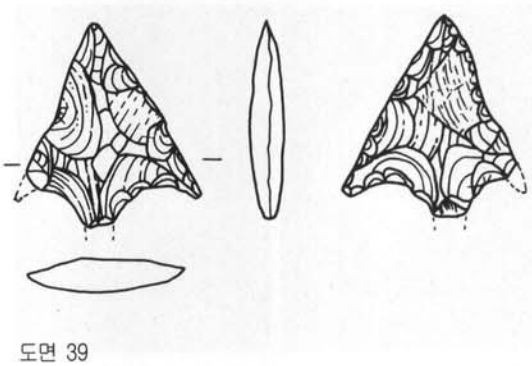


사진 120



도면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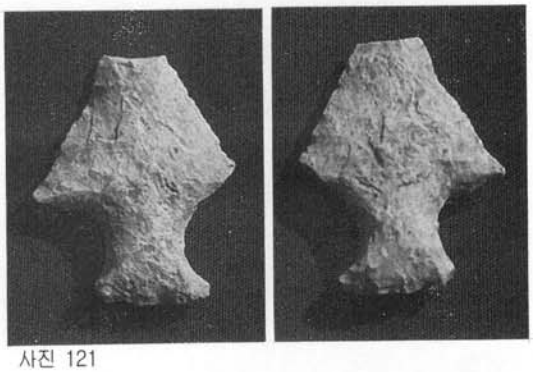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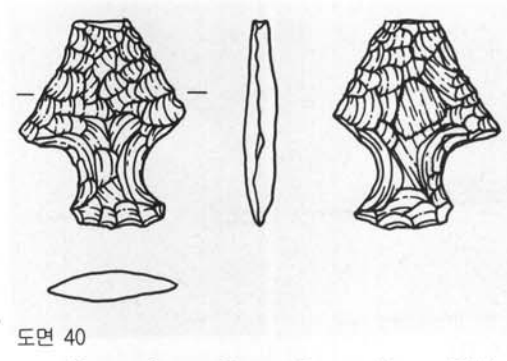


사진 121



도면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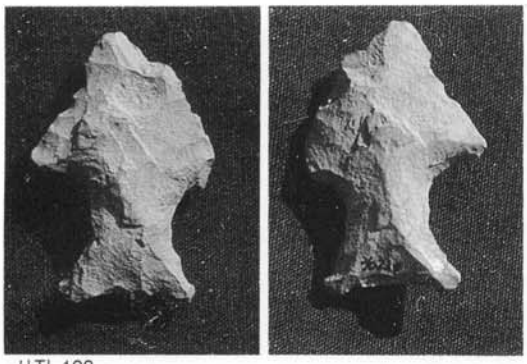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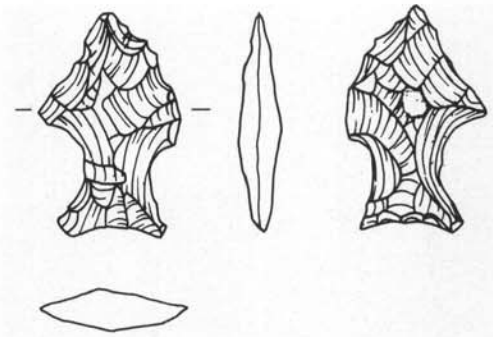


사진 122



도면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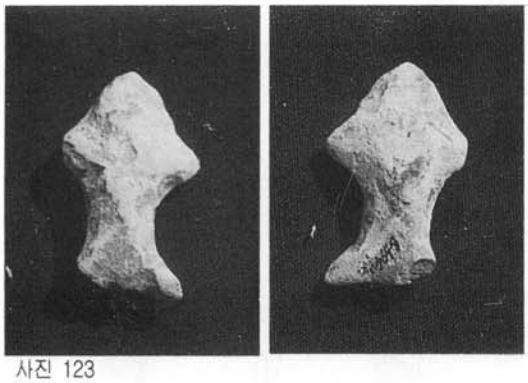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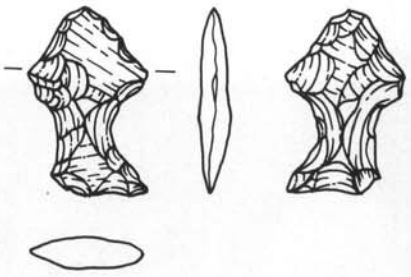


사진 123



도면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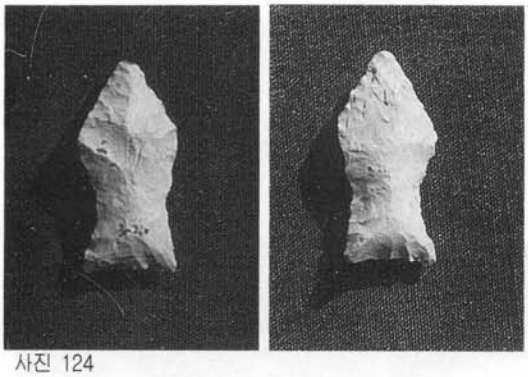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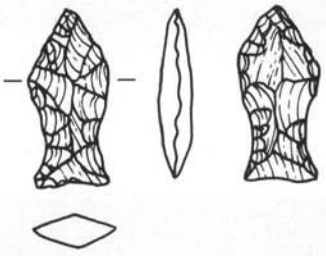


사진 124



도면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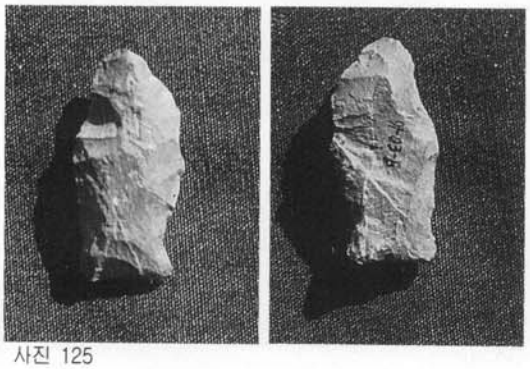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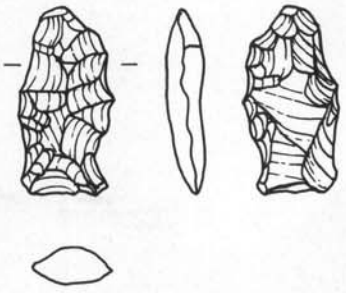


사진 125



도면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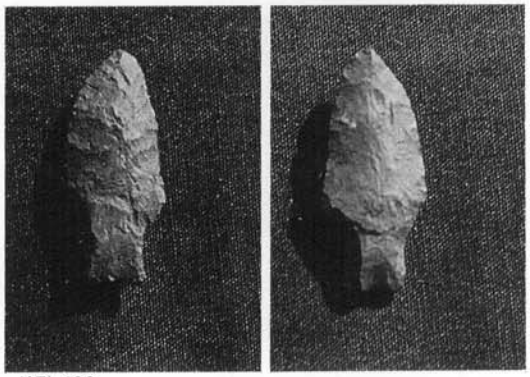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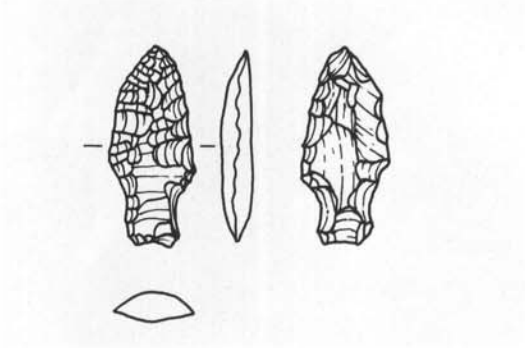


사진 126



도면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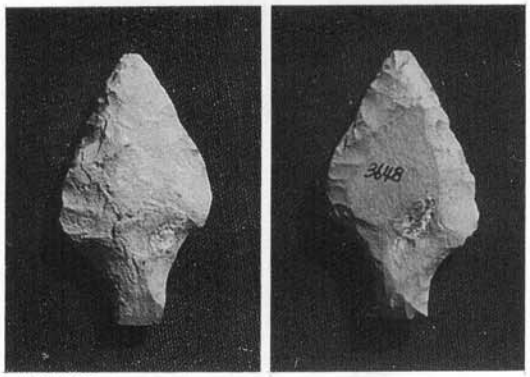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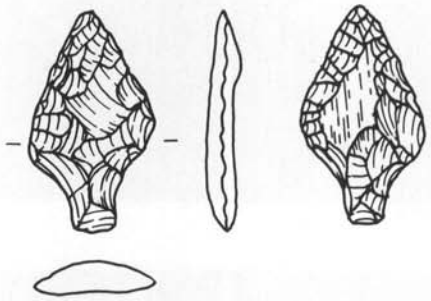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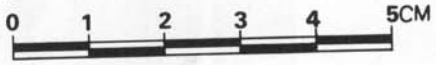


사진 127



도면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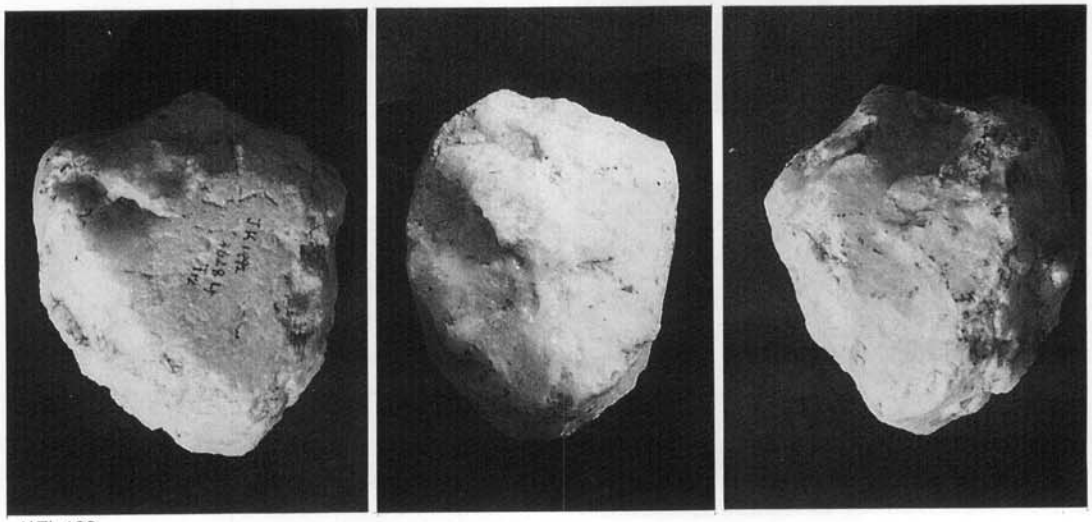


사진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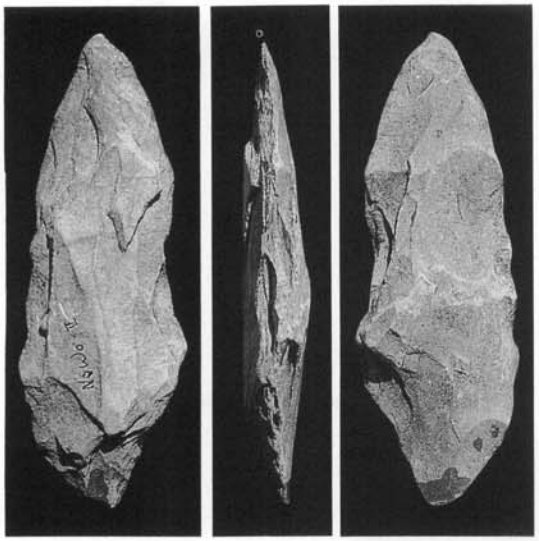


사진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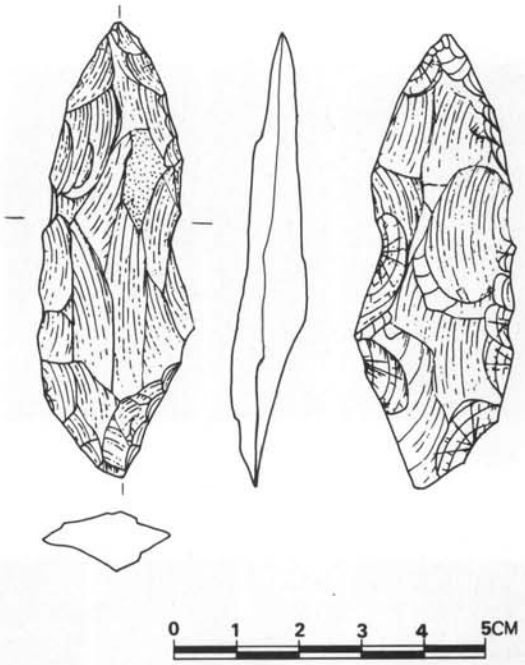


그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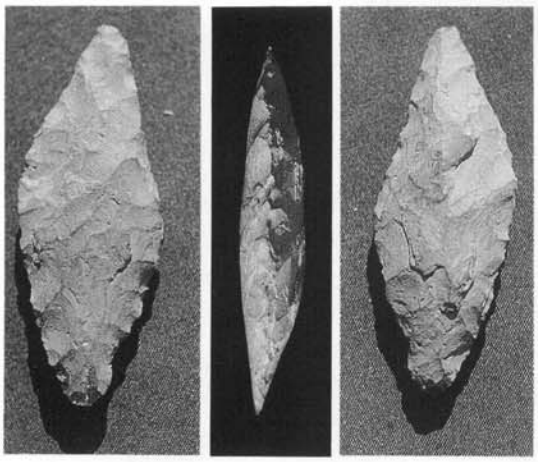


사진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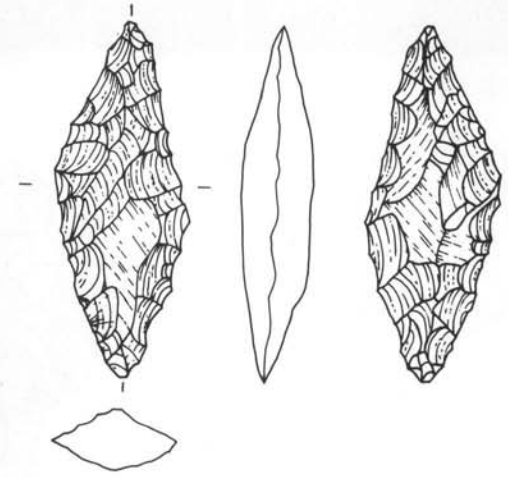


그림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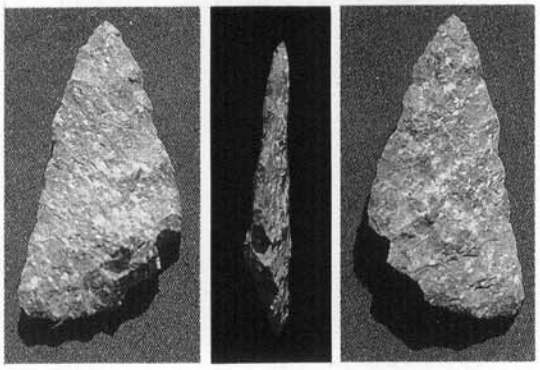


사진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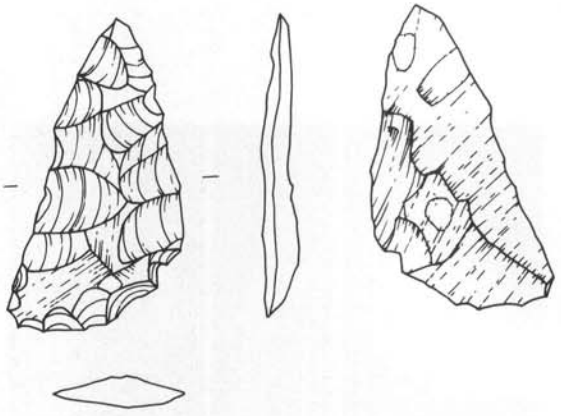


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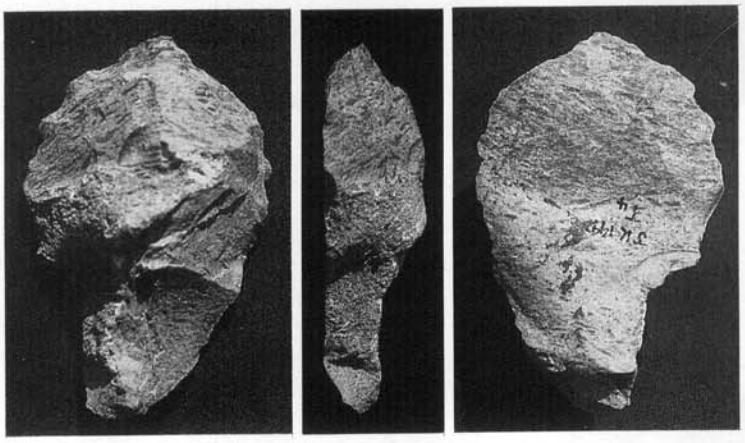


사진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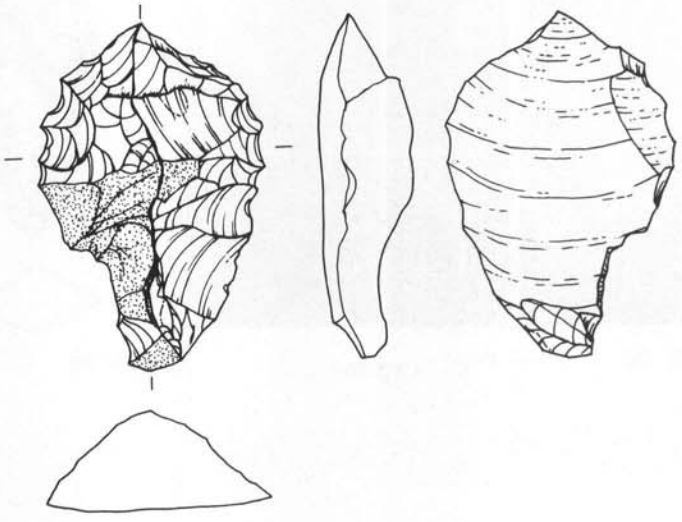


그림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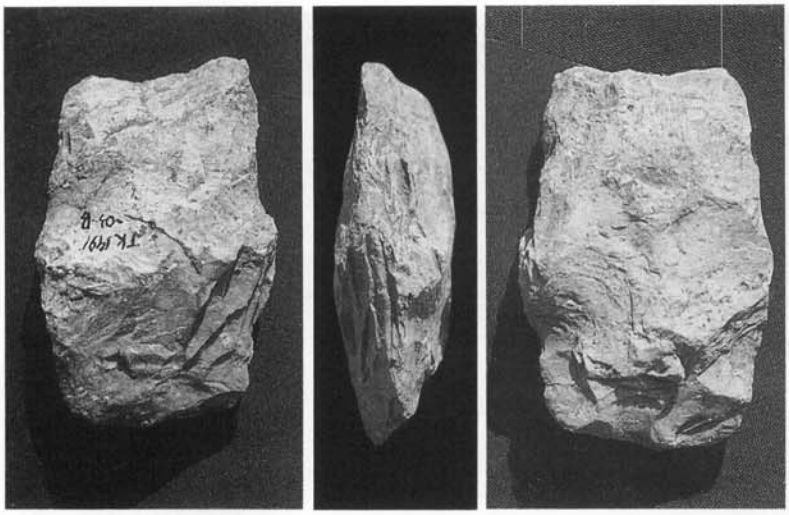


사진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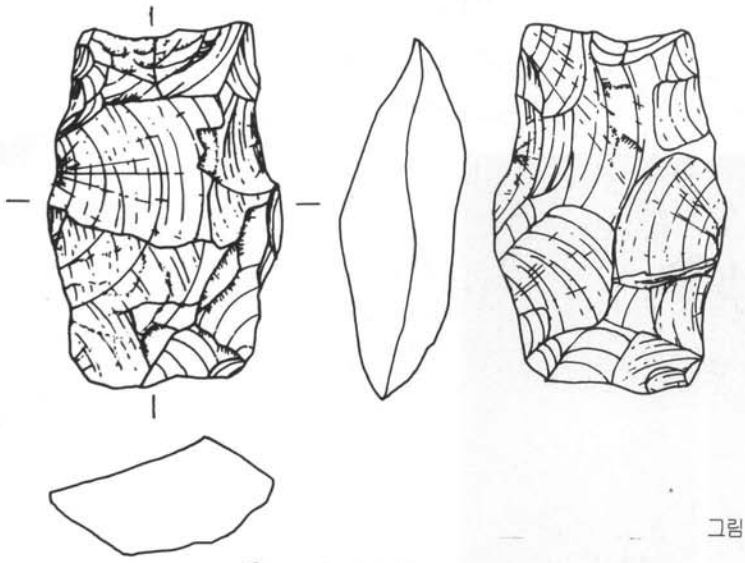


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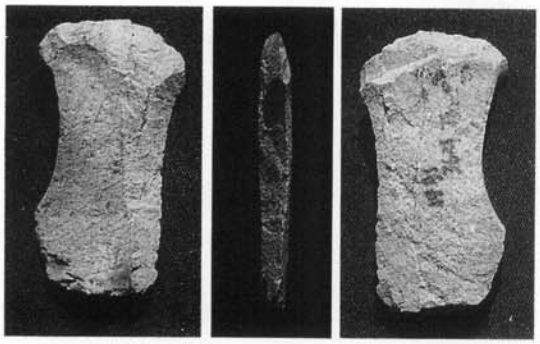


사진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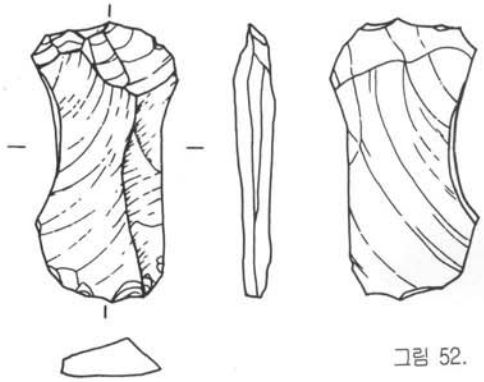


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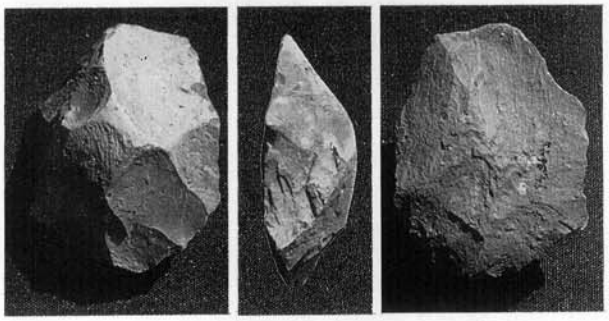


사진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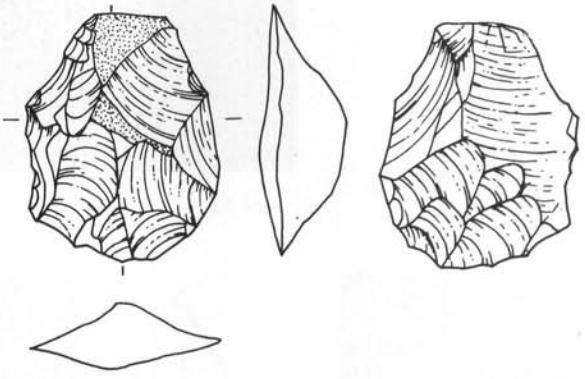


그림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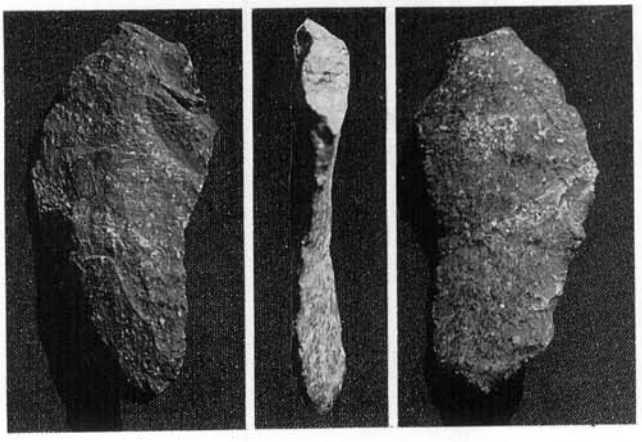


사진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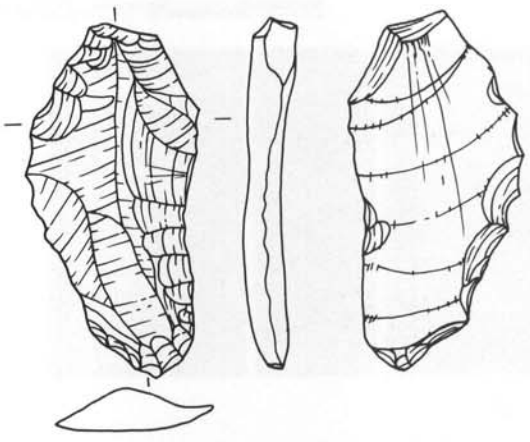


그림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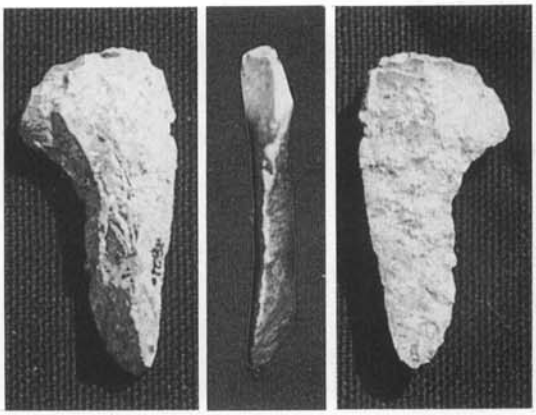


사진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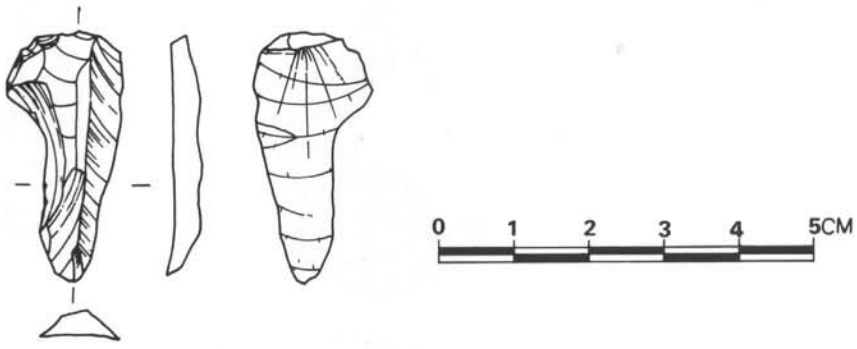


그림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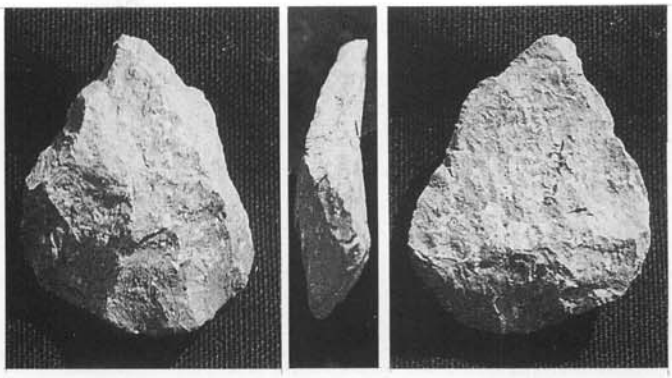


사진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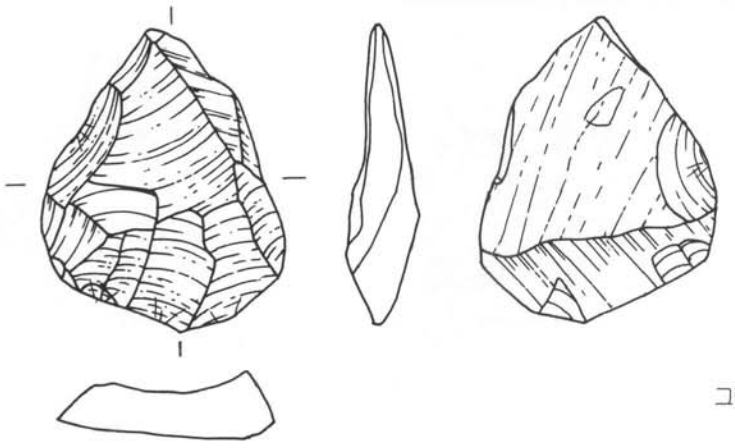


그림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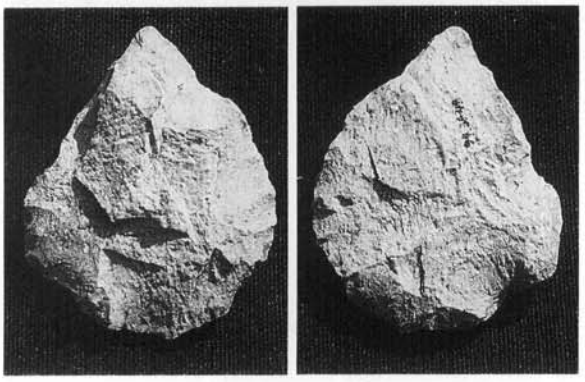


사진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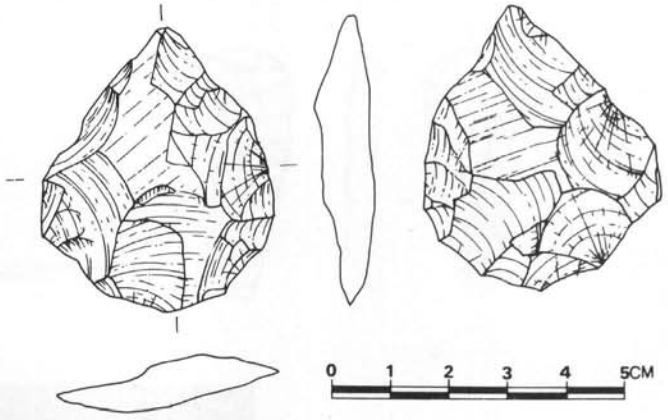


그림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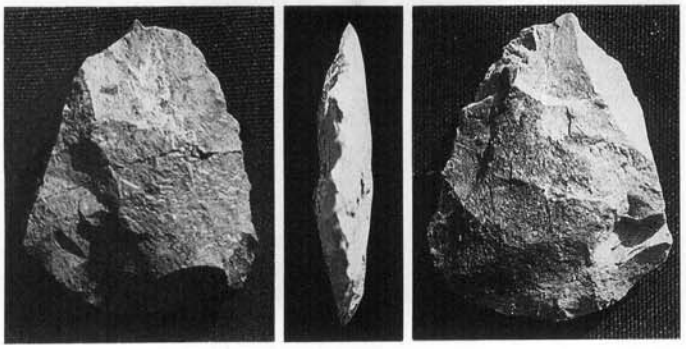


사진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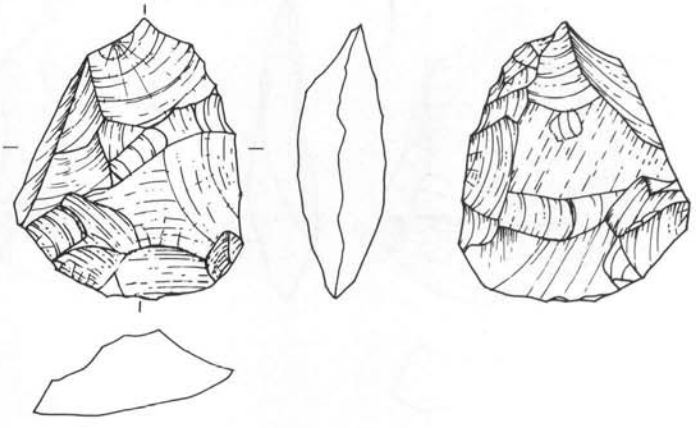


그림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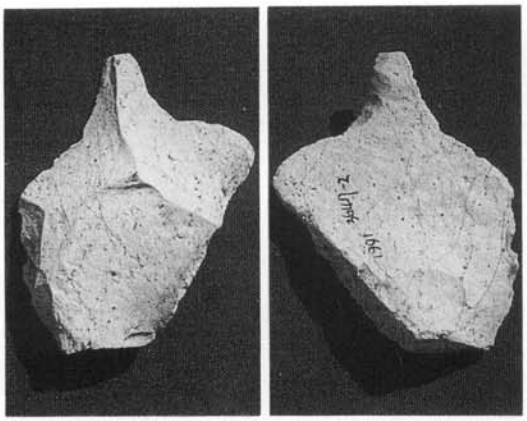


사진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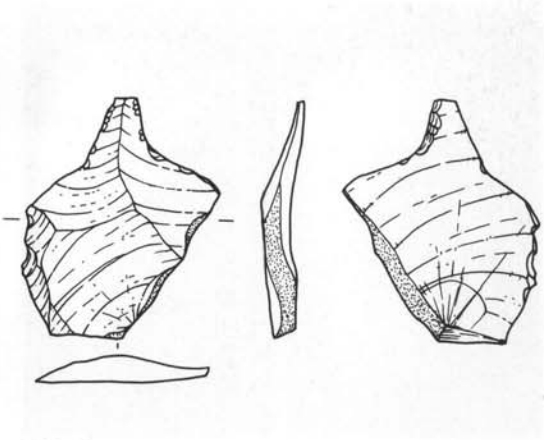


그림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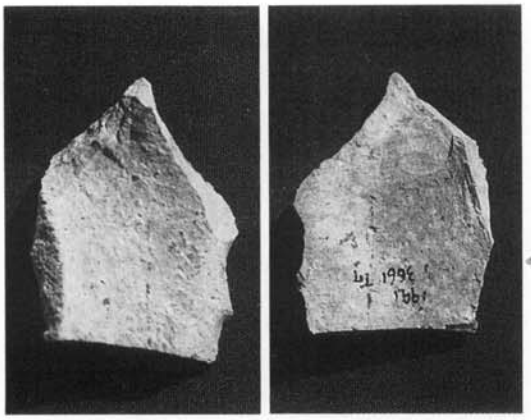


사진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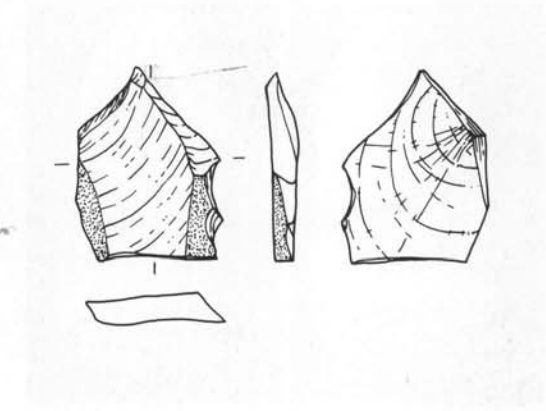


그림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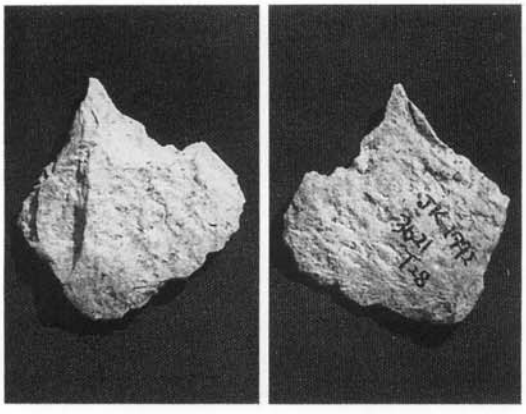


사진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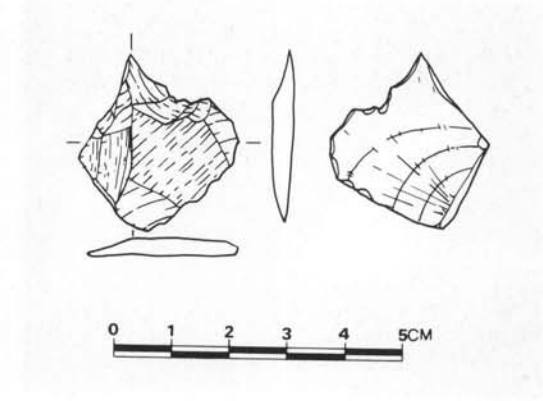


그림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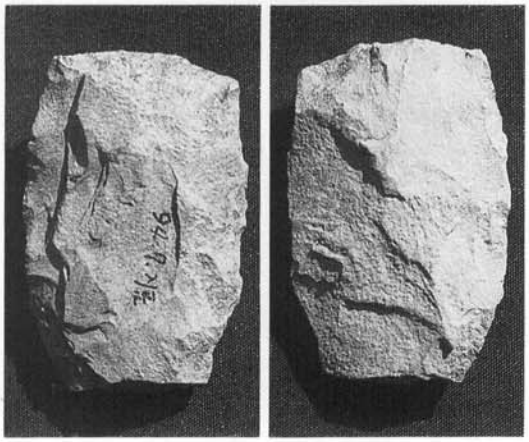


사진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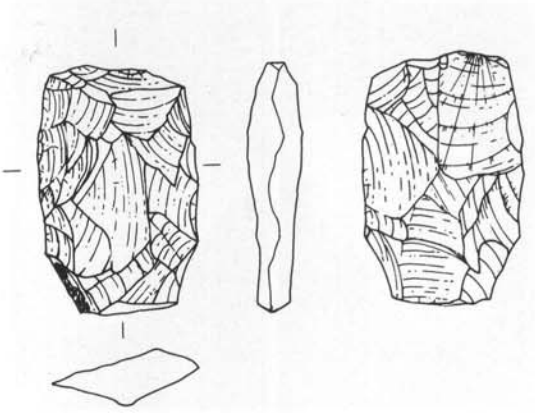


그림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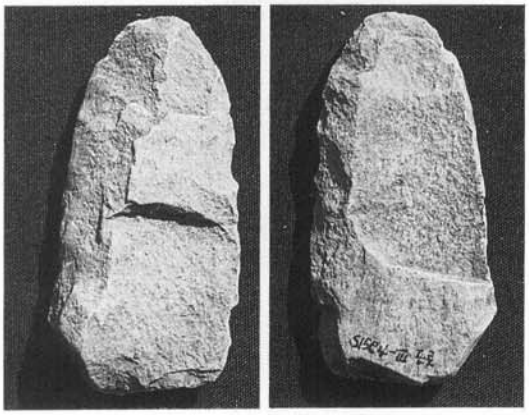


사진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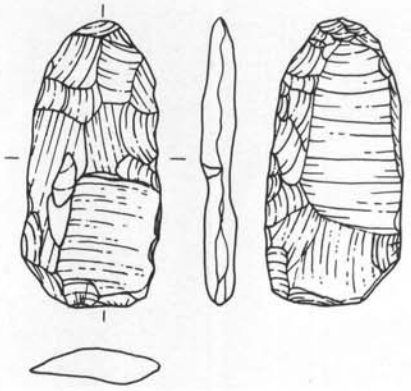


그림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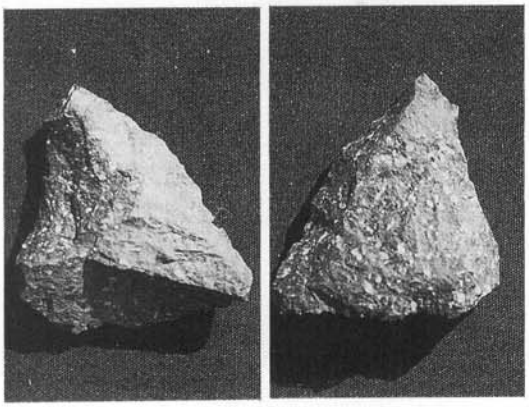


사진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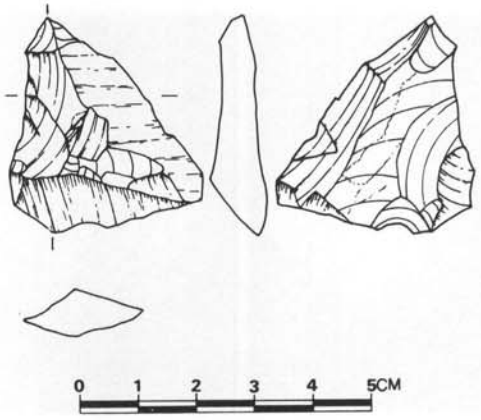


그림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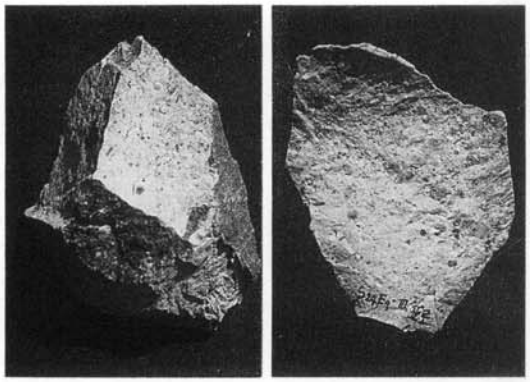


사진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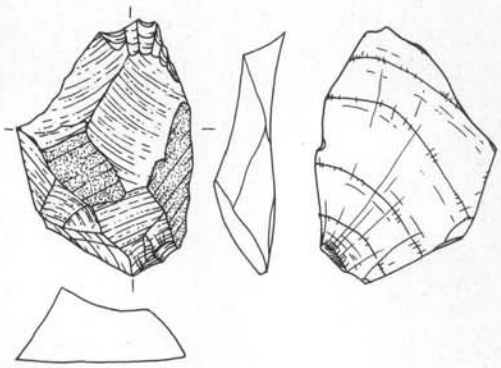


그림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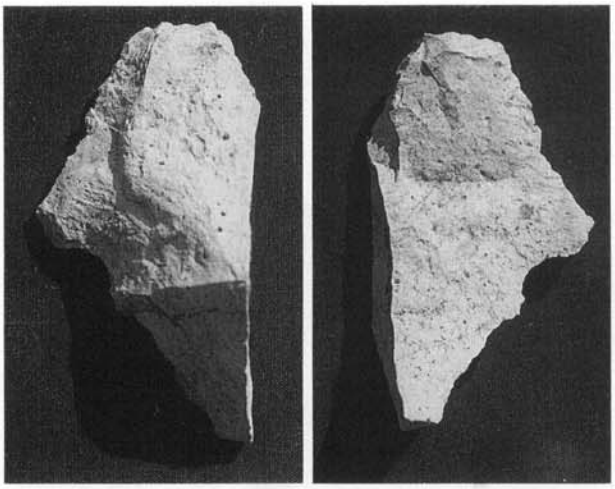


사진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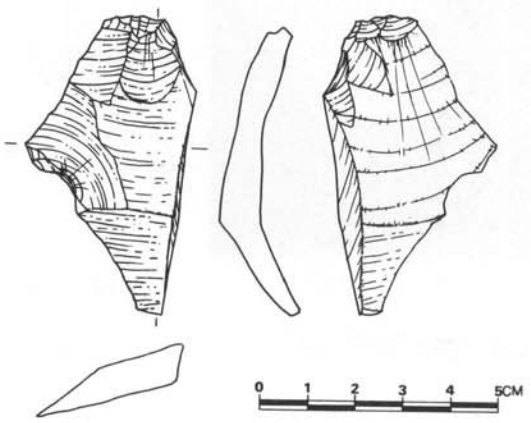


그림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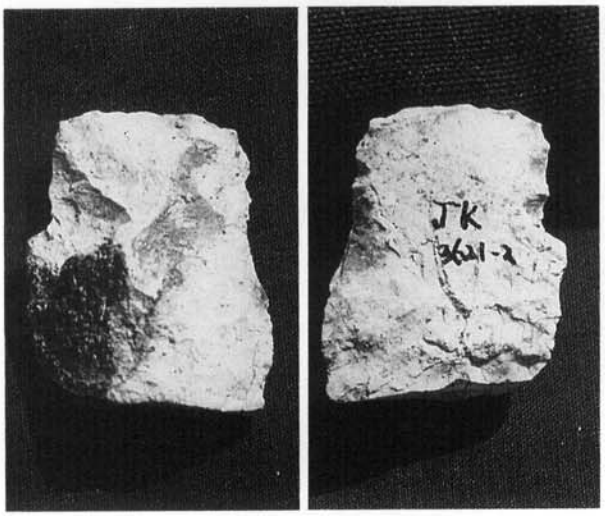


사진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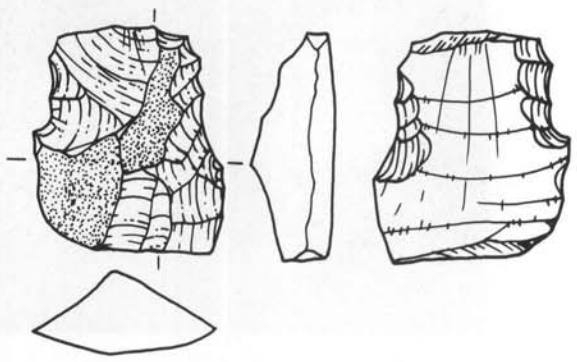


그림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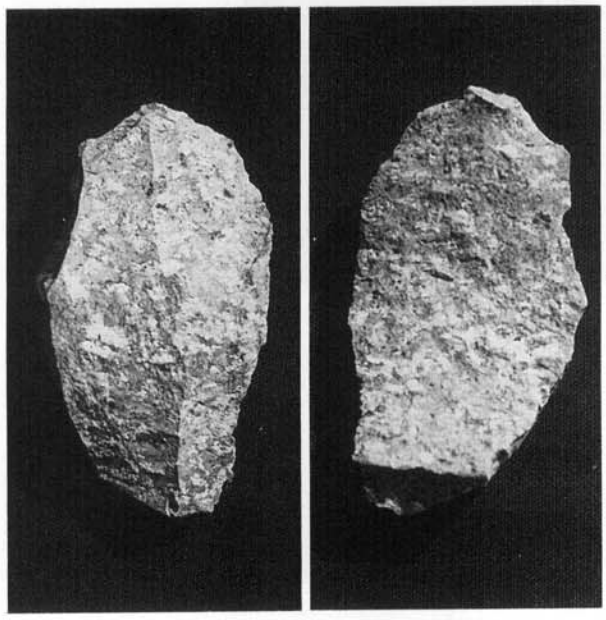


사진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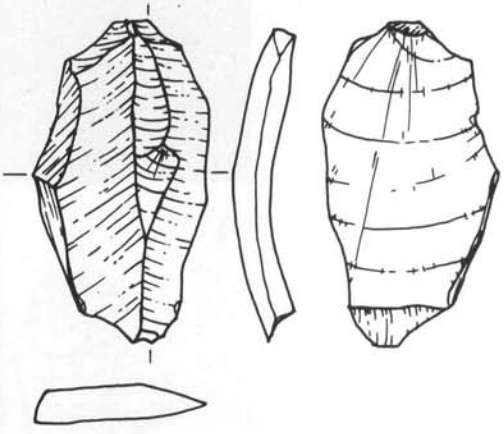


그림 68

0 1 2 3 4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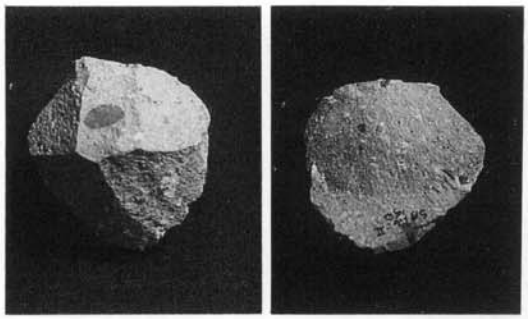


사진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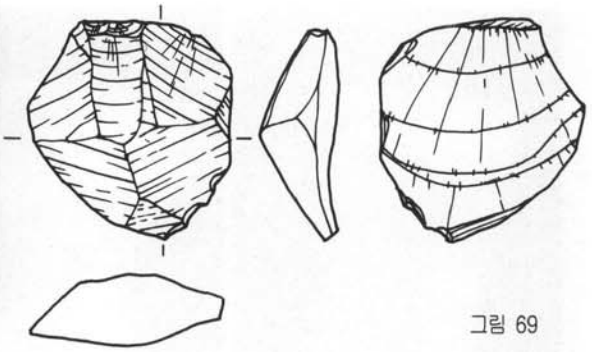


그림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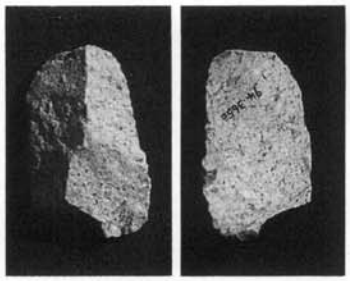


사진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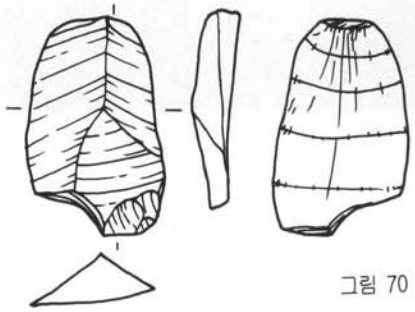


그림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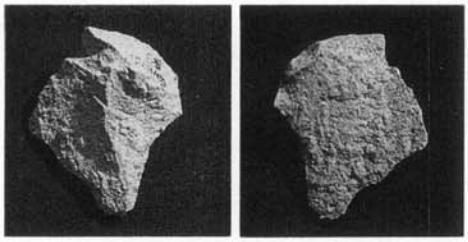


사진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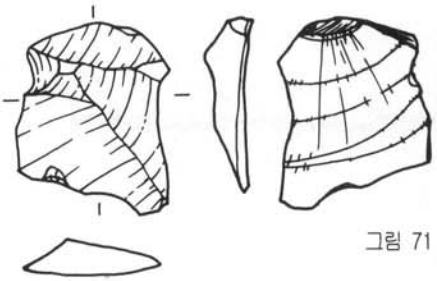


그림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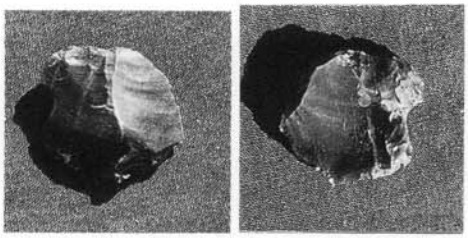


사진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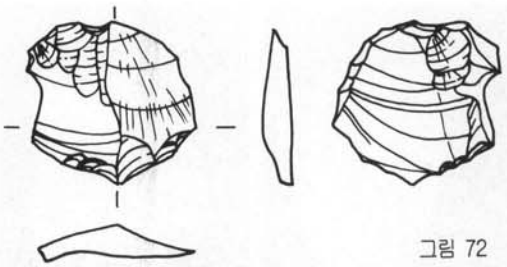


그림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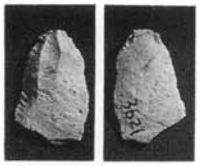


사진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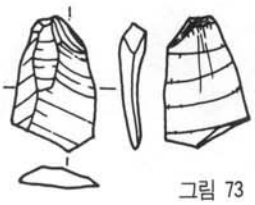


그림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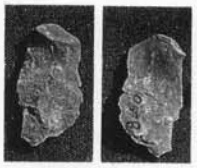


사진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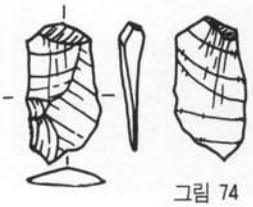


그림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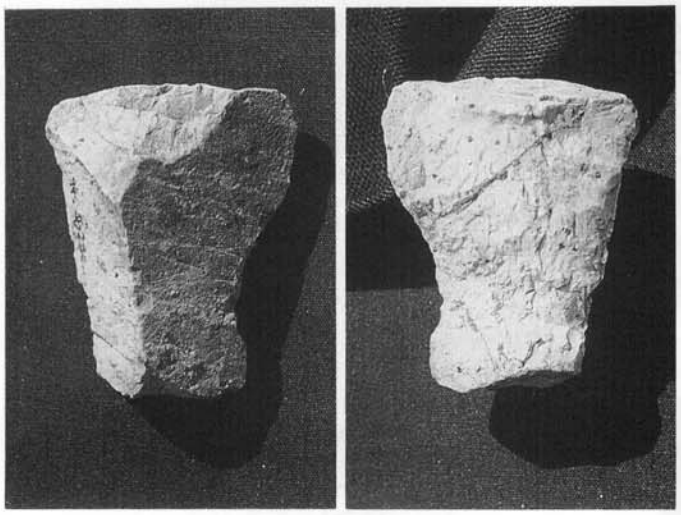


사진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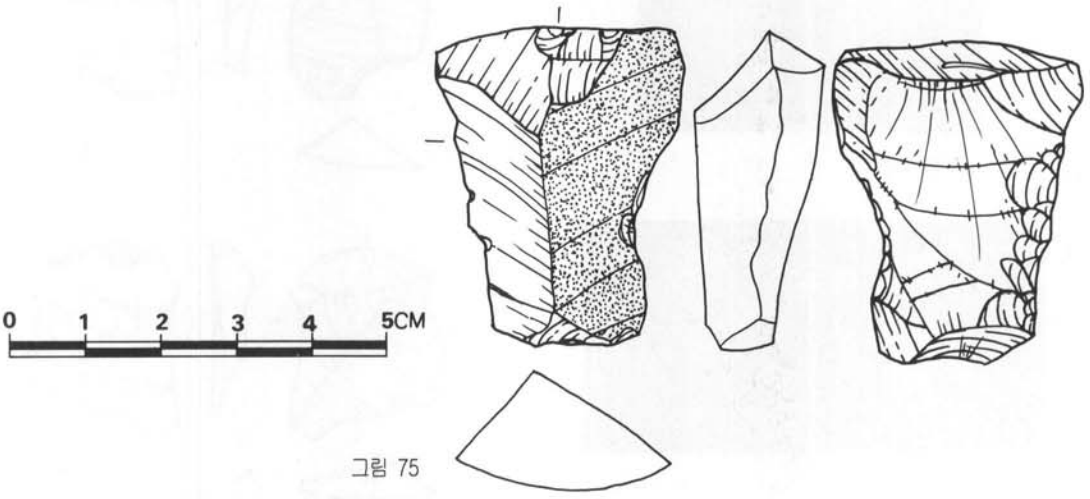


그림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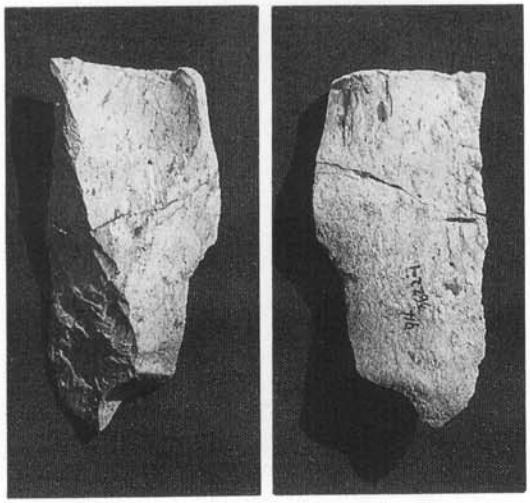


사진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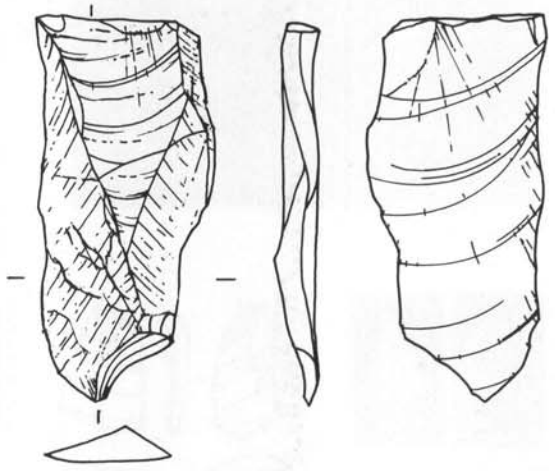


그림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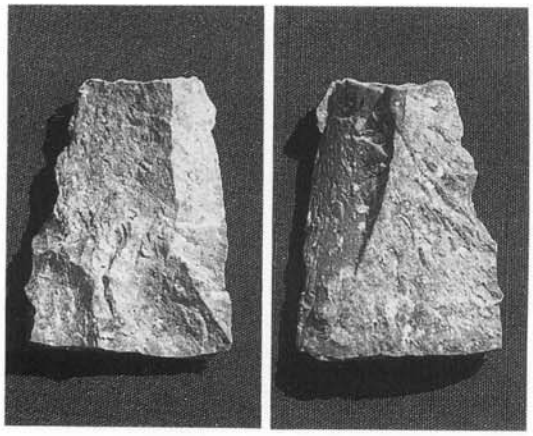


사진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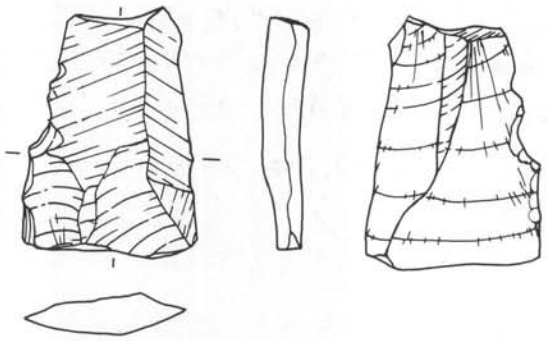


그림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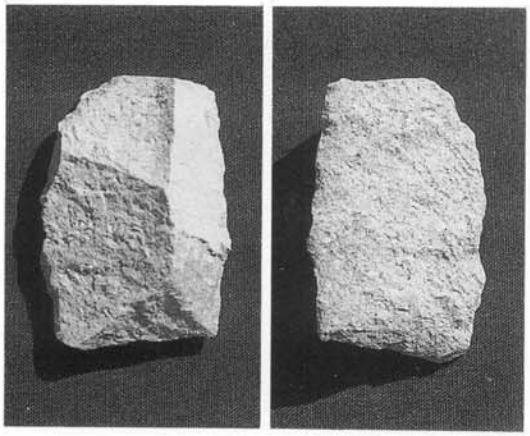


사진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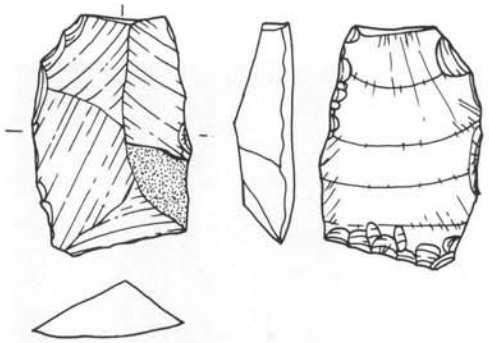


그림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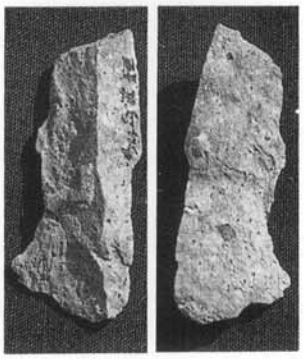


사진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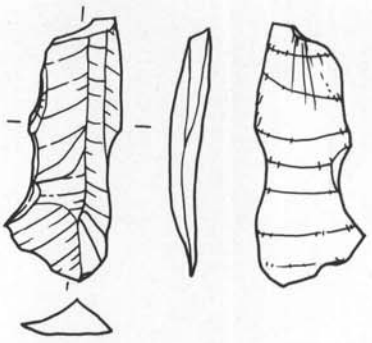


그림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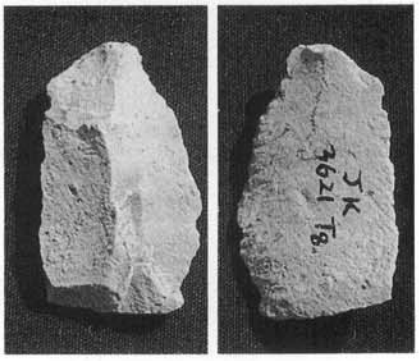


사진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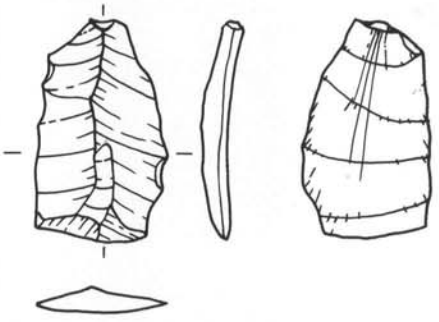


그림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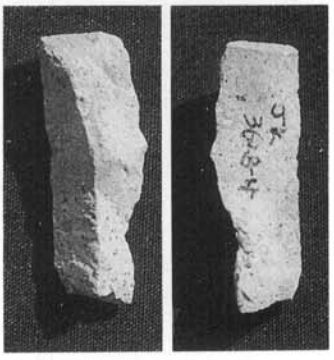


사진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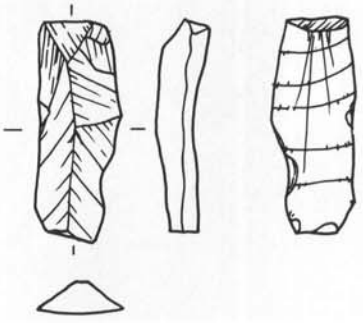


그림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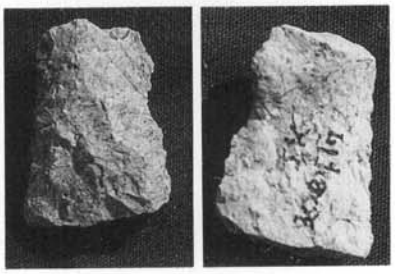


사진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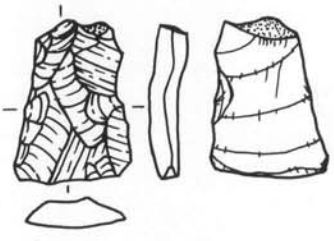


그림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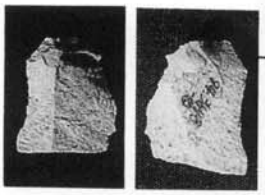


사진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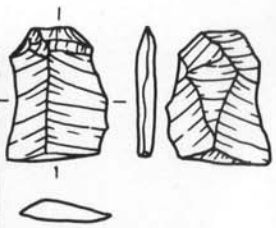


그림 83



사진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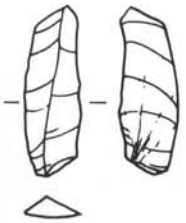


그림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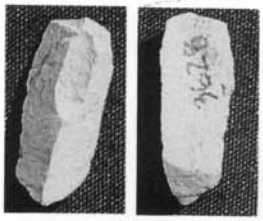


사진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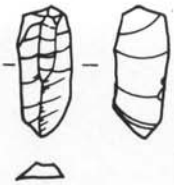


그림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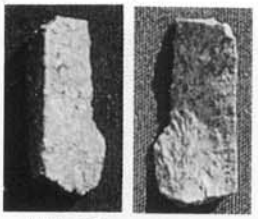


사진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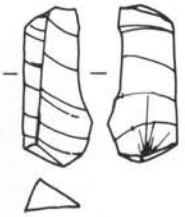


그림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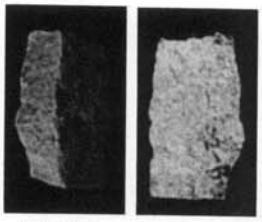


사진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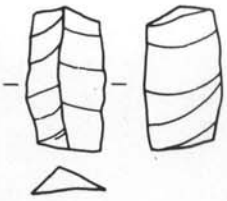


그림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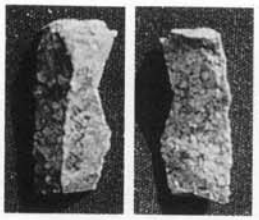


사진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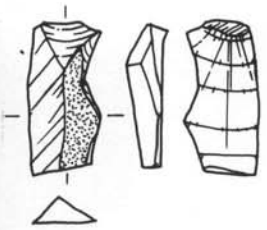


그림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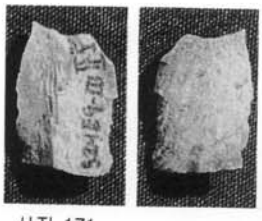


사진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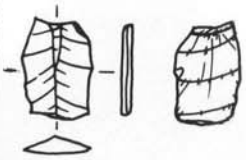


그림 89





172. 토기구연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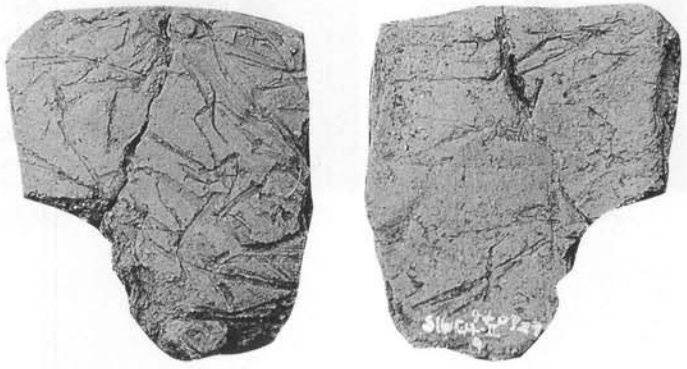


사진 173. 토기구연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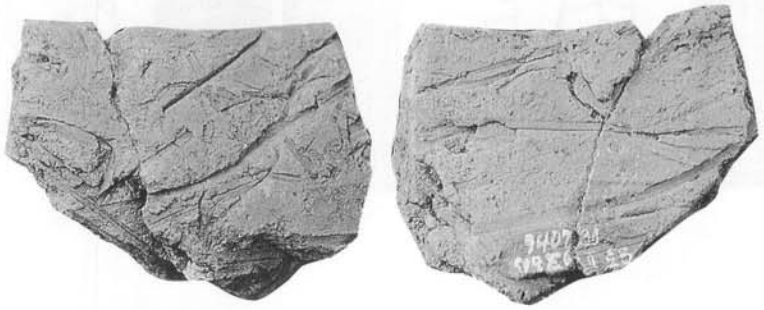


사진 174. 토기구연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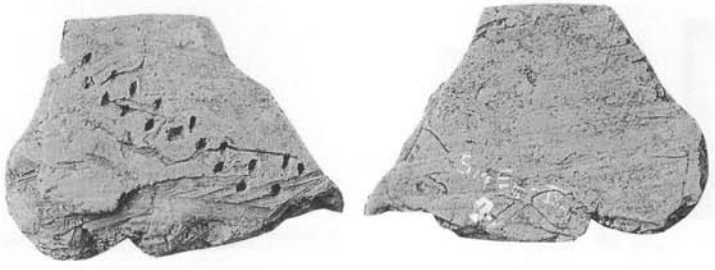


사진 175. 토기구연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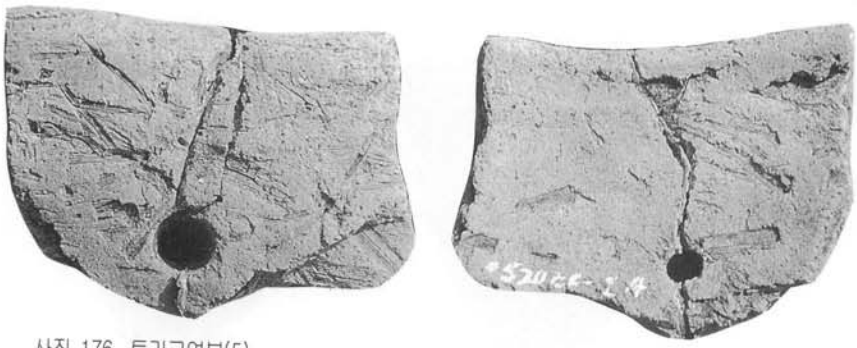


사진 176. 토기구연부(5)



사진 177. 토기구연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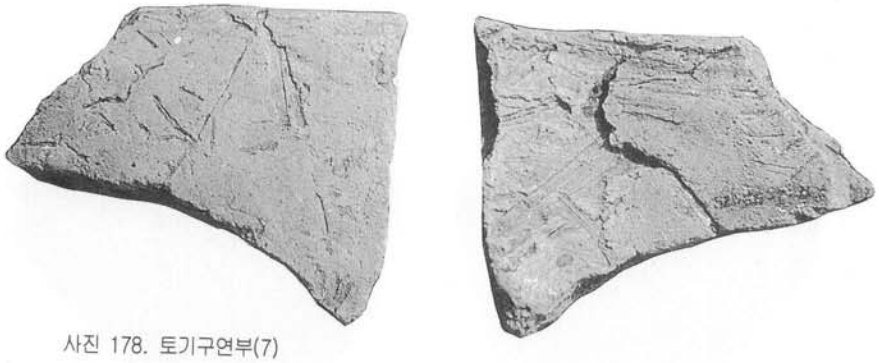


사진 178. 토기구연부(7)



사진 179. 토기구연부(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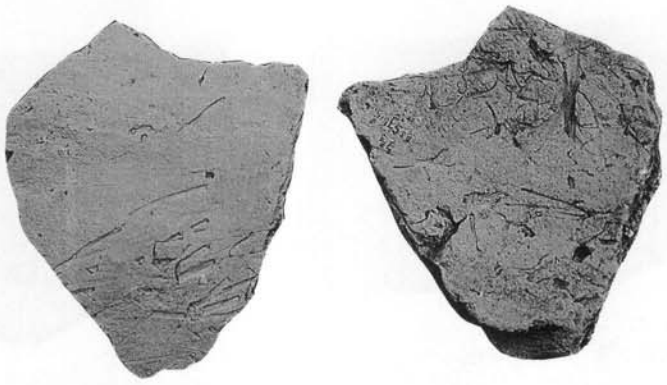


사진 180. 토기동체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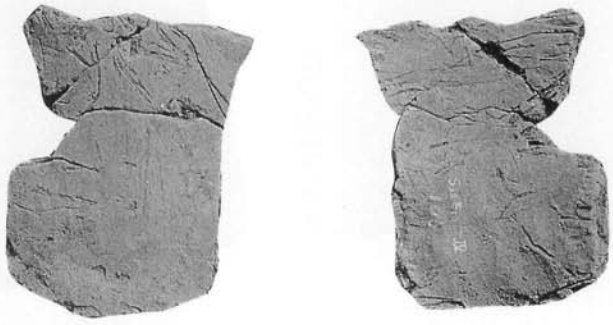


사진 181. 토기동체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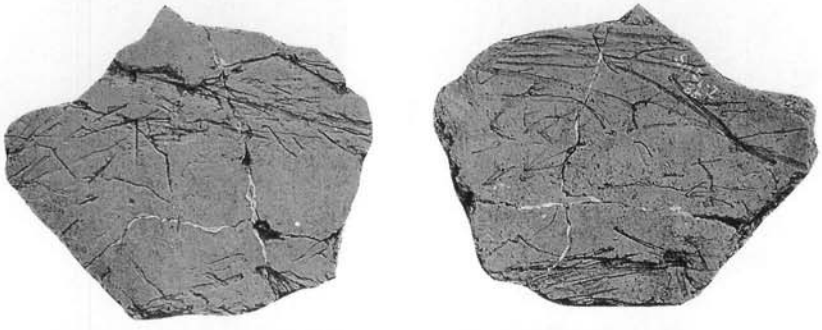


사진 182. 토기동체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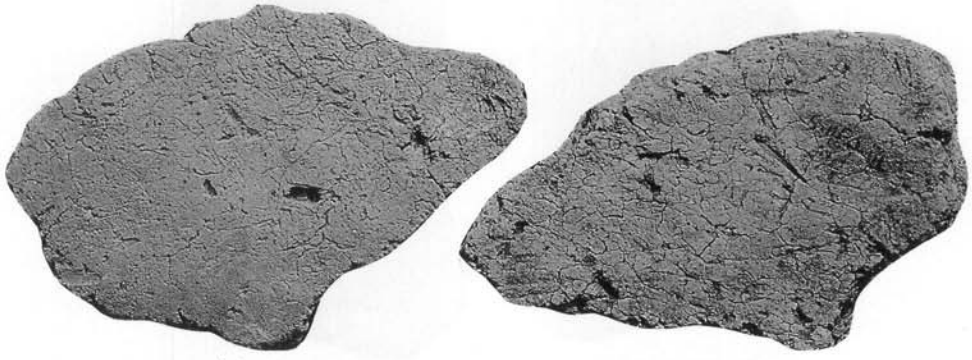


사진 183. 토기동체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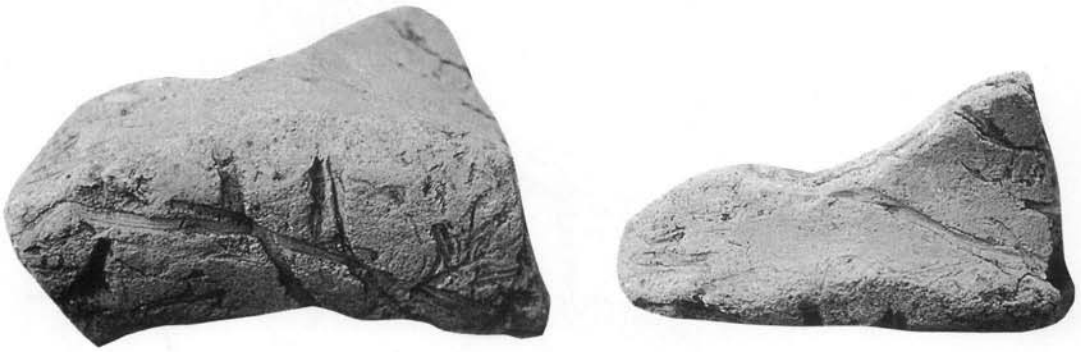


사진 184. 토기저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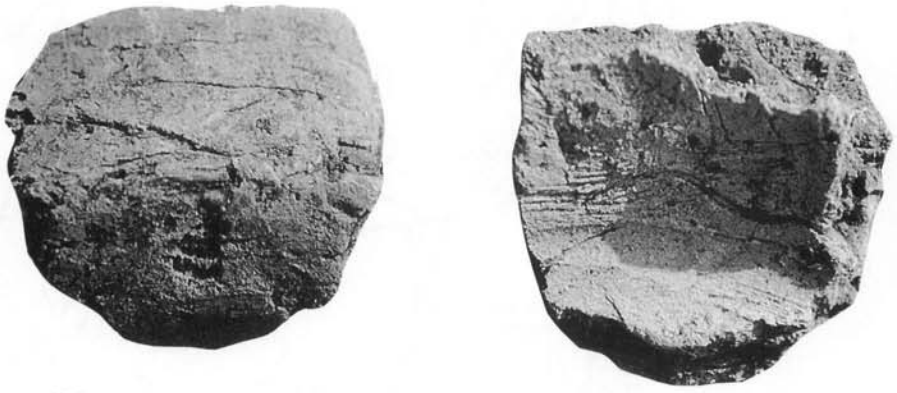


사진 185. 토기저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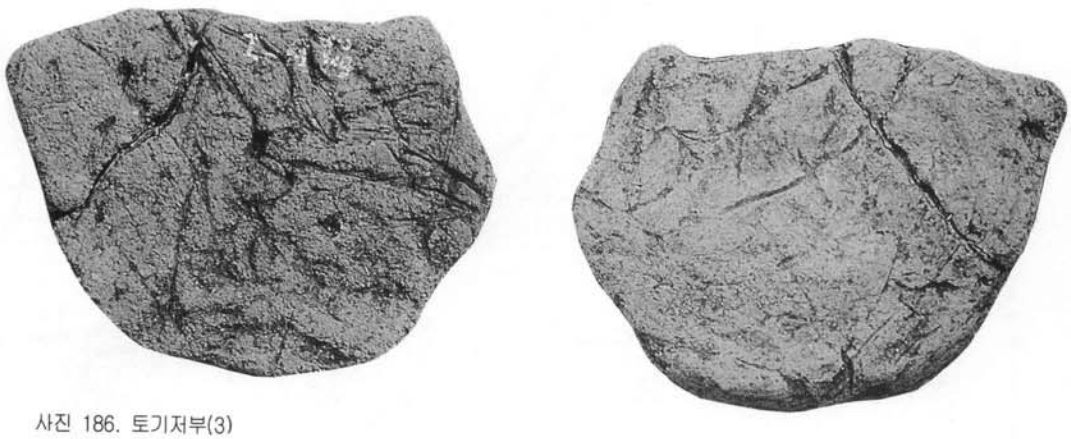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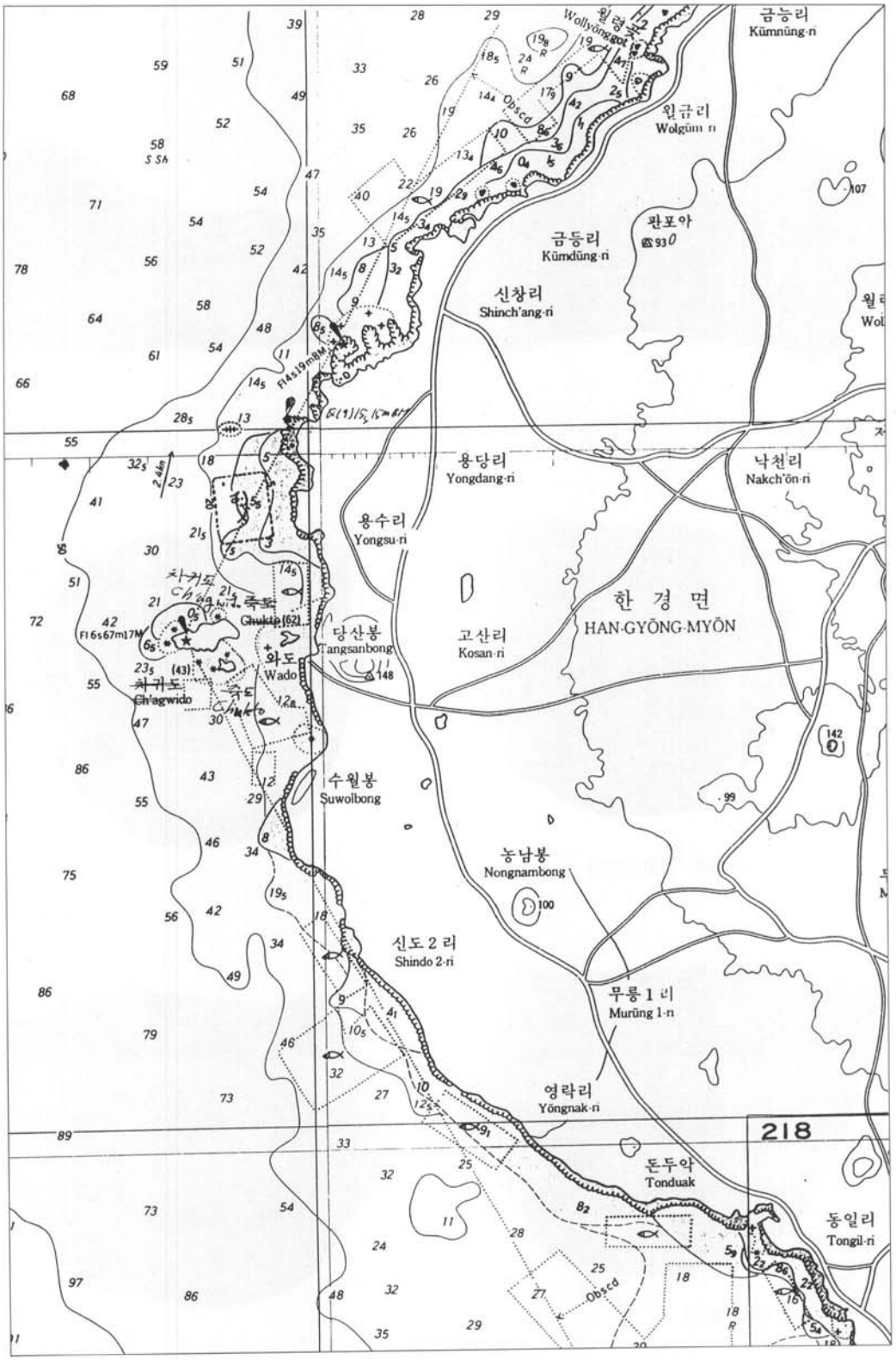


사진 186. 토기저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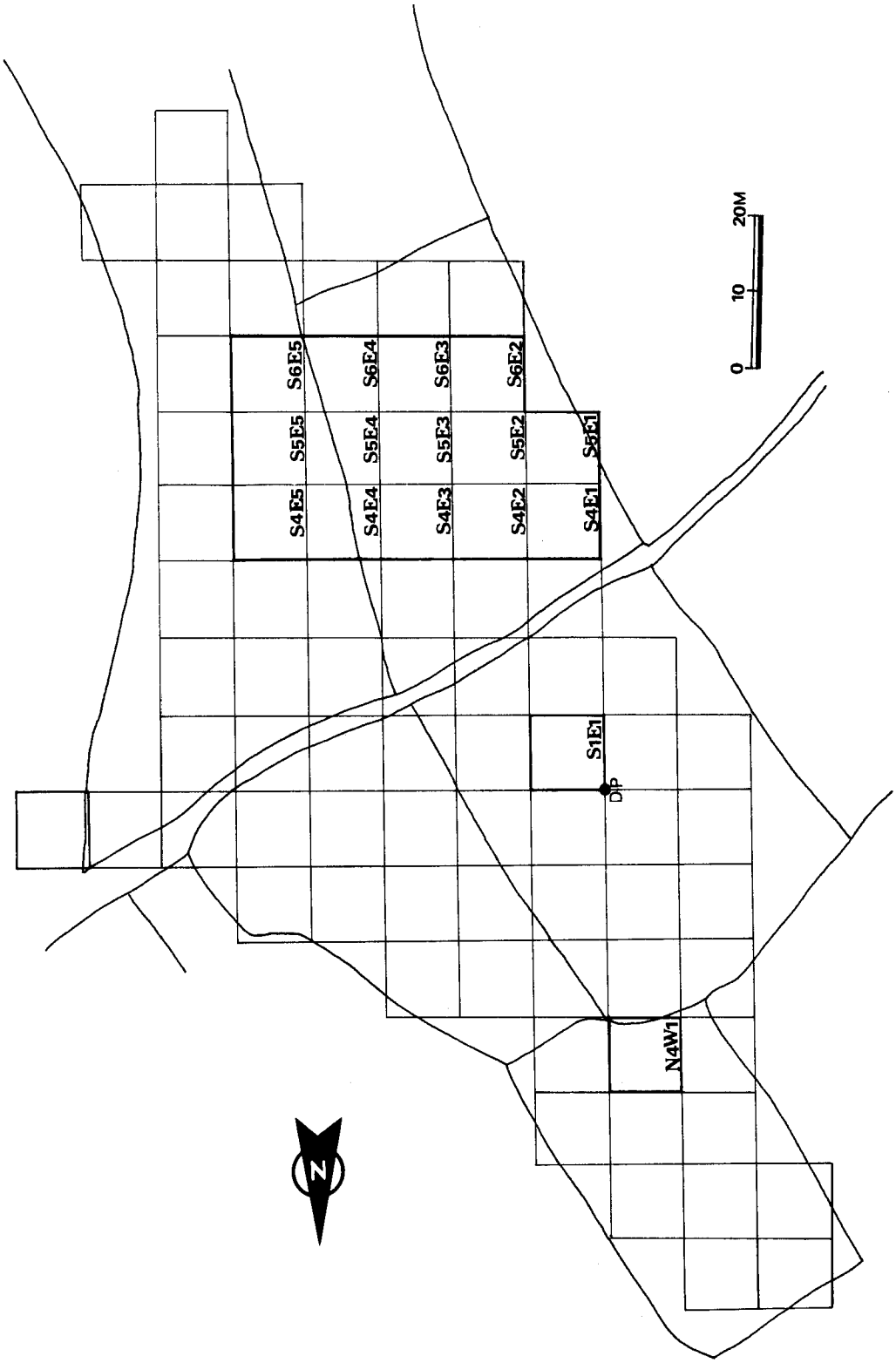


삽도 5. 고산리일대의 해수면

제 III 장

발 굴 조 사





삽도 6. 발굴조사 피트 구획도

1. 조사경과와 조사단 구성

1994년에는 자구내를 통과하는 해안도로 공사예정지에 대한 간략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389점의 석기와 2,758점의 석편, 50여 점의 토기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간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후기구석기말기에서 신석기초기문화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 유적으로 평가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유적은 유물분석·절대연대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적의 층위분석도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 경작에 의해 수십만점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그 원상이 나날이 파괴되고 있어, 유물집중구역에 한해 조사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번 조사팀의 단장은 당시 제주대박물관장이었던 고창석교수가 맡았고, 지도위원에 한병삼(문화재제3분과 위원장)·임효재(서울대 교수), 정영화(영남대 교수)·한영희(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조사위원에 이헌종(목포대 교수)·신숙정(서울대박물관 특별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현장조사의 책임은 이청규(영남대 교수)가 하였으며, 현장조사원으로 강창화(제주대박물관 학예연구원)·오연숙(한양대대학원생)·김경주(영남대 대학원생)·김종찬(목포대 대학원생) 등이 참가하였다.

2. 조사 방법

① 발굴지역은 지표조사시 유물의 출토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점에서 10×10m의 피트를 설정하여 유적의 층위 및 범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② 구획된 피트 중에서 S4E1을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에 위치한 S4E2, S4E3, S4E4, S5E1, S5E2, S5E3, S5E4, S6E2, S6E3, S6E4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③ 세분 피트는 각 층위별 유물 출토상황을 기록, 피트별 층위를 도면화하였다. 전체적으로 각 피트내에서 경작층을 제외한 흑갈색사질토층(Ⅰ층)과 흑색풍화토층(Ⅱ층)과 생토층(Ⅲ층)으로 된 자연층위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Ⅰ층

에서 Ⅱ층까지 확인되며, 특히 Ⅰ층과 Ⅱ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④ 부분적으로 테스트피트조사를 병행하였다. N4W1 피트에 길이 10×5m의 테스트피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층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피트마다 2.5×1m의 테스트피트를 넣어 층위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3. 층 위

전체 유적의 층위는 지표·시굴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단면을 통해 확인된다. 대체로 흑갈색부식토층(표토층)아래 흑색사질토층 - 암갈색풍화토층 - 황갈색점토층 - 화산쇄설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된 문화층은 흑색사질토층과 암갈색풍화토층으로 파악되었다. 해안절벽으로 갈수록 흑갈색부식토, 사질토층이 매우 두터워 그 두께가 무려 100㎝정도에 이른다.

이번 발굴대상지는 흑갈색부식토층이 완전히 사라지고 흑색사질토층의 두께도 20~30㎝정도로 매우 얇다. 따라서 문화층이 막바로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많은 유물들이 농경지 경작관계로 인해, 계속해서 문화층이 파괴되고 있다.

발굴지의 층위는 지표층 - 흑갈색사질토층(Ⅰ층) - 흑색부식토층(Ⅱ층) - 흑갈색화산풍화토층(Ⅲ층) - 황갈색점토층(Ⅳ층) - 화산쇄설퇴적층(Ⅴ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① Ⅰ층은 흑갈색점토와 미세한 사질이 함유된 층으로 강도가 단단하며 입자가 세밀한 층이다. 전체적으로 지표하 5~10㎝정도에서 나타난다. 이 층의 두께는 약 10~15㎝정도이다. 상당수의 유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 층에서 나타나는 석기는 석촉, 긁개, 뚜르개, 새기개, 세형몸돌, 돌날, 석편 등이 나오며, 토기유물은 원시형 토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 층은 최근의 경작으로 인해 교란되어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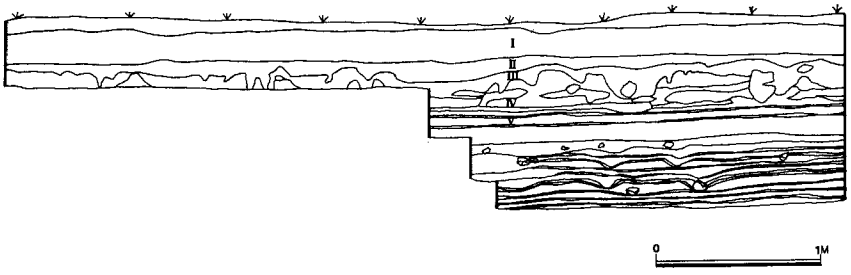
② Ⅱ층은 Ⅰ층에 비해 입자가 굉장히 성긴 부식토층으로 화산재가 섞여있다. 이 층은 지표하 15~20㎝정도에서 확인된다. 두께는 약 15~20㎝정도이다. 유물은 이 층의 상면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S4E1pit에서는 석기제작장이라 추정되는 곳으로, 대형석재와 많은 유물들이 집중 출토되었다.

③ Ⅲ층은 당시 사람들이 생활했던 노면으로 추정되는 층으로, 화산재층이 단단하게 다져져 생긴 층이다. 이 층에서는 유물의 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둥구멍으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확인되었다. 이 층은 토층이 잘 남아 있는 S4E1pit에서 지표하 30~35㎝정도로 나타나지만, 점차 아래

로 갈수록 지표하 10㎝에서 바로 나타난다. 출토되는 유물은 소량으로 대부분 석기제작시 떨어져 나간 석편들이 대부분이고 토기편도 소량 출토된다.

④ Ⅳ층은 토층구성에 있어 Ⅲ층과 전혀 다른 단단한 황갈색 점토층이다. 출토되는 유물은 없다. 층 상면은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있다.

⑤Ⅴ층은 화산쇄설물인 '송이'라고 불리우는 거친 현무암층이다. 이러한 현무암퇴적층은 2~3㎝두께의 수평층리들을 달리하는 퇴적물이 斜交하고 있다. 색깔이 각색이며 구성물도 조금씩 다르다. 이는 화산분출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삽도 7. 발굴조사 층위도

4. 유 구

유구는 기둥구멍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주공렬이 모여있는 곳과 완성형 석기와 수 백점의 석편이 밀집된 장소가 확인된다.

발굴지 동쪽 pit에서는 석촉·긁개·새기개·뚜르개·돌날·몸돌·원시무문토기와 공반하여 다량의 석편이 한 곳에서 집중 출토되고 있다.

발굴지 남쪽 pit에서는 생토층 바로 상면에서 기둥구멍으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확인되고 있다.

층위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층의 상황 : 각 피트에서 보이는 유물은 지표조사시 수습된 유물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눌러떼기 기법의 화살촉·긁개·새기개·뚜르개·돌날·돌날몸돌·원시형 토기가 동반하여 출토하고 있다. 이들 유물의 선후관계는 아직 확실치는 않으며, 일부 피트내에서는 생토층 바로 상면에서 기둥구멍으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확인되고 있다.

② 하층의 상황 : 발굴에서 확인되는 유구로는 주거지 기둥구멍으로 추정

되는 구멍들이 있다. 이들 주공은 S4E4, S5E4, S6E4 피트에서 확인되며 지표하 20~25cm 정도의 생토층 바로 상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지표층과 Ⅰ층(흑갈색사질토층)을 바로 제거하면서 확인되는데, 발견되는 피트는 다른 피트에서 보이는 Ⅱ층(흑색풍화층)이 보이지 않는 생토층 바닥에서 일부 확인된다.

주공들은 크기 20~30cm의 크기로 얕게는 3~4cm에서 깊게는 20~30cm의 깊이로 파고들어갔으며 구멍 안에는 흑색부식토가 채워져 있다. 아직 구멍들이 정열성은 보이지 않으나 S6E4피트에서 원형으로 돌아가는 구멍들이 확인된다.

원형주공유구의 깊이는 20~30cm, 폭 10~25cm이고, 구멍들의 간격을 통한 직경거리는 20~30cm이다. 이들 피트에서는 Ⅰ층과 Ⅱ층이 확인되는 피트까지는 유물의 양이 많으나 Ⅲ층으로 갈수록 그 수는 소량이다. 확인되는 유물은 종전의 종류와 유사한 눌러떼기수법의 석기류와 원시형 토기가 있다.

5. 출토 유물

아직 전체 발굴유물을 집계하지는 못했지만, 상층에서 출토된 유물만을 분류·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화살촉 600여 점, 긁개 30여 점, 찌르개 30여 점, 조각칼 7점, 뚜르개 4점, 홈날석기 4점, 톱니날석기 2점, 소형양면석기 10여 점, 자르개 4점, 가공흔석기 180여 점, 세형몸돌 30여 점, 돌날 470여 점, 석편 17,000여 점, 토기편 1,900여 점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성형석기, 세형돌날과 몸돌, 폐기석재인 박편·석편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물의 90% 이상은 석기제작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석편들이다.

가. 석기

1) 성형석기

2차가공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들로서, 가공위치나 잠정적인 기능에 따라 석촉, 찌르개, 긁개, 양면석기, 뚜르개, 새기개, 자르개, 가공흔석기, 화살대연마도구(矢柄磨硏石器)로 분류된다.

① 석촉(arrow point)은 길이가 3㎝내외의 것으로 횡단면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석기의 가공면은 양면 2차가공 흔적이 뚜렷하다. 전면 2차가공이 주류를 이루나 석기의 끝부분만 잔손질한 것도 있다.

석촉의 형태적인 속성은 전체적인 형태, 저변부의 형태, 기신부의 단면형태, 슴베부분의 형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산리석촉은 저변부의 형태에 따라 무경식, 유경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고산리에서 발견된 석촉은 유경촉이 무경촉보다 많은 양을 차지한다.

표 3. 97년 발굴조사 유물집계표

유물 \ pit		S1E1	S4E1	S4E2	S4E3	S4E4	S4E5	S5E1	S5E2	S5E3	S5E4	S5E5	S5E6	S6E2	S6E3	S6E4	S6E5	S6E6	S7E2	S7E6	S8E6	S9E6	합계
성형석기	석촉	141	24	112	66	12		21	128	60	9	11	3	65	21	7	3	1	1	3	2	1	691
	찌르개	7	1	3	4			2	10	4				6	2								39
	긁개	5		5				1	7	3				4	1	2		1					29
	새기개	1		2										1	3								7
	뚜르개			1	1				2														4
	자르개				1				3														4
	양면석기		1	2	1				9	1	1												15
	홈날석기				1				2					1									4
	톱니날석기											1		1									2
	돌날석기	2		1	2					1													6
	가공흔석기	23	7	55		6	1	20	35	7	1	2		14	7	2	2		1		1		184
세형몸돌	몸돌	8			5			1	8	1			2	5	2								32
	기술격지	2		4	3	1		1	3														14
	돌날		6	117	44	2	4	35	124	33	9	2	3	61	14	11			1	2	1	2	471
폐기석재	박편	2,970	395	2,673	1,521	189	101	809	3,389	1,700	311	188	74	1,335	801	305	159	26	100	155	111	91	17,403
토기	구연부	8	2	8	6	7		2	16	3				5	2								59
	동체부	311	83	398	189	66	4	144	344	134	4	1		166	49	21			1				1,915
	저부	3		2		3		1	2					1									12
합계		3,481	519	3,383	1,844	286	110	1,037	4,082	1,947	335	205	82	1,665	902	348	164	28	104	160	115	94	20,891

* 발굴조사 전에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수습한 유물의 양은 4000점 이상이다.(본문참고) 이 표는 발굴조사시 출토한 유물을 정리한 통계표이다. 이 중 폐기석재의 양은 실제 수 만점이 넘지만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집계표에는 실측이 된 유물만을 통계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수치보다 낮다.

우선 무경촉은 슴베부분이 없는 것을 말하며, 전체 형태는 삼각형이고, 중간부분의 횡단면은 삼각형에 가까운 능형과 렌즈형이 대부분이다. 유경촉은 슴베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단면은 대부분 렌즈형이 주류를 이룬다.

② 창끝(point)은 첨두부분 및 양쪽면에 잔손질했으며, 대부분 길이가 5㎝ 이내 것으로 대부분 폭에 비해 길이가 2배이상 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로 볼 때 木葉形, 三角形으로 양분되며 그 중에는 슴베가 달린 것도 있다.

③ 긁개(scraper)는 양면 2차가공이 아닌, 평면 2차가공으로 성형한 것이다. 따라서 작업날의 평면형태가 일정한 면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긁개는 작업날 부분에 따라 끝긁개(end-scraper), 한면긁개(side-scraper) 그리고 둥근긁개(round-scraper)로 구분된다. 그 중에는 1cm내외의 손톱형긁개도 있다.

④ 양면석기(biface)는 길이 3㎝미만의 소형석기와 5㎝이상되는 석기로 나누어진다. 대부분 소형양면석기이다. 이 석기의 하단부에는 양면 가공 흔적이 뚜렷하다.

⑤ 뚜르개(awl)는 드릴용으로, 이곳에서 발견되는 뚜르개의 대부분은 2차가공 흔적이 보이고 3개 이상이 능선의 각이 끝 부분에서 합일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⑥ 새기개(burin)은 돌날 또는 박편의 한쪽 끝에 타격을 서로 엇갈리게 해서 얻은 이면으로 된 조각날을 형성한 형태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수직이면 조각칼이나 직각이면 조각칼은 보이지 않는다.

⑦ 자르개(knife)는 길이 5cm 내외의 삼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대부분 한쪽면에 타격을 가하거나, 눌러떼기 수법으로 날을 만들었다. 다른 한면은 손잡이가 수월하게 직각형태를 하고 있다.

⑧ 가공흔석기는 일정한 가공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2차가공 흔적이 일부 배풀어져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 큰 석기들로 core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석기들은 대부분 석기제작과정에 있는 석기들로 파악된다.

⑨ 시병연마석기는 화살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기이다. 주로 초지나 늪지의 대나무과(갈대)에 속하는 나무를 화살대로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도구는 화살대의 거친면을 갈면서 패인 홈이 보인다.

2) 세형돌날과 몸돌

① 돌날(blade)은 간접떼기인 돌날떼기에 의하여 떼어내진 것으로 길이가 너비의 2배가 되는 것들이다. 이곳의 돌날은 단면이 삼각형에 가깝고, 좌우 대

칭되어 평행한 형태를 하고 있다. 고산리 출토 돌날은 대부분 2.5㎝를 넘지 않는 세형돌날이다.

② 세형돌날몸돌(micro blade core)은 돌날을 떼어내기 위한 몸돌을 말한다. 대체로 고산리 돌날 몸돌의 제작기법은 타격면과 타격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사용하고 양면떼기로 작은 배모양의 형태를 만든 뒤 몸돌을 얻는 형식과 공기돌을 반드시 쪼개어 둥글게 격지를 떼어낸 다음, 아주 작은 돌날을 얻는 방식 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몸돌의 복원 크기는 길이 5㎝이상이 거의 없으며 맨 처음 떨어져 나간 기술격지도 길이 2㎝정도이다.

3) 폐기석재

폐기석재란 석기를 만들 때에 본래의 의도된 성형석기 외에 폐기되는 석재를 말한다. 이 석재는 인위적인 흔적이 없거나 2차가공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석편들을 말하지만 실제 사용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석재는 박편·석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고산리에서 발견되는 박편(flake)은 크게 석기제작을 위한 재료로 사용된 비교적 큰편에 속하는 박편과 잔손질로 인해 떨어져 나간 박편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산리 출토 박편들은 비교적 소형으로 크기가 3㎝내외의 것이 대부분이다. 박편은 박리면의 형상에 따라 폭에 비해 길이가 큰 박편과 폭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작은 박편으로도 세분된다.

② 석편(spall)은 아무런 2차가공 흔적이 없는 것들로서, 석기를 제작할 때 박편과 함께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나. 토기

고산리 출토 토기는 모두 비짐상태가 대부분 엉성한 원시형 토기이다. 이 토기는 토기전면에 그은 것이라기 보다는, 가는 풀잎이나 식물 줄기 같은 것을 넣어 성형한 것들이다. 즉, 이러한 식물이 불에 타 없어지면서 빠져나간 흔적이 뚜렷한 토기들로, 이는 사질점토와 식물태토보강제를 혼합한 토기라고 볼 수 있다. 기형은 평저의 직립구연이나 약간 내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구순부가 밖으로 돌출된 형태도 확인된다. 아직 기형이 완전하게 복원된 토기는 없지만 그릇의 높이가 20cm정도인 발형토기, 혹은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6. 조사 의의

6.1 이 유적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석기초기문화(고신석기시대)의 형성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시작은 과거 만주·시베리아 지역과 토기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서 설명되어 왔을 뿐,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동일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 가능성이 있는 신석기초기문화와 후기구석기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접근되지가 않았다. 고산리의 유물조합상은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여명기, 즉 후기구석기말기문화와 신석기초기문화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파악된다.

6.2 이 유적은 纖維質土器와 함께 수 천점의 成形石器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토기와 관련된 석기조합상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신석기유적의 거의 전부가 토기유물을 주종으로 한다. 자연히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는 토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여서 토기형식의 분류와 변천, 그리고 지역성에 관한 연구가 주된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석기의 형식분류와 변천은 물론 그 제작기술과 용도 등을 통하여 당시 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고산리 유물자료는 토기와 공반하여 후기구석기의 발전된 눌러떼기수법과 세형돌날석기가 계속 잔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연구에서 석기문화에 중점을 두는 연구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6.3 이 유적에서 확인되는 각종 細石器·원시형 토기(纖維質土器)·隆起文土器의 조합상은 시베리아·연해주·만주·일본·한반도일대를 포함하는 동북아 신석기시대 초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비교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고산리석기 제작방식인 눌러떼기수법의 석기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석기들이다. 일본열도는 繩文時代草創期에 세석기와 공반하여 토기가 등장하고 있다. 시베리아·연해주 일대에서도 古土器時代(土器出現期)에 이미 토기와 세석기가 공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주변지역보다 한반도가 늦게 토기가 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아직 절대연대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산리 유물조합의 출현시기는 동북아 전체의 신석기초기의 세석기와 토기공반상을 비교해 볼 때 주변지역의 시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진 187. 발굴지 전체 전경



사진 188. 발굴지 원경



사진 189. 발굴지 근경



사진 190. 발굴지 근경



사진 191. 발굴모습(1)



사진 192. 발굴모습(2)



사진 193. 발굴모습(3)



194



195



196



197



198



199

사진 194. 발굴과정(1)
사진 195. 발굴과정(2)
사진 196. 발굴과정(3)
사진 197. 발굴과정(4)
사진 198. 발굴과정(5)
사진 199. 발굴과정(6)



200



201



202



203



204



205

사진 200. 발굴과정(7)
사진 201. 발굴과정(8)
사진 202. 발굴과정(9)
사진 203. 발굴과정(10)
사진 204. 발굴과정(11)
사진 205. 발굴과정(12)



사진 206. S4E2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1)



사진 207. S4E2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2)



사진 208. S4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3)



사진 209. S5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4)



사진 210. S6E2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5)



사진 211. S5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6)



사진 212. S5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7)



사진 213. S4E2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8)



사진 214. S5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9)



사진 215. S4E1 Pit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10)



사진 216. S4E1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11)



사진 217. S4E1 지표층 유물 출토상태(12)



사진 218. S4E1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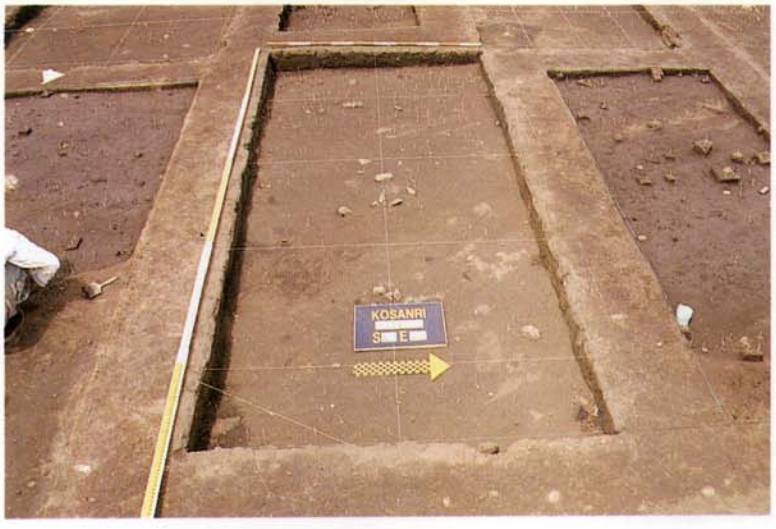


사진 219. S4E1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2)



사진 220. S4E2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3)



사진 221. S4E1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4)



사진 222. S4E1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5)



사진 223. S5E2 Pit Ⅰ층 유물 출토상태(6)



사진 224. S4E1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1)



사진 225. S5E1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2)



사진 226. S4E2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3)



사진 227. S4E1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4)



사진 228. S4E1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5)



사진 229. S4E1 Pit Ⅱ층 유물 분포상태(6)



사진 230. S4E1 Pit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1)



사진 231. S4E1 Pit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2)



사진 232. S4E1 Pit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3)



사진 233.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4)



사진 234.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5)



사진 235.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6)



사진 236.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7)



사진 237. S4E1 Pit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8)



사진 238. 3층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9)



사진 239. S6E3 Pit Ⅲ층 상면
유물 분포상태(1)



사진 240.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2)



사진 241. S4E1 Pit Ⅲ층 유물
분포상태(3)



사진 242. S4E5 pit 4층 노출상태



사진 243. S4E1 Pit 바닥층
노출상태(1)



사진 244. 동쪽 Pit 생토층과
쟁기자국 노출상태(2)



사진 245. S4E2 Test-Pit 층위



사진 246. S4E2 Test-Pit 층위



사진 247. S4E1 Pit 층위



사진 248. N4W1 pit 토층조사



사진 249. N4W1 pit 토층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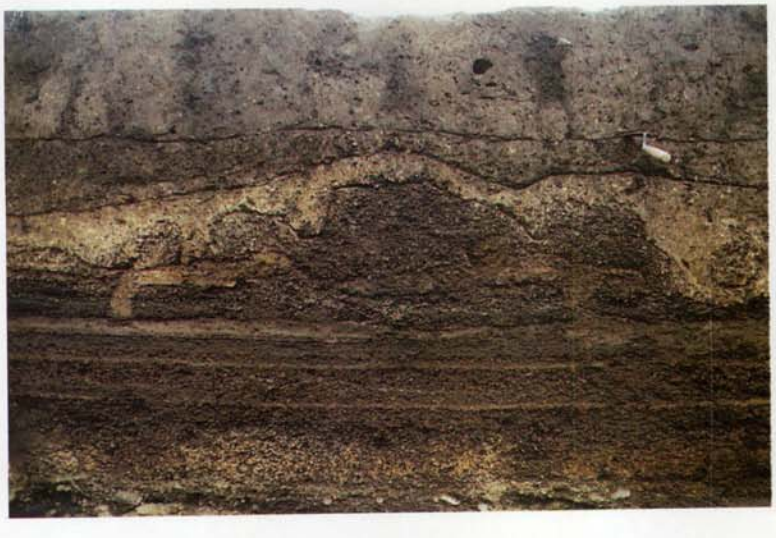


사진 250. N4W1 pit 토층단면(세부)



사진 251. 발굴 Pit 전체 노출상태(원경)



사진 252. 발굴 Pit 전체 노출상태(서에서)



사진 253. 발굴 Pit 전체 노출상태(동에서)



사진 254. S6E2 Pit 기둥구멍 노출상태(전체)



사진 255. S6E2 · S5E3 Pit 내부 기둥구멍(1)



사진 256. S6E3 Pit 내부 기둥구멍(2) 원경



사진 257. S6E3 Pit 내부 기둥구멍(3)



사진 258. S6E3 Pit 내부 기둥구멍(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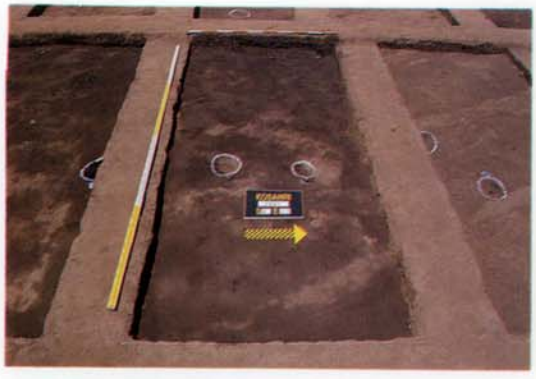


사진 259. S6E3-6 Pit 내부 기둥구멍(5)



사진 260. Pit 내부 기둥구멍(6)



사진 261. Pit 내부 기둥구멍 배치상태



사진 262. S6E2-4 Pit 내부 기둥구멍(7)



사진 263. S6E3-8 Pit 내부 기둥구멍(8)



사진 264. S6E3-5 Pit 내부 기둥구멍(9)



사진 265. S4E4-4 Pit 내부 기둥구멍(10)



사진 266. S5E3-2 구덩이 노출상태



사진 267. S5E4-1 Pit 내부 구덩이(1)



사진 268. S4E4-7 Pit 내부 구덩이(2)



사진 269. S1E1 Pit 내부 적석시설



사진 270. 유물 출토상태(1)



사진 271. 유물 출토상태(2)



사진 272. 유물 출토상태(3)



사진 273. 유물 출토상태(4)



274



275



276



277



278



279

사진 274. 돌날석기 출토상태(1)
사진 275. 몸돌 출토상태(2)
사진 276. 양면석기 출토상태(3)
사진 277. 긁개 출토상태(4)
사진 278. 양면석기 출토상태
사진 279. 석촉 출토상태



사진 280. 유물 출토상태(1)



사진 281. 유물 출토상태(2)



사진 282. 유물 출토상태(3)



사진 283. 유물 출토상태(4)



사진 284. 석촉 출토상태(1)



사진 285. 석촉 출토상태(2)



사진 286. 화살대 마연석기



사진 287. 긁개 출토상태



사진 288. 시굴조사(1994) 출토유물 일괄



사진 289-1. 원시형토기



사진 289-2. 원시형토기



사진 290. 융기문토기



사진 291. 망치돌



사진 292. 돌날



사진 293. 긁개



사진 294. 긁개



사진 295. 발굴조사(1997) 출토유물 일괄



사진 296. 원시형토기



사진 297. 석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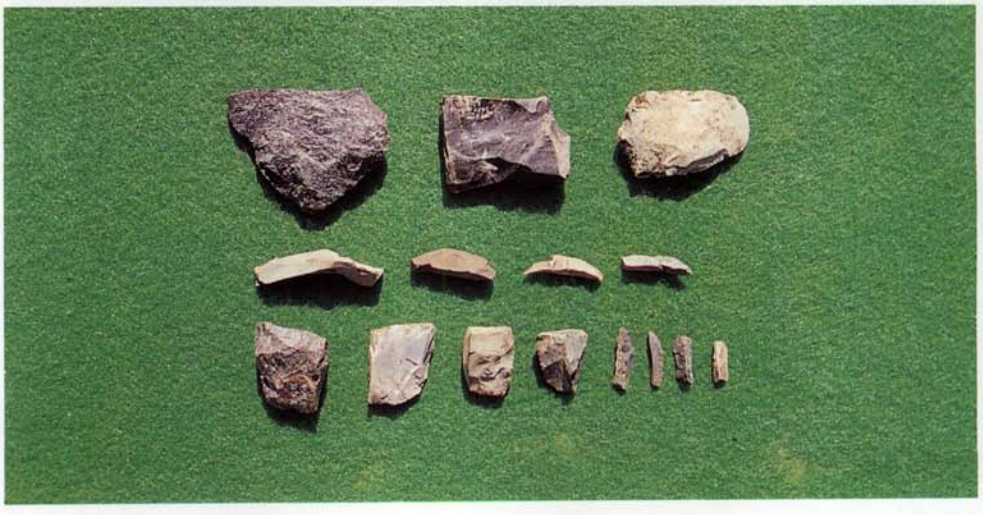


사진 298. 몸돌과 돌날



사진 299. 긁개



사진 300. 뚜르개 · 새기개



사진 301. 공이 · 연마석기



사진 302. 찌르개



사진 303. 출토유물 정리작업



사진 304. 석기제작 실습(정영화교수)



사진 305. 현장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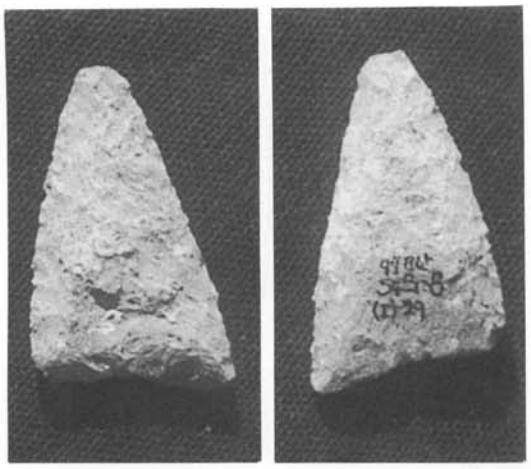


사진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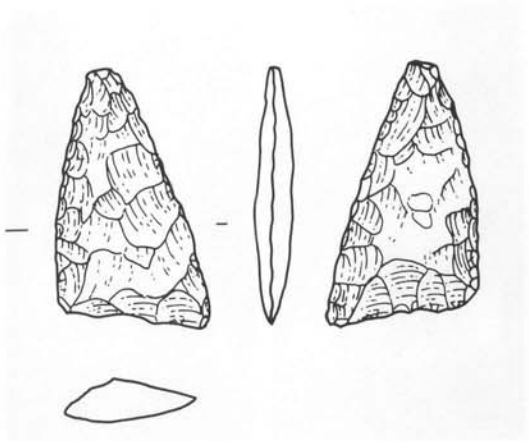


그림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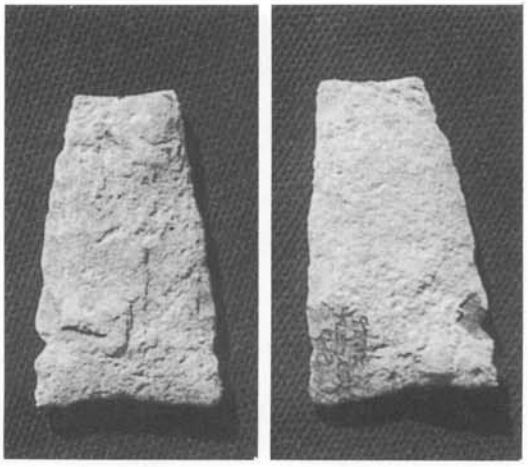


사진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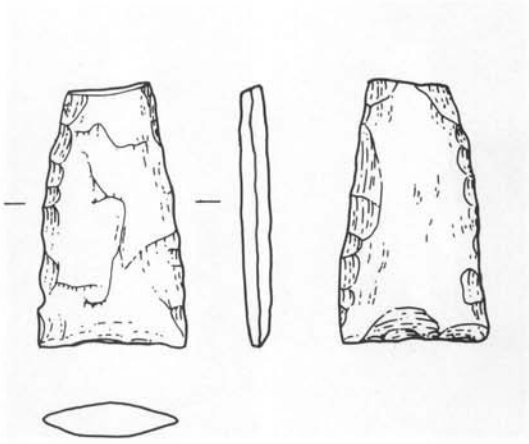


그림 91



사진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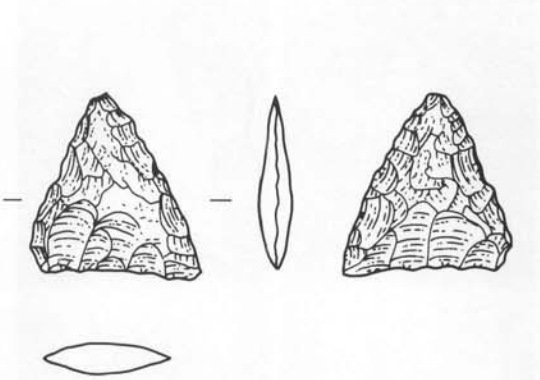


그림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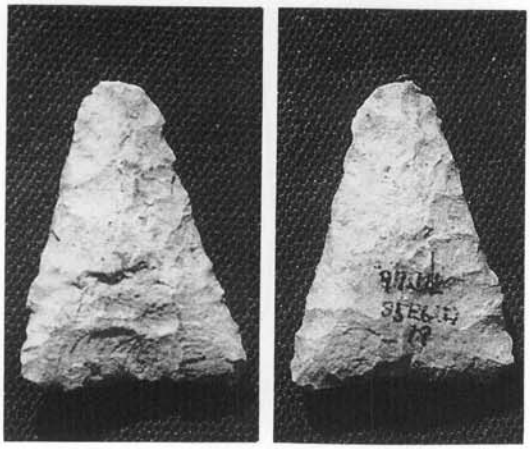


사진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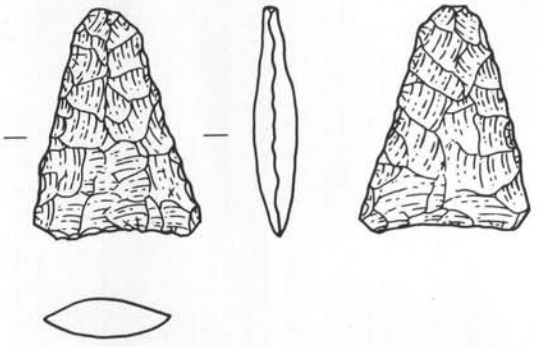


그림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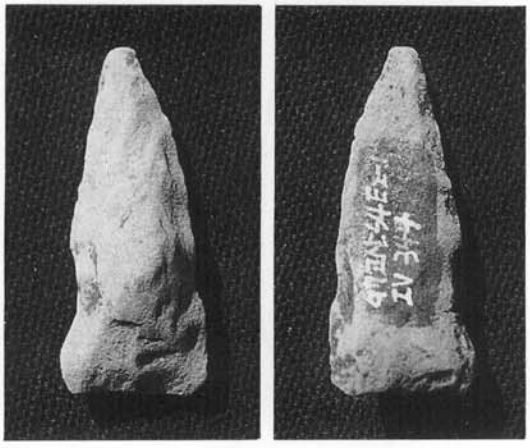


사진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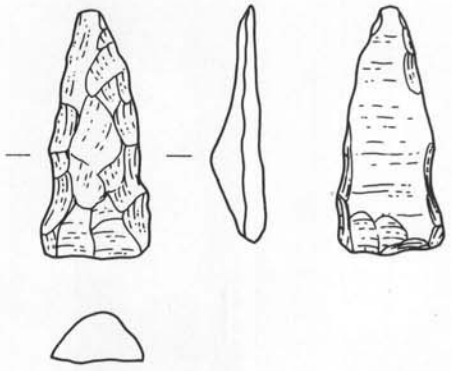


그림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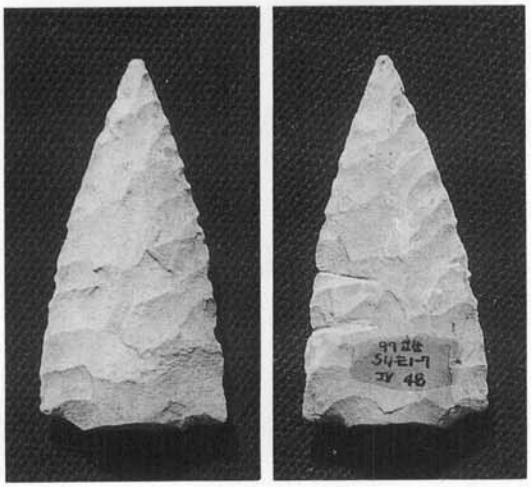


사진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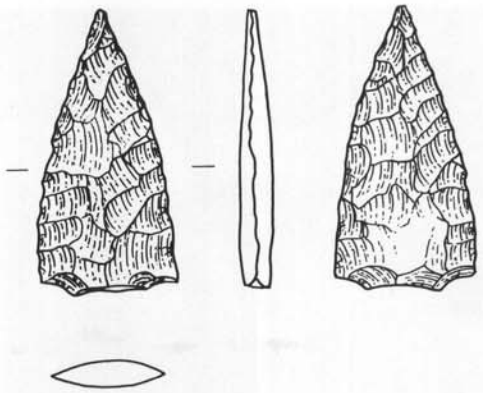


그림 95

0 1 2 3 4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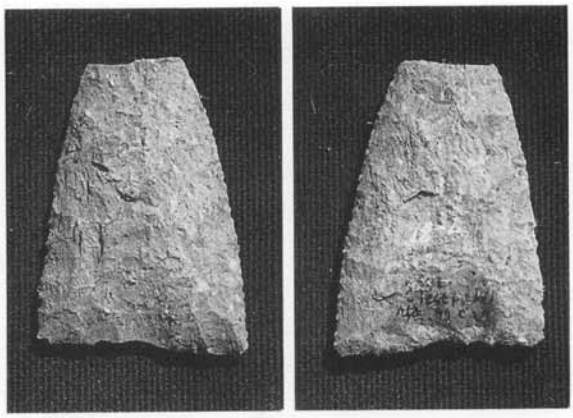


사진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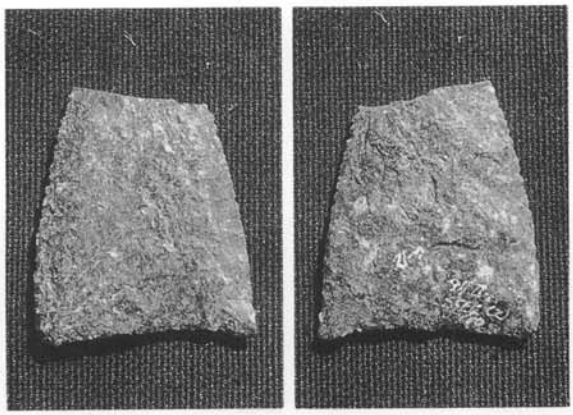


사진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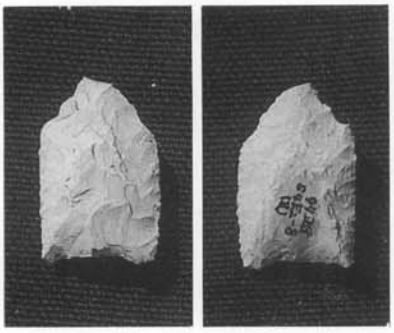


사진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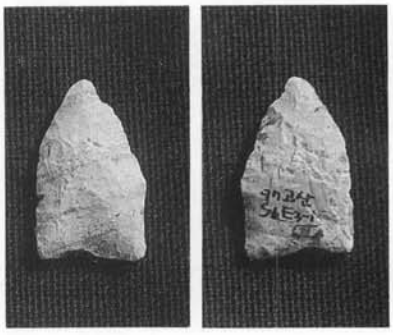


사진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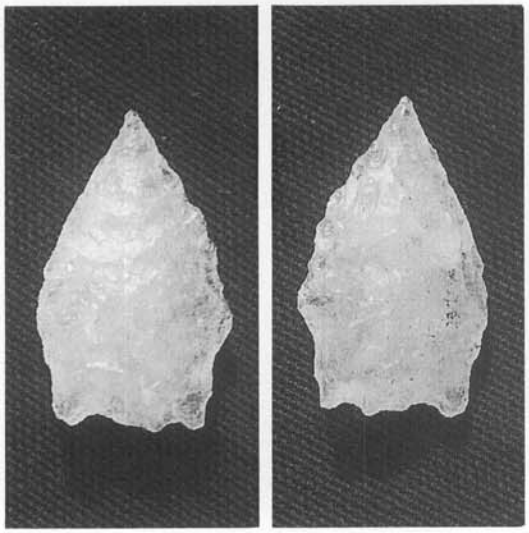


사진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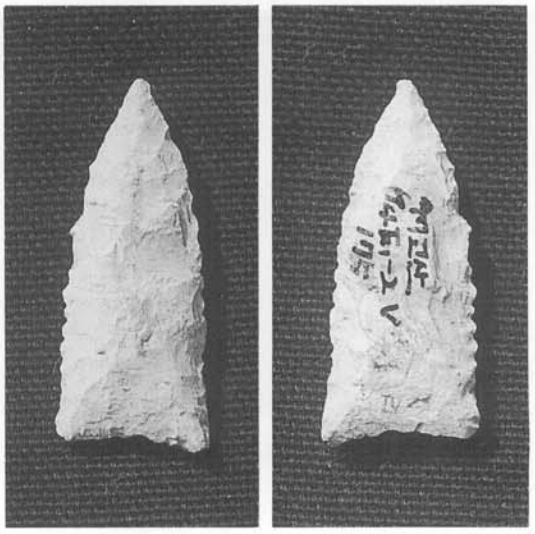


사진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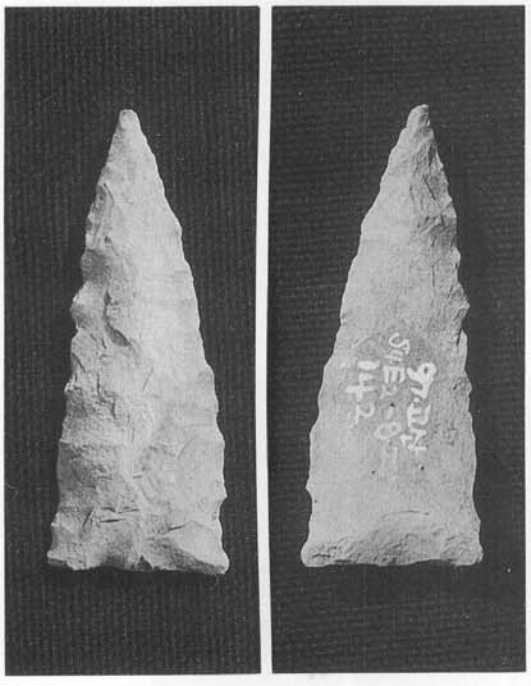


사진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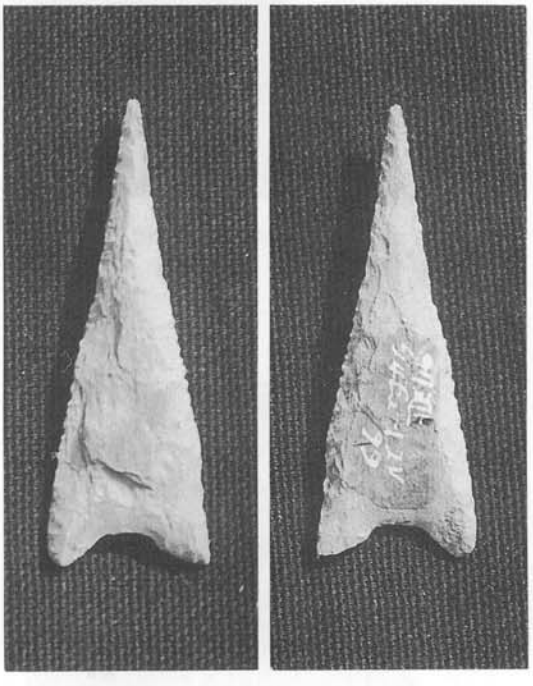


사진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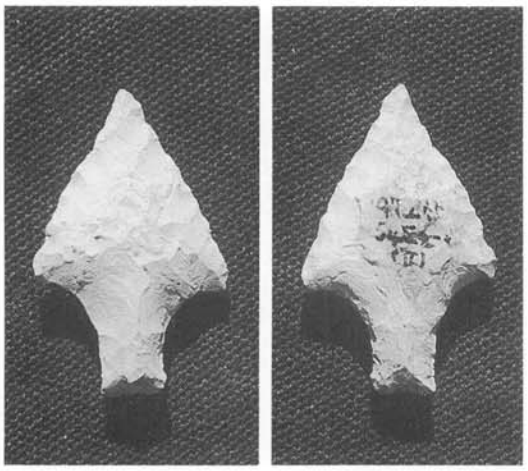


사진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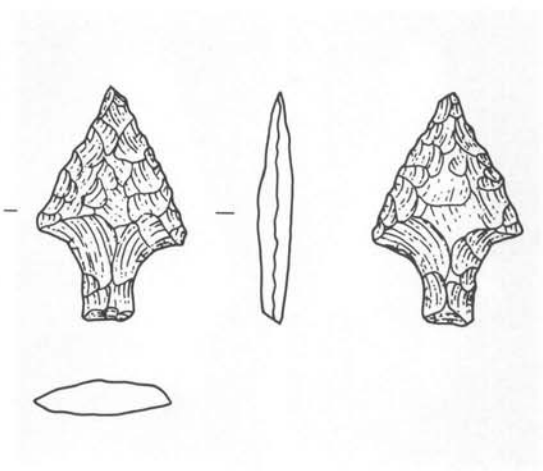


그림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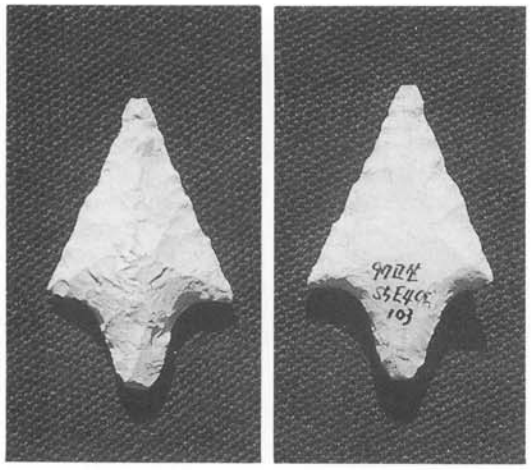


사진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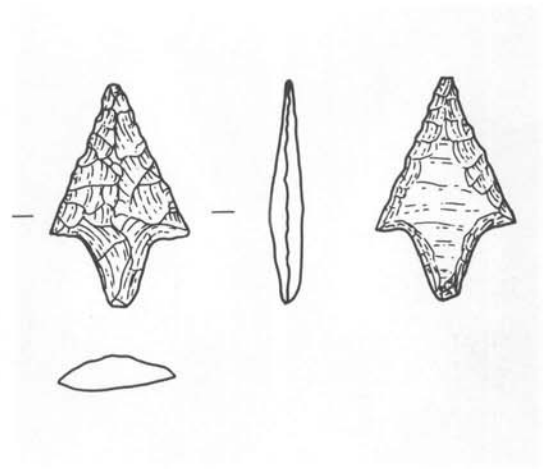


그림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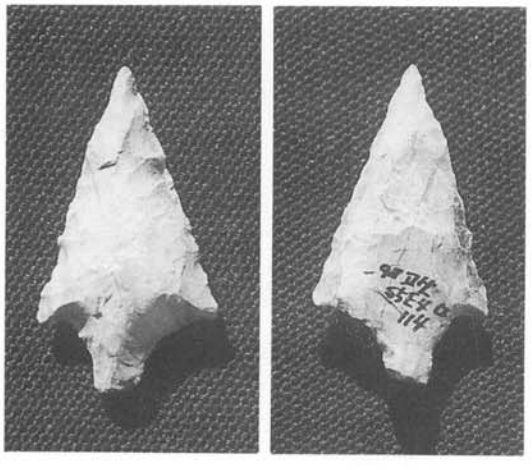


사진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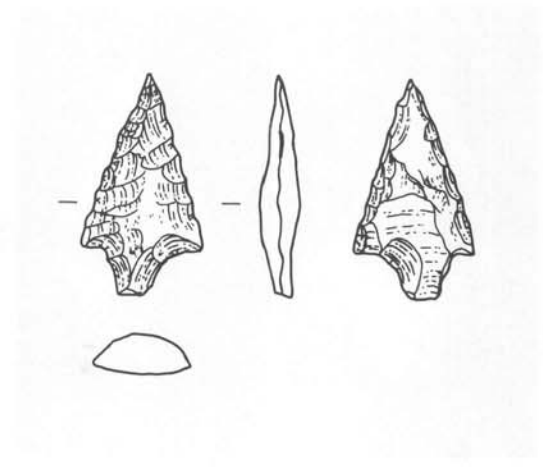


그림 98

0 1 2 3 4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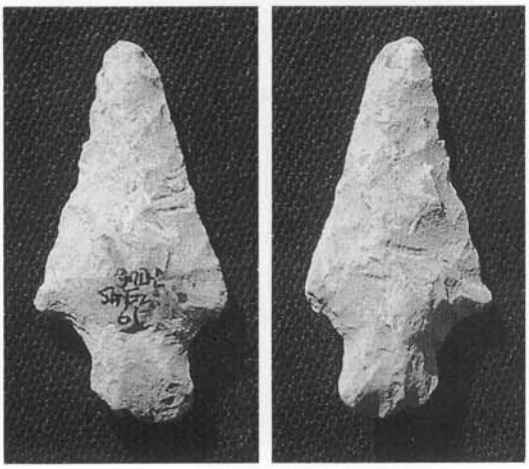


사진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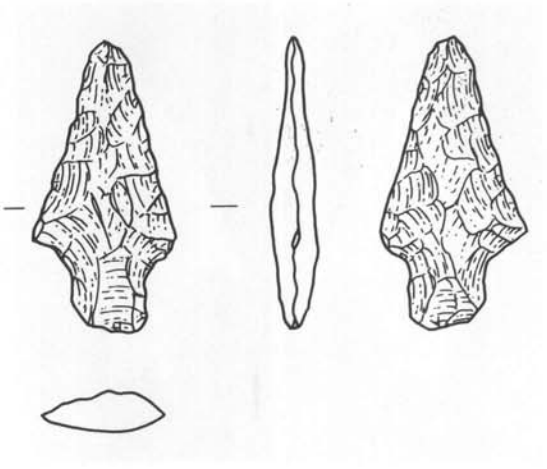


그림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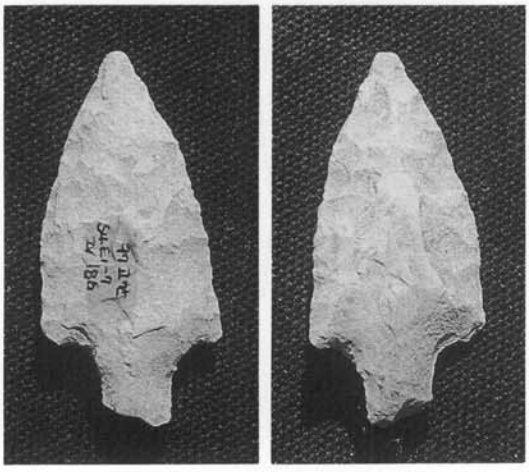


사진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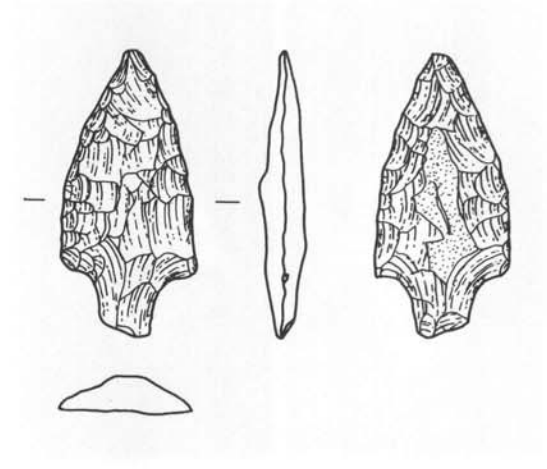


그림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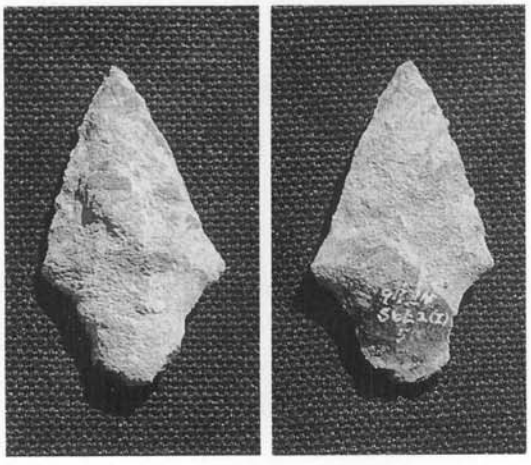


사진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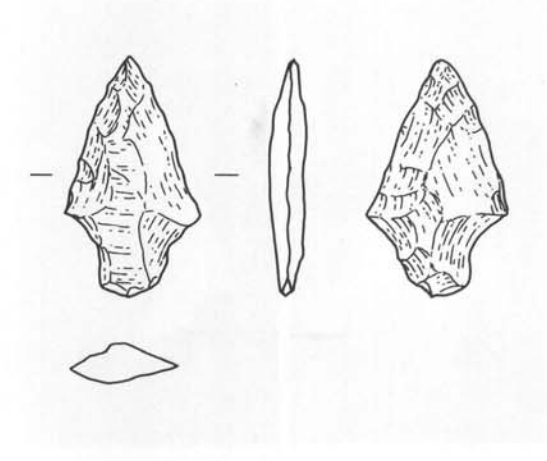


그림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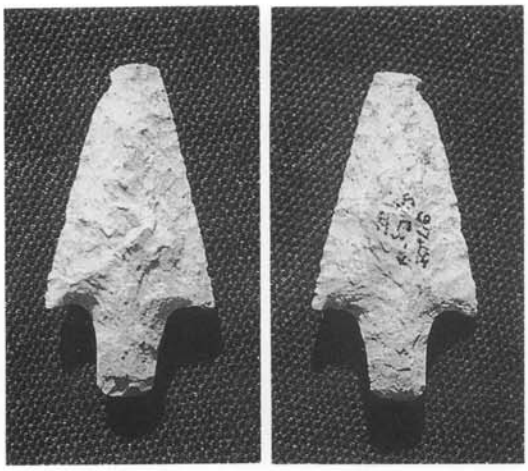


사진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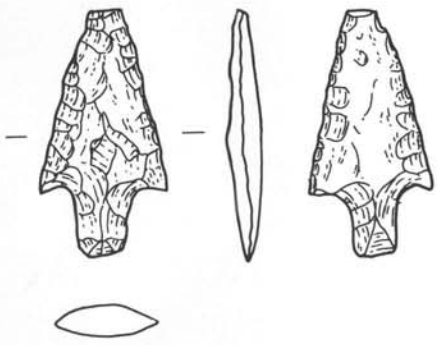


그림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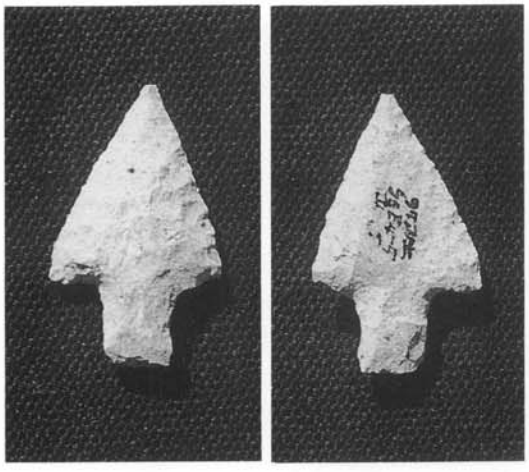


사진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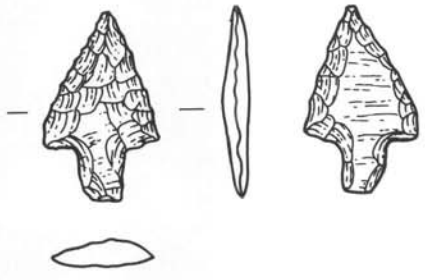


그림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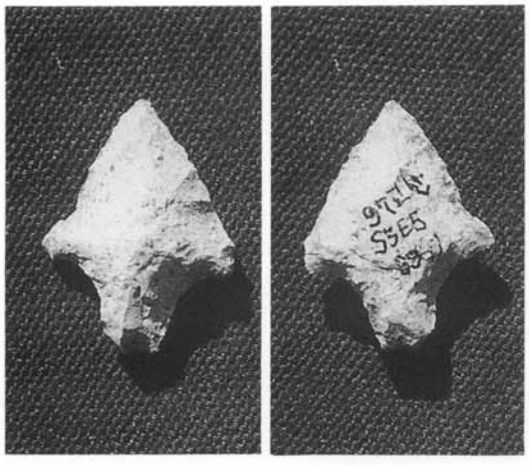


사진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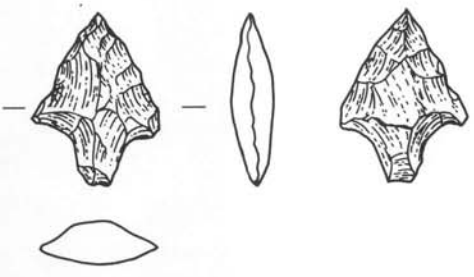


그림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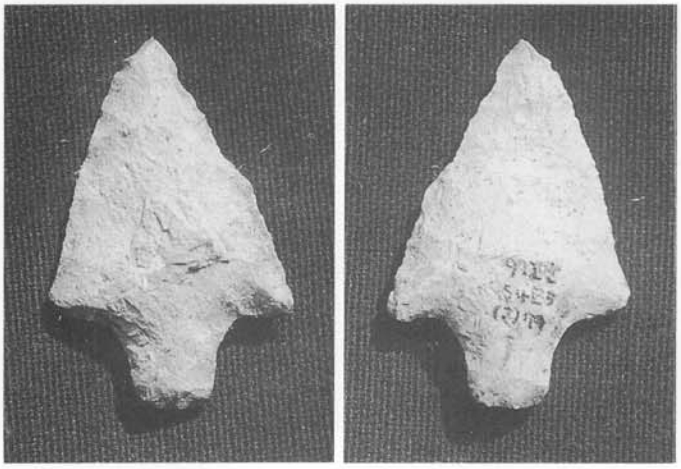


사진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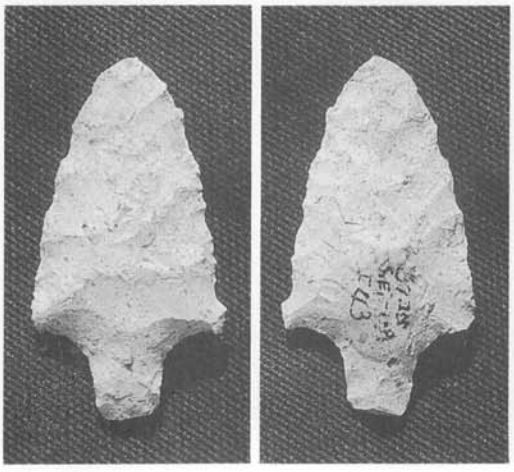


사진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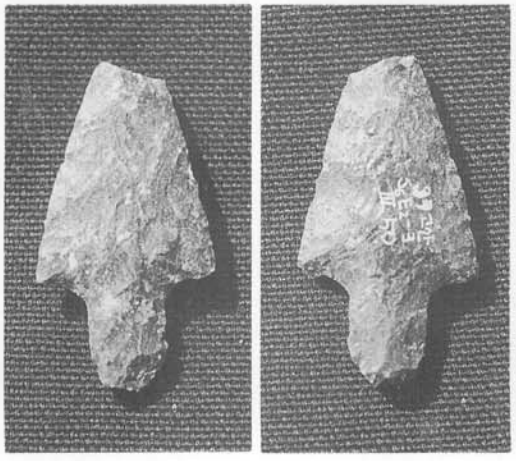


사진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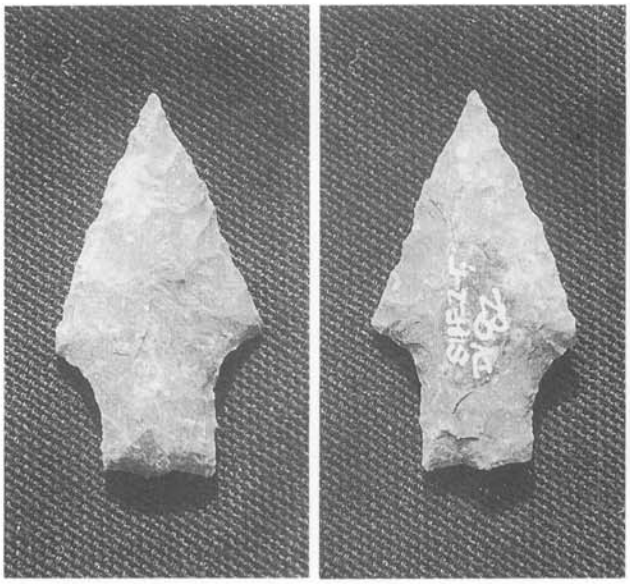


사진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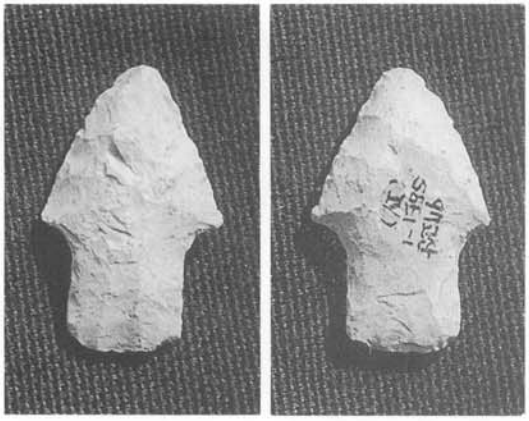


사진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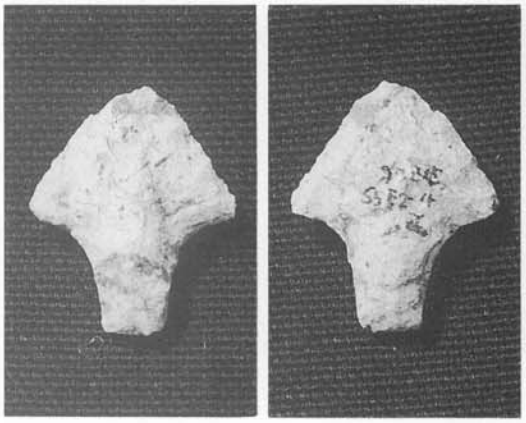


사진 334



사진 335



사진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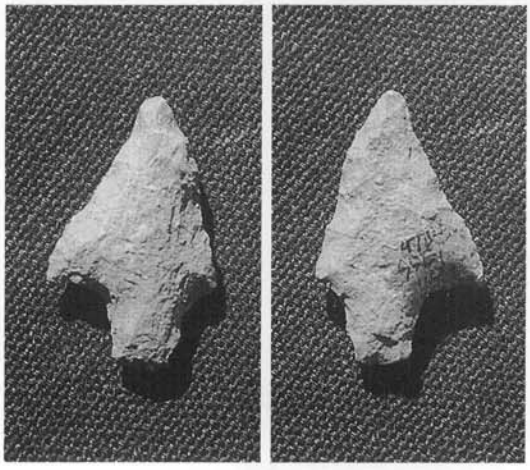


사진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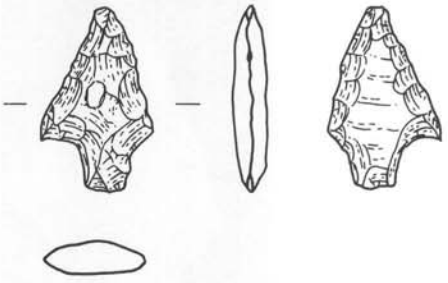


그림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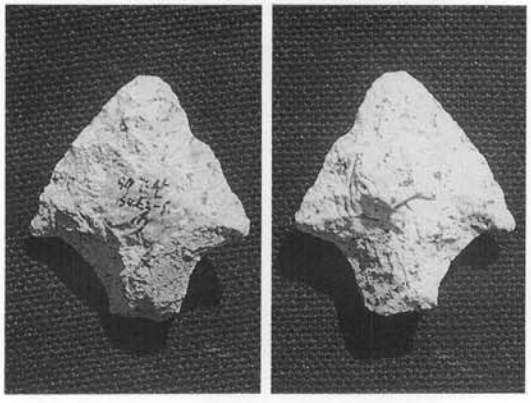


사진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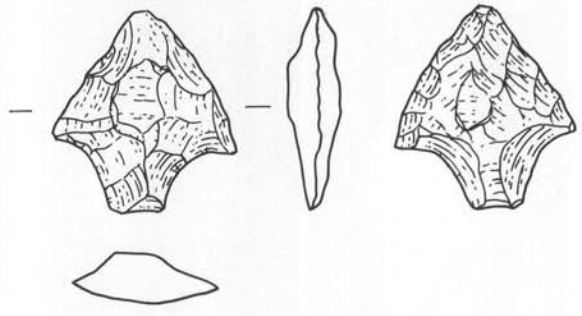


그림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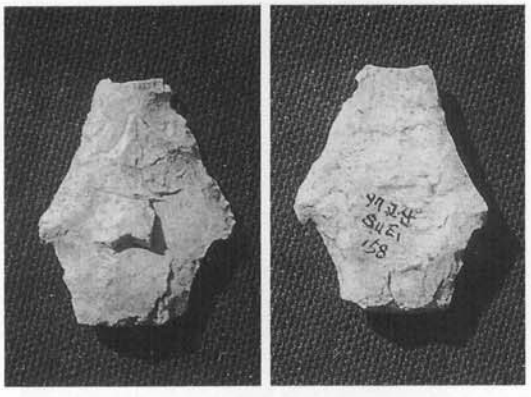


사진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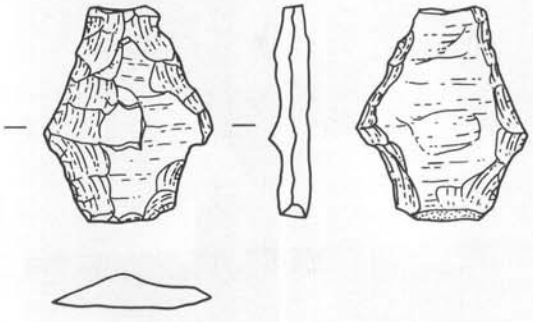


그림 107

0 1 2 3 4 5CM



사진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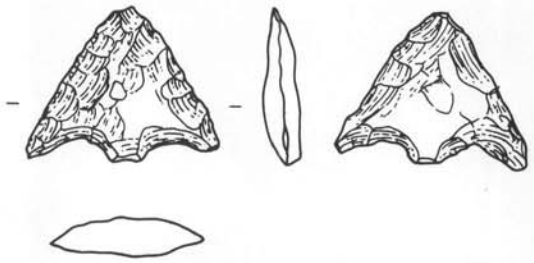


그림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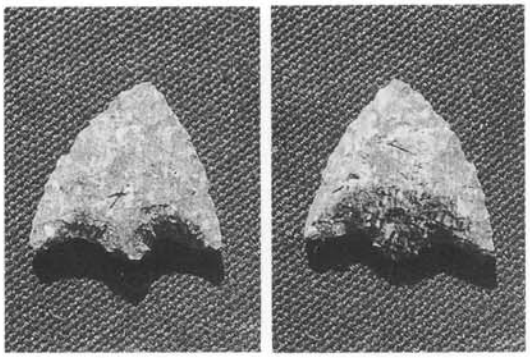


사진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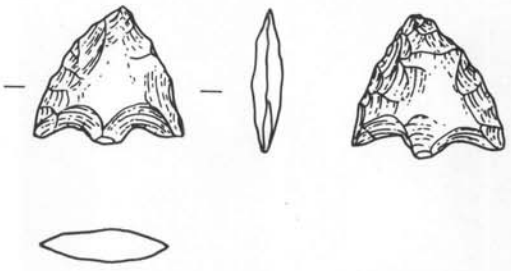


그림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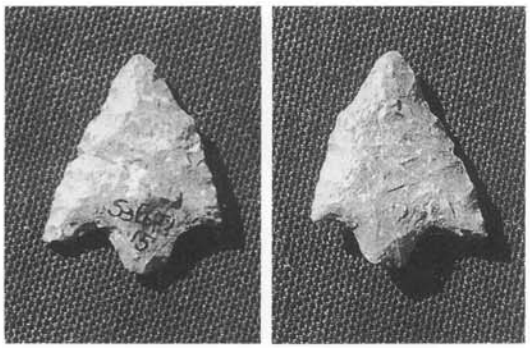


사진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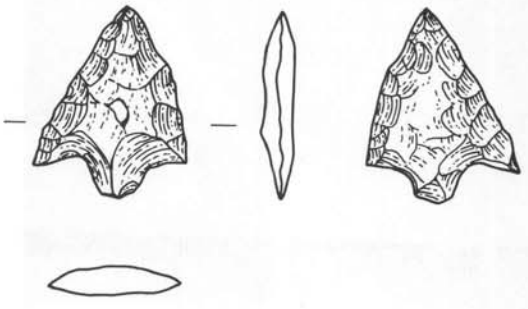


그림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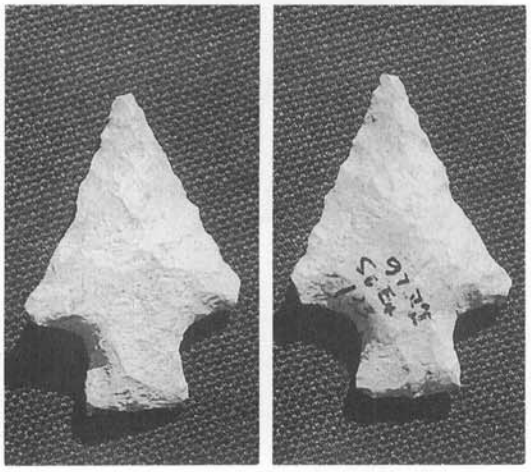


사진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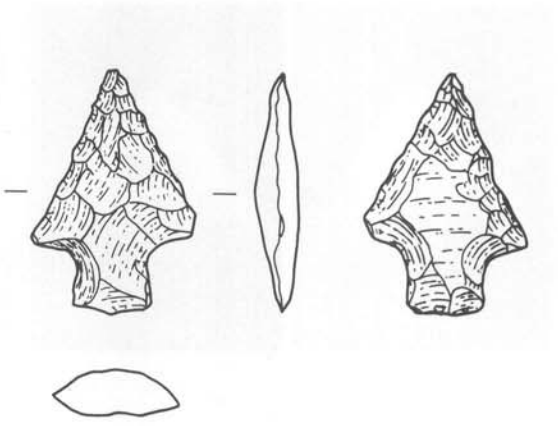


그림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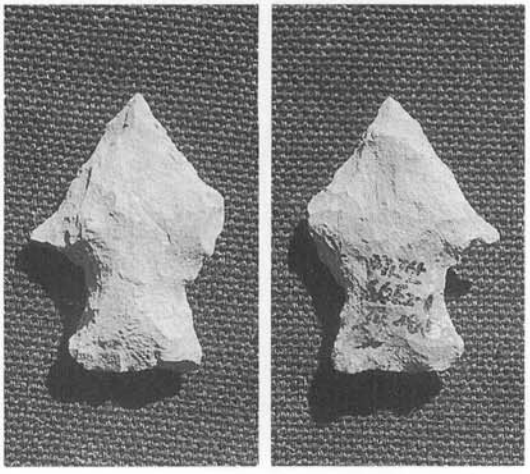


사진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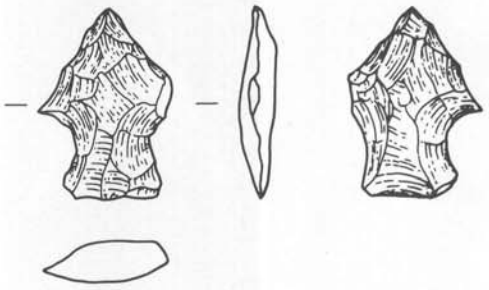


그림 112



사진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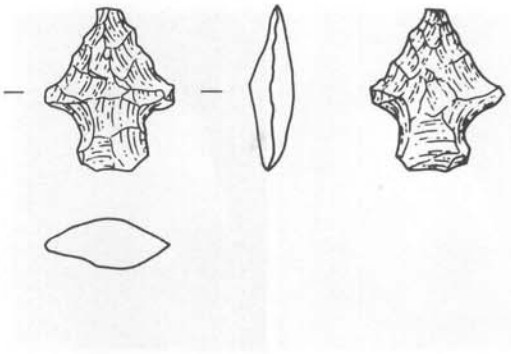


그림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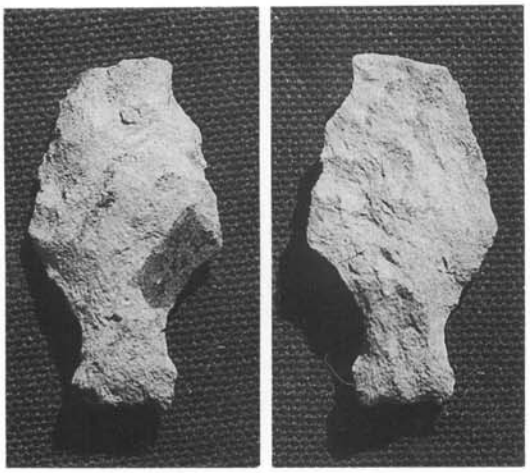


사진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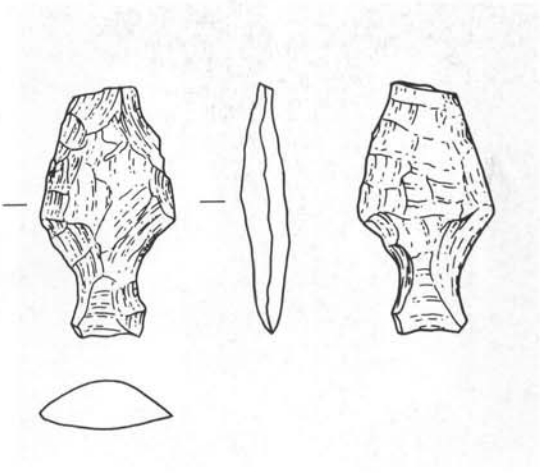


그림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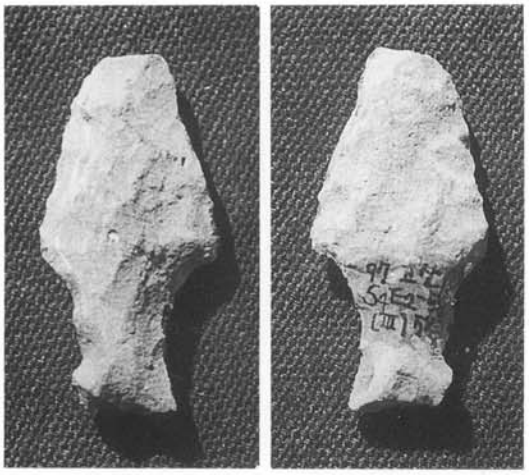


사진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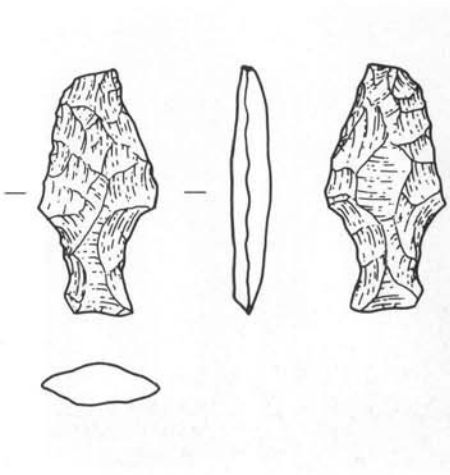


그림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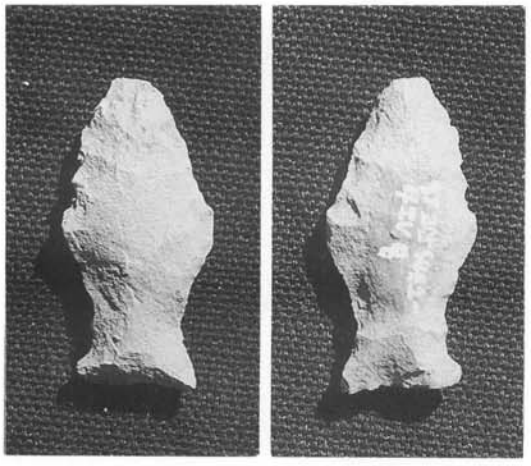


사진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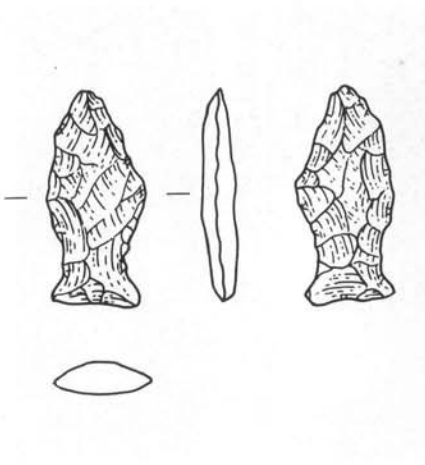


그림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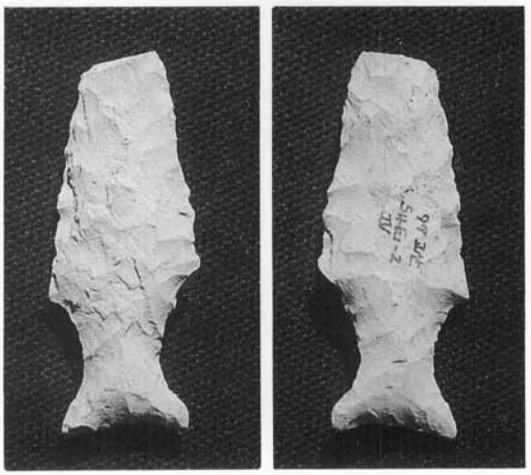


사진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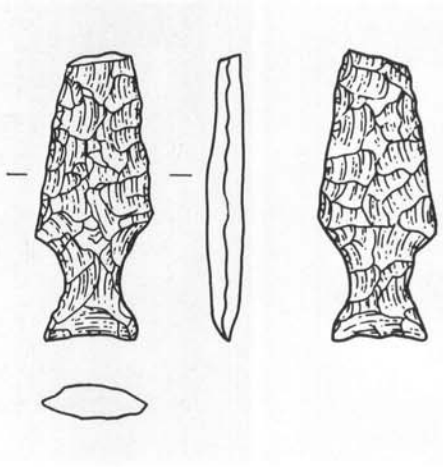


그림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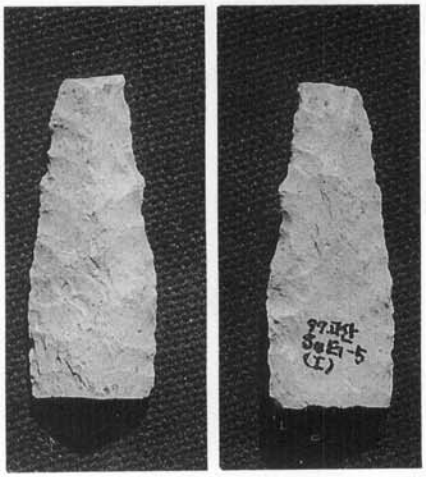


사진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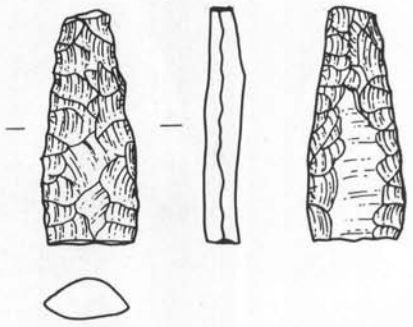


그림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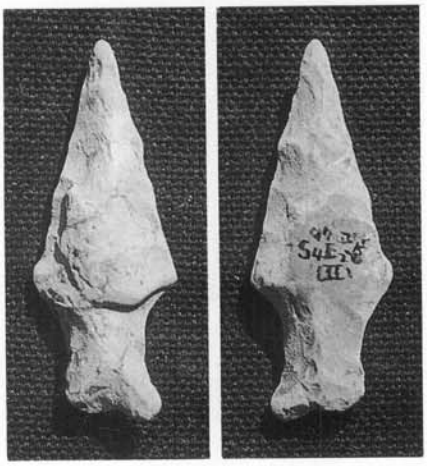


사진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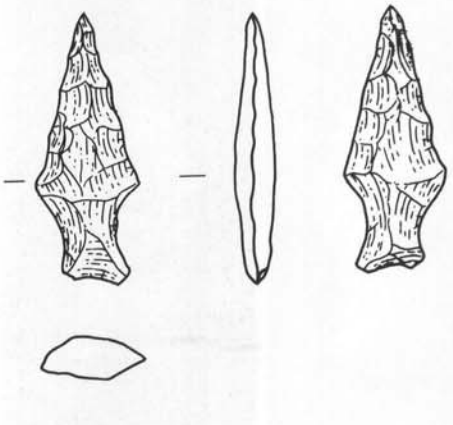


그림 119

0 1 2 3 4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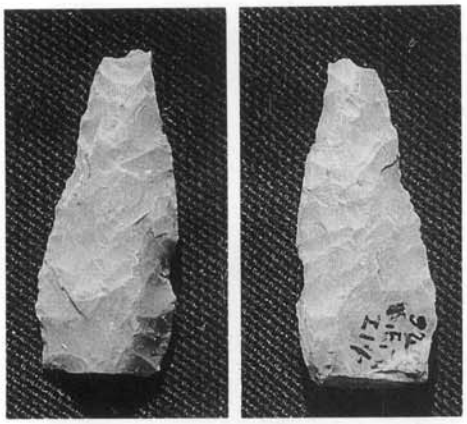


사진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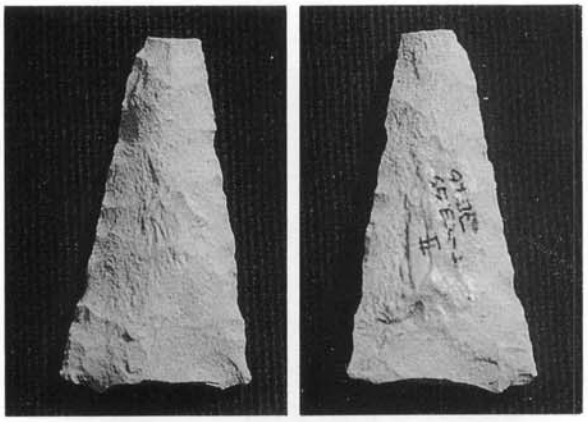


사진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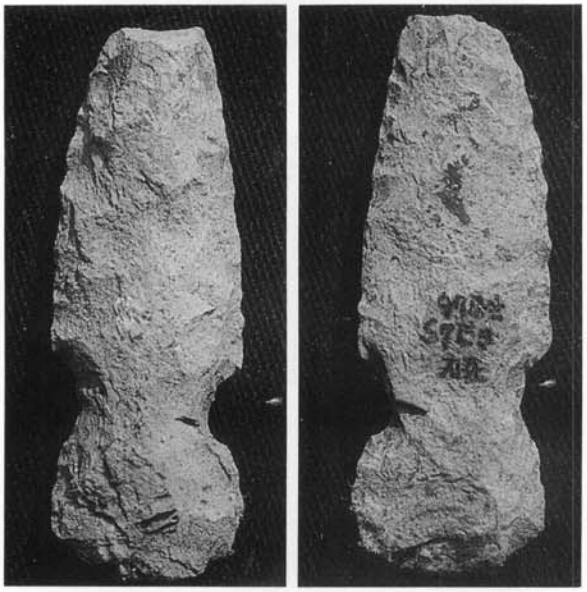


사진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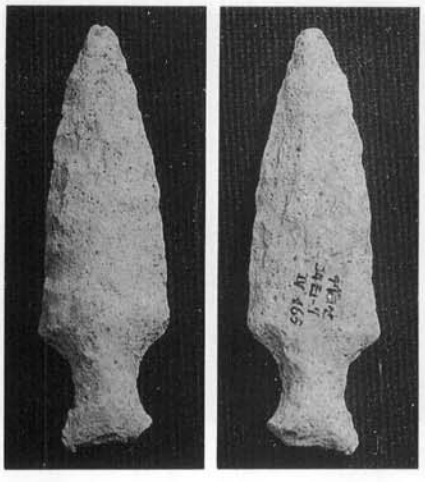


사진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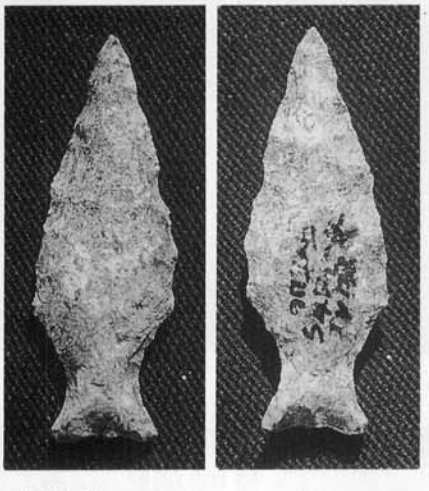


사진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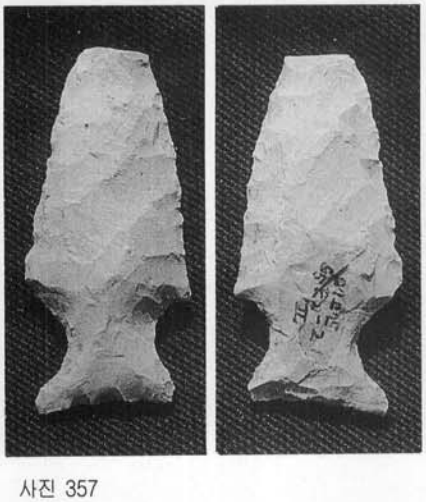


사진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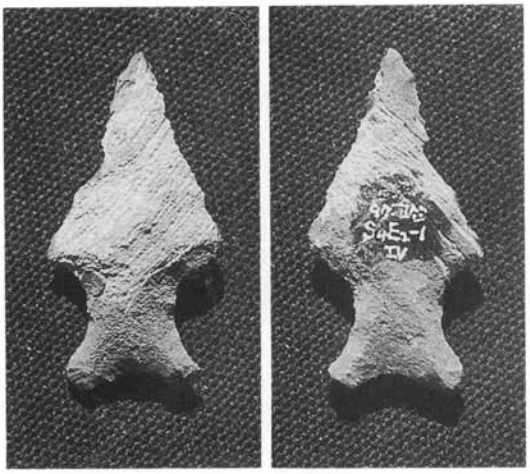


사진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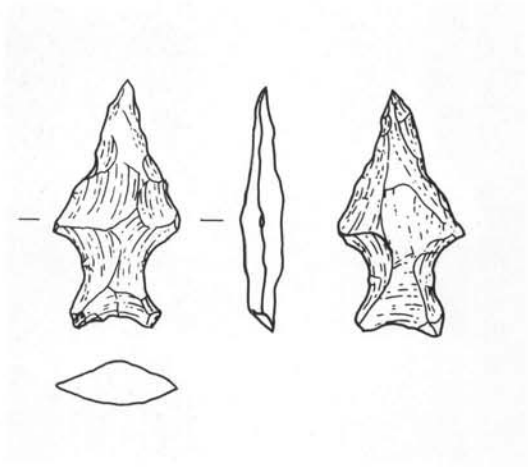


그림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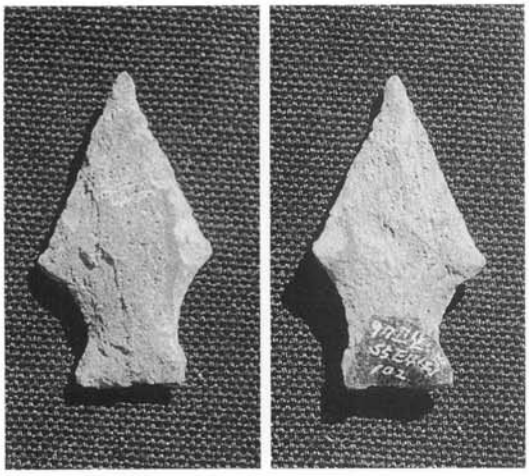


사진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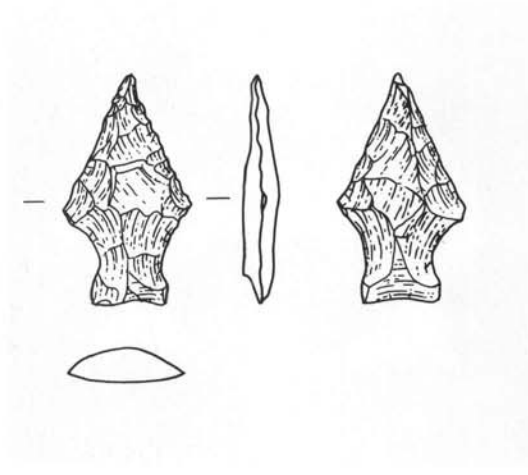


그림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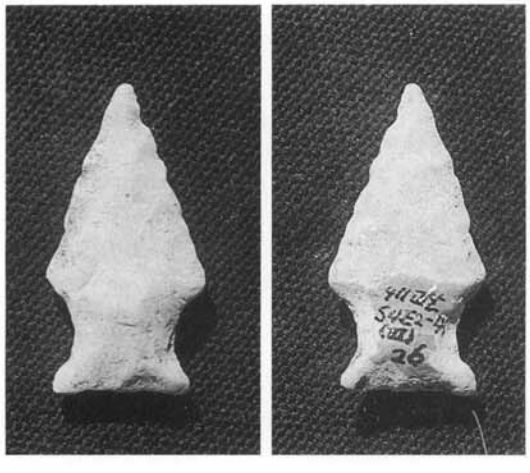


사진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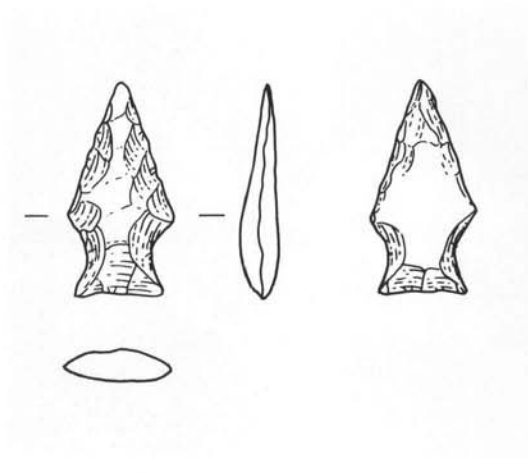


그림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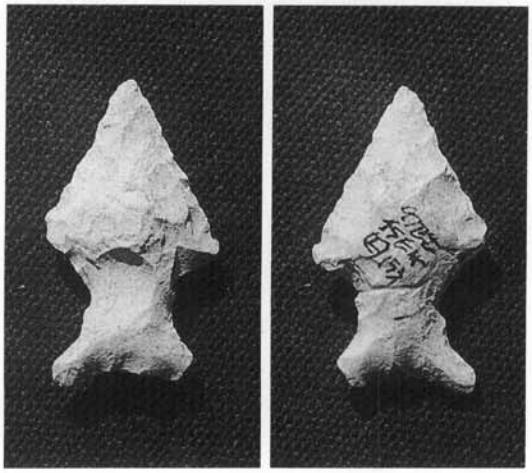


사진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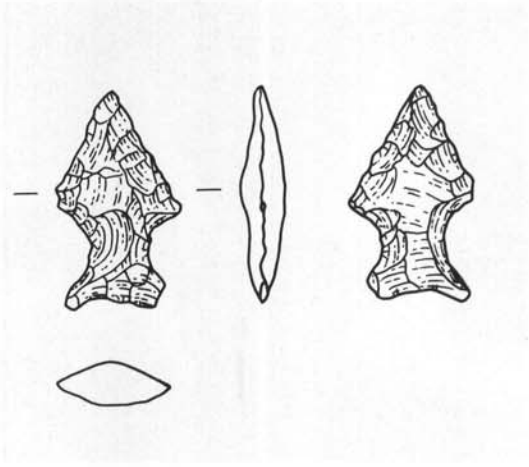


그림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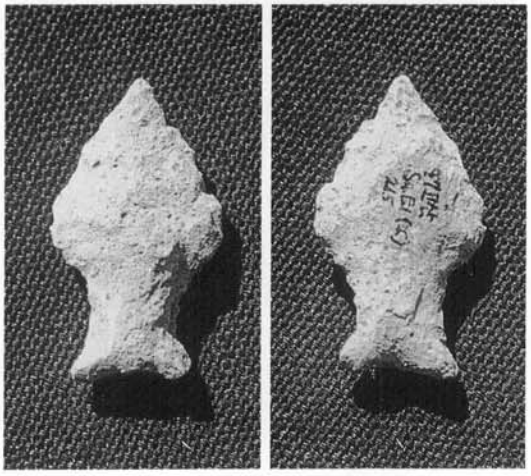


사진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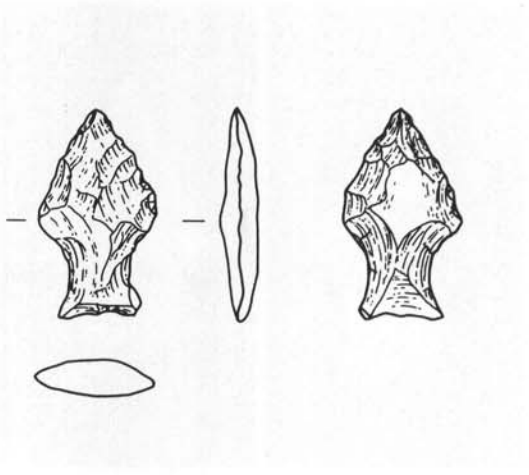


그림 124



사진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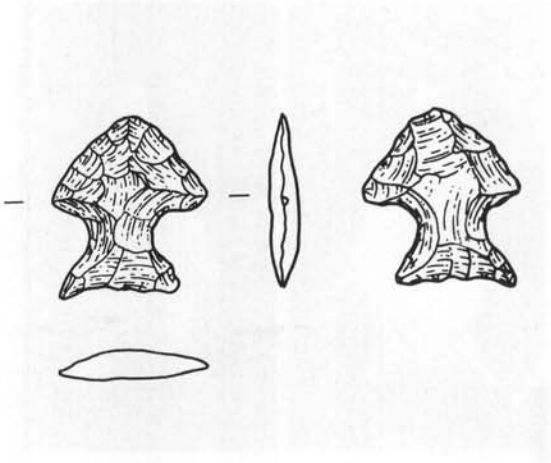


그림 125



사진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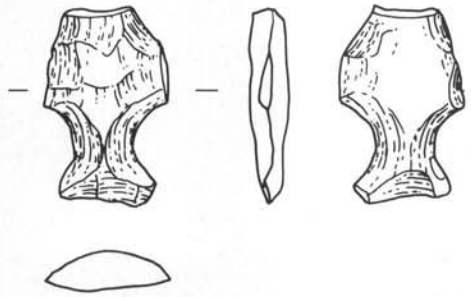


그림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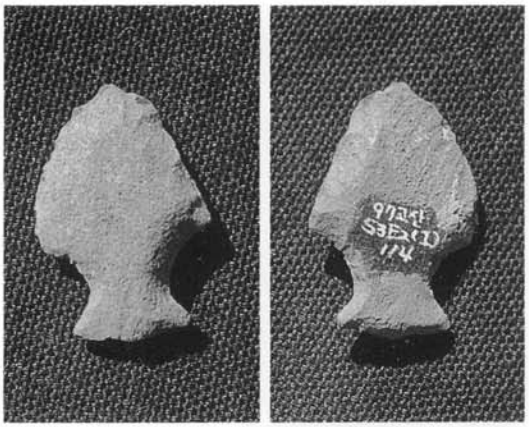


사진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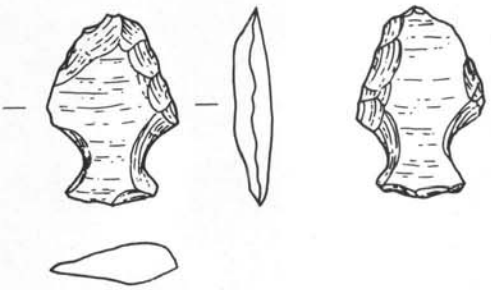


그림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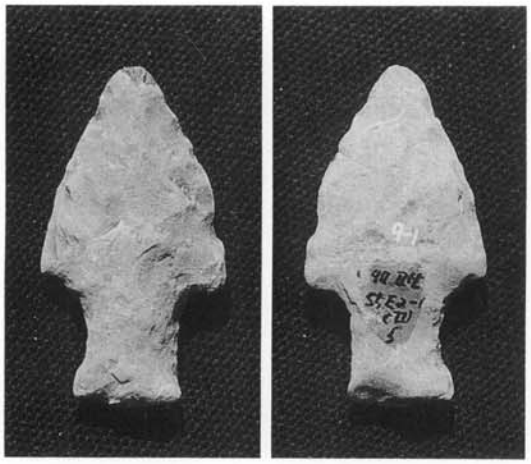


사진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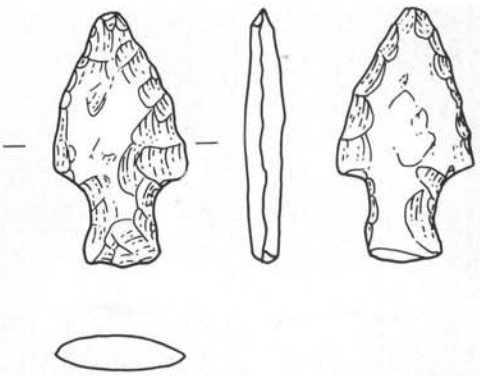


그림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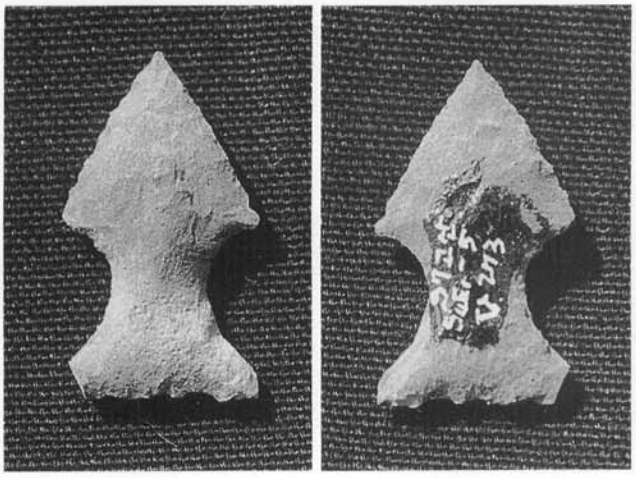


사진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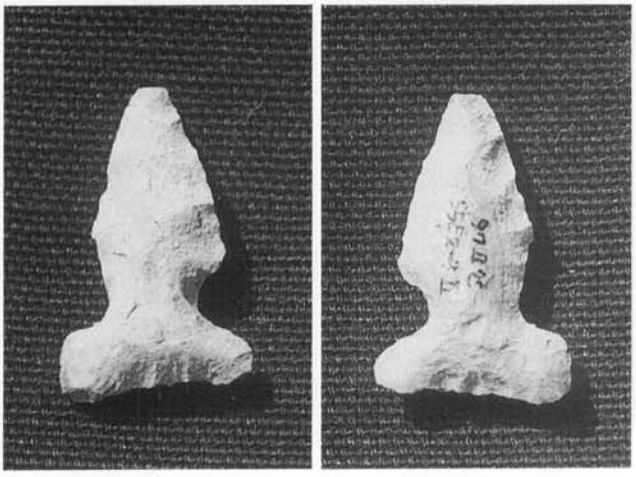


사진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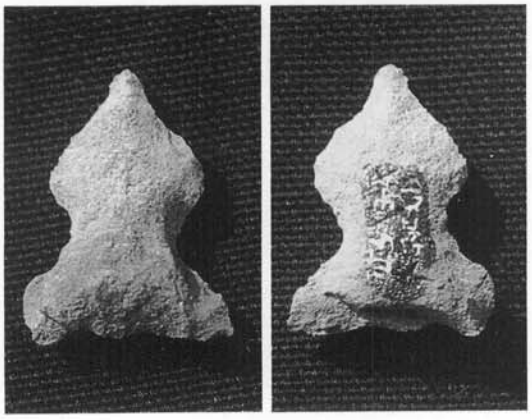


사진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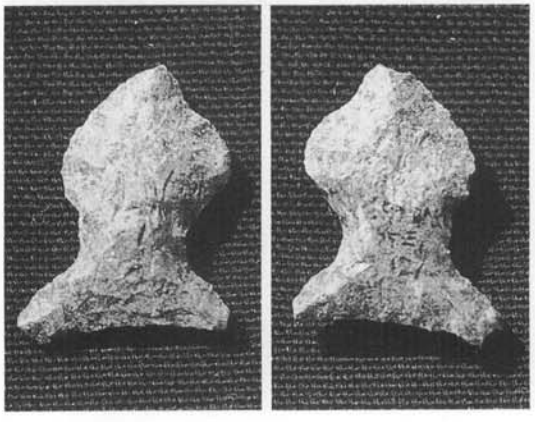


사진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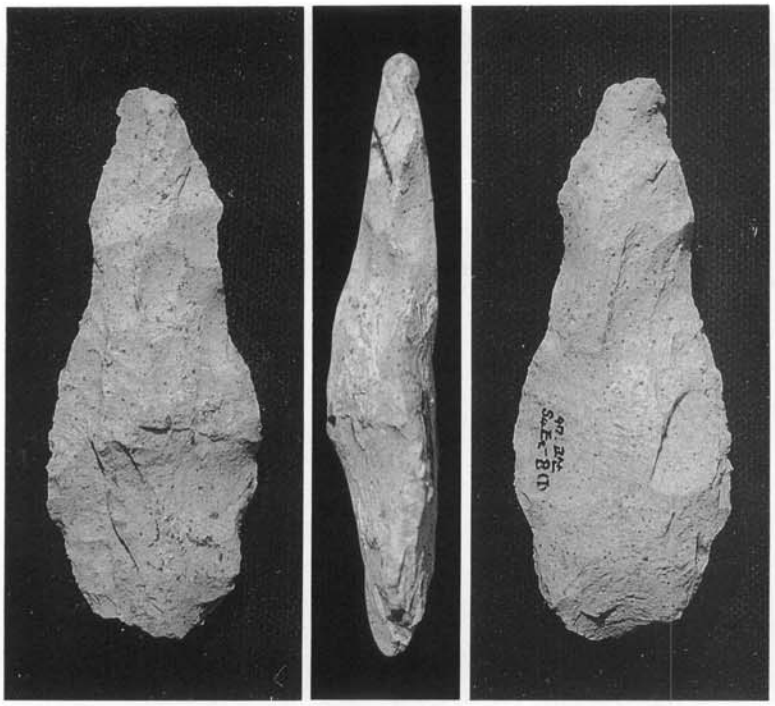


사진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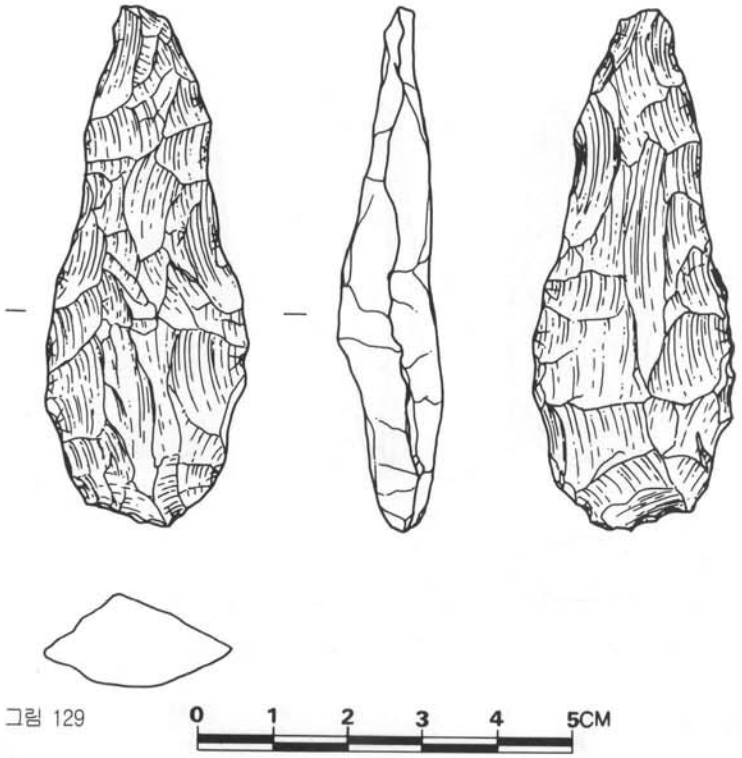


그림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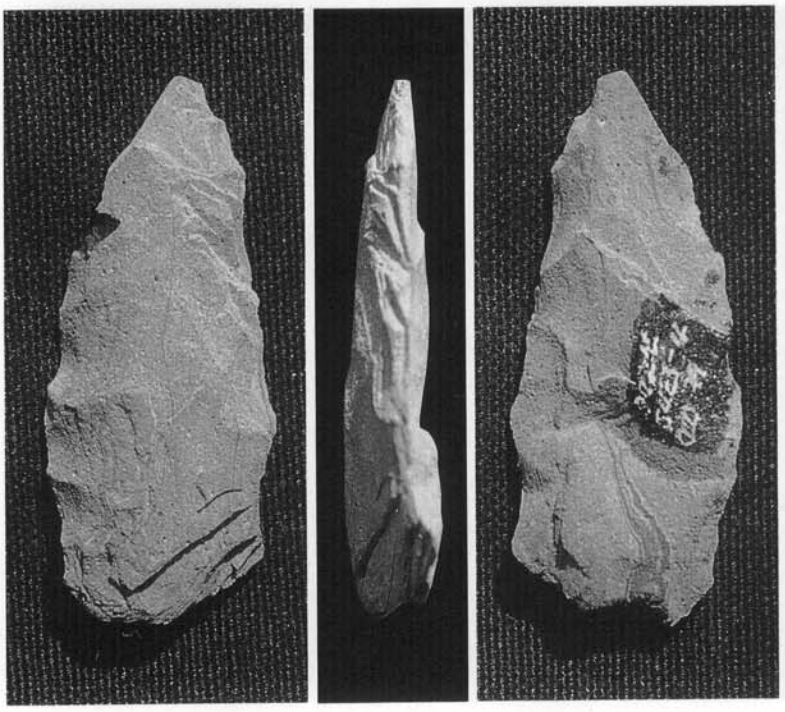


사진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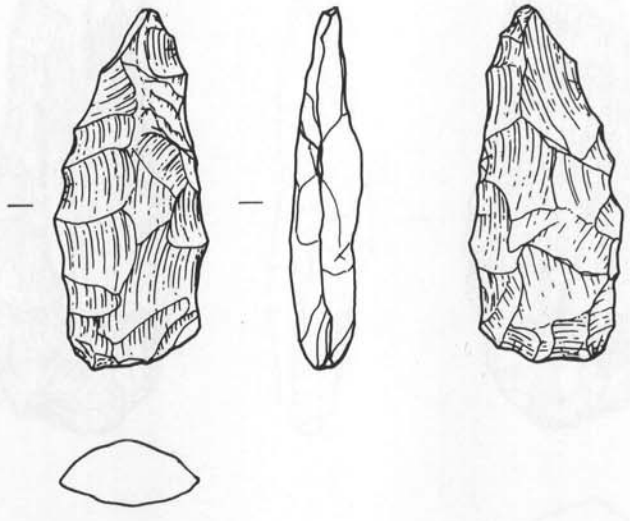


그림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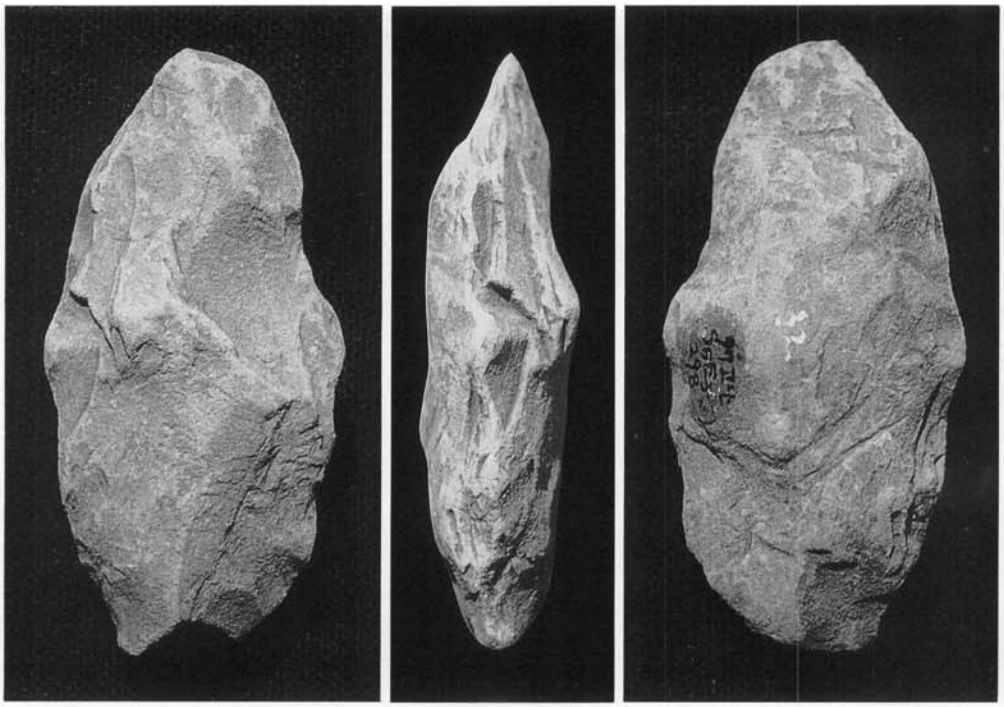


사진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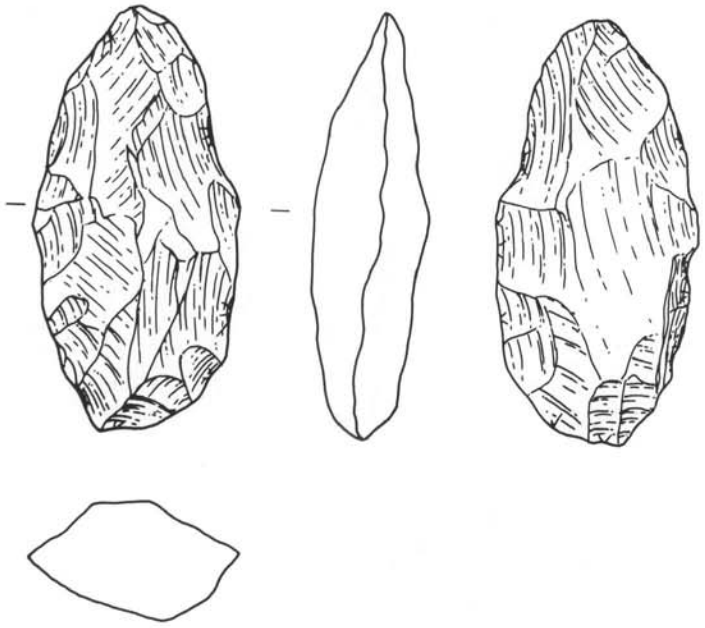


그림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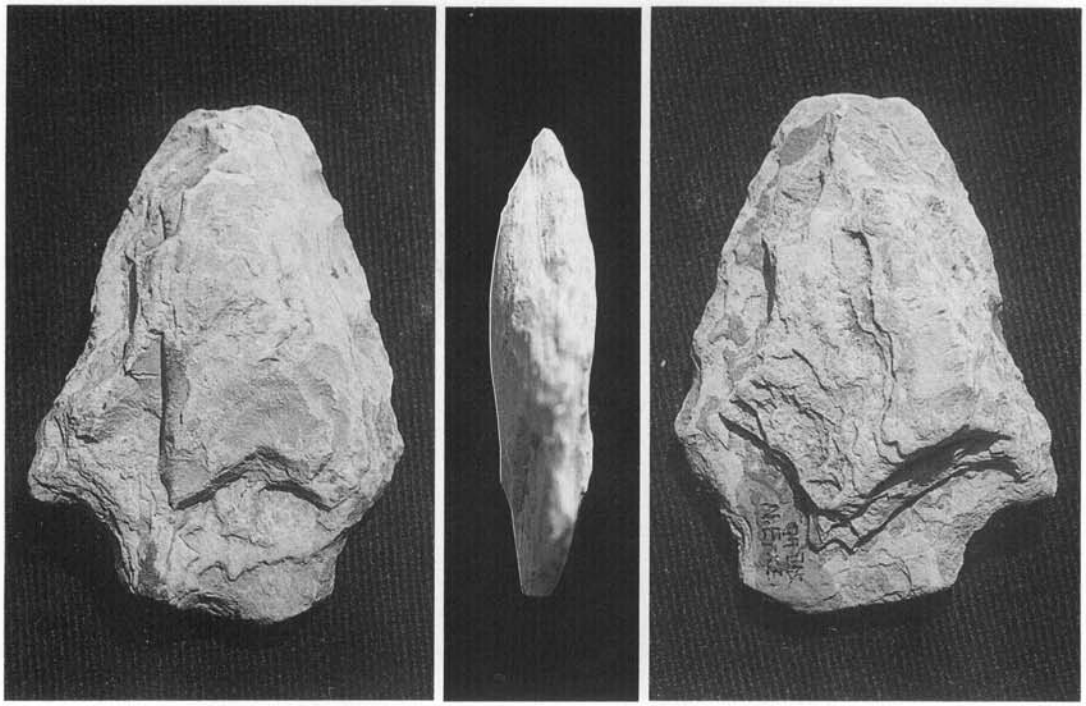


사진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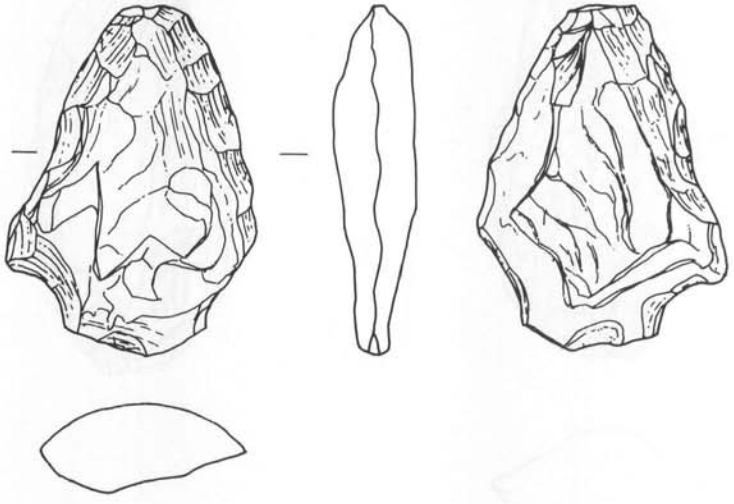


그림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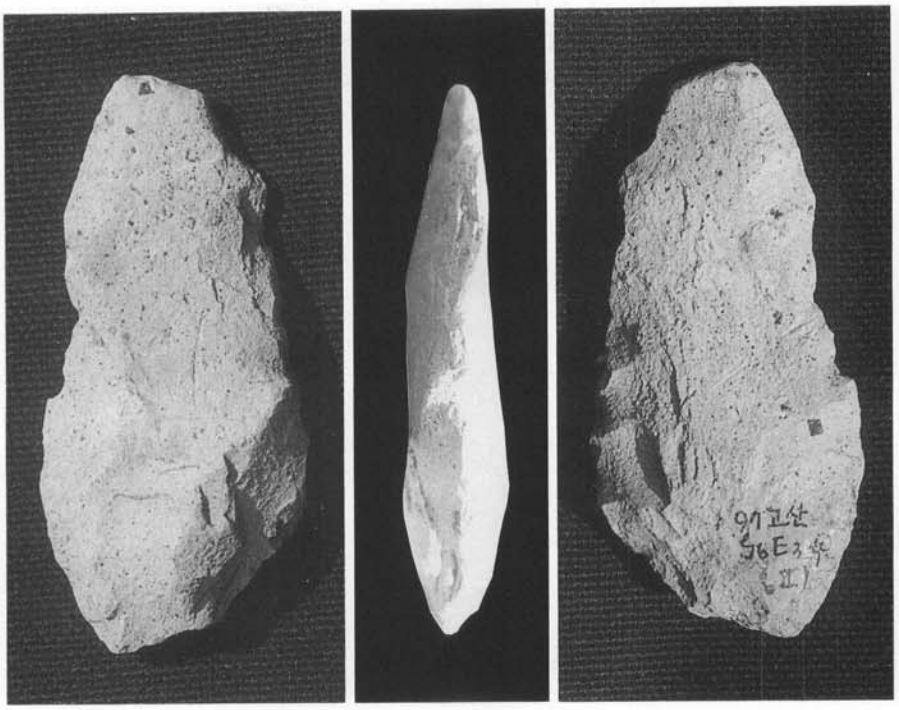


사진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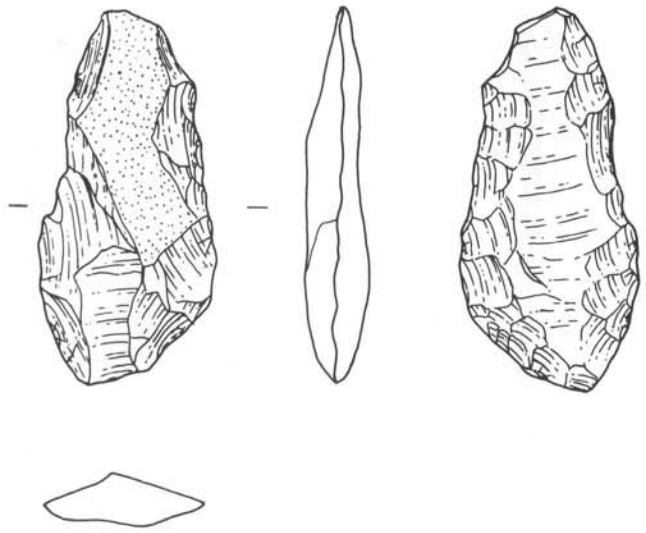


그림 133

0 1 2 3 4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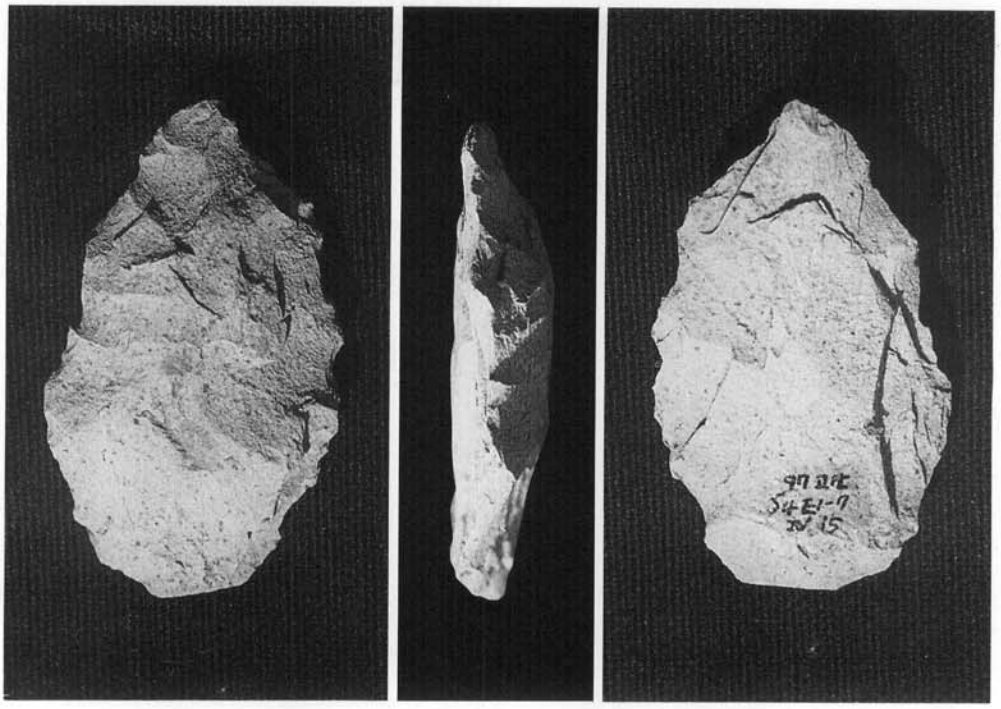


사진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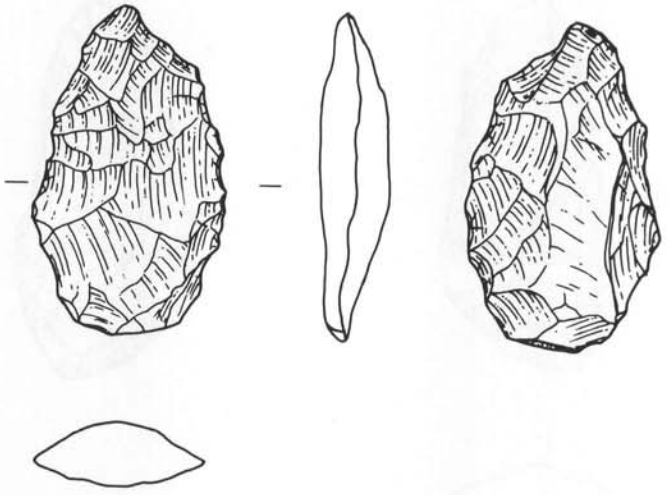


그림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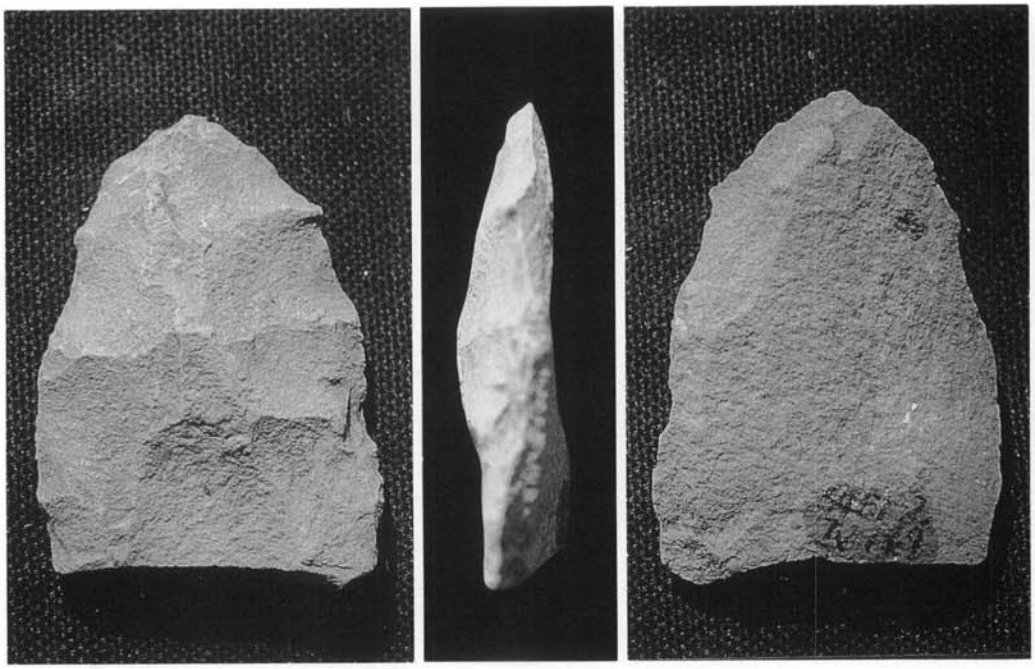


사진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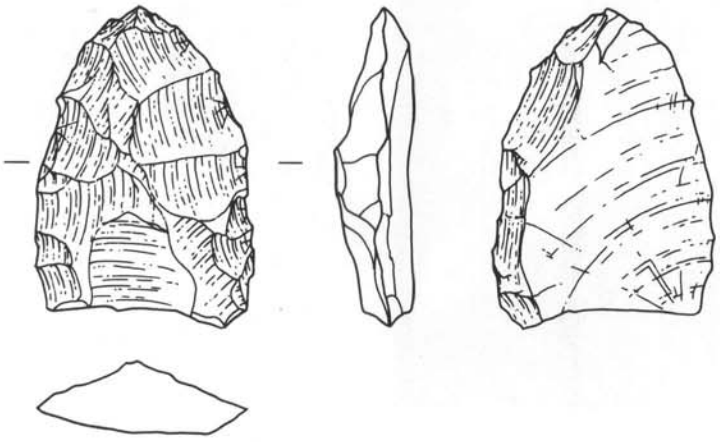


그림 135

0 1 2 3 4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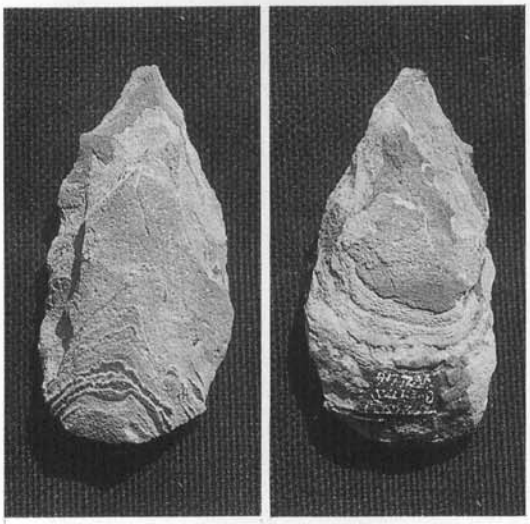


사진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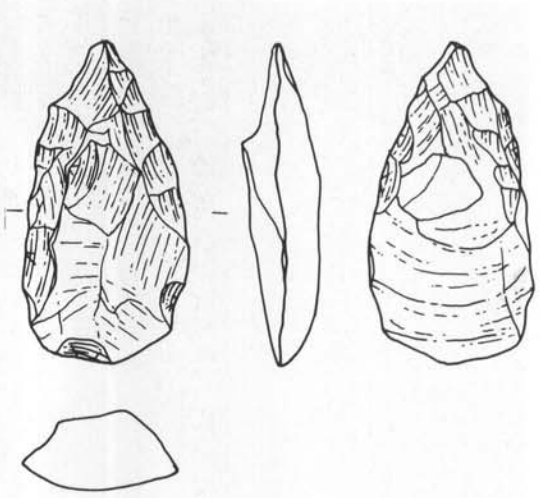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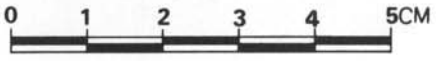


그림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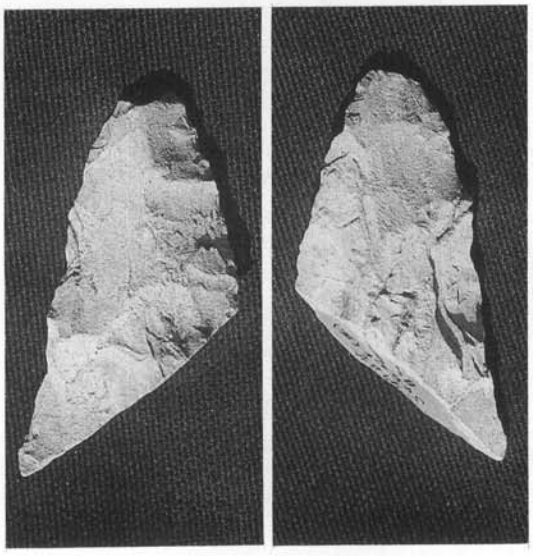


사진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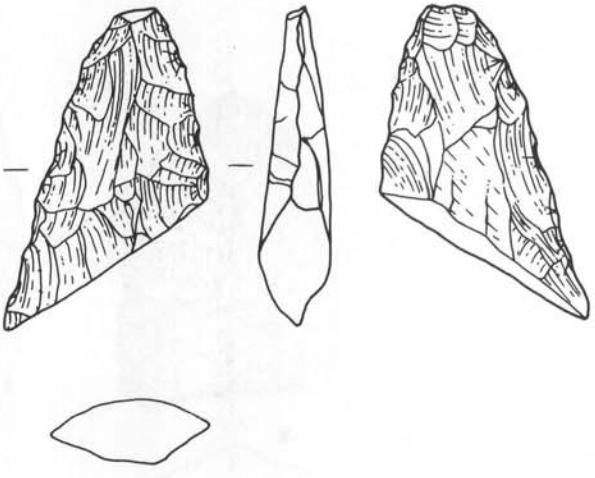


그림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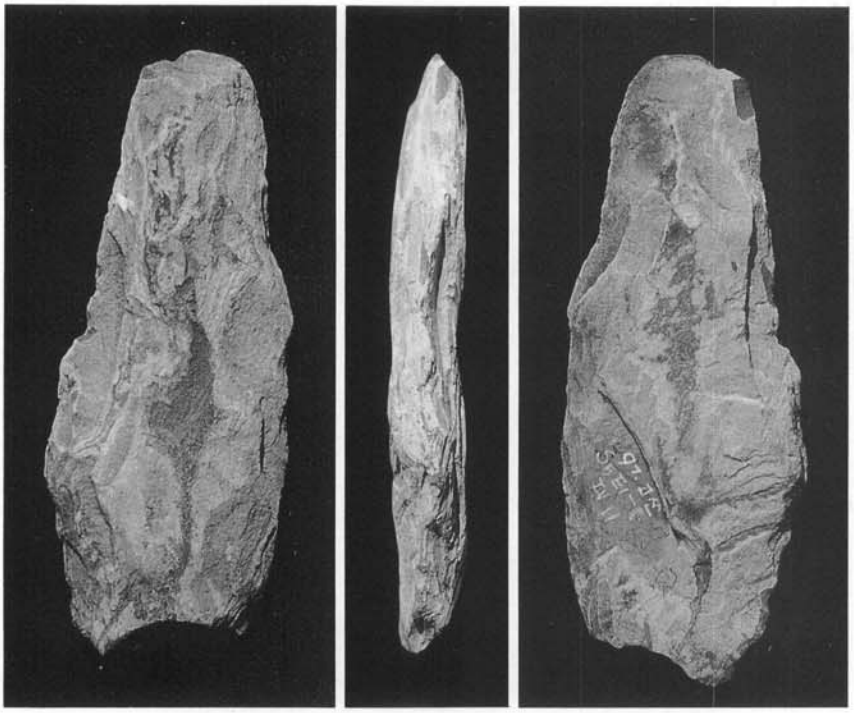


사진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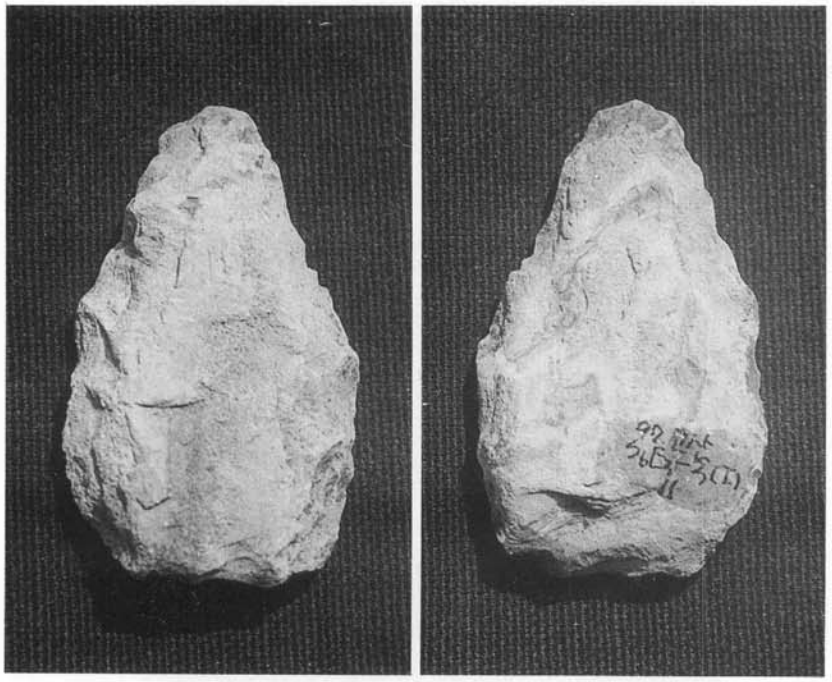


사진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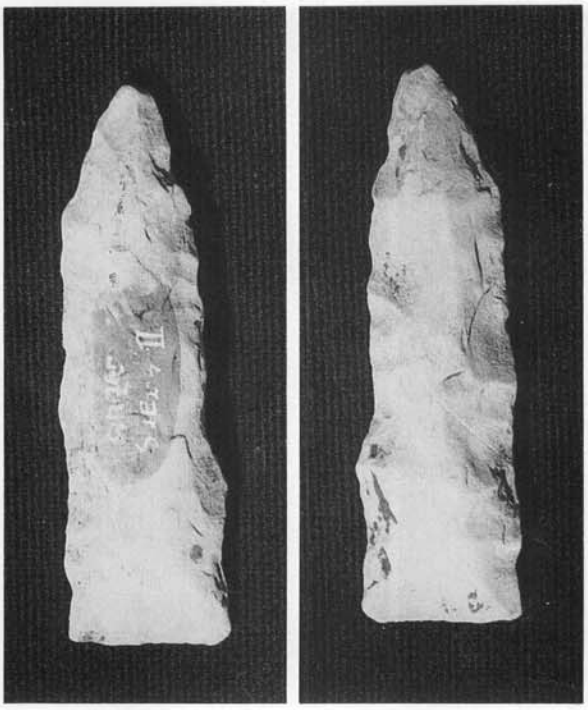


사진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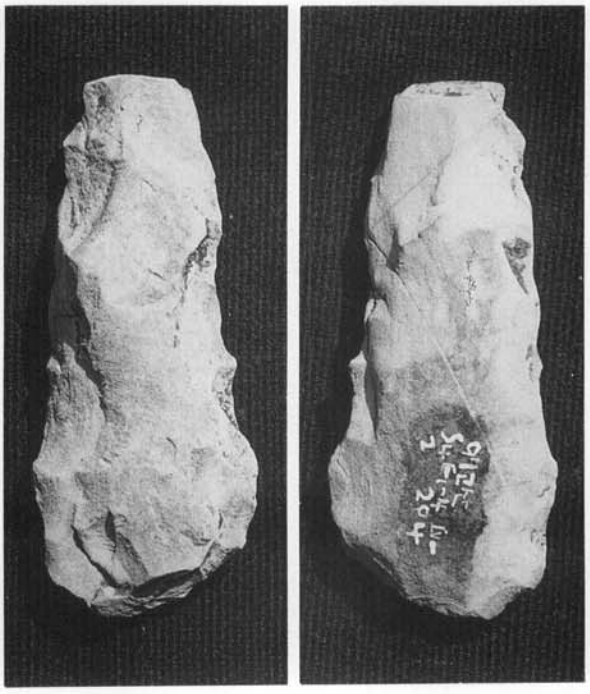


사진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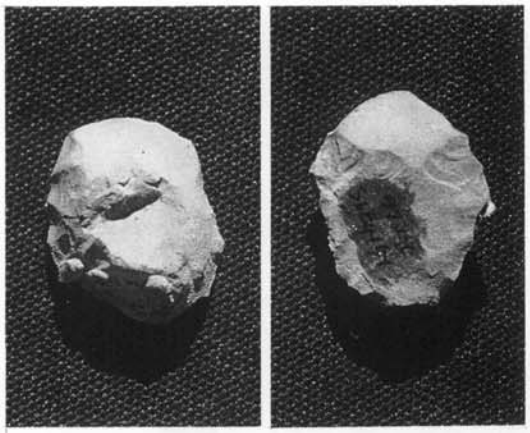


사진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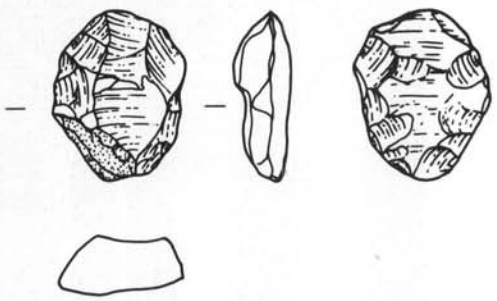


그림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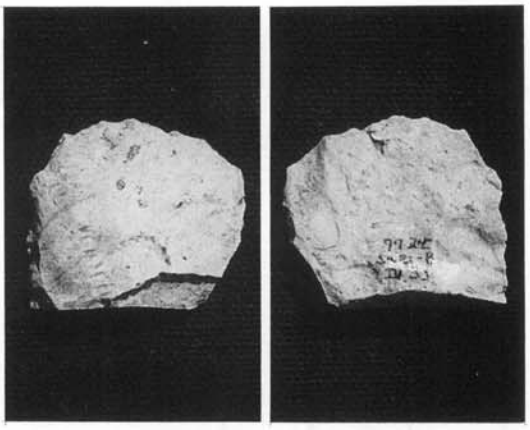


사진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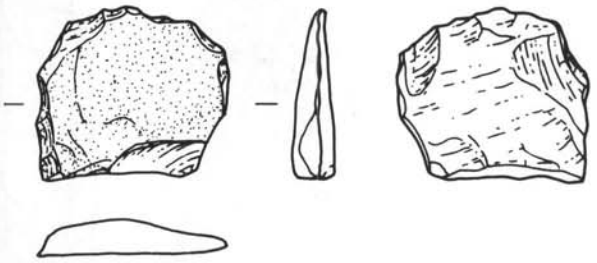


그림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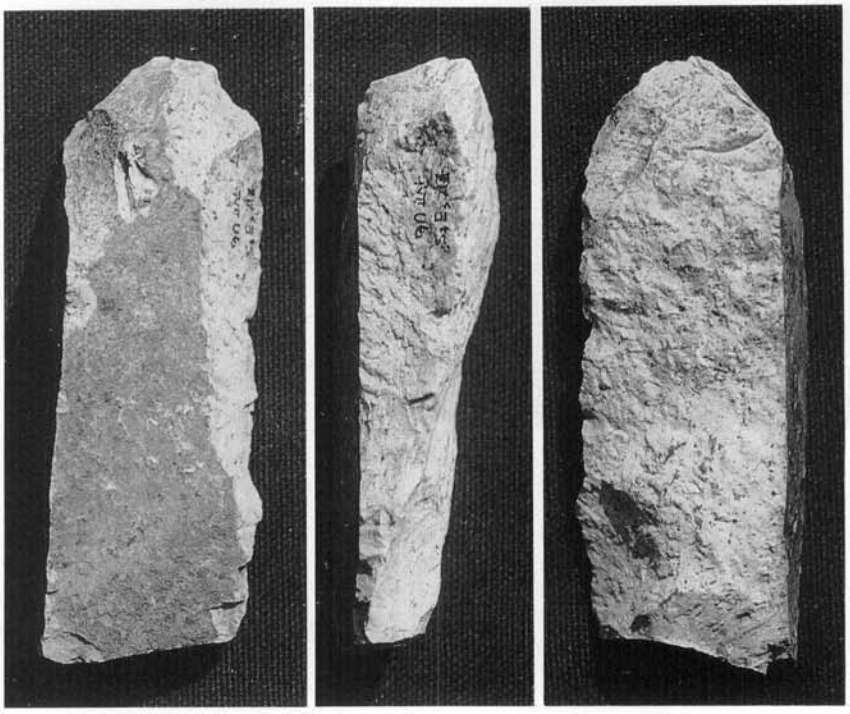


사진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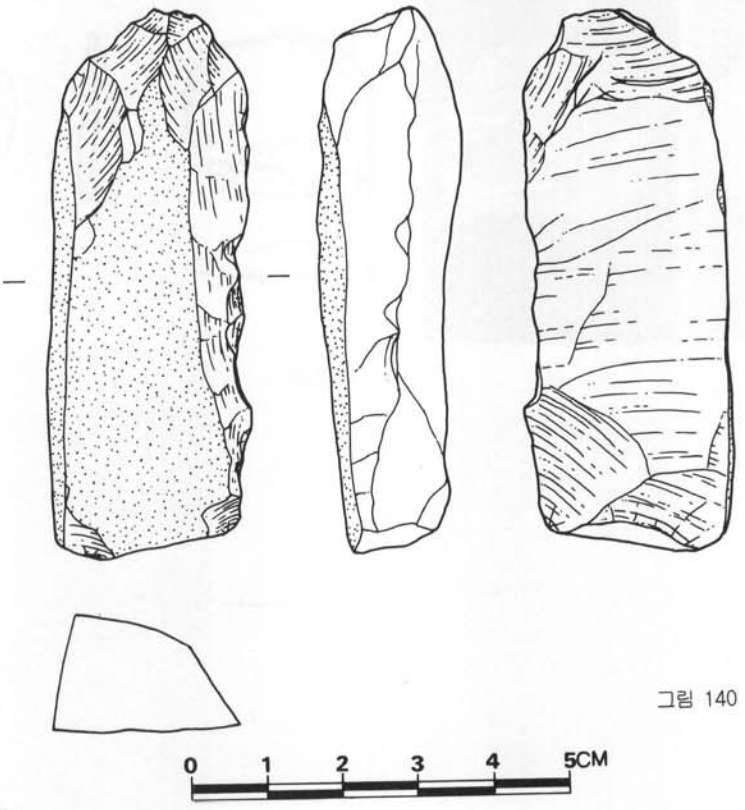


그림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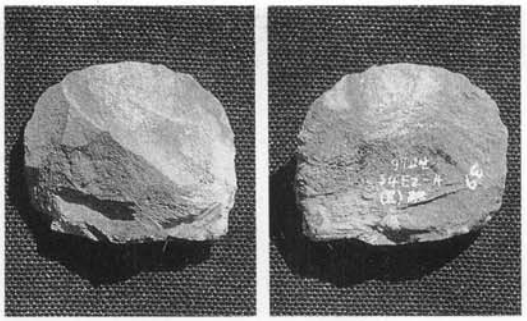


사진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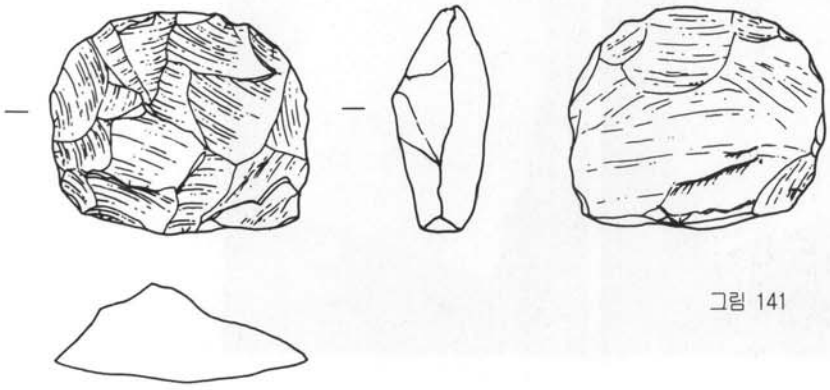


그림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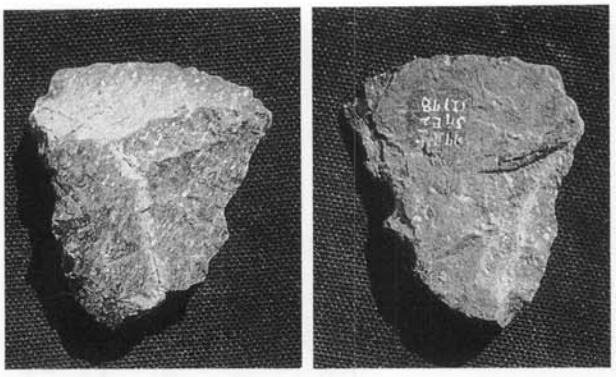


사진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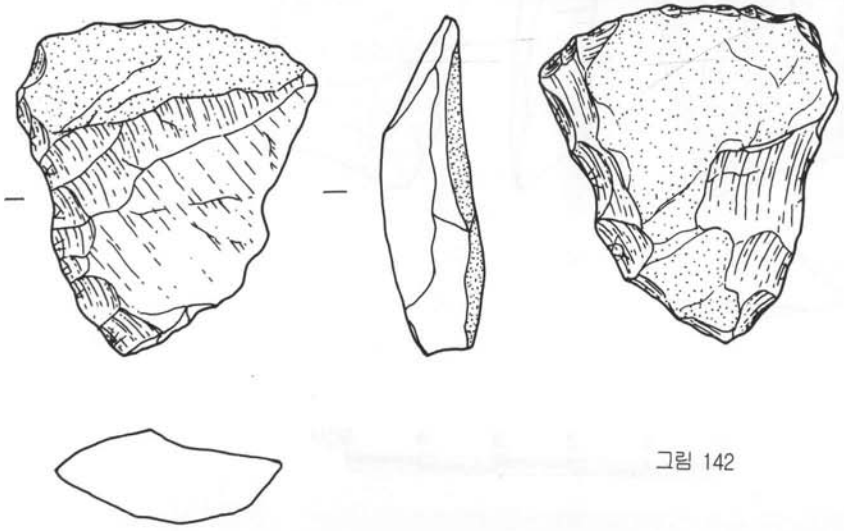


그림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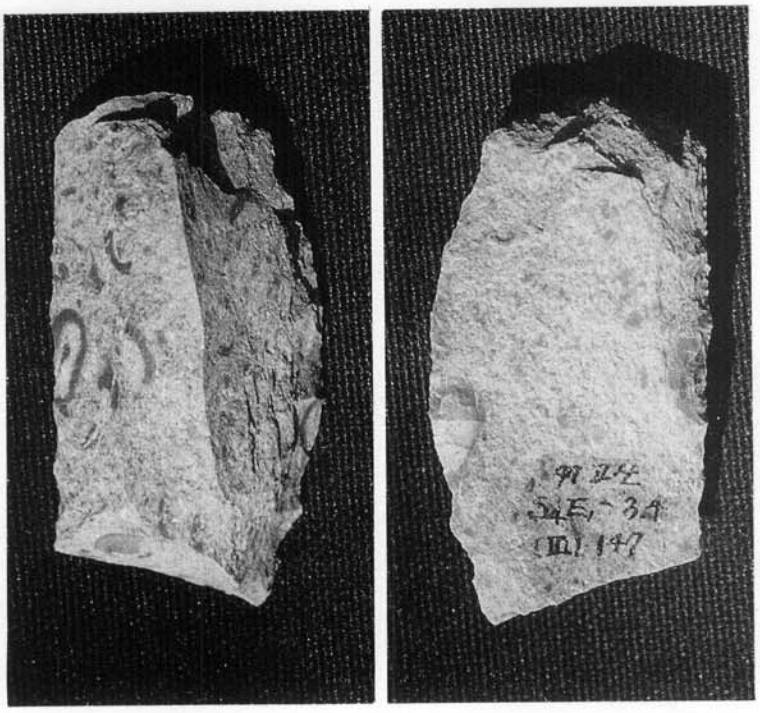


사진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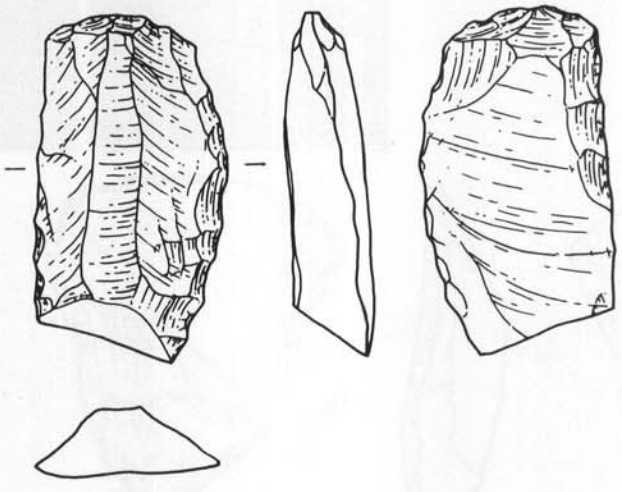


그림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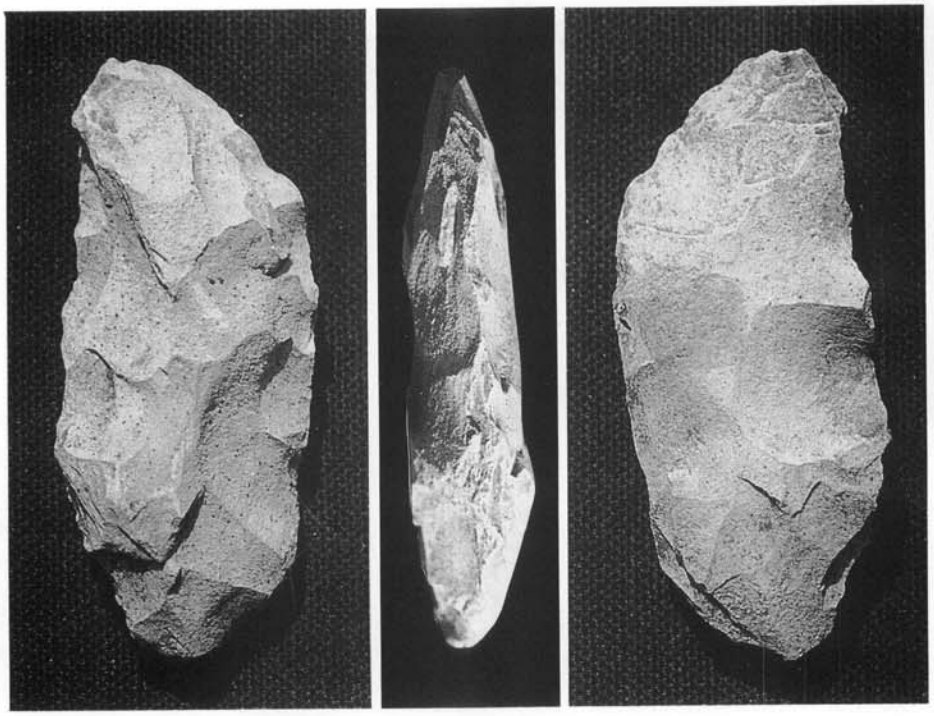


사진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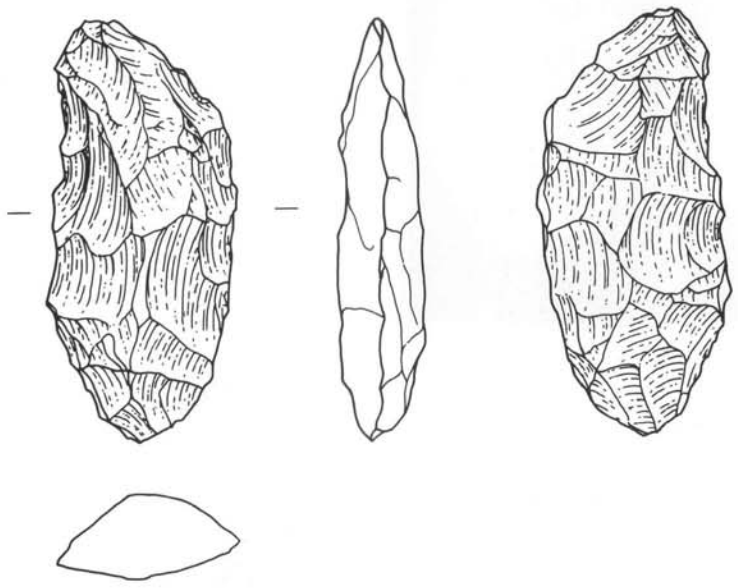


그림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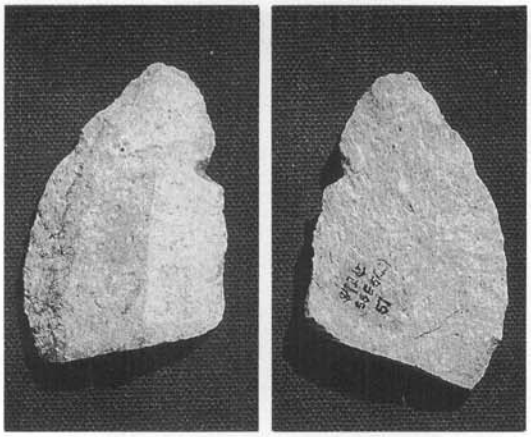


사진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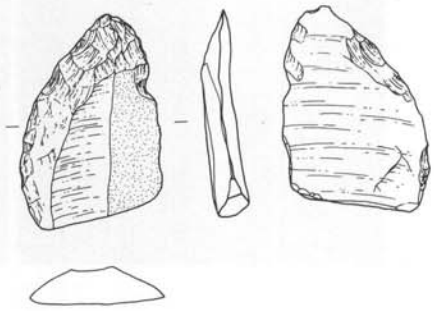


그림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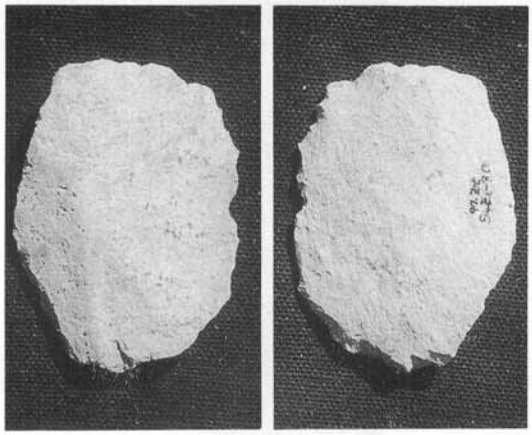


사진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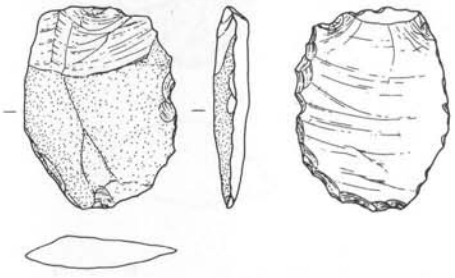


그림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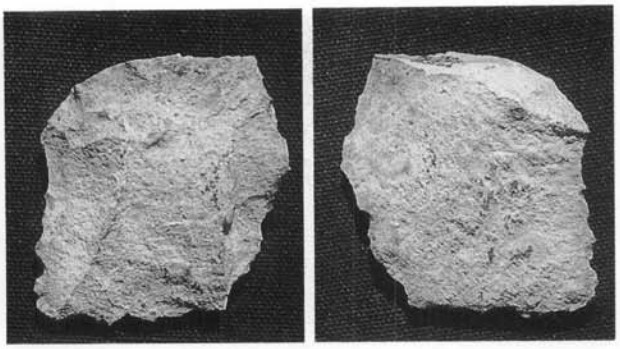


사진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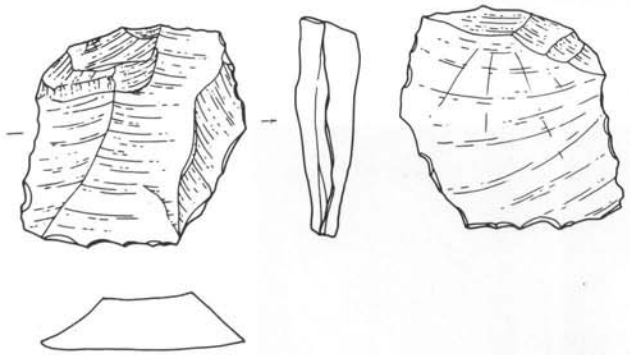


그림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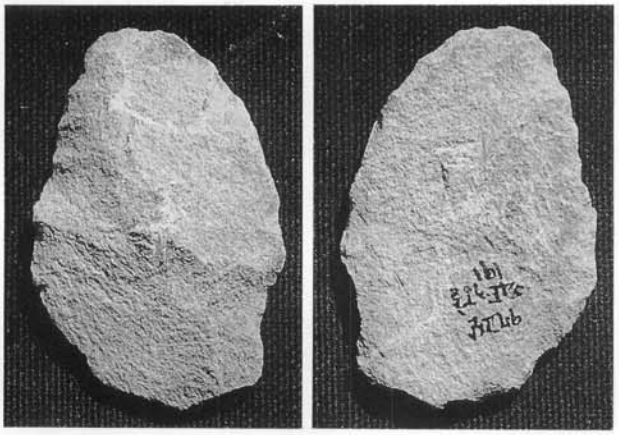


사진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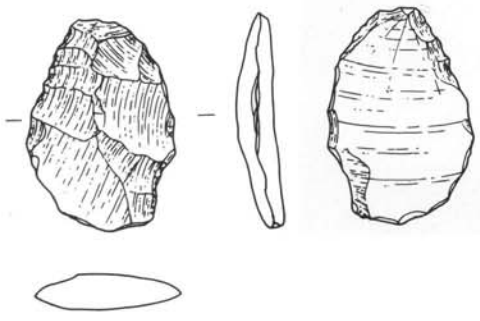


그림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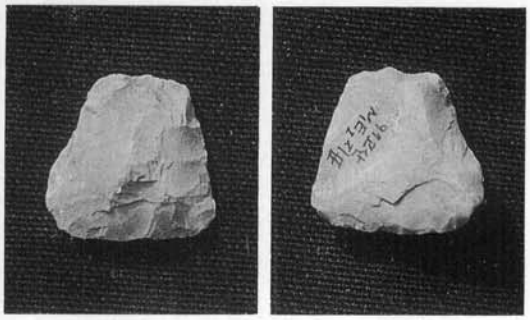


사진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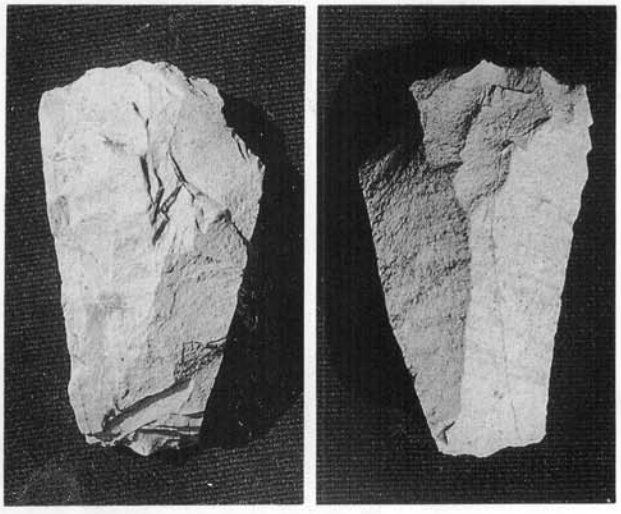


사진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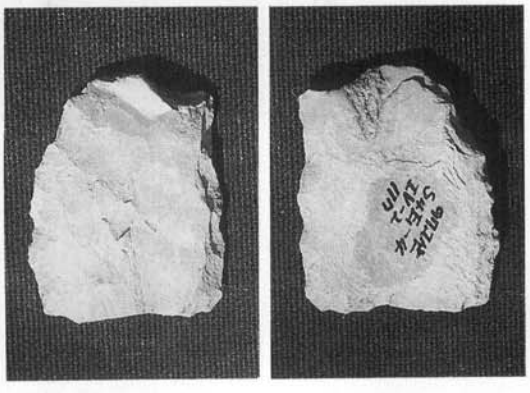


사진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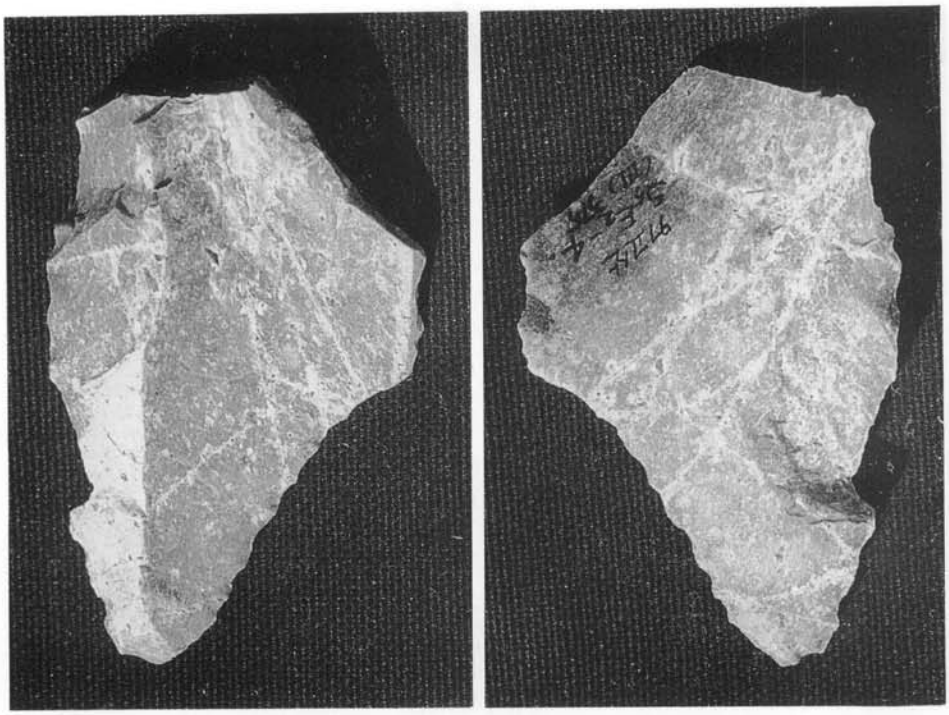


사진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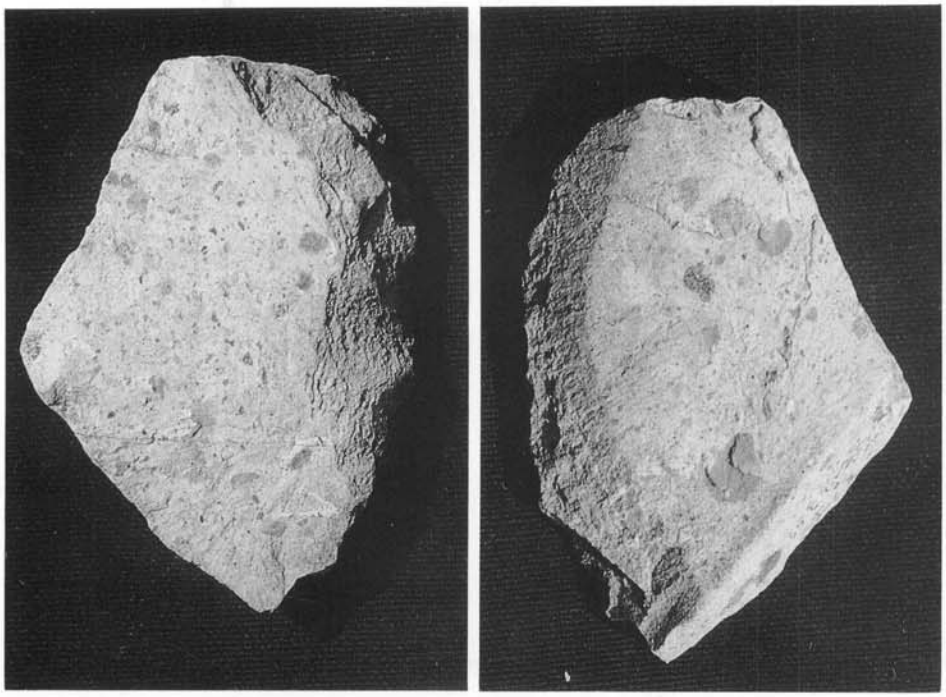


사진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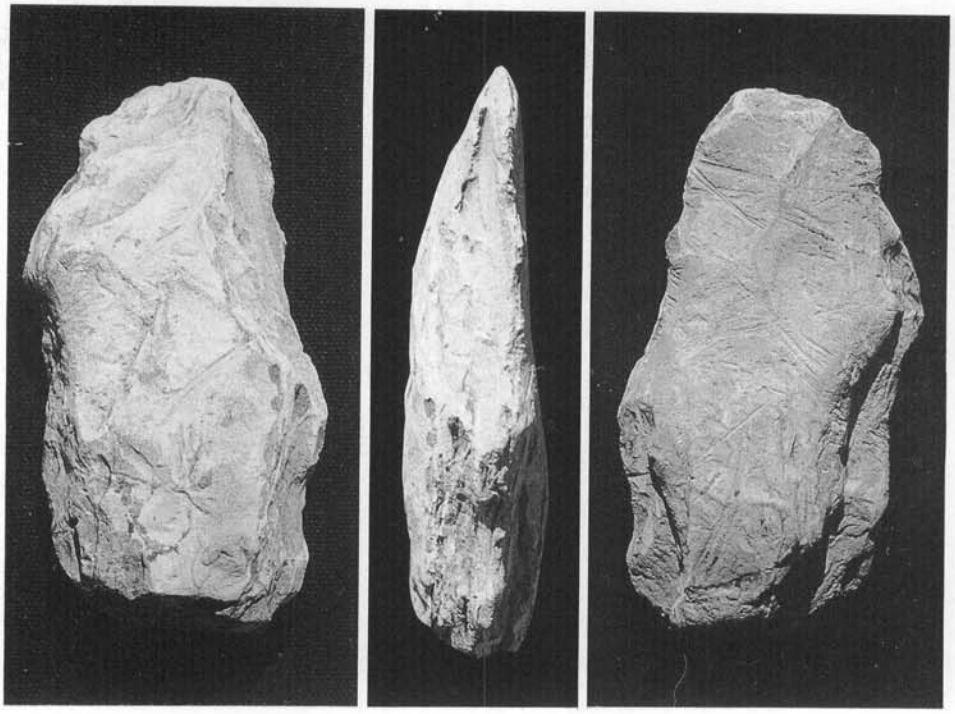


사진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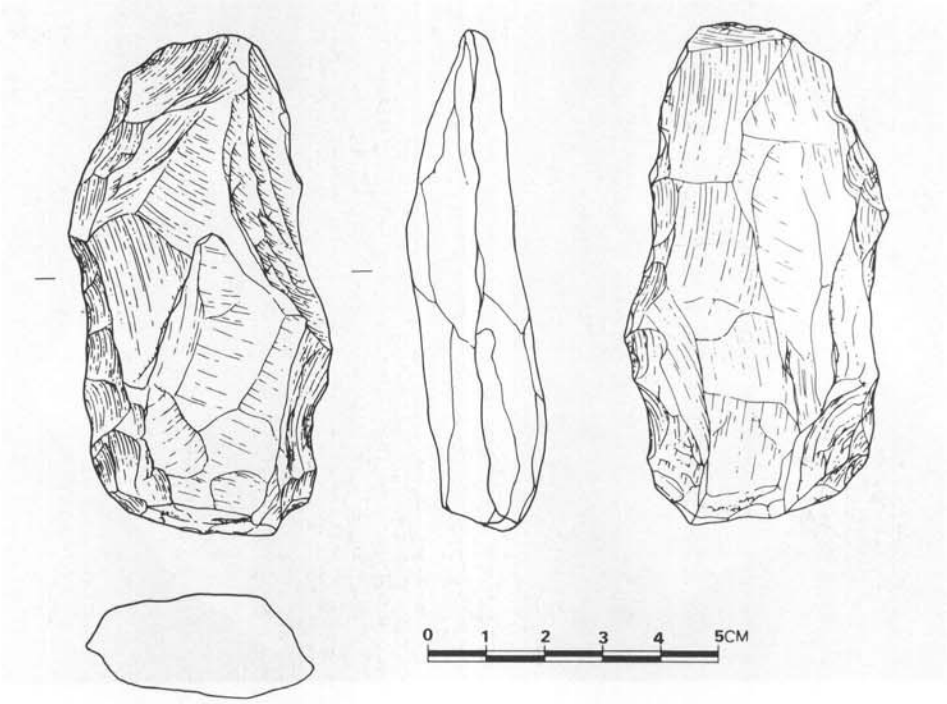


그림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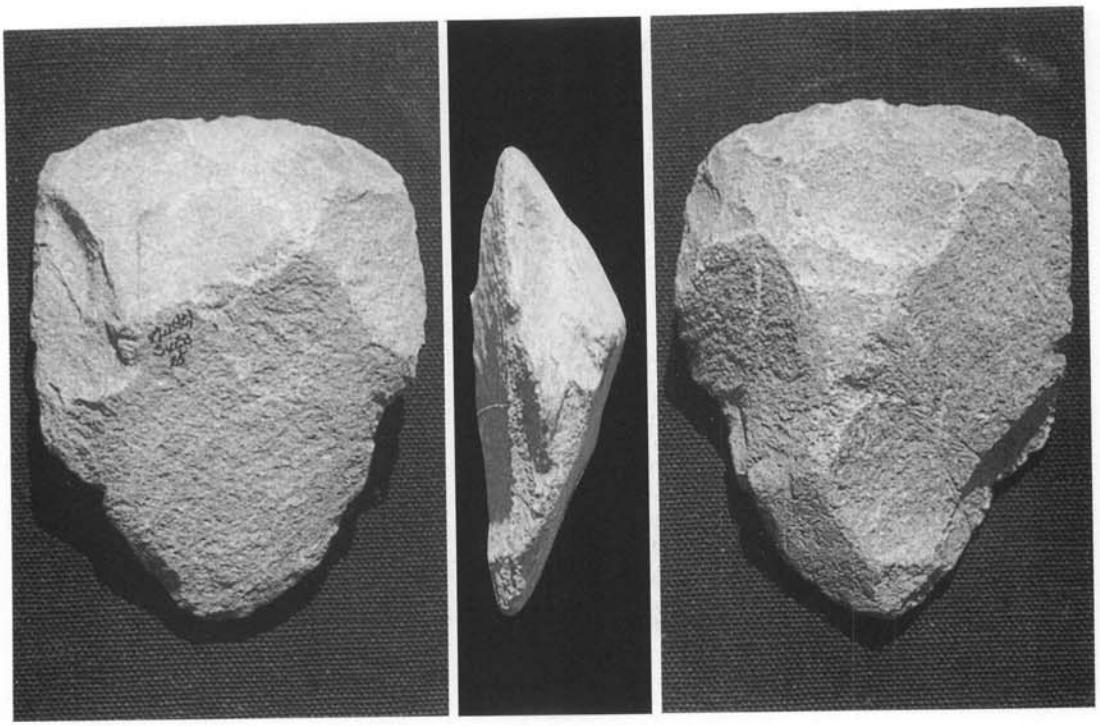


사진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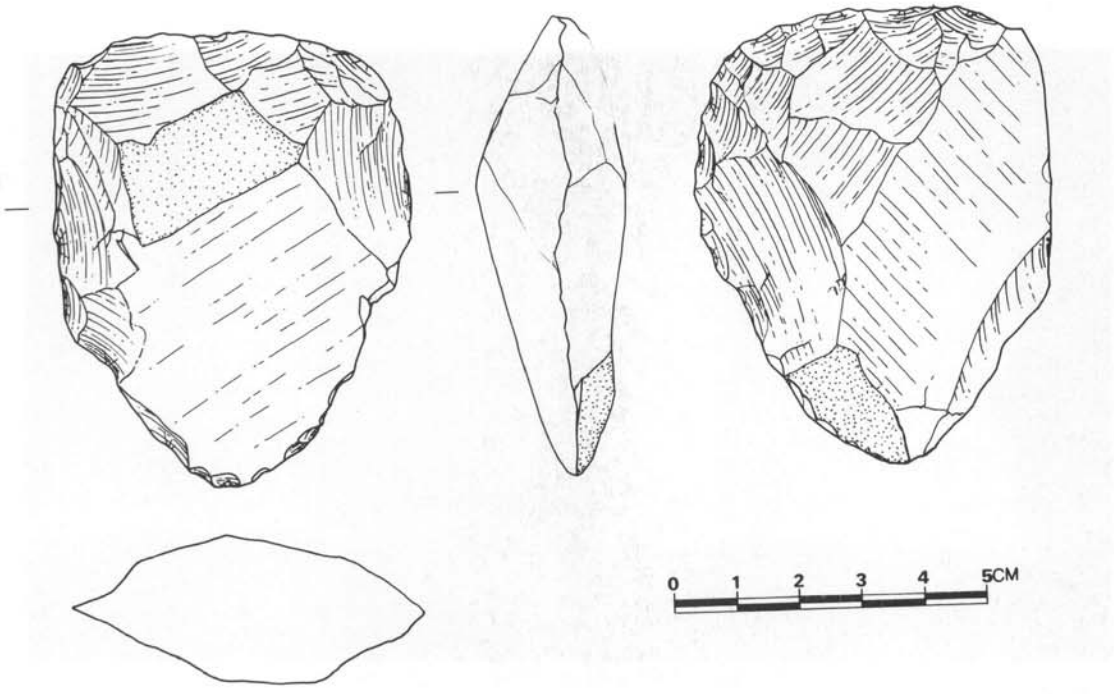


그림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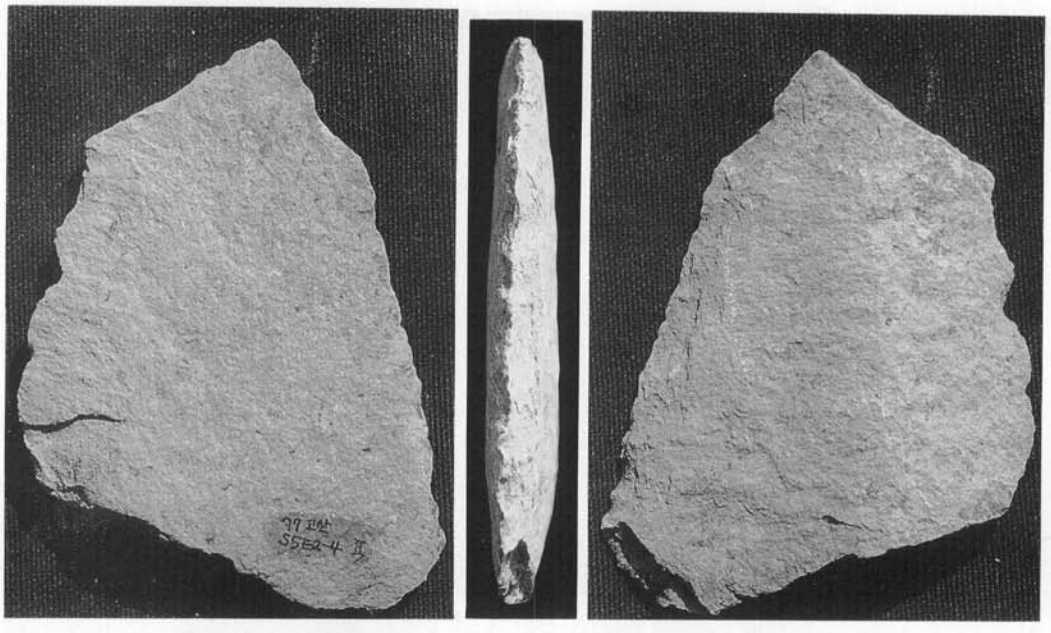


사진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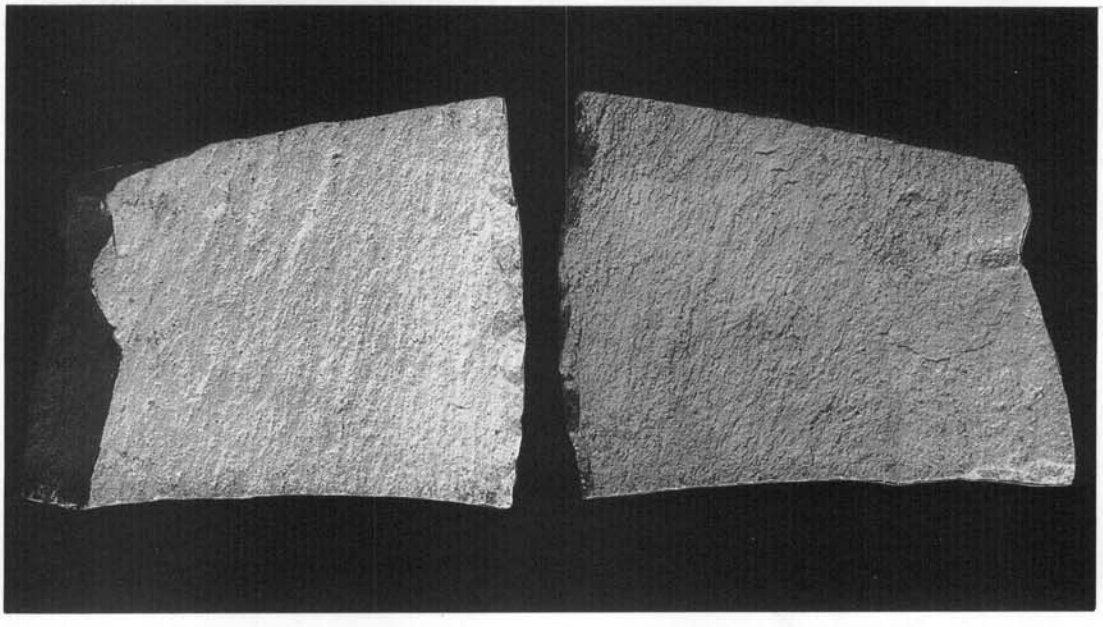


사진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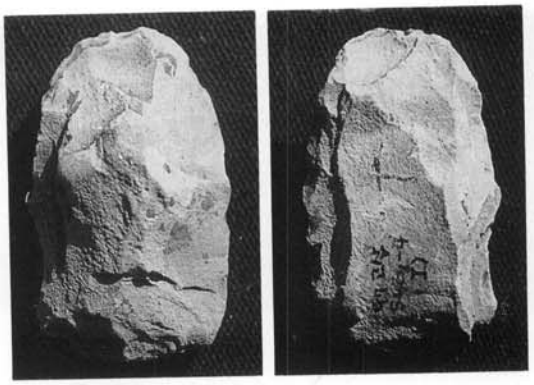


사진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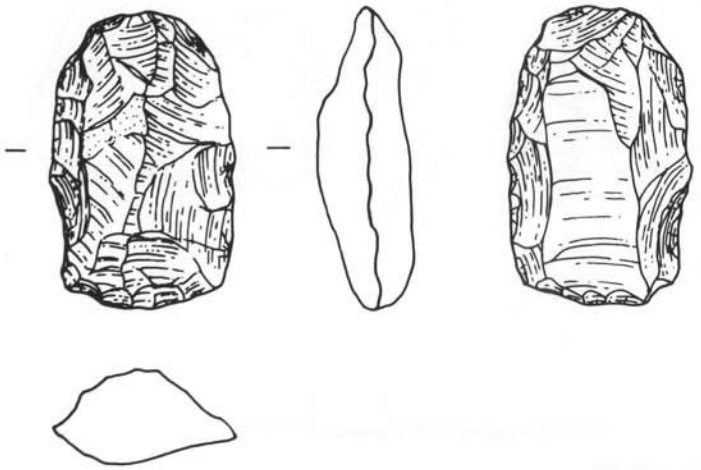


그림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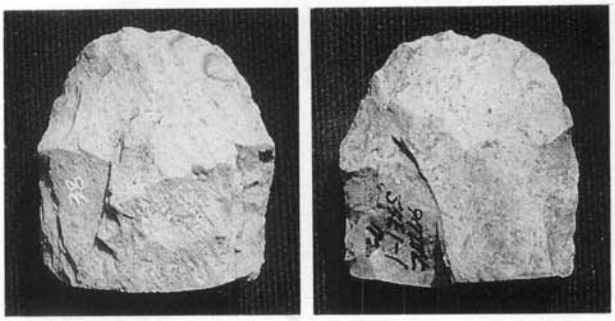


사진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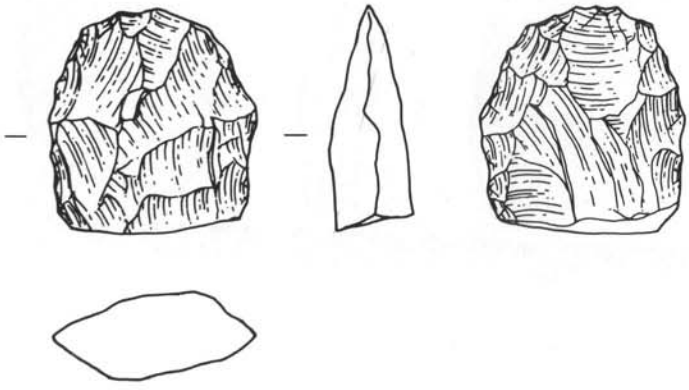


그림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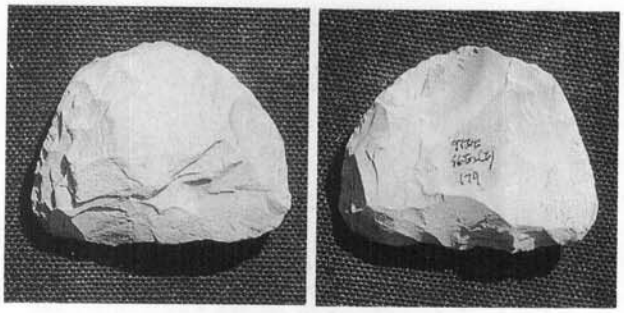


사진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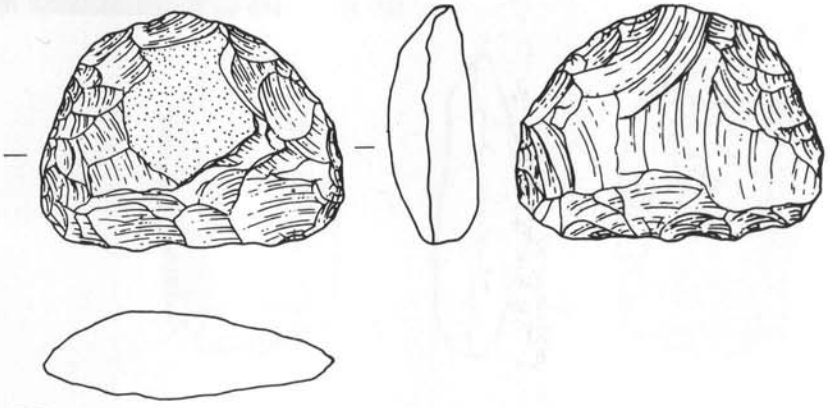


그림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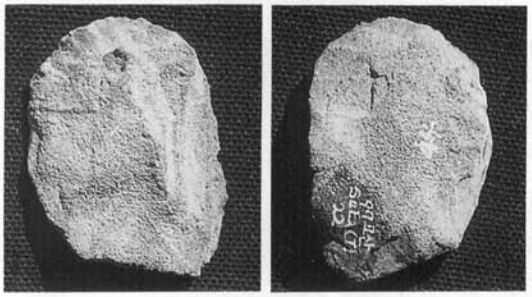


사진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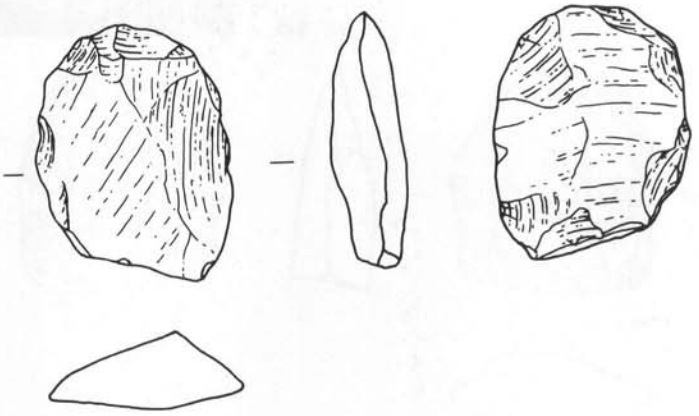


그림 154



사진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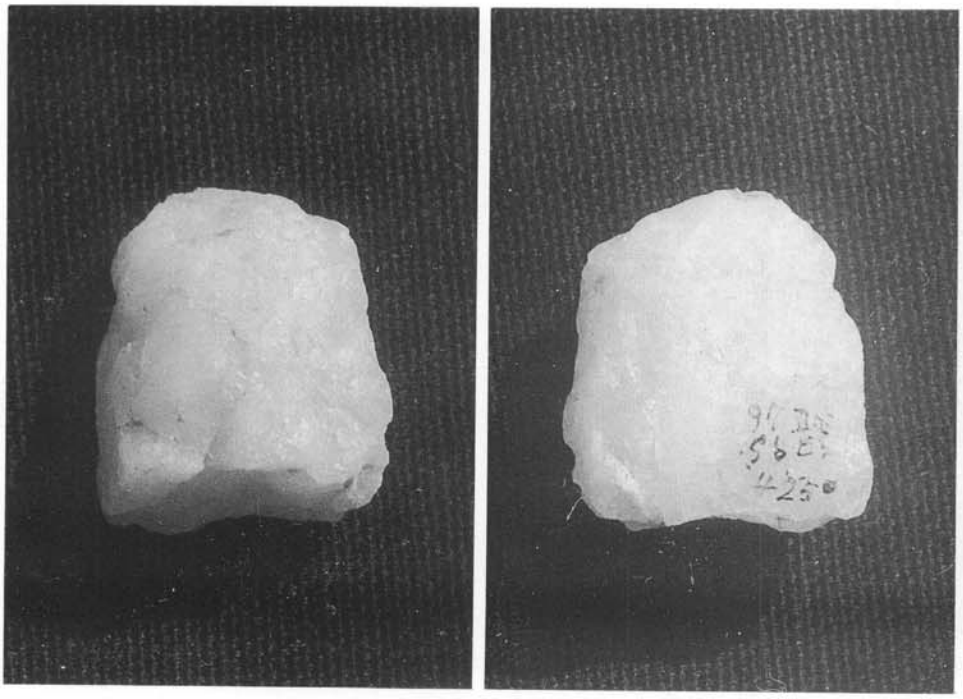


사진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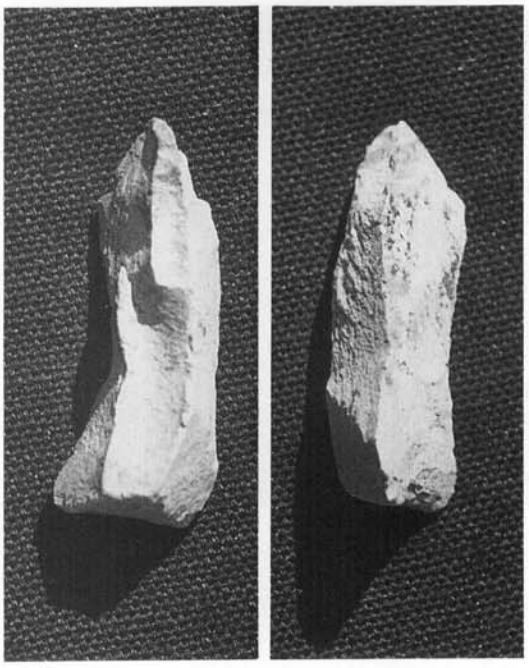


사진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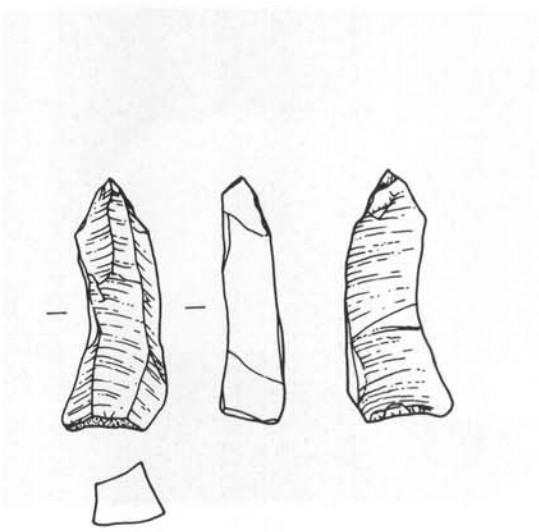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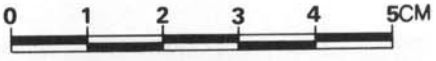


그림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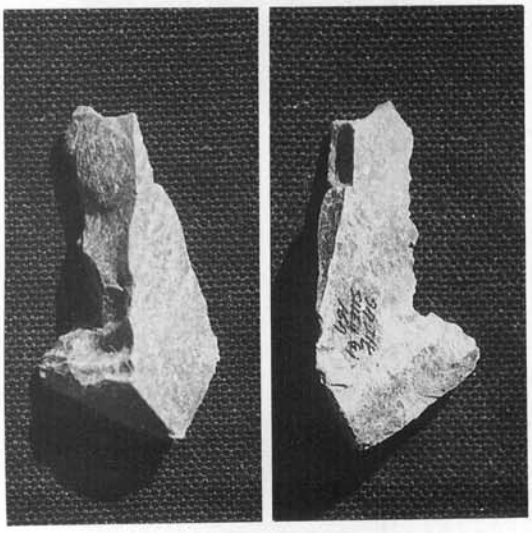


사진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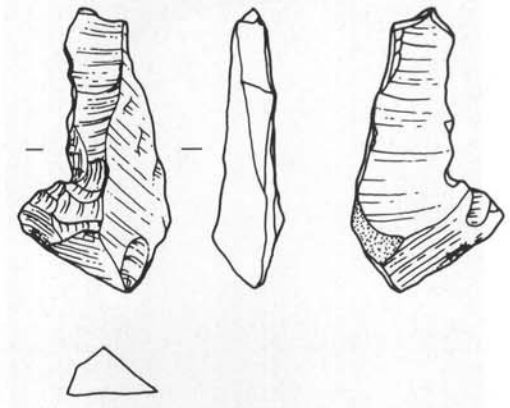


그림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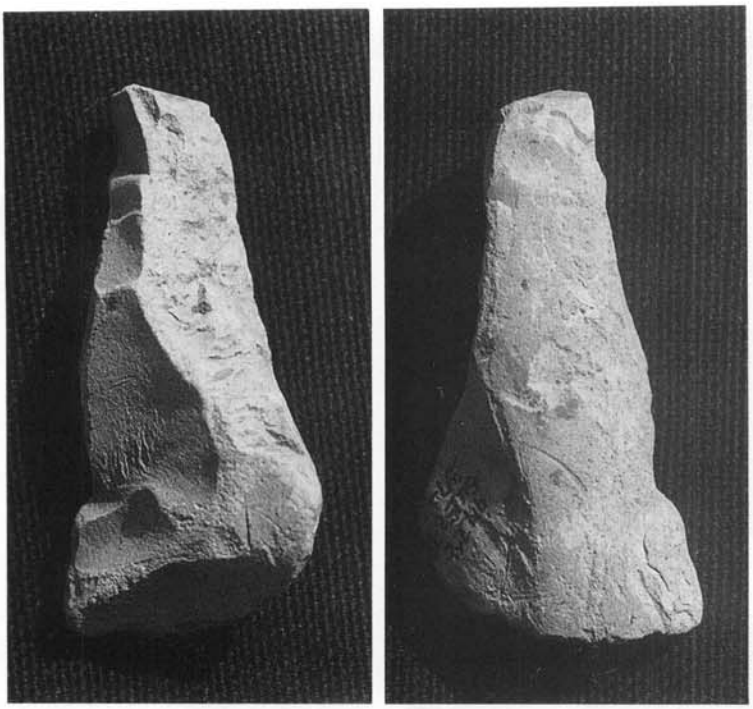


사진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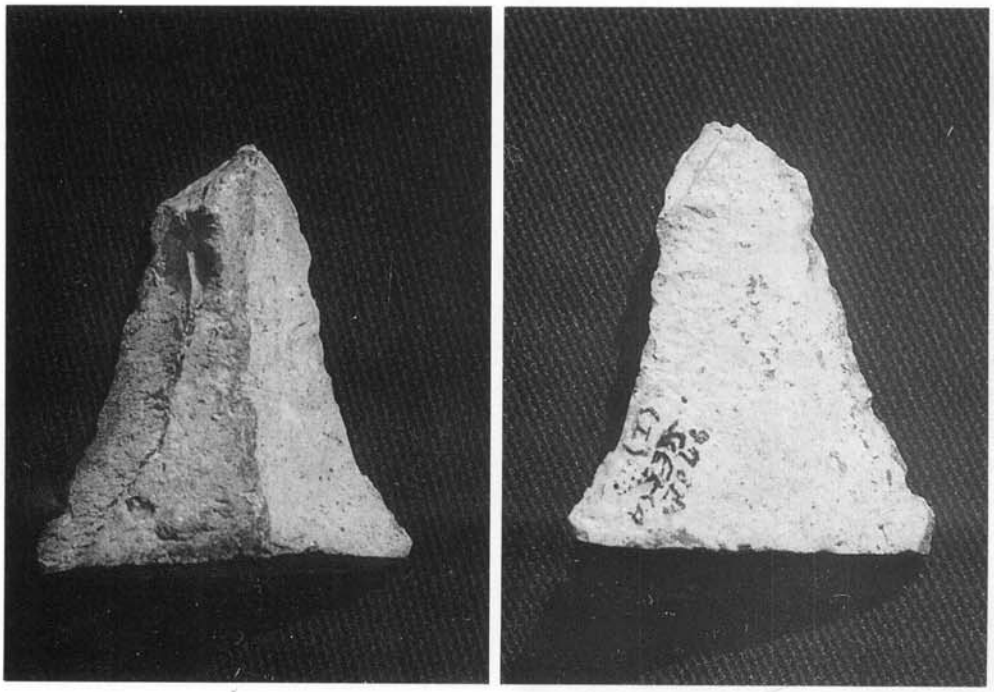


사진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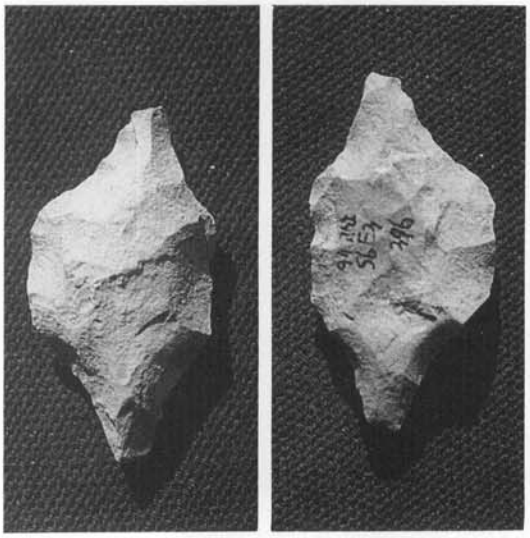


사진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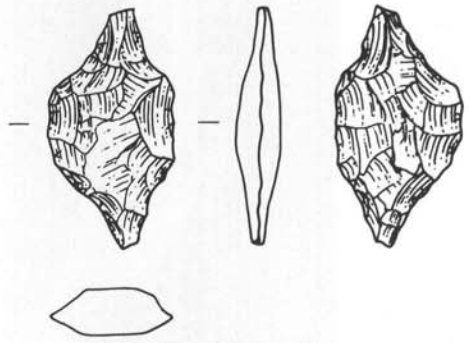


그림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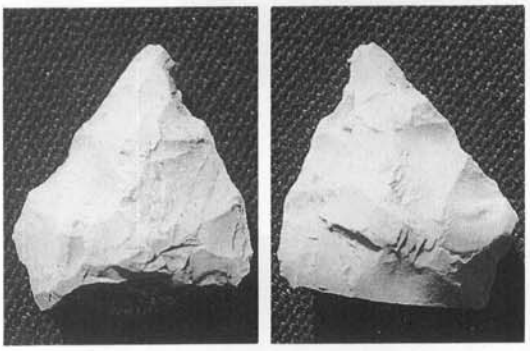


사진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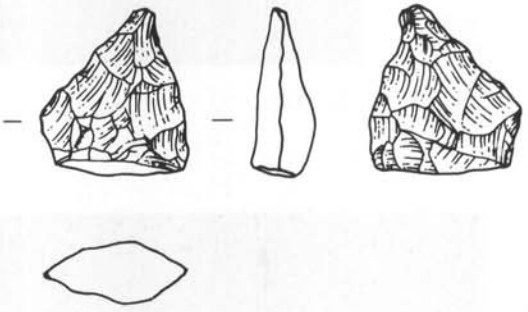


그림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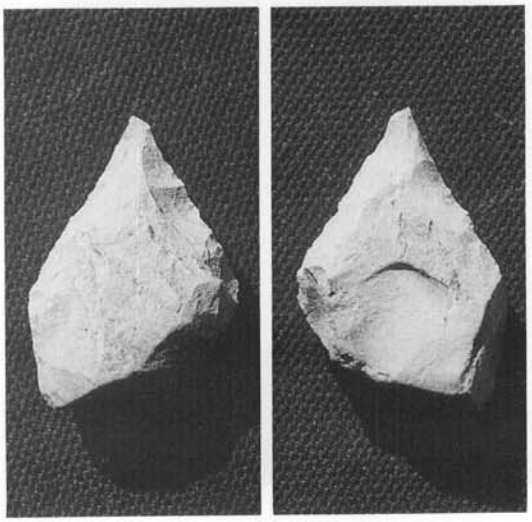


사진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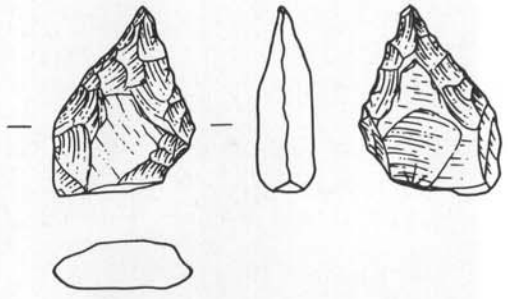


그림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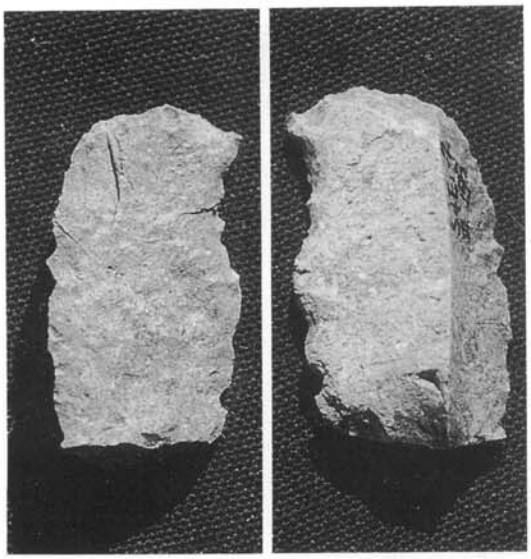


사진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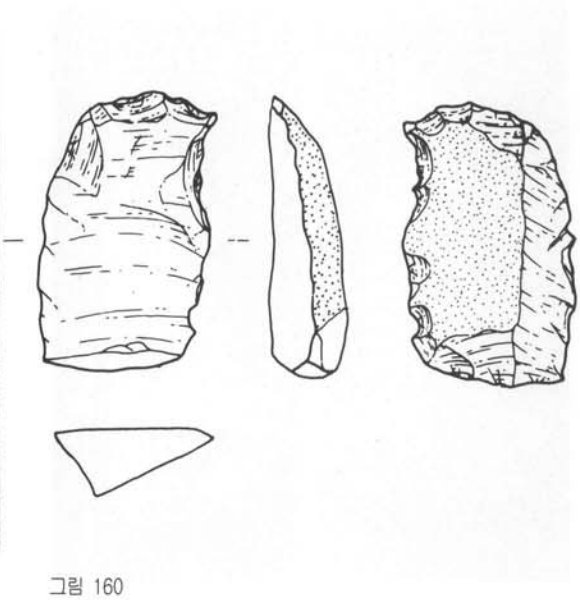


그림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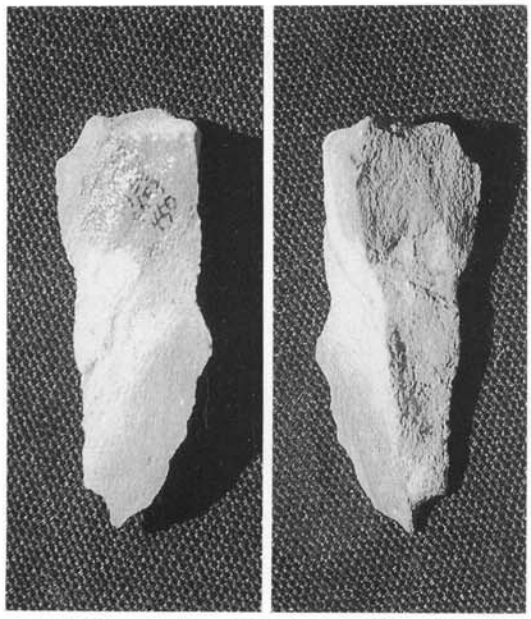


사진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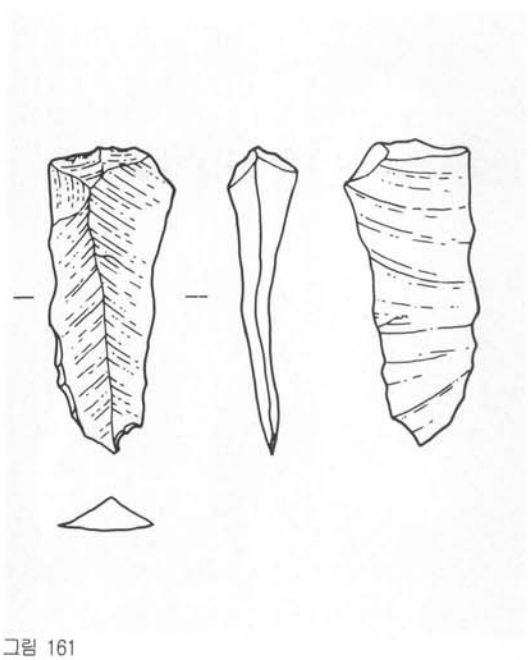


그림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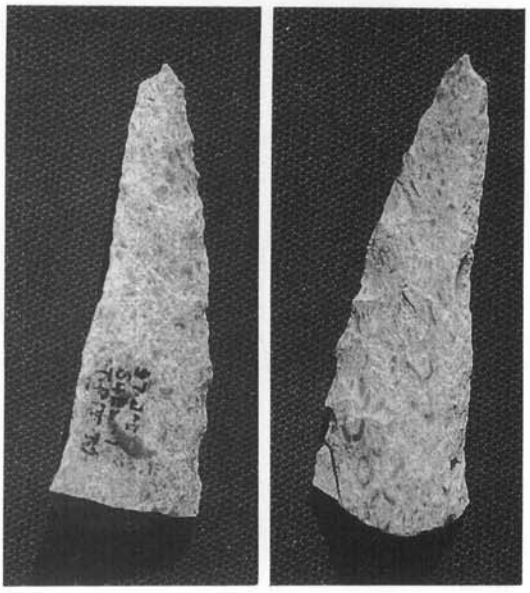


사진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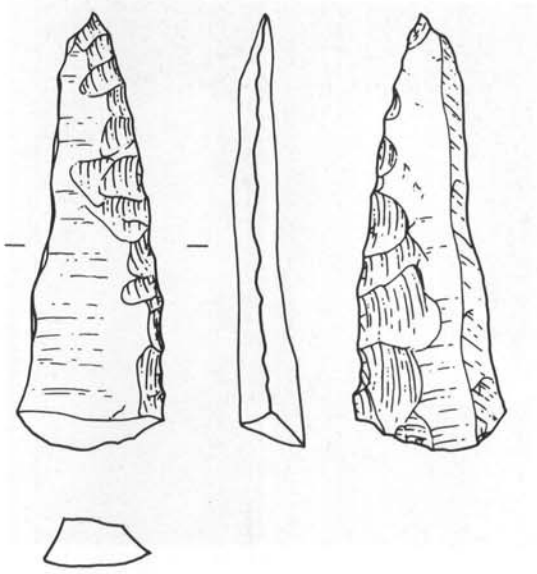


그림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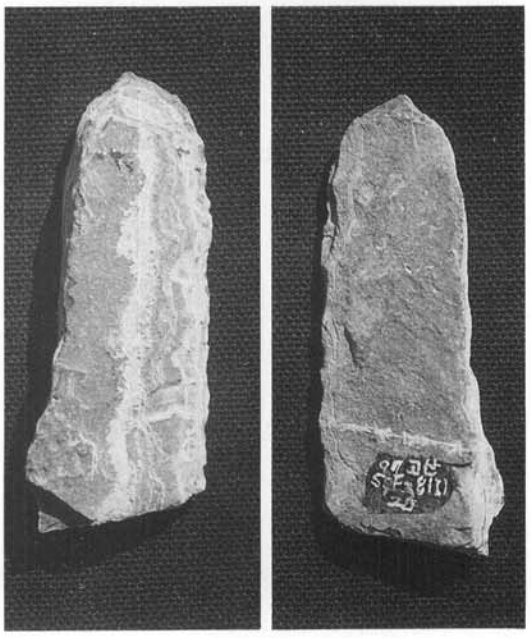


사진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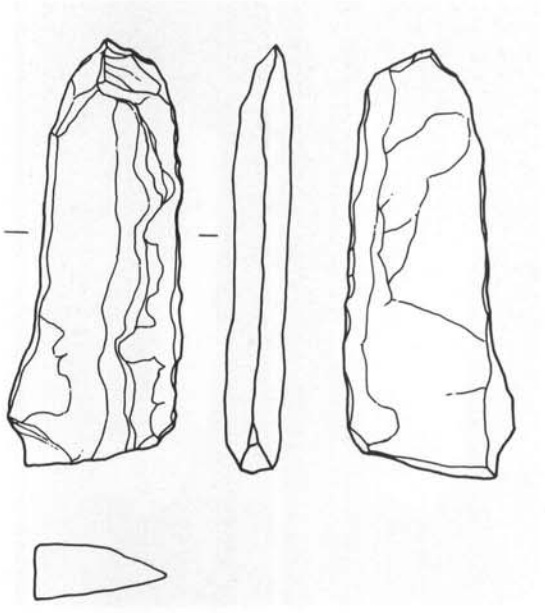


그림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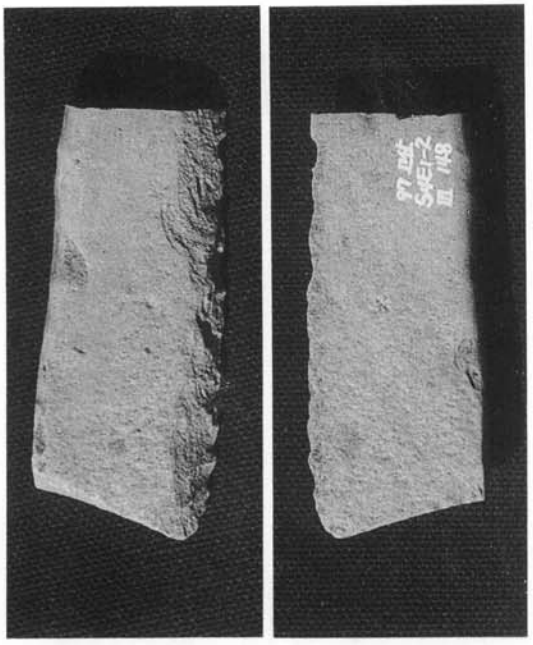


사진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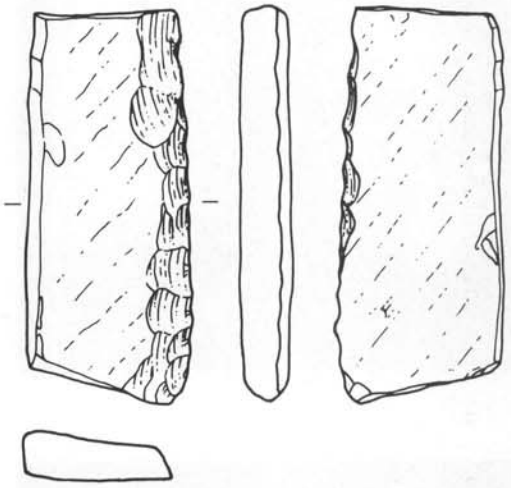


그림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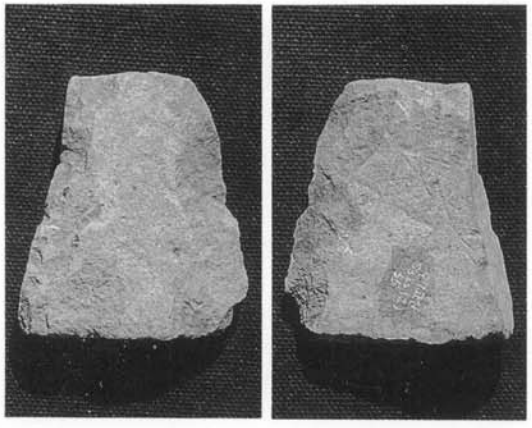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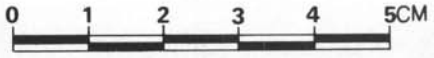


사진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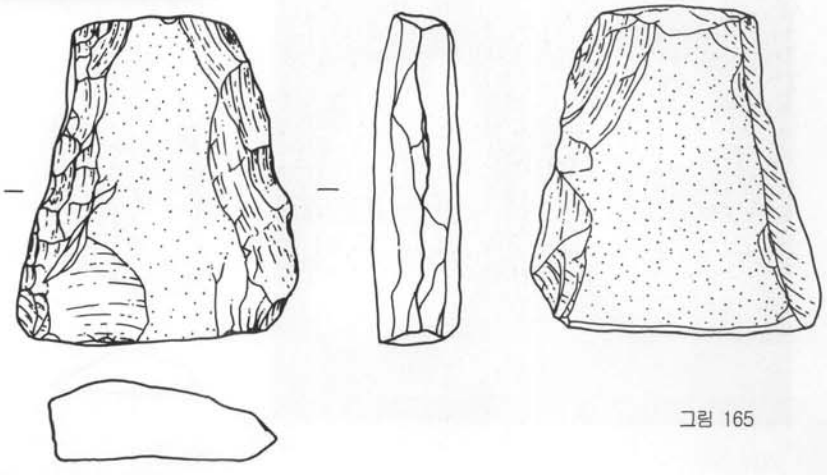


그림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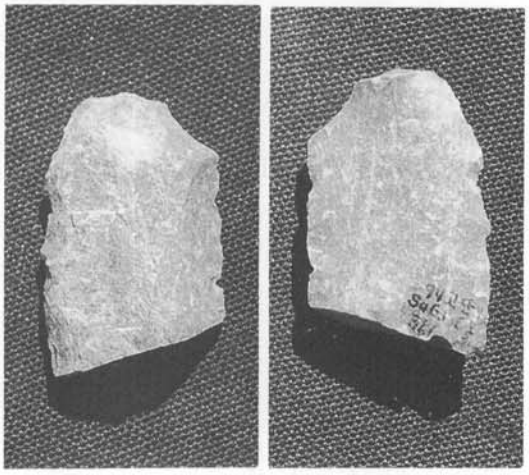


사진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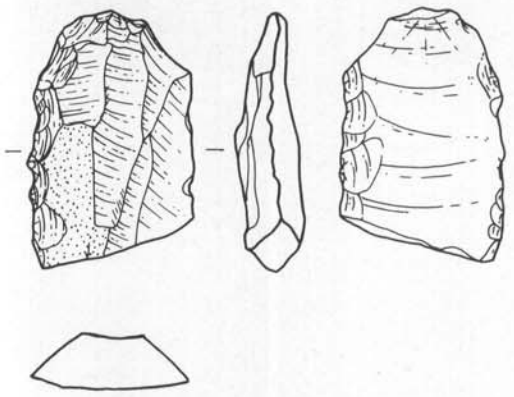


그림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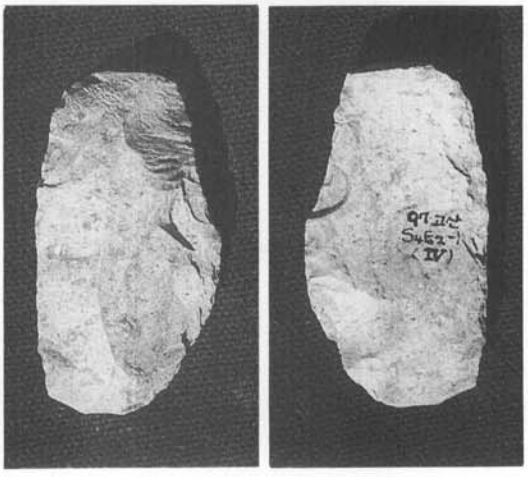


사진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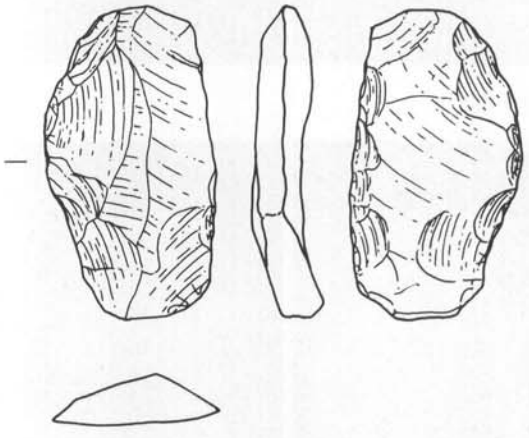


그림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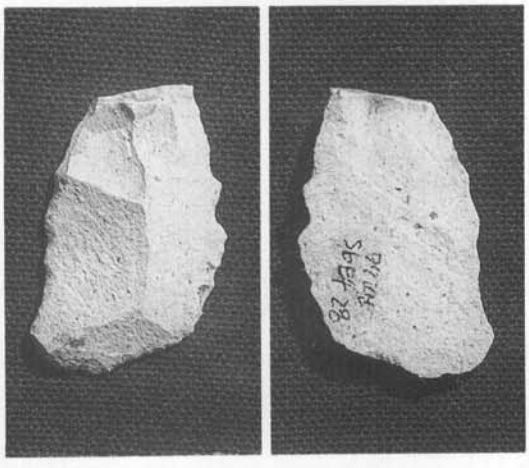


사진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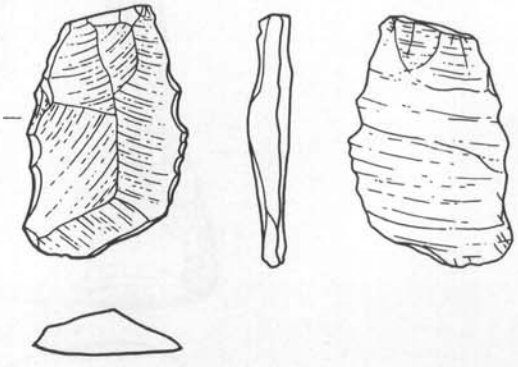


그림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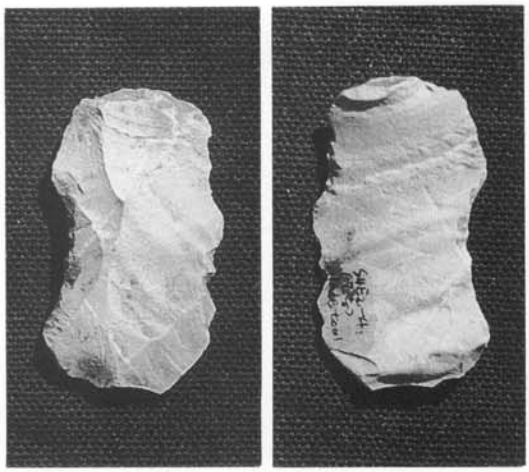


사진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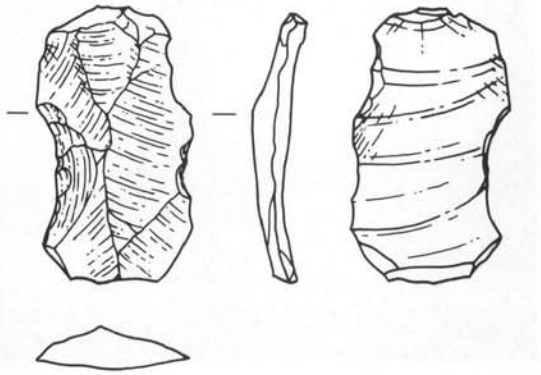


그림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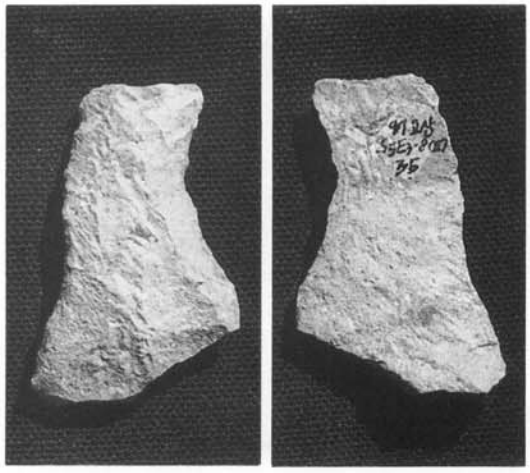


사진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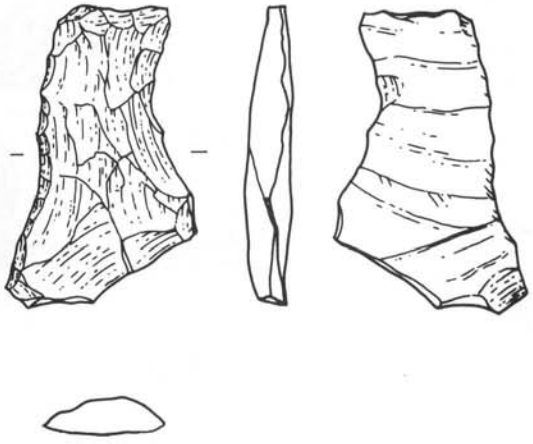


그림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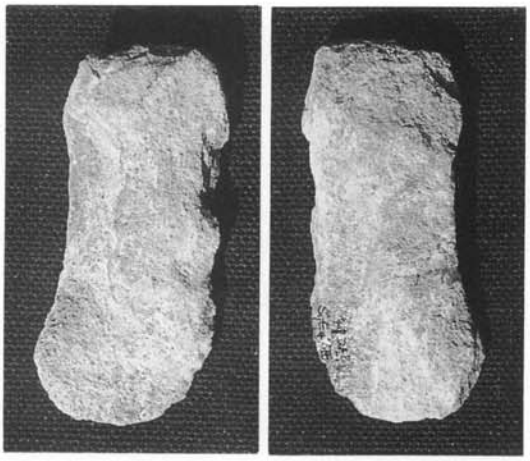


사진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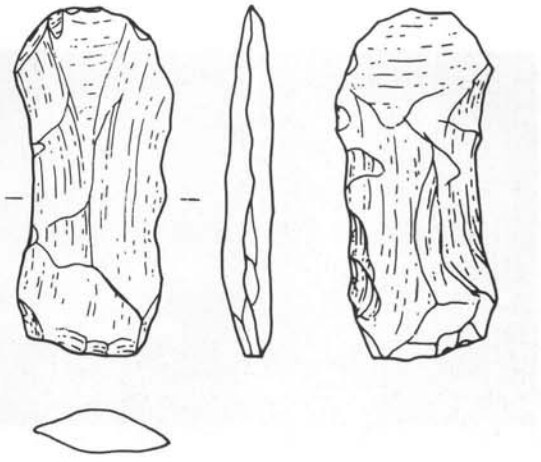


그림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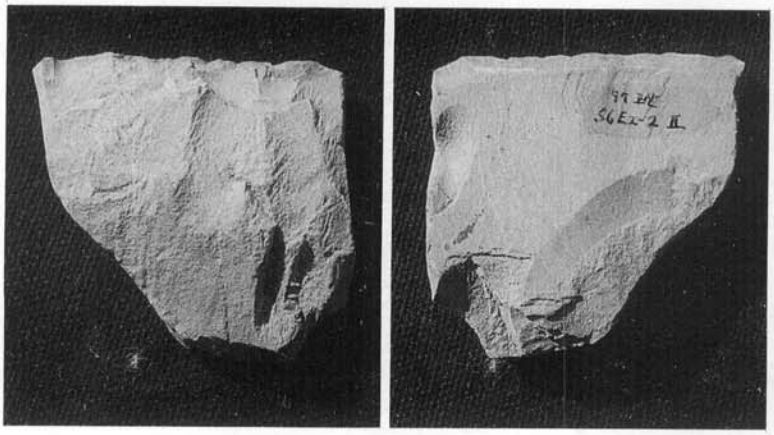


사진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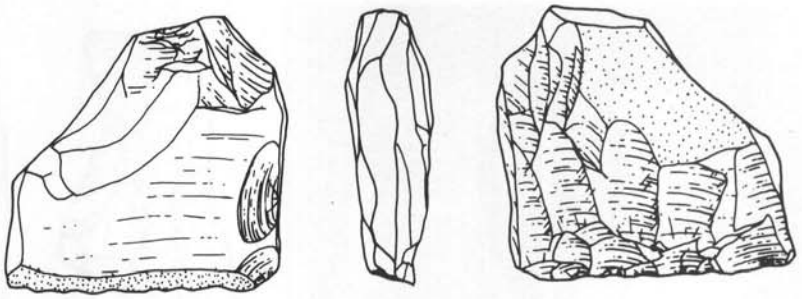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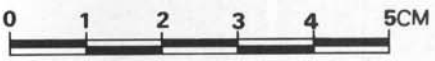


그림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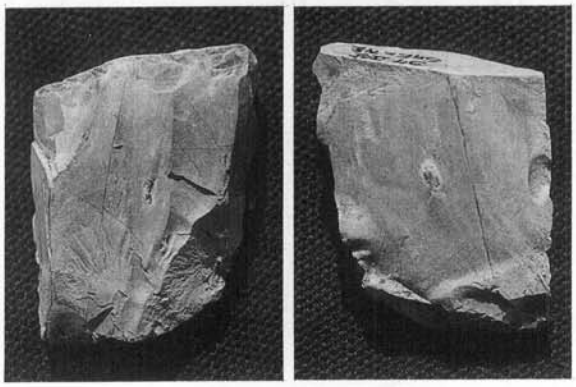


사진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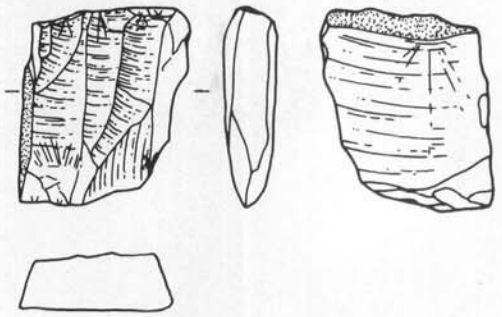


그림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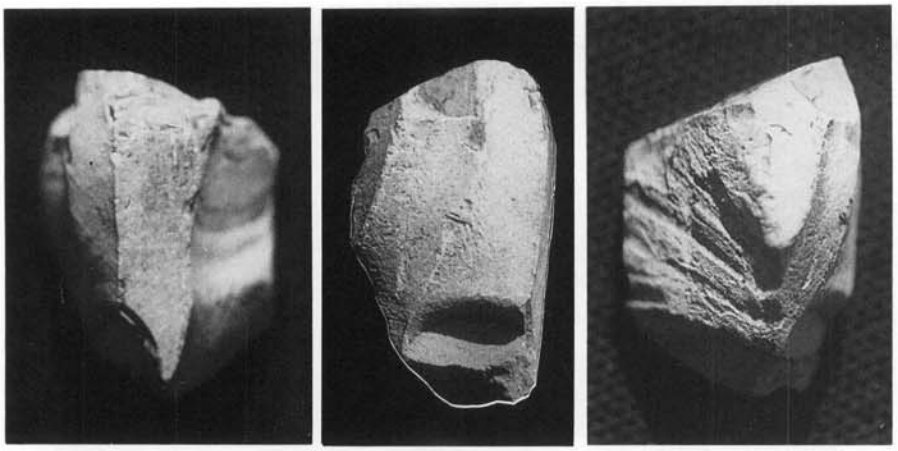


사진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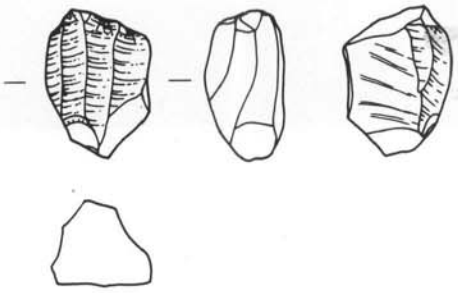


그림 174 0 1 2 3 4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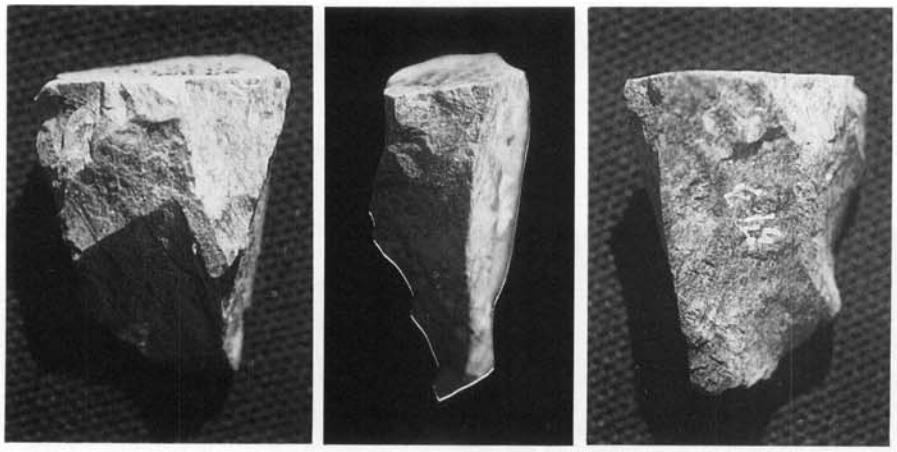


사진 432



그림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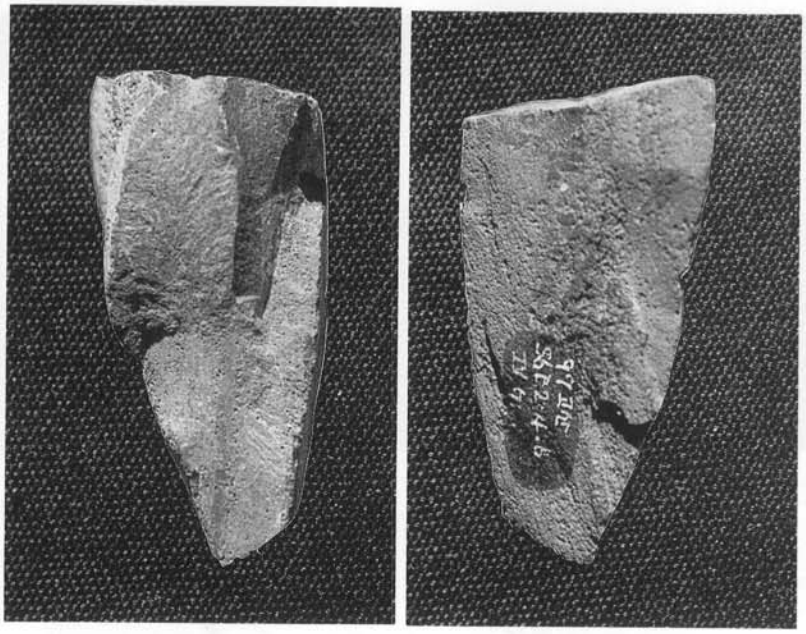


사진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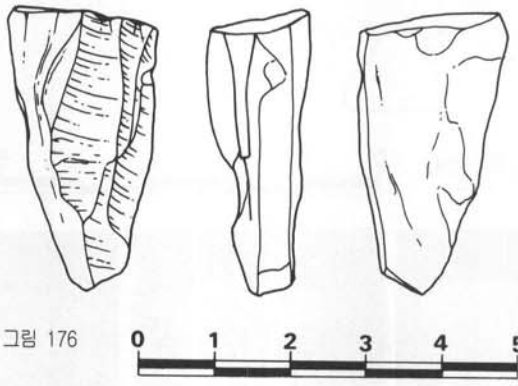


그림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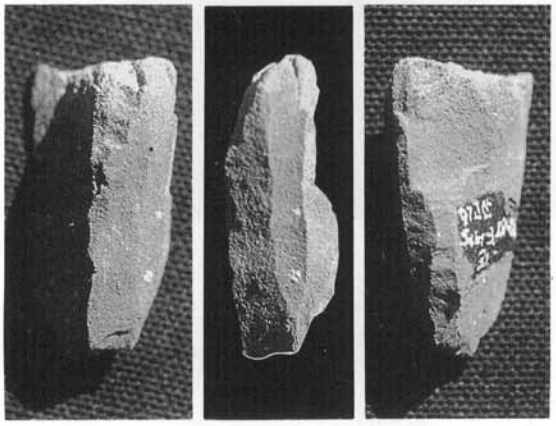


사진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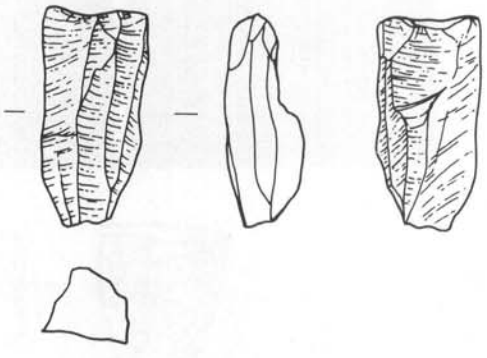


그림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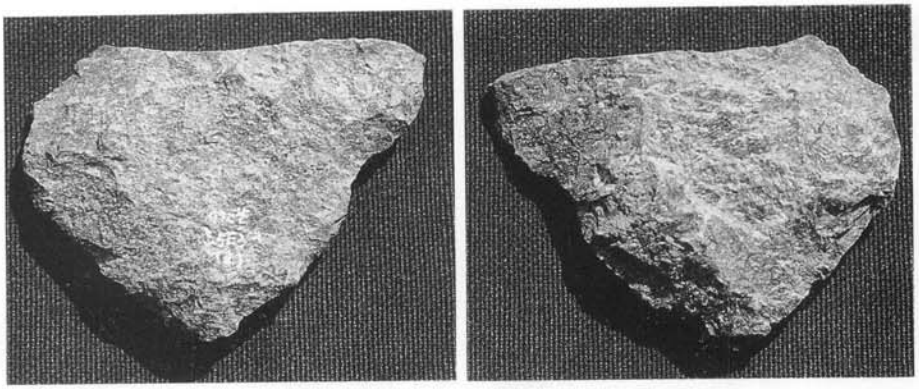


사진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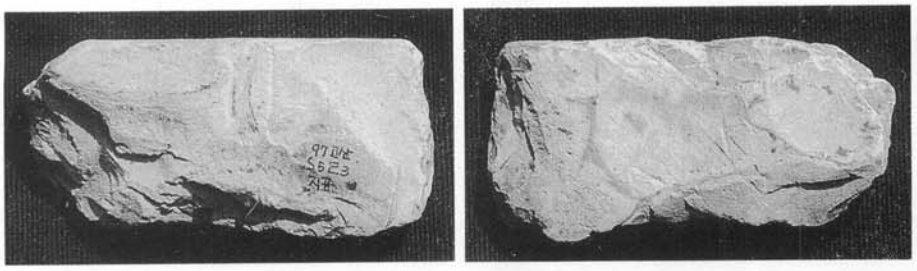


사진 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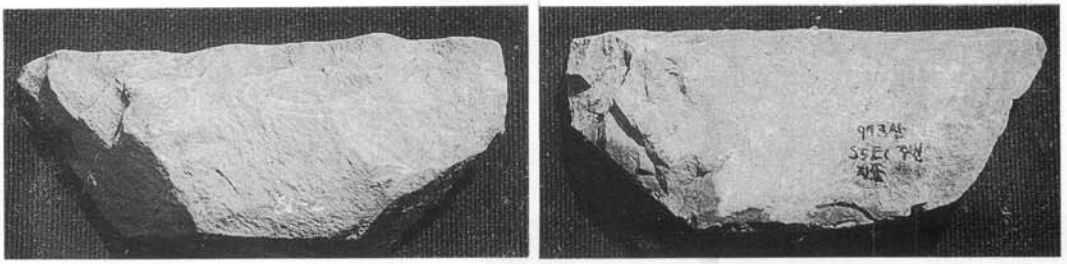


사진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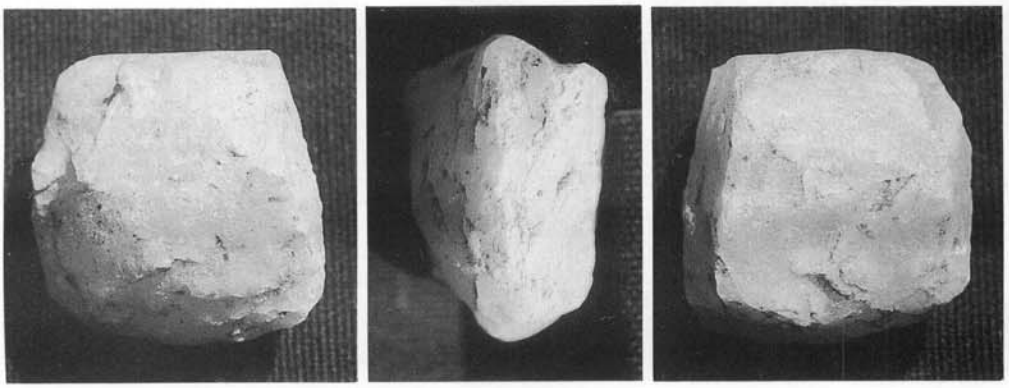


사진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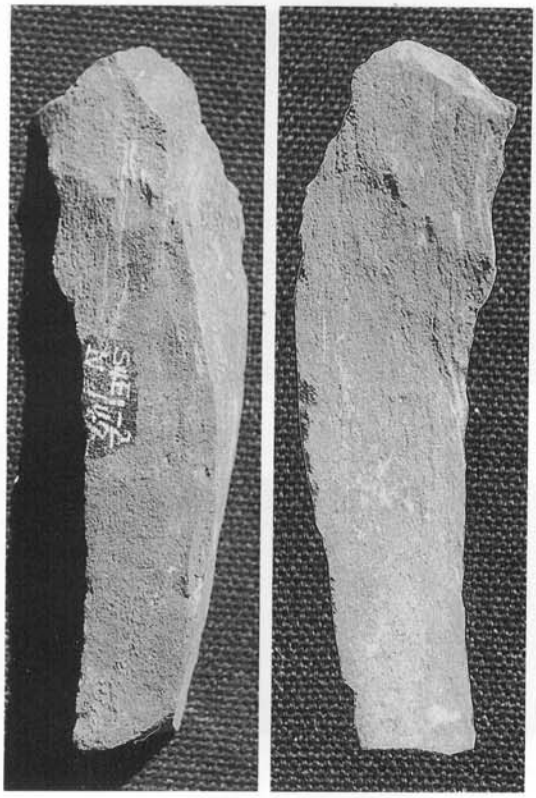


사진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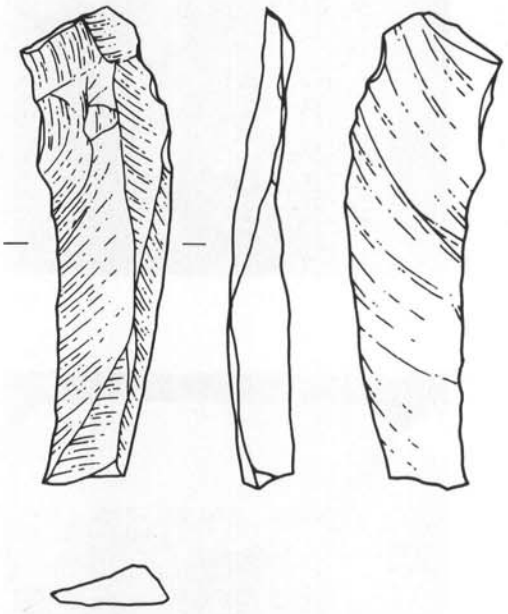


그림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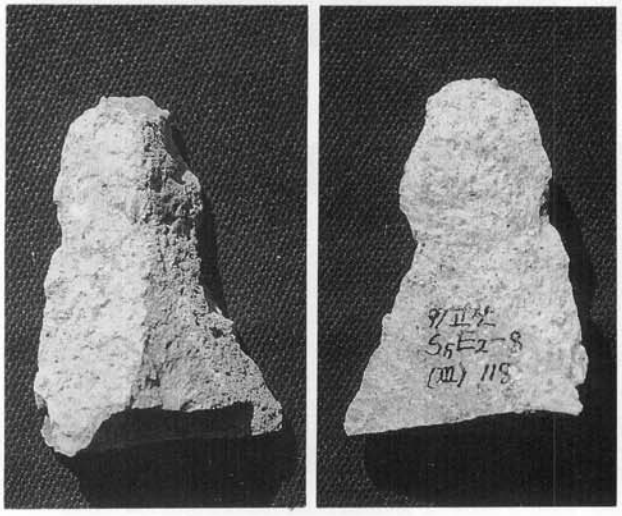


사진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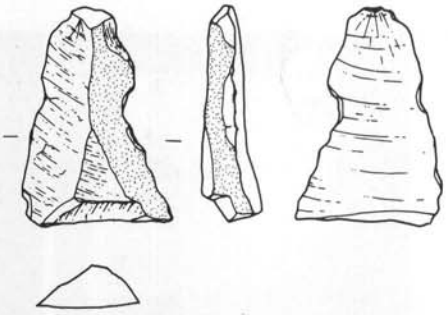


그림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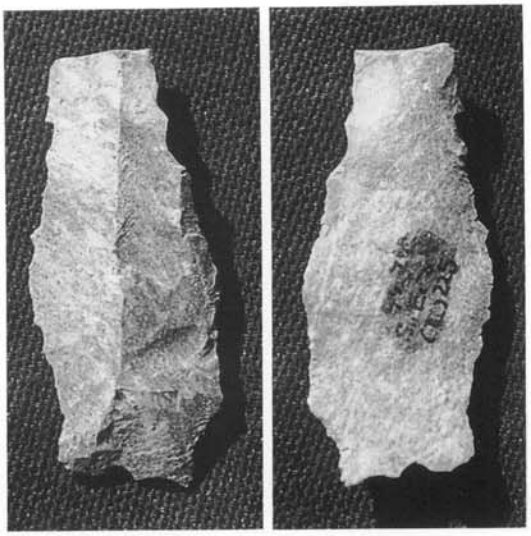


사진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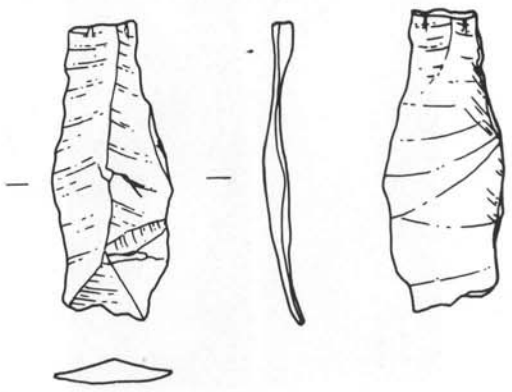


그림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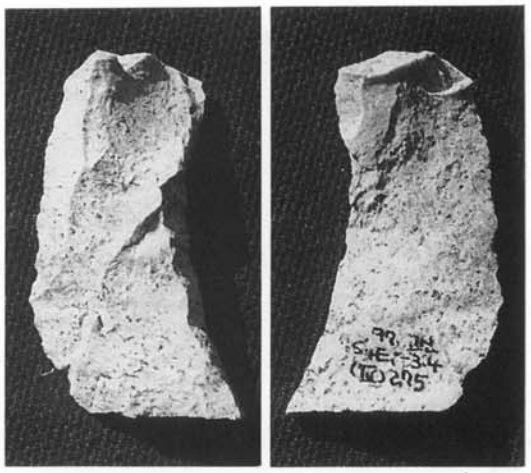


사진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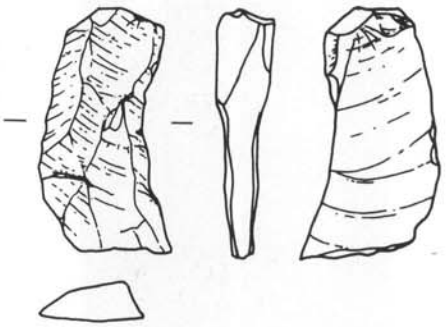


그림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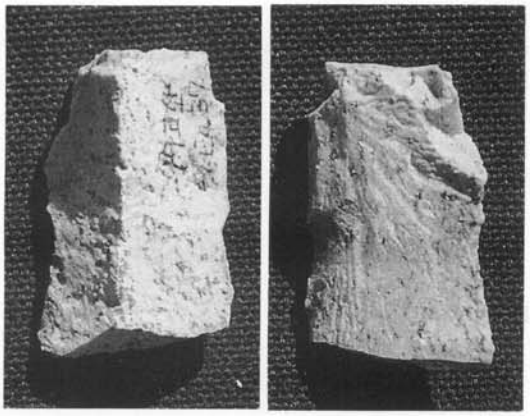


사진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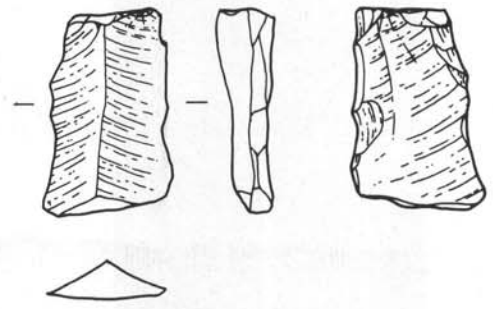


그림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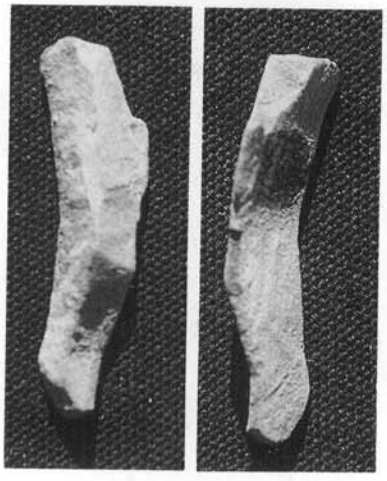


사진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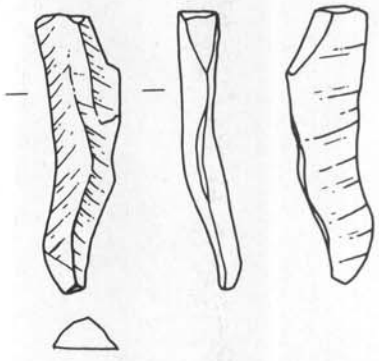


그림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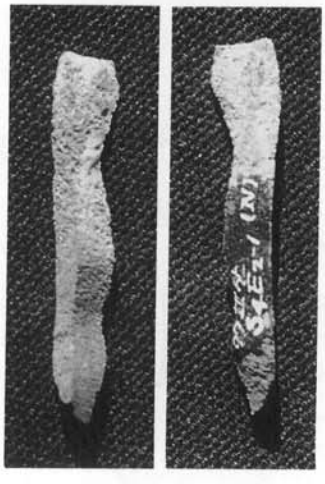


사진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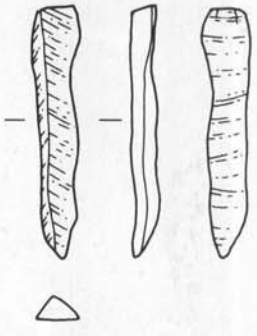


그림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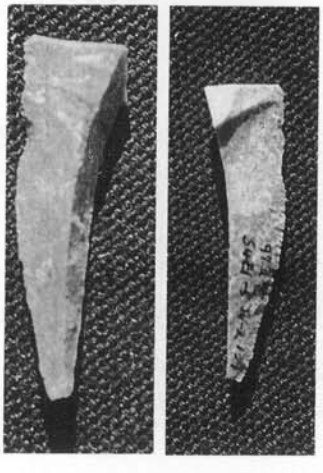


사진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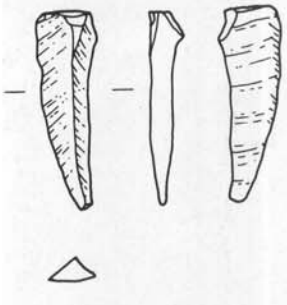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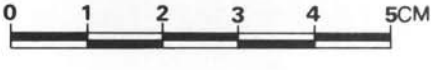


그림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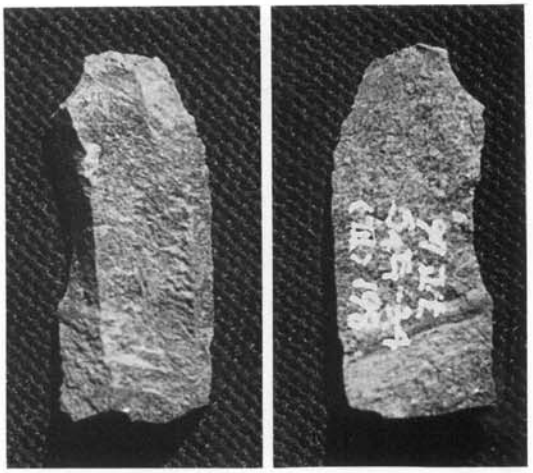


사진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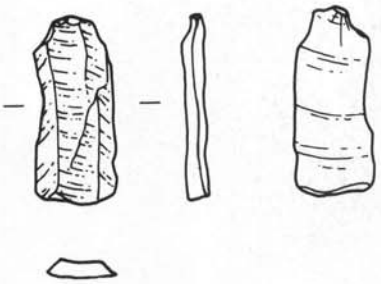


그림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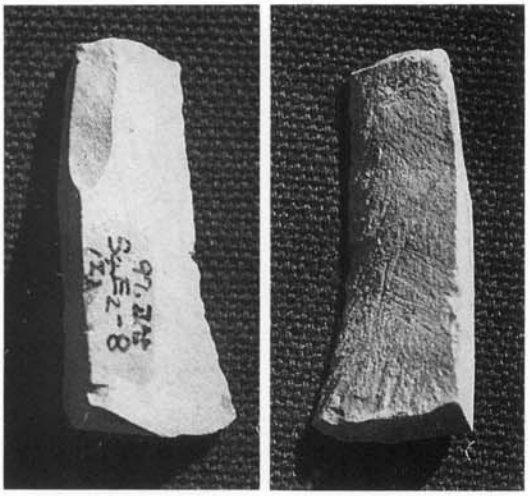


사진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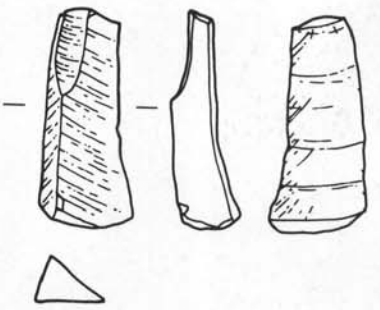


그림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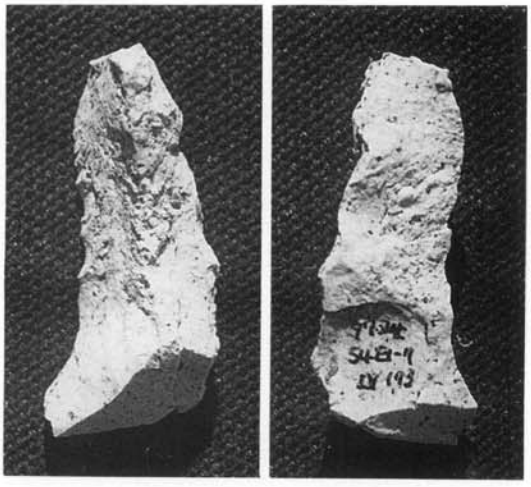


사진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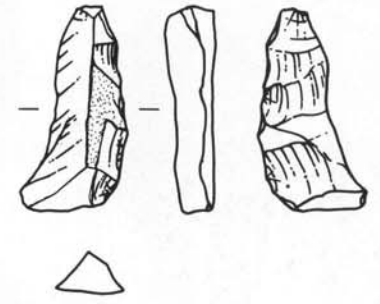


그림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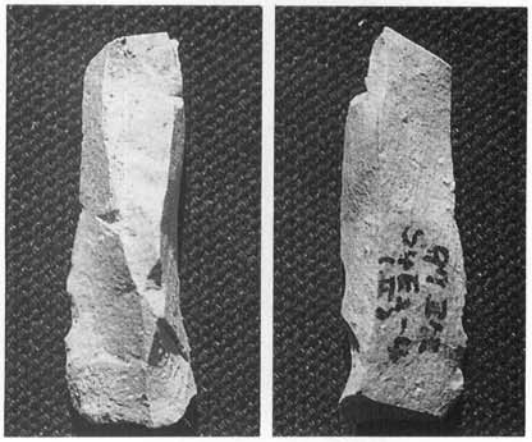


사진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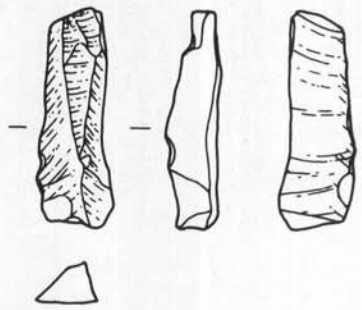


그림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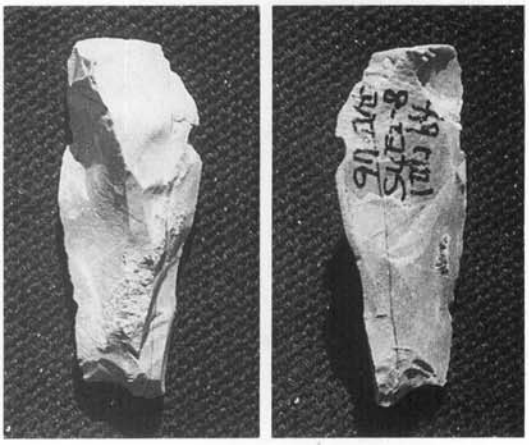


사진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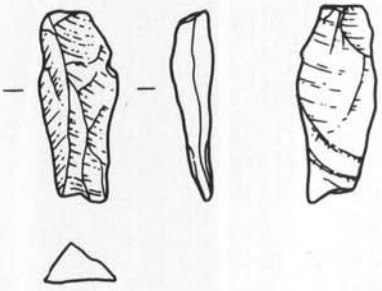


그림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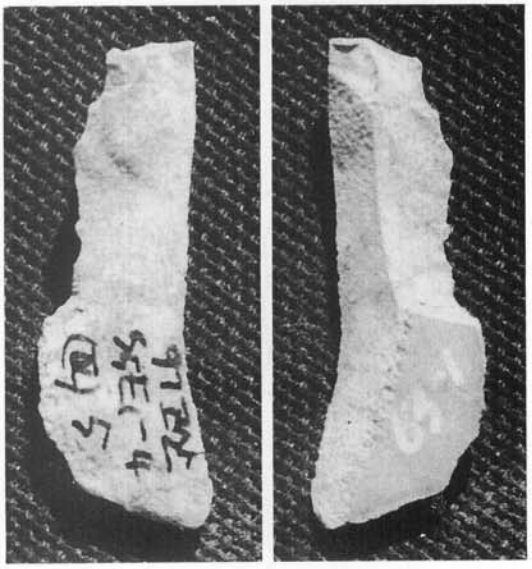


사진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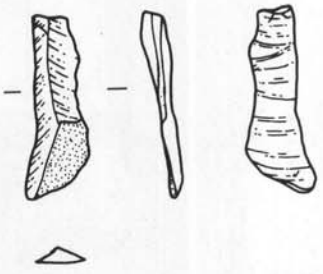


그림 191





사진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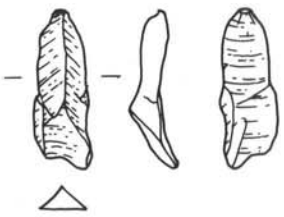


그림 192



사진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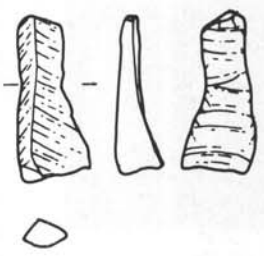


그림 193



사진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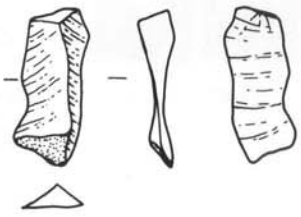


그림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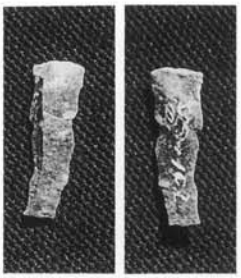


사진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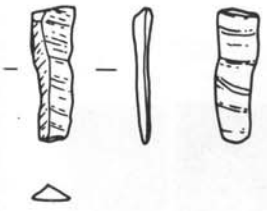


그림 195



사진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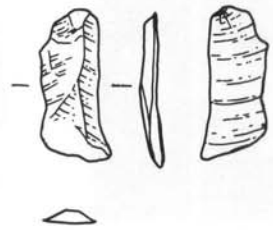


그림 196



사진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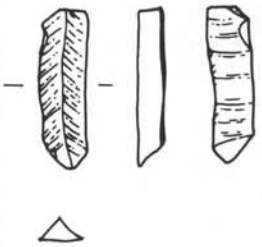


그림 197



사진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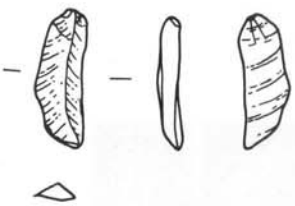


그림 198



사진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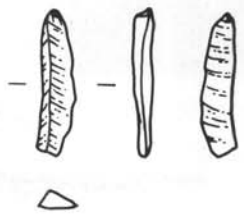


그림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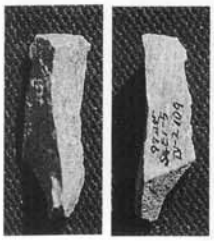


사진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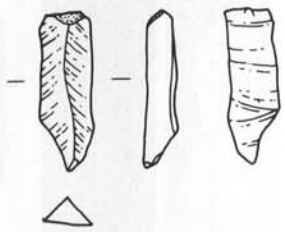


그림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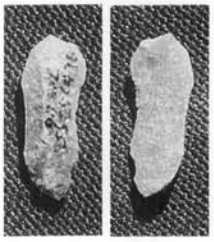


사진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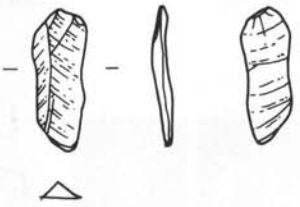


그림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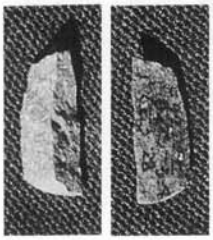


사진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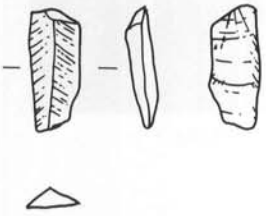


그림 202



사진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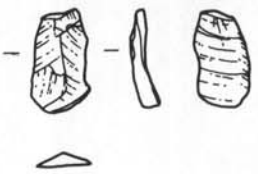


그림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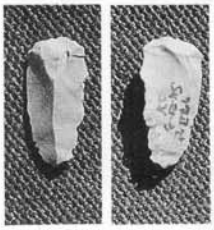


사진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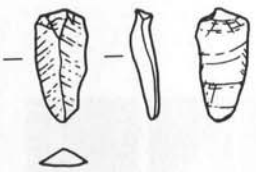


그림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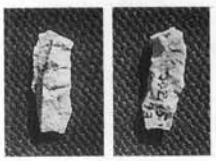


사진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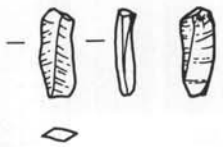


그림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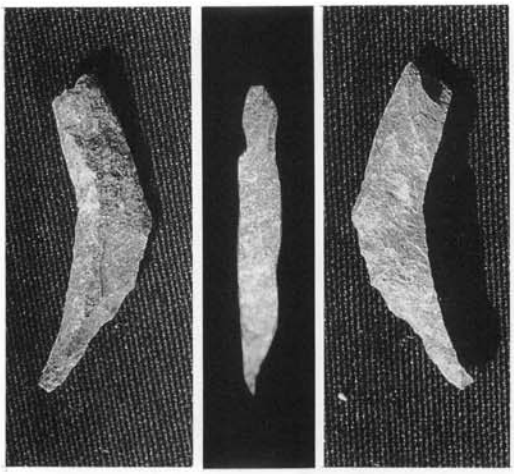


사진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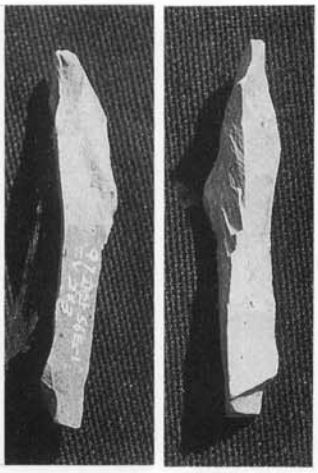


사진 468



사진 469



사진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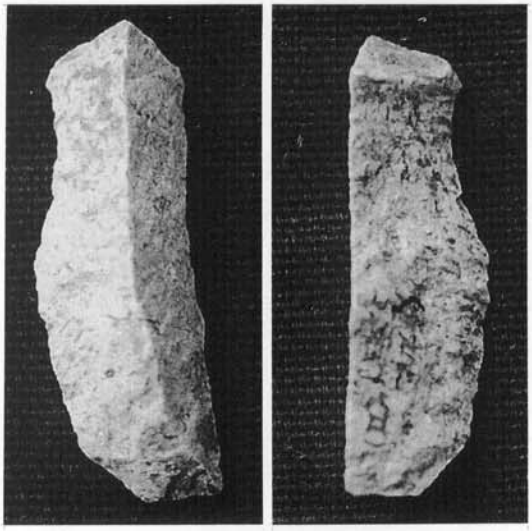


사진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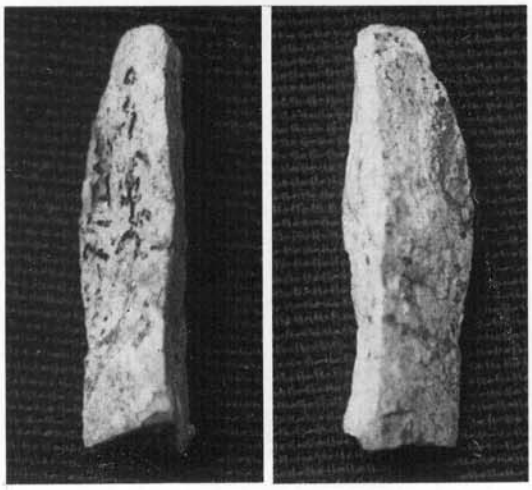


사진 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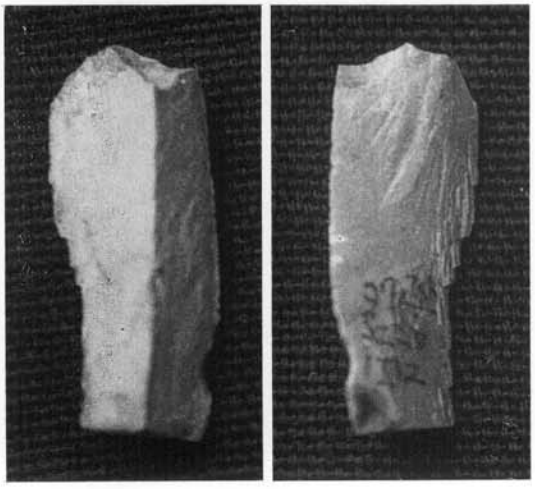


사진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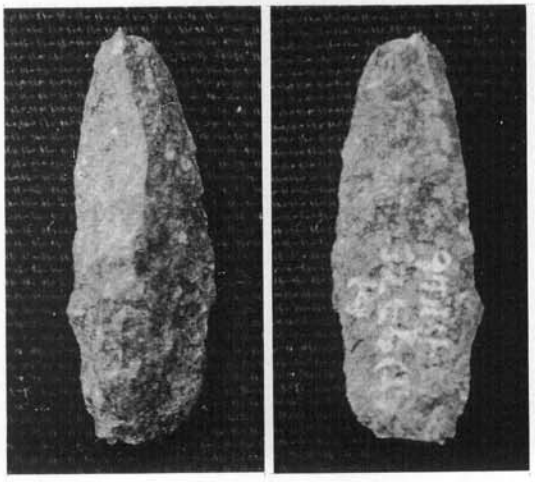


사진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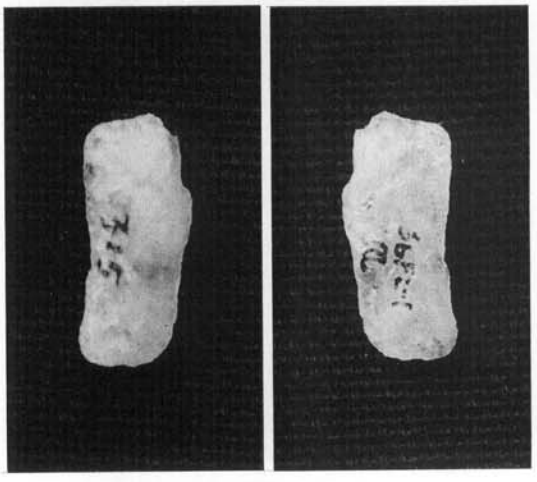


사진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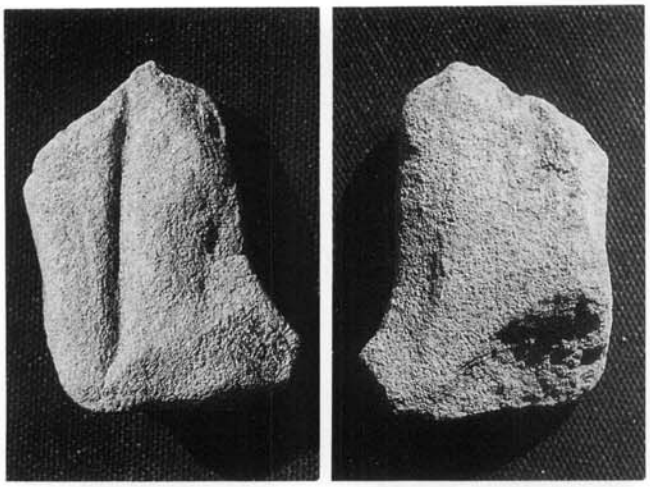


사진 476



사진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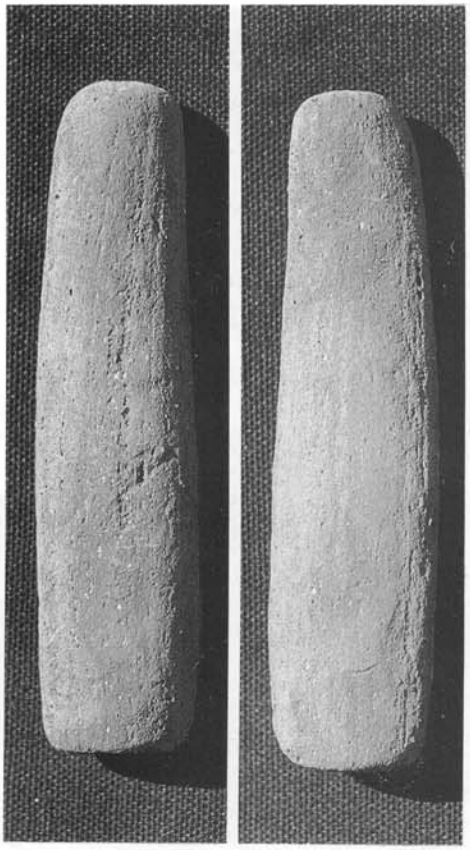


사진 478



사진 479. 돌망치(2)



사진 480. 돌망치(3)



사진 481. 돌망치(4)



사진 482. 돌망치(5)



사진 483. 홈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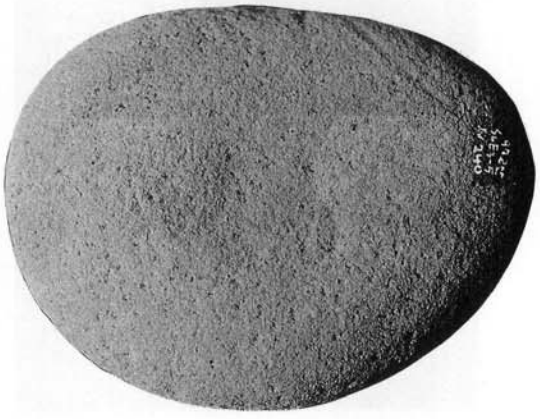




사진 484. 홈돌(2)



사진 485. 석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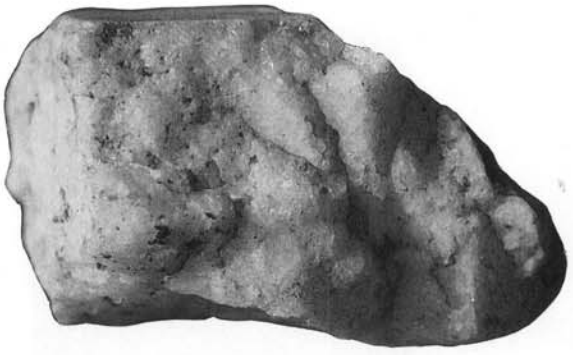


사진 486. 석재(2)



사진 487. 석재(3)



사진 488. 석재(4)



사진 489. 석재(5)



사진 490. 석재(6)



사진 491. 석재(7)



사진 492. 구연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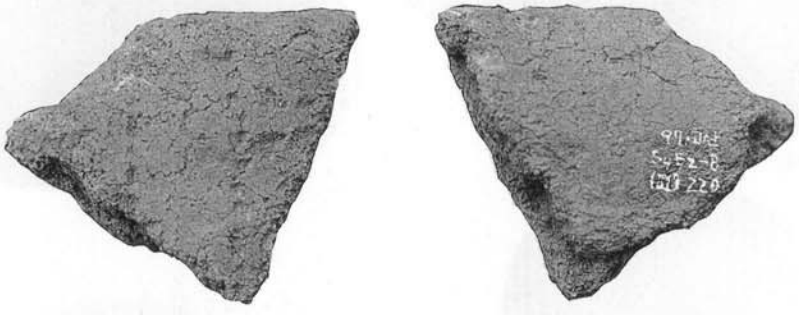


사진 493. 구연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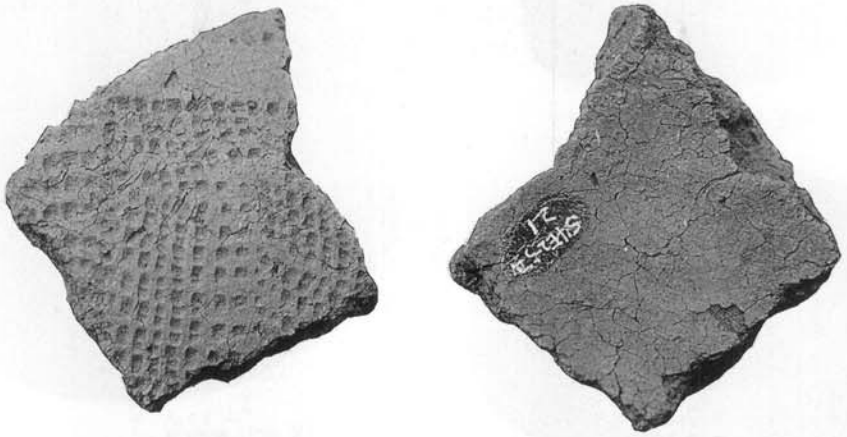


사진 494. 동체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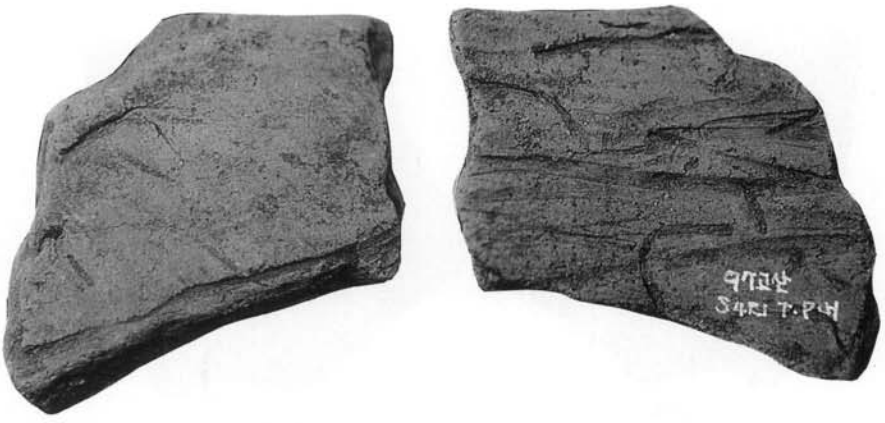


사진 495. 구연부(4)



사진 496. 구연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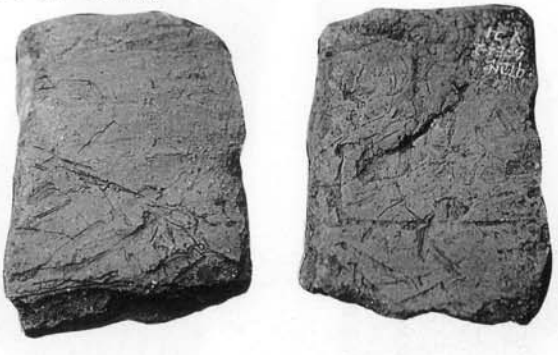


사진 497. 구연부(6)



사진 498. 구연부(7)



사진 499. 구연부(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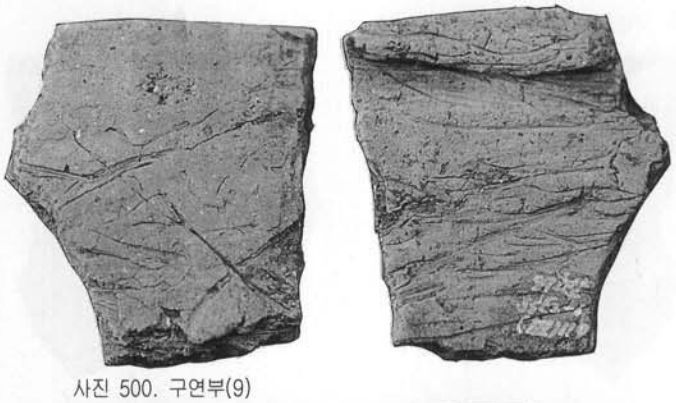


사진 500. 구연부(9)



사진 501. 구연부(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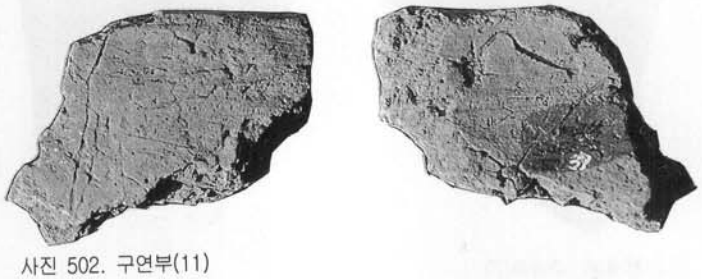


사진 502. 구연부(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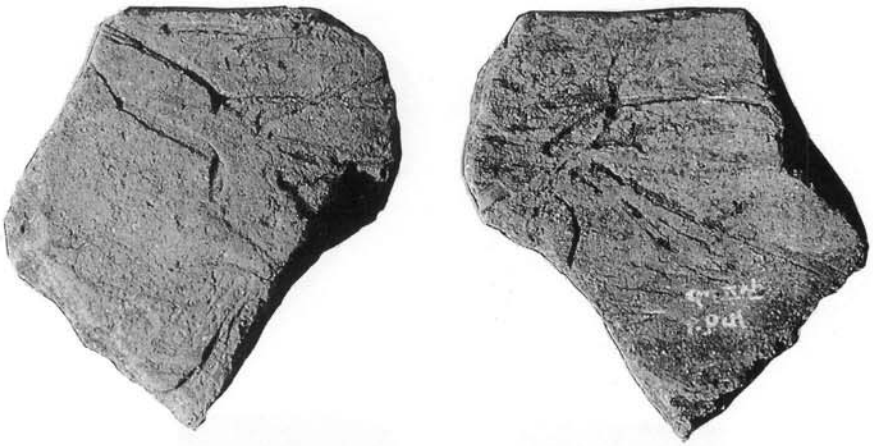


사진 503. 구연부(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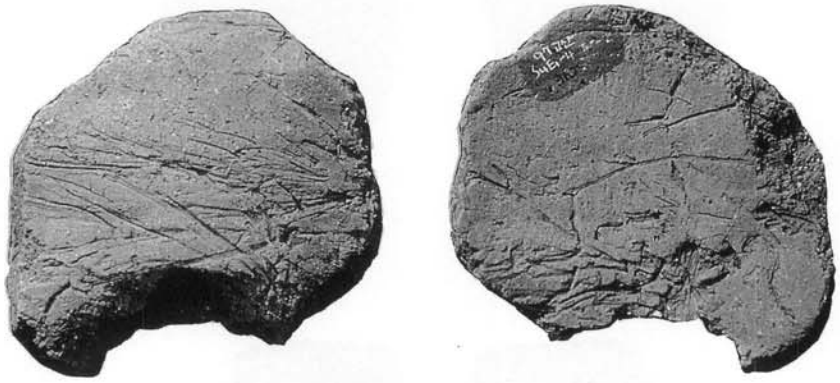


사진 504. 구연부(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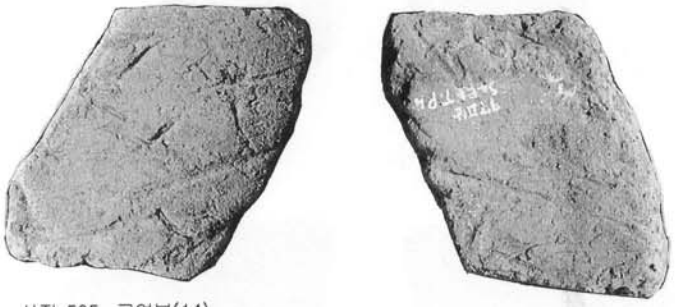


사진 505. 구연부(14)



사진 506. 구연부(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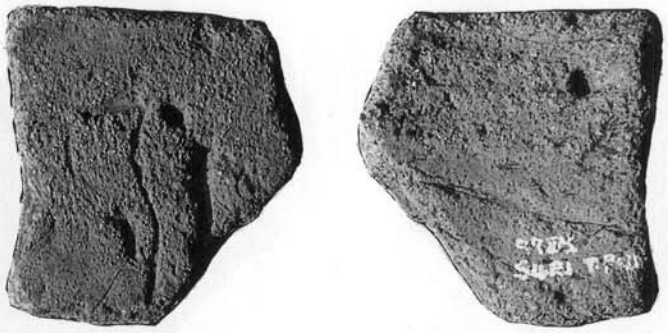


사진 507. 구연부(16)



사진 508. 구연부(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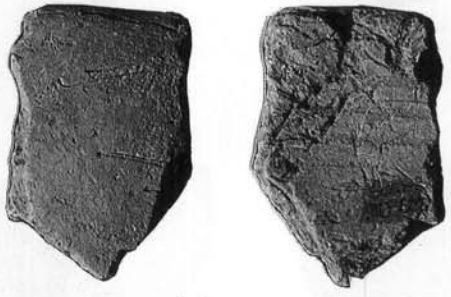


사진 509. 구연부(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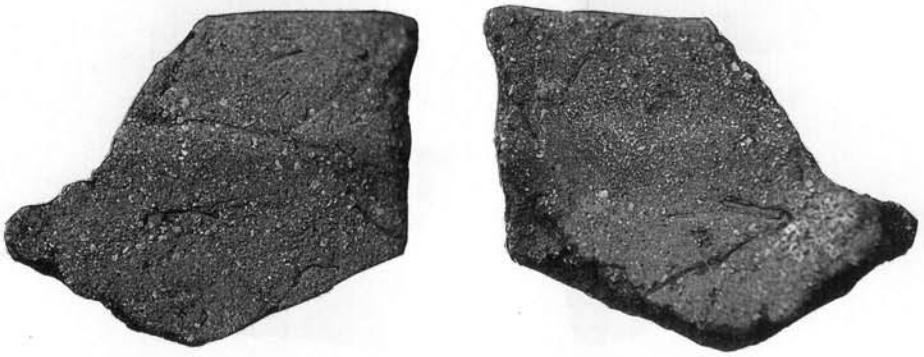


사진 510. 구연부(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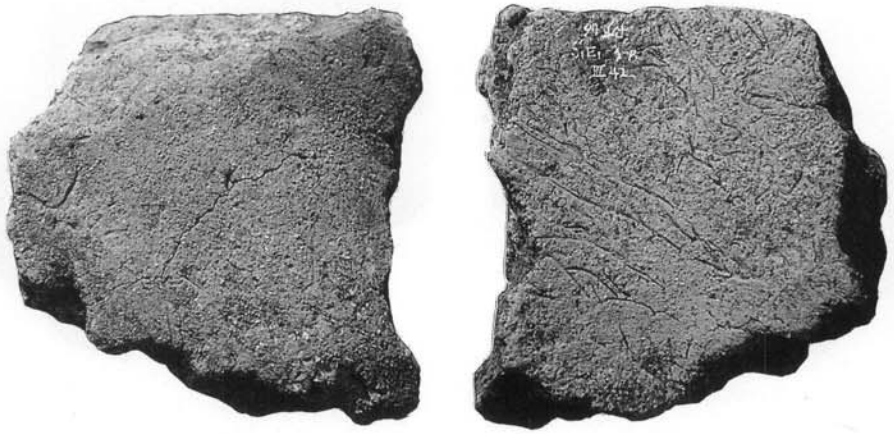


사진 511. 동체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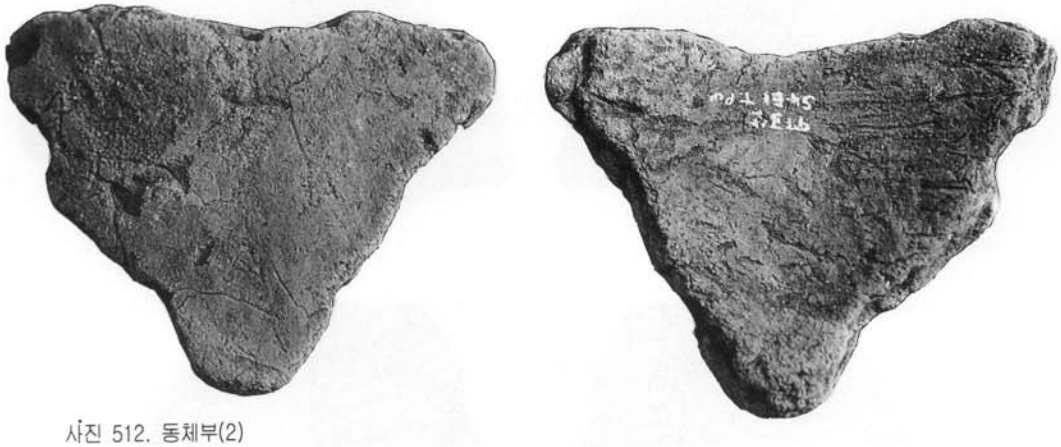


사진 512. 동체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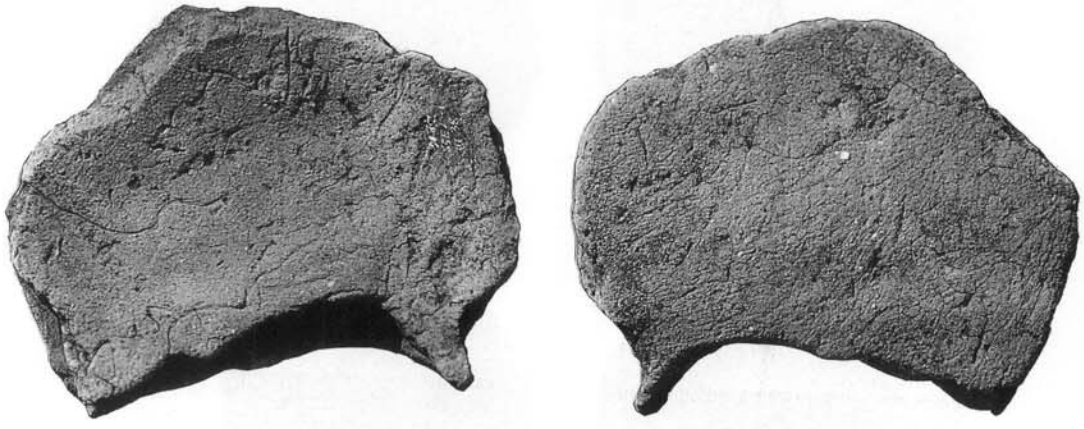


사진 513. 동체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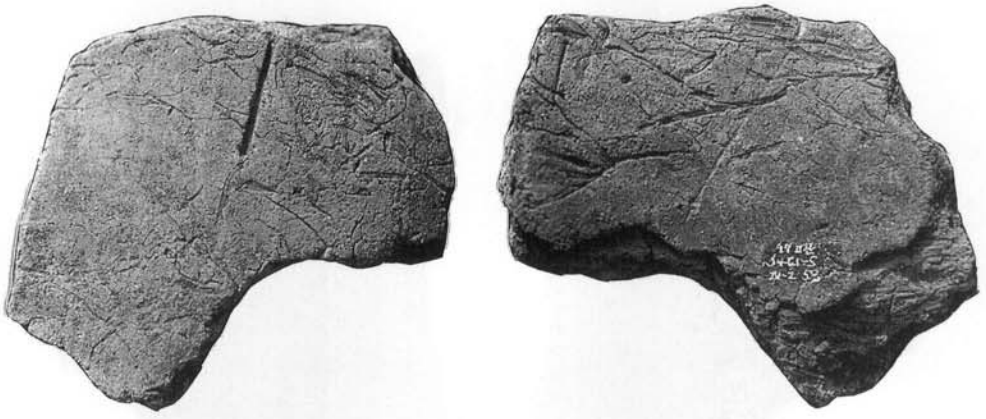


사진 514. 동체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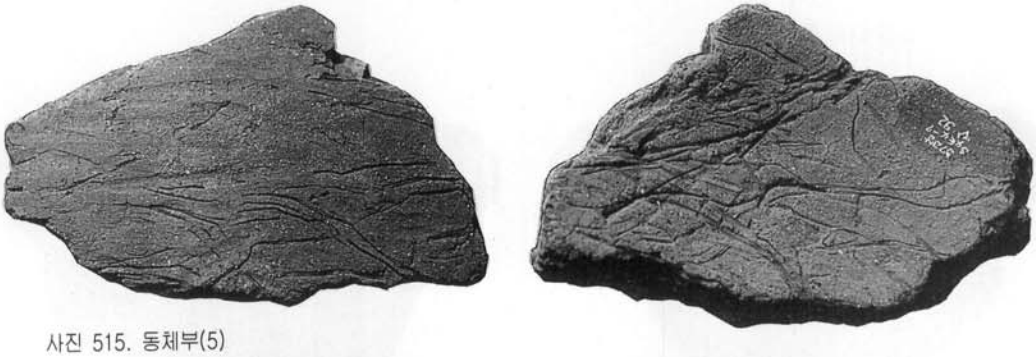


사진 515. 동체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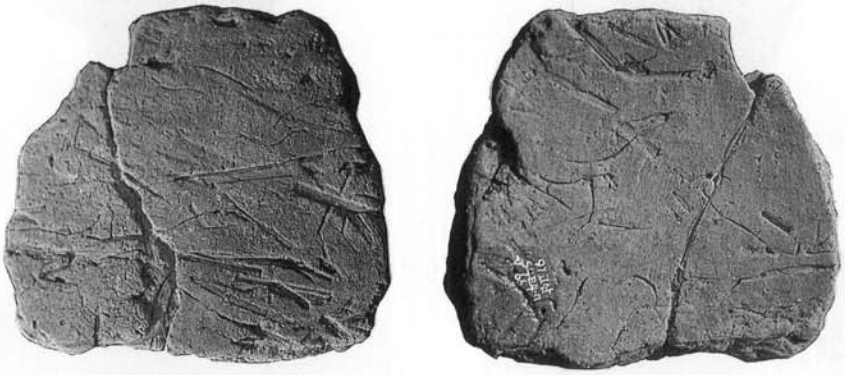


사진 516. 동체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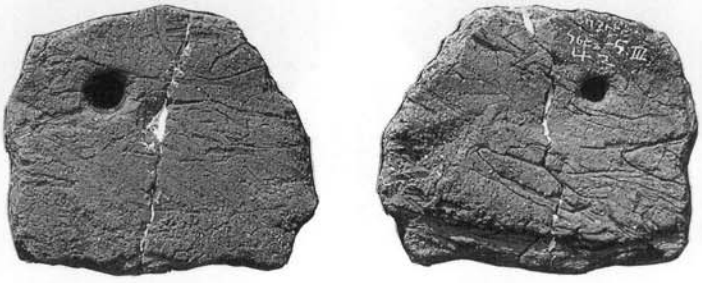


사진 517. 동체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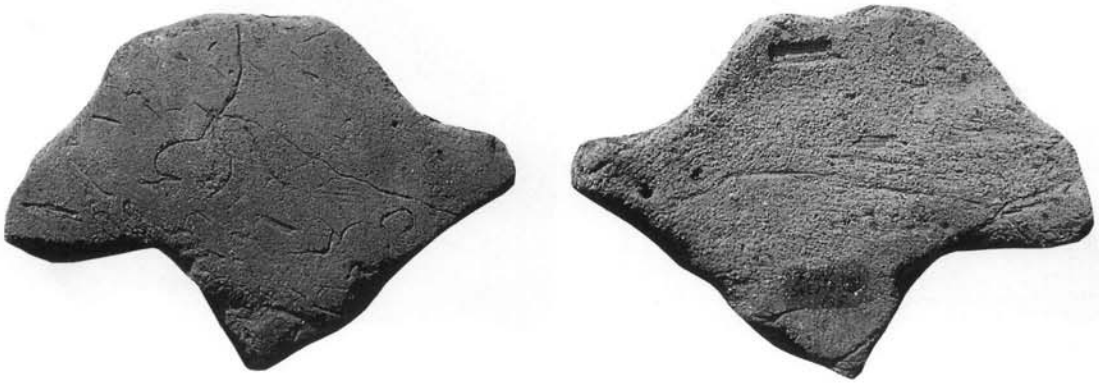


사진 518. 동체부(8)



사진 519. 동체부(9)



사진 520. 동체부(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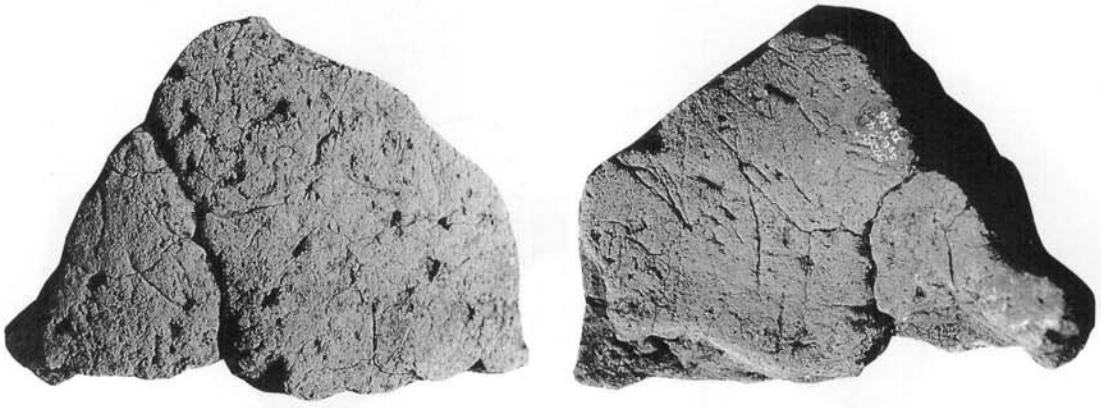


사진 521. 동체부(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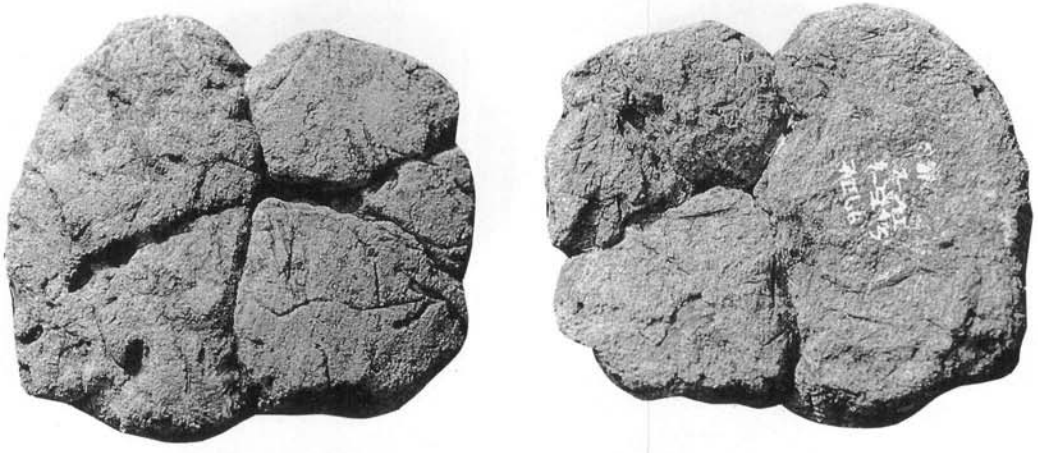


사진 522. 동체부(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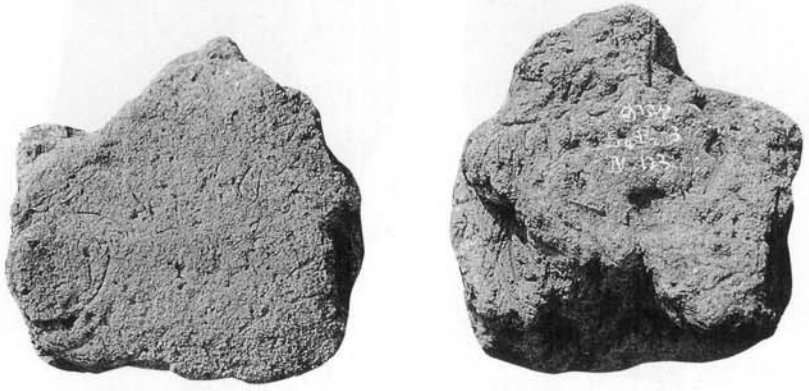


사진 523. 동체부(13)



사진 524. 동체부(14)



사진 525. 동체부(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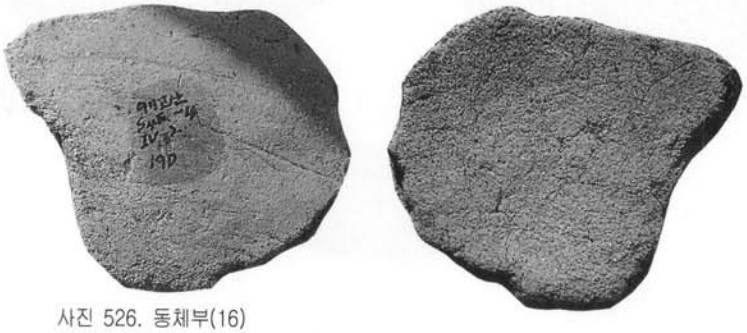


사진 526. 동체부(16)



사진 527. 동체부(17)



사진 528. 저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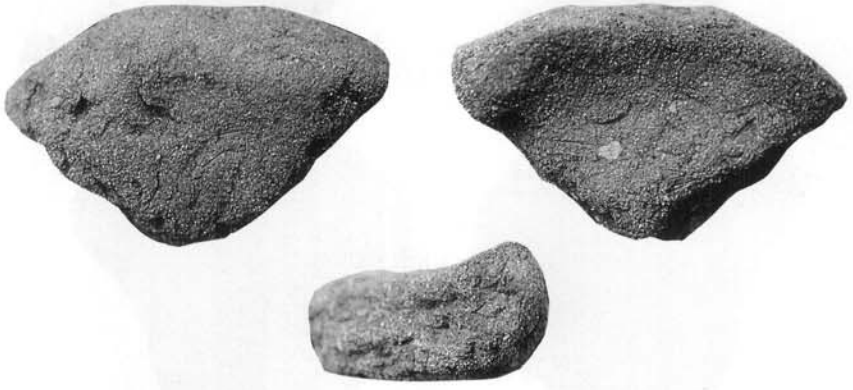


사진 529. 저부(2)



사진 530. 저부(3)



사진 531. 저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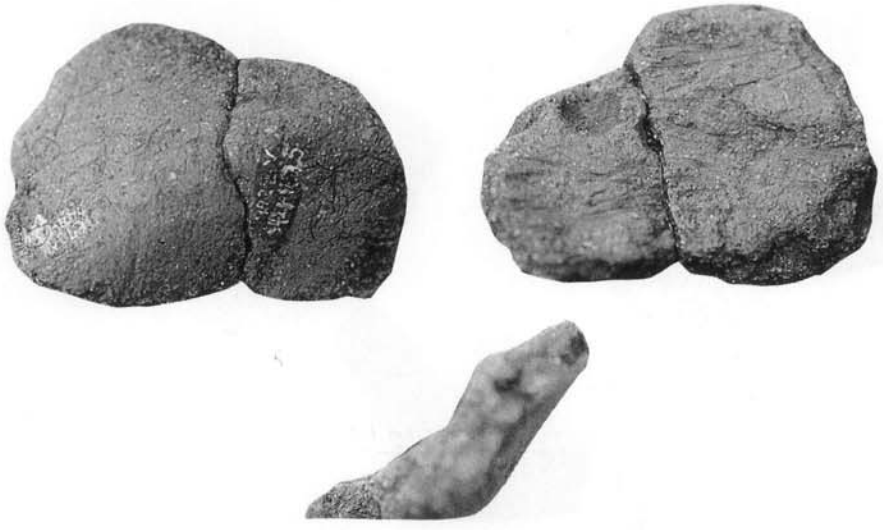


사진 532. 저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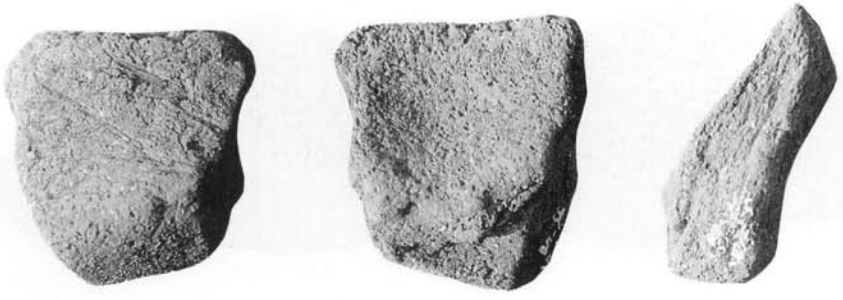


사진 533. 저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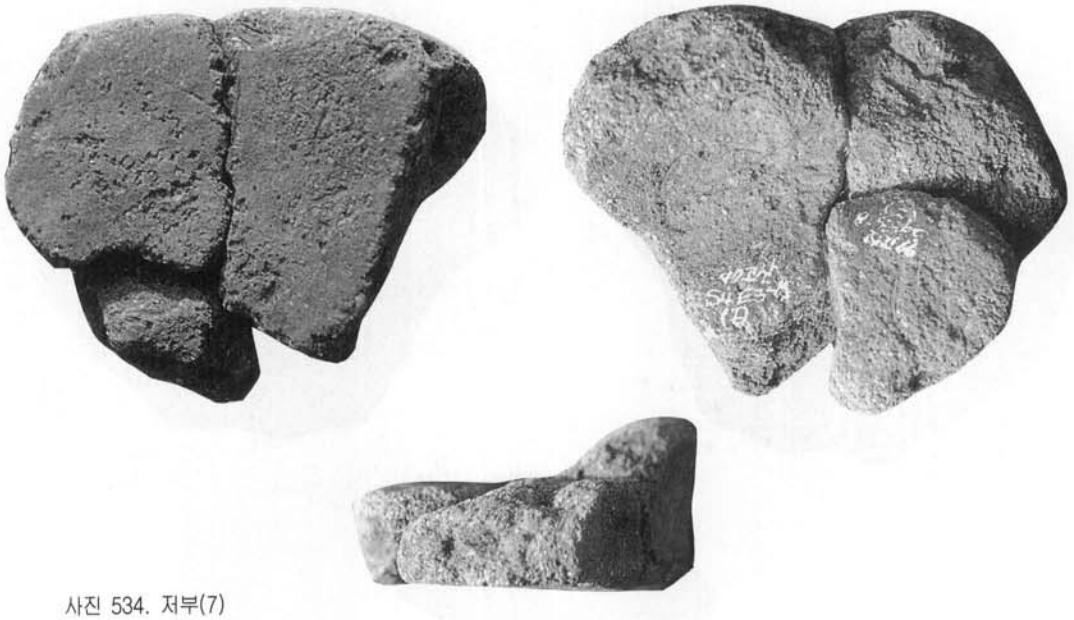


사진 534. 저부(7)



사진 535. 저부(8)



사진 536. 저부(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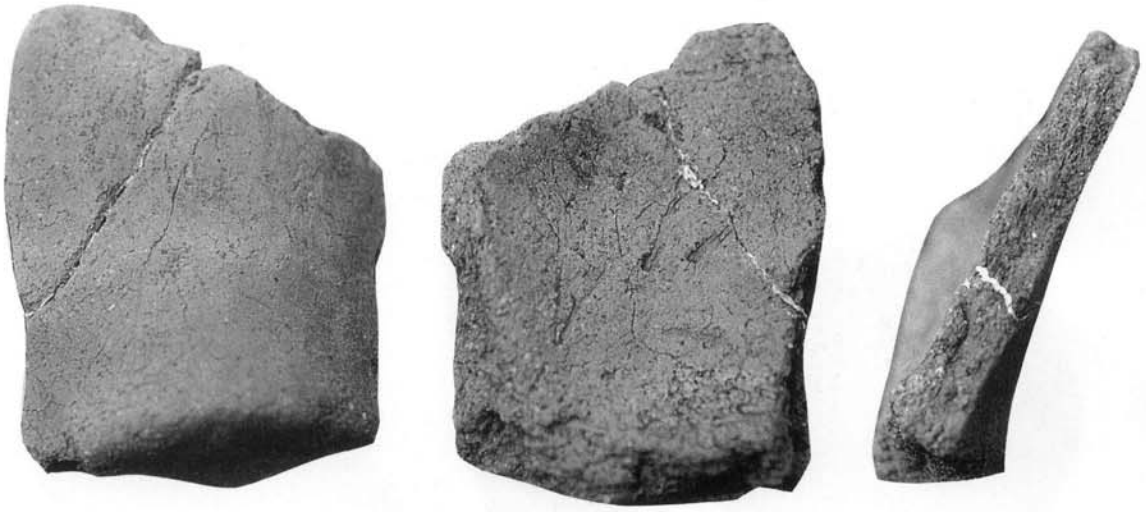


사진 537. 저부(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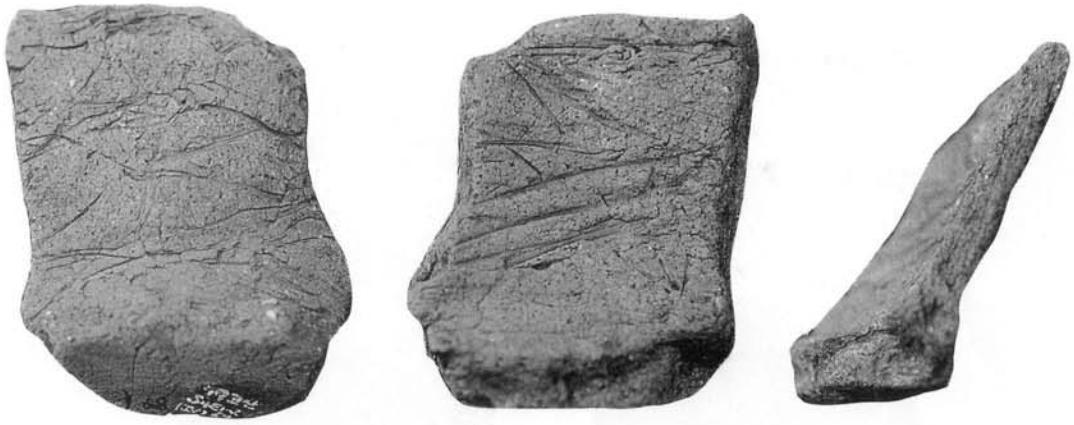


사진 538. 저부(11)



사진·539. 저부(12)



사진 540. 저부(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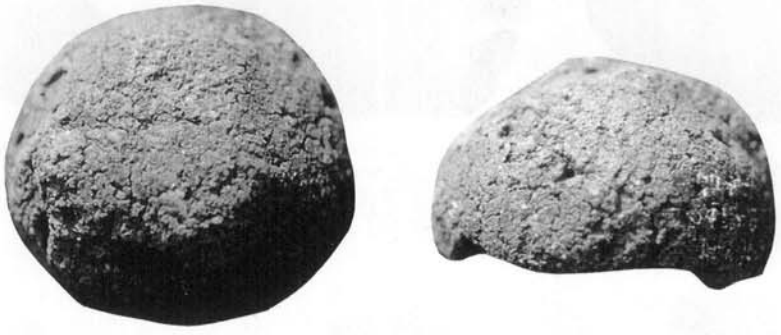


사진 541. 토제품 사진

此後對策과 保存方向

그간 濟州 高山里 先史遺蹟은 발견된 지 10年 동안 유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 無關心으로 일관해 왔다. 그 단적인 例가 사전 협의없이 유적지를 포함하여 1,642,000㎡에 이르는 범위가 濟州道開發特別法에 의해 '濟州島觀光開發地區' 예정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에 北濟州郡이 실시한 高山里遺蹟發掘調査는 순수한 학술적인 관심속에서 郡費로 지원되었고,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좋은 학술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1. 유적의 중요성

그간 발굴 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표조사와 시굴·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은 100,000여 점이며 그 중 성형석기는 5,000여 점, 토기는 모두 파편으로 1,000여 점이다.

2) 유적에서 확인되는 각종 細石器·원시형(섬유질)토기·隆起文土器의 조합상은 시베리아·연해주·만주·일본·한반도일대를 포함하는 동북아 新石器時代初期(古新石器時代) 文化硏究에 중요한 비교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3) 고산리와 같은 석기구성을 보이는 유적은 한반도의 다른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부 유적에서 석촉을 중심으로 소량 출토되고 있다.

4) 석기와 함께 출토되는 고산리 토기의 특징은 모두 비짐상태가 대부분 엉성한 원시형(纖維質)土器이다. 이러한 토기는 아직 한반도에서 확인된 바 없다.

5) 이 유적은 원시형(纖維質)土器와 함께 수천점의 成形石器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토기와 관련된 石器組合相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고산리 유물자료는 토기와 공반하여 후기구석기의 발전된 눌러떼기기법과 세형

돌날(細石刃)석기가 계속 잔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연구에 있어 석기문화에 중점을 두는 연구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6) 고산리석기 제작방식인 눌러떼기수법의 석기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석기들이다. 일본열도는 繩文時代 草創期(B.C.12,000~8,000)에 세석기와 공반하여 토기가 등장하고 있다. 시베리아·연해주 일대에서도 古土器出現時期에 이미 토기와 세석기가 공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절대연대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산리 유물조합은 동북아 전체의 신석기초기의 세석기와 토기공반상을 보이는 동일 시기로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유적에서 마제석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도 연대의 상한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7) 이 유적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석기초기문화의 형성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고산리주민은 유물조합상이 보여주듯, 구석기후기의 말엽에 수렵채집집단의 석기전통을 계승하고 정착의 산물인 초보적인 형태의 토기를 생산했던 주민으로 여겨진다. 아직까지는 후기구석기말기문화에서 신석기초기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국내 유일의 유적인 셈이다(1997년 8월 30일 고산리유적 현장설명회 내용 종합)

2. 유물분포 범위와 분포 지번

1) 고산리대지의 총면적은 5,215,560㎡, 경작지면적은 3,697,207㎡이다. 현재 제주도가 지정한 절대보존구역은 해안 퇴적단구를 포함하는 210,000㎡ 정도이다.

2) 고산리대지에서 유물이 수습되는 유물산포지의 대체적인 범위는 〈도면 2〉를 참조할 수 있다. 유물이 구체적으로 수습되는 지번은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3) 이 지번을 크게 묶어 정리하면, 현재의 '자구내마을' 포구에서 해안단구 상면과 지구내(川)을 따라 수월봉 기슭에 이르는 장타원형의 분포 형태를 그린다. 그 면적은 대략 東-西 700m, 南-北 1,500m로, 325,000㎡(10만여평)에 이른다. 현재 이 범위에는 소나무밭, 경작지, 도로, 수로, 돈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형의 형상변경이 심한 상태이다. 계속되는 수로공사와 경작지 정리작업 등으로 인해 나날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지표조사 내용 종합).

3. 사적지 지정과 차후조사

1) 고산리 유적은 부산 동삼동유적·양양 오산리유적·서울 암사동유적 보다 앞선 시기의 유적으로 판단되며, 이들 유적은 모두 史蹟地로 정해져 있고,

복원단계에 있는 유적도 있다. 이러한 앞의 중요성에 비추어, 고산리유적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지정범위는 앞서 제시한 10만여평의 유물분포범위 보다 좀더 넓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2) 이 유적에 대한 조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학술조사는 종합적이고 연차적이어야 한다. 또한 절대연대 자료의 확보와 古環境·古土壤·古地質·古地形·火山災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와 연합한 '고산리유적학술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다음은 고산리유물전시관에 대한 사항이다. 전시관 건립은 있어야 하나, 유적의 성격이 완전하게 규명된 후 건립되어야 하며, 지금은 소규모 자료관이 더 나을 듯 싶다. 차후 전시관건립사업은 '고산리유물전시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1998년 2월 3일 고산리유적 보호관련 간담회 의견 종합)